2025 역점연구

인구감소시대 도시활력, 생활도시 인천구상

인천연구원

연구총괄

조상운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이종현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기윤환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안내영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서대현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신형준	도시공간연구부 부연구위원
김효정	도시공간연구부 전임연구원
정민선	도시공간연구부 전임연구원
최민아	도시공간연구부 전임연구원
이다빈	도시공간연구부 초빙연구원

차 례

1 인구감소시대 도시활력을 위한 공간정책의 모색 조상운

1. 인구감소시대의 생활인구 기반 정책 전환과 도시활력의 증진 ····· 3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체계 ····· 7
3. 생활인구 개념 및 생활인구 데이터 설명 ····· 10

2 인천 생활인구 특성 및 도시정책에의 활용 진단 안내영

1.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인천 생활인구 분석 ····· 19
2. 인천 생활인구의 현황과 분포 특성 ····· 22
3. 생활인구 유출입을 통한 주요 유입지 분석 ····· 59
4. 생활인구 특성 소결 ····· 68

3 시민의 일상을 담은 생활도시 인천만들기 이종현·신형준

1. 생활권의 의미와 공간 범위 설정 ····· 73
2. 인천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일상생활권 유형화 ····· 77
3. 생활도시 인천 구상을 위한 목표 및 실천전략 ····· 89

4 인천 활력있는 복합거점생활권 육성 및 공간전략 조상운·서대현

1. 인천 복합거점생활권 육성을 위한 공간전략 ····· 105
2. 인천시 유동인구 현황 및 특성 ····· 109
3. 인천시 복합생활거점 설정 및 공간특성 ····· 119
4. 인천 복합거점생활권 활성화 방안 ····· 132

5 인천 지속거주를 위한 매력적인 일상생활권 구축 전략 기윤환

1. 일상생활권 의미와 필요성 ····· 155
2. 인천시 일상생활권 여건 및 진단 ····· 162
3. 일상생활권 목표 및 실천과제 도출 ····· 178
4. 지속거주를 위한 매력적인 일상생활권 구축 방안 ····· 181

6 생활도시 인천만들기의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조상운

1. 생활도시 인천만들기와 실천과제 ····· 209
2. 정책제언 ····· 212

표 차 례

〔표 1-1〕 법정 생활인구와 기지국 기반 서비스 인구 비교 ····· 13
〔표 1-2〕 생활인구 원시자료 데이터 구분 ····· 14
〔표 1-3〕 생활인구 데이터 원시자료 및 가공자료 비교 ····· 15
〔표 1-4〕 생활인구 데이터 구분 및 장별 활용 ····· 16
〔표 2-1〕 생활인구 데이터 활용(2장) ····· 21
〔표 2-2〕 주중 및 주말 생활인구 일간 변화량 ····· 26
〔표 2-3〕 시간대별 생활인구 유형 ····· 36
〔표 2-4〕 주민등록인구 및 생활인구 성·연령별 비율 ····· 47
〔표 2-5〕 성·연령별 이동성 ····· 48
〔표 2-6〕 행정동별 외국인 생활인구 현황 ····· 54
〔표 2-7〕 군구별 생활인구 유출입량 ····· 60
〔표 2-8〕 주중 9시 직장인구 중심 유입지역 ····· 61
〔표 2-9〕 주중 19시 방문인구 중심 유입지역 ····· 62
〔표 2-10〕 주말 14시 방문인구 중심 유입지역 ····· 64
〔표 3-1〕 생활인구 데이터 활용(3장) ····· 77
〔표 3-2〕 일상생활권별 유형 구분 ····· 86
〔표 3-3〕 일상을 담은 생활권계획 전략 ····· 91
〔표 3-4〕 살고 싶은 생활도시 조성 전략 ····· 93
〔표 3-5〕 일하고 싶은 생활도시 조성 전략 ····· 96
〔표 3-6〕 머물고 싶은 생활도시 조성 전략 ····· 99
〔표 4-1〕 선행연구 내 복합거점 요소 정리 ····· 107
〔표 4-2〕 생활인구 데이터 활용(4장) ····· 108
〔표 4-3〕 주민등록인구 및 생활인구 변화 비교(2021년, 2024년) ····· 109
〔표 4-4〕 타 지자체와의 체류인구 대비 주민등록인구 비율 비교(2021년) ····· 110
〔표 4-5〕 주중 및 주말 유동인구 ····· 110
〔표 4-6〕 군구별 유동인구 변화 ····· 112
〔표 4-7〕 수도권 유입인구 상위 3개 시군구 ····· 117
〔표 4-8〕 수도권 유입인구 상위 3개 목적지 ····· 117
〔표 4-9〕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과의 비교 ····· 118

표 차 례

[표 4-10] 인천시 군구별 기초구역 및 집계구 통계 ····· 119
[표 4-11] 기초구역 분석 개요 ····· 121
[표 4-12] 주중 직장인구 핫스팟 및 콜드스팟 행정동 목록 ····· 125
[표 4-13] 주말 방문인구 핫스팟 및 콜드스팟 행정동 목록 ····· 126
[표 4-14] 핫스팟 중첩 기초구역 기초통계량 ····· 127
[표 4-15] 주중 직장인구 및 주말 방문인구 영향요소 ····· 129
[표 4-16] 주중 직장인구 및 주말 방문인구 핫스팟 중첩지역 해당 행정동 ····· 130
[표 4-17] 복합거점생활권 내 유동인구 영향요소 및 인천시와의 비교 ····· 131
[표 4-18] 인천 복합거점생활권 검토대상지 비교 ····· 136
[표 4-19] 실천전략 및 실천방안 종합 ····· 149
[표 5-1] 동네생활권의 일상생활 시설 ····· 156
[표 5-2] 생활인구 데이터 활용(5장) ····· 161
[표 5-3]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인구 비교 방법 ····· 164
[표 5-4] 상주인구 우세형 일상생활권 ····· 164
[표 5-5] 일상생활권 용도지역 면적 비율 ····· 166
[표 5-6] 일상생활권별 주거지역 비율 상하위 지역 ····· 167
[표 5-7] 연령별 생활인구 현황 ····· 169
[표 5-8] 상주·주민등록인구 평균 대비 우위·열위 지역 ····· 169
[표 5-9] 연령별 상주·주민등록인구 평균 대비 우위 지역 ····· 170
[표 5-10] 연령별 상주인구 열위 지역 및 주민등록인구 우위 지역 ····· 171
[표 5-11] 자치구별 전체 생활SOC 현황 ····· 172
[표 5-12] 일상생활권 생활SOC 현황 ····· 172
[표 5-13] 전체 대비 일상생활권 생활SOC 비율 ····· 173
[표 5-14] 자치구별 일상생활권 생활SOC 비율 ····· 173
[표 5-15] 보육·교육시설 이용수준 ····· 173
[표 5-16] 노인문화센터·경로당 이용수준 ····· 174
[표 5-17] 노인대학·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복지관 이용수준 ····· 175
[표 5-18] 일상생활권 실천방안 ····· 180
[표 5-19] 저층주거지 내 동별 인구 우위 특성 ····· 182

표 차 례

〔표 5-20〕 국가 생활SOC 추진 목표 및 기준 ····· 183
〔표 5-21〕 아동, 노인 관련 생활SOC의 재배치 기준 ····· 184
〔표 5-22〕 도서관, 문화시설 등 관련 생활SOC의 재배치 기준 ····· 184
〔표 5-23〕 생활SOC 조정 재배치 기본방향 ····· 185
〔표 5-24〕 뉴:빌리지 사업에서 제시하는 편의복지시설 구성 기능(안) ····· 186
〔표 5-25〕 동암역 일상생활권 용도지역 현황 ····· 187
〔표 5-26〕 동암역 일상생활권 생활SOC 현황 ····· 188
〔표 5-27〕 부평구 일상생활권별 생활SOC 현황 ····· 189
〔표 5-28〕 우리마을 플랫폼 적용 가능 대상지역 ····· 196
〔표 5-29〕 일상생활권 실천전략 및 실천방안 종합 ····· 202
〔표 6-1〕 실천전략 및 실천방안 종합 ····· 211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체계도 ····· 9
〔그림 1-2〕 법정 생활인구의 개념 ····· 10
〔그림 1-3〕 일본 관계인구 도식화 ····· 12
〔그림 1-4〕 본 연구의 생활인구 유형별 개념 ····· 14
〔그림 2-1〕 생활인구 및 주민등록인구 변화량 ····· 22
〔그림 2-2〕 상주인구 변화량(2021~2024) ····· 23
〔그림 2-3〕 직장인구 변화량(2021~2024) ····· 24
〔그림 2-4〕 방문인구 변화량(2021~2024) ····· 24
〔그림 2-5〕 생활인구 최대 시간대 구성비 ····· 27
〔그림 2-6〕 생활인구 일간 변화량 ····· 28
〔그림 2-7〕 송도3동 생활인구 변화 ····· 30
〔그림 2-8〕 개항동 생활인구 변화 ····· 31
〔그림 2-9〕 계산1동 생활인구 변화 ····· 32
〔그림 2-10〕 부평1동 생활인구 변화 ····· 32
〔그림 2-11〕 만수3동 생활인구 변화 ····· 33
〔그림 2-12〕 구월1동 생활인구 변화 ····· 33
〔그림 2-13〕 논현2동 생활인구 변화 ····· 34
〔그림 2-14〕 용현1·4동 생활인구 변화 ····· 34
〔그림 2-15〕 문학동 생활인구 변화 ····· 34
〔그림 2-16〕 특이 첨두 유형 생활인구 변화 ····· 35
〔그림 2-17〕 주중 1시 생활인구 분포 ····· 38
〔그림 2-18〕 주중 14시 생활인구 분포 ····· 39
〔그림 2-19〕 주중 20시 생활인구 분포 ····· 40
〔그림 2-20〕 인천시 주중 및 주말 14시 생활인구 분포 ····· 41
〔그림 2-21〕 주중 생활인구 구성비 ····· 42
〔그림 2-22〕 주말 생활인구 구성비 ····· 43
〔그림 2-23〕 생활인구 시간대별 특징 ····· 44
〔그림 2-24〕 상주인구 70대 남녀 분포 ····· 49
〔그림 2-25〕 상주인구 20대 남녀 분포 ····· 49

그림차례

〔그림 2-26〕 남성 노인인구(65~74세) 분포 ····· 51
〔그림 2-27〕 여성 노인인구(65~74세) 분포 ····· 51
〔그림 2-28〕 외국인 생활인구 변화량(2021~2024) ····· 53
〔그림 2-29〕 외국인 생활인구 분포 ····· 54
〔그림 2-30〕 북미 출신 생활인구 분포 ····· 55
〔그림 2-31〕 러시아 출신 생활인구 분포 ····· 56
〔그림 2-32〕 중국 출신 생활인구 분포 ····· 57
〔그림 2-33〕 동남아 출신 생활인구 분포 ····· 57
〔그림 2-34〕 주중 19시 방문인구 중심 유입지역 위치 ····· 63
〔그림 2-35〕 주말 14시 방문인구 중심 유입지역 위치 ····· 65
〔그림 3-1〕 철도역 기준 15분 보행 가능구역 ····· 75
〔그림 3-2〕 일상생활권 범위 설정 ····· 76
〔그림 3-3〕 상주인구 비율 분포 ····· 78
〔그림 3-4〕 직장인구 비율 분포 ····· 79
〔그림 3-5〕 방문인구 비율 분포 ····· 80
〔그림 3-6〕 상주인구 우세형 일상생활권 ····· 81
〔그림 3-7〕 직장인구 우세형 일상생활권 ····· 82
〔그림 3-8〕 직주균형 A형 일상생활권 ····· 83
〔그림 3-9〕 직주균형 B형 일상생활권 ····· 84
〔그림 3-10〕 방문인구 우세형 일상생활권 ····· 85
〔그림 3-11〕 기본방향 및 전략별 생활권유형 ····· 89
〔그림 3-12〕 서울 양천구 오솔길 실버공원 ····· 94
〔그림 3-13〕 경북 포항시 생활밀착형 공원 ····· 94
〔그림 3-14〕 인천 송도 스타트업파크 ····· 97
〔그림 3-15〕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 97
〔그림 3-16〕 2025 인천관광 협업 및 디딤돌 프로젝트 ····· 100
〔그림 4-1〕 주중 및 주말 시간대별 유동인구 그래프 ····· 111
〔그림 4-2〕 인천시 연령대별 유동인구 구성비 ····· 111
〔그림 4-3〕 군구별 주간 및 새벽·야간 시간대 유동인구 차이 ····· 112

그림차례

〔그림 4-4〕 군구별 직장인구 및 방문인구 청년층-중년층 구성비 차이 ····· 113
〔그림 4-5〕 행정동별 직장·방문인구 유형 분포 ····· 114
〔그림 4-6〕 유동인구 규모별 상·하위 행정동 분포 ····· 115
〔그림 4-7〕 유동인구 연령대별 상·하위 행정동 분포 ····· 116
〔그림 4-8〕 기초구역 및 집계구 면적 비교 ····· 120
〔그림 4-9〕 규모별 주중 직장인구 및 주말 방문인구 밀집지역 ····· 123
〔그림 4-10〕 주중 직장인구 및 주말 방문인구 밀집지역 ····· 124
〔그림 4-11〕 주중 직장인구(좌) 및 주말 방문인구(우) 핫스팟 및 콜드스팟 ····· 126
〔그림 4-12〕 주중 직장인구, 주말 방문인구 핫스팟 분석 ····· 127
〔그림 4-13〕 인천시 대비 복합거점생활권 유동인구 영향요소 비중 ····· 131
〔그림 4-14〕 기본방향 및 복합거점생활권 ····· 132
〔그림 4-15〕 인천시 복합거점생활권 검토대상지(안) ····· 135
〔그림 4-16〕 부평 복합거점생활권 공간적 범위 ····· 137
〔그림 4-17〕 부평 복합환승거점 조감도 및 계획 ····· 138
〔그림 4-18〕 부평 복합거점 공간구상 ····· 139
〔그림 4-19〕 부평~구월 복합거점생활권 공간적 범위 ····· 140
〔그림 4-20〕 부평~구월 광역형 도심 생태·녹지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 141
〔그림 4-21〕 부평~구월 복합거점 공간구상 ····· 142
〔그림 4-22〕 인천내항 복합거점생활권 공간적 범위 ····· 143
〔그림 4-23〕 인천내항 르네상스 RING형 공간개념도 ····· 144
〔그림 4-24〕 인천내항 르네상스 3+3 네트워크 구상(안) ····· 145
〔그림 4-25〕 인천내항 르네상스 특화지구 및 연계축 구상도 ····· 146
〔그림 4-26〕 걷고 싶은 가로공간 만들기를 위한 민간의 공공공간화 프로젝트(예시) ····· 146
〔그림 4-27〕 검단구 복합거점생활권 공간적 범위 ····· 147
〔그림 4-28〕 검단호수공원역세권 복합거점생활권 육성 ····· 148
〔그림 4-29〕 전면공지를 활용한 테라스형 상업거리 활성화 ····· 148
〔그림 5-1〕 일상생활권 유형 구분 ····· 165
〔그림 5-2〕 일상생활권 주거지역 면적 비율 ····· 166
〔그림 5-3〕 시간대별 상주인구 특성 ····· 168

그림차례

〔그림 5-4〕 일상생활권 목표 및 실천전략 ····· 180
〔그림 5-5〕 동암역 일상생활권 용도지역 현황 ····· 187
〔그림 5-6〕 동암역 일상생활권 생활SOC 현황 ····· 188
〔그림 5-7〕 부평구 생활SOC 현황 ····· 189
〔그림 5-8〕 동암역 일상생활권계획(안) ····· 192
〔그림 5-9〕 우리마을 플랫폼 개념도 ····· 193
〔그림 6-1〕 생활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차이(생활인구 수-주민등록인구 수) ····· 213
〔그림 6-2〕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의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 서비스 ····· 215
〔그림 6-3〕 행사 개최 시 인구 밀집 현상 ····· 216

01

인구감소시대 도시활력을 위한 공간정책의 모색

01

인구감소시대 도시활력을 위한 공간정책의 모색

조상운(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인구감소시대의 생활인구 기반 정책 전환과 도시활력의 증진

1) 대도시 인구소멸의 위험과 지역 쇠퇴

- 통계청 인구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적 감소에 큰 영향을 받아 유소년이나 청년층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임
  - 인천시 또한 2035년 305만을 정점으로 인구감소가 예상되면서 저출산·고령화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라는 인구구조적 변화로 인해 도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사회 전반의 규모가 축소되는 저성장사회 또는 축소사회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2020년 정부발표에 따르면, 인천시 동구(0.465)는 강화(0.218), 옹진(0.276)에 뒤이어 인구소멸 위험지역[1]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원도심에서 인구소멸이라는 충격이 확산,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1)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값이 0.5미만이면 소멸위험진입단계, 0.2미만이면 소멸고위험단계로 구분함

- 한국고용정보원(2024)에서는 2016년 소멸위험지역을 측정한 이래 2002년 4곳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17개 광역시도 중 소멸위험지역은 8개로 부산시가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는 등 광역대도시에서도 인구소멸이라는 충격이 확산,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함[2)]

■ 인천시는 원도심 활성화 및 정주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출산율 회복 등 인구정책에 기대하고 있지만, 그 성과를 빠른 시일안에 기대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이며,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지원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지역 쇠퇴를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차원의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2)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도시활력의 증진 모색

■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정주인구 감소로 도시 내 원도심 지역쇠퇴가 예상됨에 따라 인구 이동성을 고려한 '생활인구[3)]' 개념을 적용하여 도시활력을 도모하는 새로운 차원의 정책이 시도되고 있음

■ 2022년부터 정부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농어촌지역 또는 소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방소멸'이라는 충격에 대하여 새로운 인구관리 및 활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이는 특정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하는 생활인구의 증대를 지역활력의 주요한 열쇠로 관심을 두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이 진행 중임

■ 특히, 대도시 내 원도심에서도 발생하는 인구감소 및 지역침체라는 문제 또한 단순히 저출산 등에 따른 정주인구의 감소보다 지역의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쇠퇴에 따른 사회적 인구 유출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임[4)]

- 농어촌 뿐만 아니라 도시차원에서 지역의 활동인구 및 체류인구에 초점을 둔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정책 도입은 기존 정주인구 기반 증대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증대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임

---

2) 이상호. (2025). 지방소멸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지역산업과 고용. 한국고용정보원. vol12
3)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상 주민 외에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주민등록인구외에 외지인 체류인구, 등록외국인 등 월 1회이상,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인구집단으로 정의함
4) 박경진·김상민. (2017).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법정계획인 생활권계획에서의 생활인구 기반 정책 실행

- 생활권계획은 2021년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생활권 단위로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공간을 생활 단위에서 관리하고 주민의 일상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인 점에서 여러 지자체에서 공간관리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
-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을 5개 권역,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보행일상권, 생활SOC 확충, 생활거점 조성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부산시 또한 '15분 도시 부산' 전략과 연계하여 주거·일·복지 등 주요 기능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발전과 공간복합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을 설정함
  - 이러한 사례는 생활권계획이 단순한 공간구상 차원을 넘어,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도시정책의 실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와 같이 인천시도 생활권계획을 단순한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벗어나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실행가능한 프레임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생활인구 관점을 생활권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공간관리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됨

4) N분 도시 개념 등장과 일상생활권 활성화

- 최근 국내·외에서는 파리의 '15분 도시', 멜버른의 '20분 동네', 서울의 '10분 동네'와 같이 일정 시간 내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는 'N분 도시' 개념이 도시계획 정책으로 확산되고 있음
  - 이러한 개념은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을 기반으로 한 인접 생활권을 지향하며, 밀도·근접성·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안전, 삶의 질,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시간도시주의 개념을 도시계획에 접목할 경우, 지역 주민의 생활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하이퍼로컬 계획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며, 이는 동네 단위에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하이퍼로컬 계획은 '아주 좁은 범위의 특정 지역에 맞춘'이라는 의미로 편한 복장으로 여가·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중심 생활권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생활편의시설 재배치,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등 미시적인 지역활성화 전략이 강조되며, 이러한 전략은 일상생활권 단위로 구현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5) 인천시 최초 생활인구 기반 공간분석의 활용성

- 서울, 부산, 제주 등 주요 지자체들은 생활인구 데이터를 구축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주인구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음. 반면 인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인구감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시 차원의 생활인구 개념 정립과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생활인구 기반 공간분석을 수행하여 생활인구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도시관리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과 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분석은 동태적 생활인구 관점에서 도시계획 및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데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체계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인구감소시대의 도래로 인해 인천 원도심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활력 저하나 도시경쟁력이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정주인구 확대 중심의 공간정책을 넘어 인구 이동과 생활권을 고려한 공간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생활인구의 증대와 도시활력을 위한 공간전략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세부적으로는 통신데이터 기반 생활인구의 연령·시간대·행정동 등 속성별 현황 및 특성을 상세히 살펴보고, 생활인구 기반의 공간 분석을 수행하여 생활인구 중심의 도시계획으로의 전환 가능성 및 방향성을 검증함
- 인천시 차원의 생활권계획 수립 등 생활인구 기반의 공간 마련에 필요한 15분 생활권을 기초 단위로 한 생활권을 설정한 후, 생활권의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생활도시 인천 구상의 목표 및 전략, 실천적 프로젝트를 제안함
- 인천 생활인구 공간 특성을 반영하여 생활도시 인천구상의 공간전략 및 실천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시민의 일상적 삶의 지지하는 일상생활권과 도심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생활인구 증대를 도모하는 복합거점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정책방안을 제안함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 본 연구는 인구감소시대의 도시활력, 생활도시 인천구상을 위해 ①진단, ②계획 및 정책, ③실천과제라는 체계를 구성하여 수행함
- 먼저, 진단 분야는 “인천 생활인구 특성 분석”의 일환으로 인천의 생활인구를 상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로 나누어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여 생활인구 기반 공간정책에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봄
  - 생활인구 데이터는 주민등록인구 등 통계 데이터와는 달리 시간별·공간별, 성별·연령별 등 다양한 공간특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이에 종전에는 파악하기 곤란했던 생활인구의 시간대별 변화, 주중/주말, 주간/야간. 행정동 및 기초단위구, 성별/연령별/외국인인구 등 다양한 측면의 공간분석을 수행하여 생활도시 인천만들기의 목표 및 정책 수립, 일상생활권과 복합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계획 및 정책 분야에서는 “시민의 일상을 담은 생활도시 인천만들기”를 연구주제로 하여 일상생활권의 공간 단위를 설정하고, 생활권계획 등 생활도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한 목표 및 특화전략을 생활인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살펴봄

- 이를 위해 지역 내 주요 생활거점인 철도역을 중심으로 보행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행정구역 중심이 아닌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생활권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생활권 유형을 구분함
- 이를 토대로 생활도시 인천구상의 방향 및 공간구상 전략을 제시하고, 생활권 유형별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예시적 차원의 실천적 프로젝트를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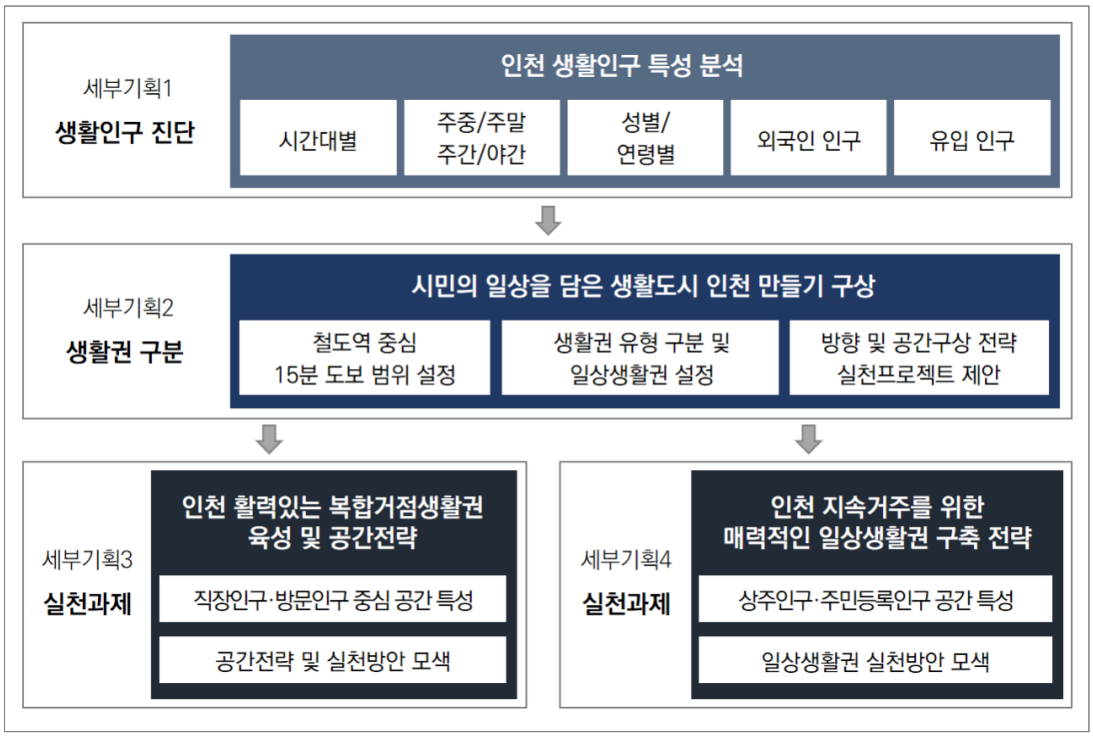
■ 실천과제 분야에서는 앞서 살펴 본 생활인구의 공간적 진단 및 생활도시 인천만들기 구상과 연계하여 복합거점생활권과 일상생활권으로 나누어 생활인구를 증대하는 공간전략 및 실천과제를 모색함

- 복합거점생활권에서는 “인천 활력있는 복합거점생활권 육성 및 공간전략”을 연구주제로 하여 인천시 직장인구 및 방문인구를 중심으로 유동인구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기능의 집적성 등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여 복합거점생활권의 공간전략 및 실천방안을 모색함
  - 유동인구의 시간대 및 연령대 등 공간 특성 분석과 함께 유동인구와 도시특성 요인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유동인구 증대와 관련 있는 요인을 도출함
  - 복합거점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검토대상지로 부평, 내항, 검단지역을 선정하고, 생활인구 증대 및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거점별 공간전략 및 실천방안을 제안함
- 일상생활권에서는 “인천 지속거주를 위한 매력적인 일상생활권 구축 전략”을 연구주제로 하여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인구 등 연령별·지역별 거주 특성과 생활SOC와 같은 일상시설 이용 수준 및 적정성 진단을 통한 과제 도출 및 실천방안을 모색함
  - 주거중심 일상생활권 구축을 위한 내 집 중심 10분 주거생활권 구축의 일상시설 재배치 방향, 주거일상생활권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역거점 조성, 지속적·안정적 거주를 위한 시설복합화 방안 등을 제안함

■ 단계적 수행체계와 협업적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①생활인구를 중심으로 공간계획 및 정책 도출을 위한 진단 → ②생활권 설정 및 정책 방향 → ③복합거점 및 일상생활권별 실천과제 순으로 수행함

- 세부기획3과 4에서는 세부기획2에서 제안된 생활권 유형 및 및 방향을 토대로 하여, 특정 생활권을 대상으로 실천방안 및 과제제안에 초점을 두었음

〔그림 1-1〕 연구체계도


세부기획1
생활인구 진단
인천 생활인구 특성 분석
시간대별
주중/주말
주간/야간
성별/
연령별
외국인 인구
유입 인구
세부기획2
생활권 구분
시민의 일상을 담은 생활도시 인천 만들기 구상
철도역 중심
15분 도보 범위 설정
생활권 유형 구분 및
일상생활권 설정
방향 및 공간구상 전략
실천프로젝트 제안
세부기획3
실천과제
인천 활력있는 복합거점생활권
육성 및 공간전략
직장인구·방문인구 중심 공간 특성
공간전략 및 실천방안 모색
세부기획4
실천과제
인천 지속거주를 위한
매력적인 일상생활권 구축 전략
상주인구·주민등록인구 공간 특성
일상생활권 실천방안 모색

3. 생활인구 개념 및 생활인구 데이터 설명

1) 생활인구의 개념 검토

(1) 법적 생활인구의 정의

■ 기존 선행연구에서 생활인구의 개념은 사용되었으나, 2022년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하면서 생활인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생활'이란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면 살아가는 것"이므로 거주자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도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요건에 해당됨[5)]

-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활인구란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인구+체류인구+외국인등록인구의 합임

  •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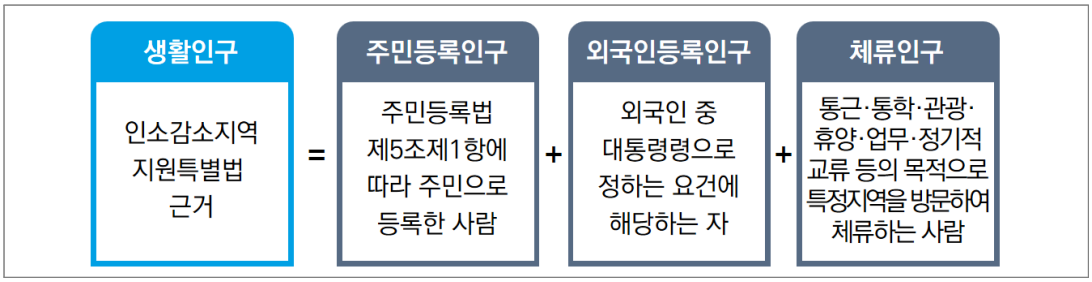
  • 체류인구: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등록된 시·군·구 외 시·군·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사람

  • 외국인등록인구: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

■ 기존 인구가 어떤 지역이 '거주'하는 사람을 지칭하였다면 생활인구는 '체류'까지 포함하여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음

- 주민등록인구는 주민등록이 있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인구주택총조사 역시 특정한 시점에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그림 1-2〕 법정 생활인구의 개념



5) 안소현·차미숙·유희연·강민석, (2023).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 생활인구의 유사 개념

❖ 주간인구

- 지역별 거주인구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통근·통학인구를 더하고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 통근·통학인구를 뺀 값으로 산정
  - 정주인구에 대한 주간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주간인구 지수는 100 이하인 곳은 주로 주거지역이며, 100 이상인 곳은 직장, 학교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의 주간인구는 고령층의 비율이 높고,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낮음에 따라 주간인구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남

❖ 직장인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등 상시근로자의 근무지를 기반으로 집계된 지역별 주간 체류 생산가능인구로 정의함

❖ 유동인구

- 해당지역을 이동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인구로 특정 시공간적 범위 내에서 오가는 사람의 수, 즉 통행량(volume counts)을 뜻함
  - 유동인구는 조사 시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고 조사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보행자에 관한 조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시교통 연구분야의 도시교통량조사의 기준을 적용함
- 이에 교통량 조사의 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LOS) 개념을 보행량 조사에 적용하는 것이 보행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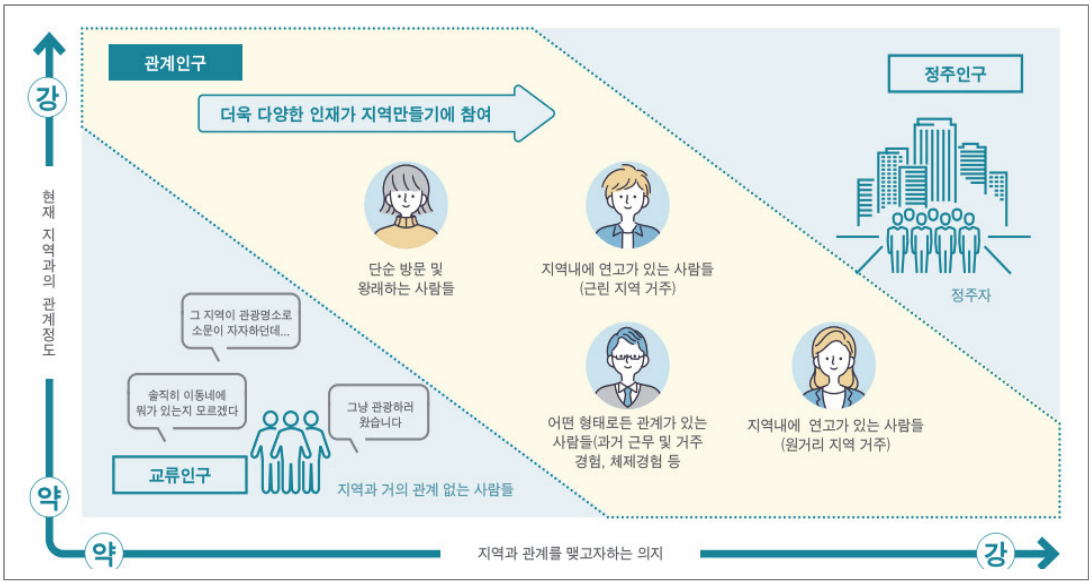
❖ 관계인구

- 관계인구는 정주인구와 방문인구의 중간적 개념으로, 지역사회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집단을 의미함
  - 일본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재생 정책 방안에서 제안된 인구개념으로 지역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개념을 '관계인구'로 명명하여, 상주인구를 제1의 인구, 관광인구(체류인구)를 제2의 인구, 관계인구를 제3의 인구개념으로 제안함

---

6) 변미리·서우석. (2011). 도시 거리의 주간활동인구 측정과 해석: 서울시 유동인구 조사 사례. 조사연구, 12(2), 27-50

〔그림 1-3〕 일본 관계인구 도식화



출처: 이원도·이소영·홍근석. (2023).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그러나 이는 '소비와 납세'라는 인구형성을 위한 기본 역할이 고려되지 못하는 점과 어떤 형태로든 그 지역과 관계를 맺는 인구를 관계인구라고 일컬을 때 일시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한계를 가짐

  - 또한 관계인구 개념은 지역과 관계를 맺는 인구인데, 지역에 주말마다 방문하거나 지역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지역을 응원하는 사람들이라는 다소 모호한 정의를 사용함과 동시에 '지역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주관적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는 개념을 동원하여 관계인구를 정의함[7)]

2) 본 연구의 생활인구 정의와 생활인구 데이터

(1) 생활인구 = 상주인구 + 직장인구 + 방문인구의 합

- 본 연구에서는 SKT 기지국 및 중계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어떤 시점에 인천시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구를 산정한 것으로, 특정 시점의 인천시 내 생활하고 있는 사람 수로 저량(貯量)의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법적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에 체류인구를 더하는 방식으로 생활인구를 확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측정 당시의 인천시 내에서 활동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SKT 기지국 기반 서비스인구에서 제공하는 상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의 합을 생활인구로 정의함

7) 이소영·김도형. (2021). -작지만 강한 연결-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는 법적 생활인구보다는 과소 추정될 수 있는 등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는 판단하에 분석에 활용함

  • 첫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나 외국인등록인구에서는 파악이 어려운 시간대별, 요일별, 공간별(50m×50m) 인구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함

  • 둘째, 법정 생활인구는 1개월 단위로 산정되지만, 본 연구에서의 생활인구는 특정 시점(날짜, 요일)에 대한 인구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

〔표 1-1〕 법정 생활인구와 기지국 기반 서비스 인구 비교

구분	법정 생활인구	기지국 기반 서비스 인구
정의	거주하거나,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	특정 시간대에 기지국 수신 위치를 기준으로 실거주지·근무지·방문지를 추정한 인구
산정 방식	주민등록인구+외국인인구+체류인구	50m 격자 내 통신기기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치 추정
데이터 특징	주민등록인구보다 항상 큼 (정주+체류+외국인 포함)	주민등록인구보다 작음 (0~9세, 미보유자 제외)
인구 유형 분류	-	상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
활용 목적	인구감소지역 지정, 국고보조금 등 행정정책 지원	도시활력 분석, 유동인구 기반 상권·교통·시설 계획 수립

(2) 생활인구 데이터의 취득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활인구 데이터는 2025년 정책과제 「인천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를 위해 인천시 도시계획과 및 데이터산업과에서 취득한 원시자료를 통해 구축된 가공 데이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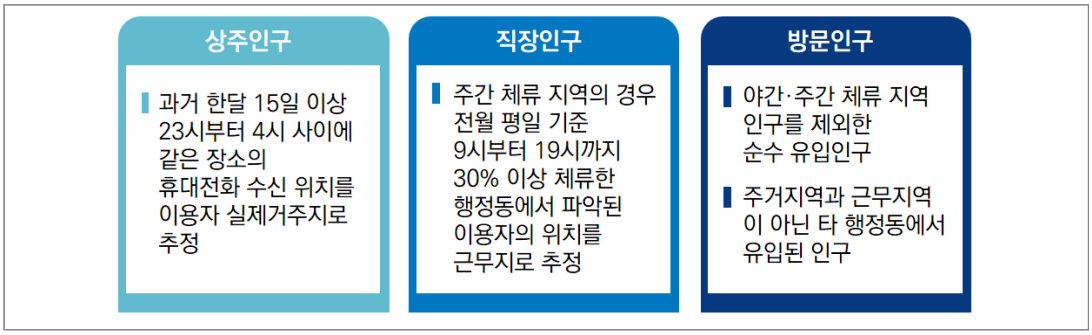
- 원시자료는 2021~2024년 인천을 대상으로 한 SKT 기지국 중계 기반한 서비스 인구로, 50m×50m 가상 격자 내에 존재하는 인구수를 전체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된 것임
- 이는 통신이용자의 실거주지와 근무지를 추정한 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집계구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상주인구(야간 체류), 직장인구(주간 체류), 방문인구(외부 유입)로 구분하여 데이터가 구성됨

■ 데이터는 상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의 3가지로 구분됨

- 상주인구는 야간시간에 파악된 이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거주지를 추정하여 산정함. 과거 1개월 동안 15일 이상 23~4시 사이에 동일 위치에서 휴대전화 수신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위치를 실제 거주지로 추정하여 산정

- 직장인구는 정기적인 주간 체류인구로 직장이나 학교로 통근·통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됨. 전월 기준 평일 기준 9시부터 19시까지 30% 이상 체류한 행정동을 이용자의 근무지로 추정하여 산정
- 방문인구는 상주인구 및 직장인구로 분류되지 않은 인구로, 주거지나 근무지가 아닌 타 행정동에 일정 시간 체류한 순수 유입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

〔그림 1-4〕 본 연구의 생활인구 유형별 개념



■ 데이터는 크게 내국인 생활인구, 유입인구, 외국인 생활인구로 구성되며, 공간 범위는 크게 행정동과 50m×50m 단위로 구분하고 있음

- 내국인 생활인구의 경우, 행정동 단위에서는 일별 1시간 단위, 남녀, 5세 간격으로 세부 구분이 가능함. 반면, 50m×50m 단위에서는 연령 10세 단위가 있는 경우 시간 구분은 없으며, 1시간 단위가 있는 경우 연령이 제공되지 않아, 연령과 시간을 교차하여 분석할 수 없음
- 유입 생활인구의 경우, 출발지는 시·군 단위, 도착지는 인천시 행정동 단위로 구성되며, 인천시에 도착한 인구만 알 수 있어 인천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 인구는 파악할 수 없음
- 외국인 생활인구는 50m×50m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별 단위가 아닌 월별 집계로 제공되어 한 달치 인구 합계를 확인할 수 있음. 외국인은 출신 국가별로 구분됨

〔표 1-2〕 생활인구 원시자료 데이터 구분

데이터	공간	기간	시간	성	연령 단위	비고
내국인 생활인구	행정동	일별	1시간	남녀	5세	-
	50m×50m	일별	-	남녀	10세	-
		일별	1시간	-	-	일별 평균
유입 생활인구	행정동	일별	1시간	-	-	유입지역 (시군)
외국인 생활인구	50m×50m	월별	-	-	-	출신국가

(3) 데이터의 가공 활용

- 정책과제에서 제공받은 가공 데이터는 인천시 군구, 행정동, 기초단위구, 250m×250m 단위의 성별·연령별·시간대별 생활인구 자료임
- 대푯값의 선정
  - 대푯값은 9~10월 평균값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는 인천시 평균값과 가장 근접한 수치를 보이기 때문임. 다만, 9월과 10월은 추석 포함 여부에 따라 월별 편차가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두 달의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활용함
    - 1~2월 설 연휴, 3~6월 연도별 불규칙한 변동, 7~8월 여름휴가, 11월 인천시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 12월 크리스마스 연휴로 인한 변동
  - 또한, 데이터를 주중(월~금요일), 주말(토~일요일)로 구분하여, 명절이나 장기 연휴, 공휴일의 영향을 배제하고 일상적인 생활형태를 반영함
- 공간 분석단위 설정
  - 인천시 전체 및 행정동 단위 외에도 한 차원 더 세부화된 분석을 위해 원시자료 50m×50m 단위 데이터를 기초단위구와 250m×250m 위치에 매칭하여 가공함
    - 기초단위구는 면적이 비교적 균일하게 나누어져 있어 생활인구 분석 시 과대·과소 평가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음
    - 기초단위구 외부에 위치한 지점(13,150건, 약 3.7%)의 경우, 가장 가까운 기초단위구 객체와 매칭하여 속성 결합함. 외부 지점의 이격 범위는 0.01~2.03m로 이격 거리가 짧아 공간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오류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표 1-3] 생활인구 데이터 원시자료 및 가공자료 비교

인천시(원시자료)			인천연구원 가공자료(이종현, 2025)					
구분	**공간**		**공간 단위**	**기간 구분**	**시간**	**성**	**연령**	**특징**
내국인 생활인구	행정동	▶	행정동	주중, 주말	1시간	남녀	5세	• 공휴일 제외 • 9~10월 평균
	50m×50m	▶	기초단위구 250m×250m	주중, 주말	-	남녀	10세	• 공휴일 제외 • 9~10월 평균 • 50m×50m 위치 매칭
				주중, 주말	1시간	-	-	
유입 인구	행정동	▶	행정동	주중, 주말	1시간	-	-	• 공휴일 제외 • 9~10월 평균
외국인 생활인구	50m×50m	▶	기초단위구	월별	-	-	-	• 9~10월 평균 • **북미, 러시아, 중국, 동남아**

(4) 생활인구 데이터 구분 및 장별 활용

■ 본 연구에서는 각 장마다 이종현(2025) 연구에서 가공된 데이터를 활용함. 기존의 내국인 생활인구를 중심으로 하여 생활인구 특성 및 생활권 구분, 복합거점생활권, 일상생활권 분석을 수행함. 개별 연구단위에서 활용한 생활인구 데이터는 다음과 같음

- 2장 생활인구 특성에서는 유입 인구와 외국인 인구를 추가로 분석하여, 인천시의 종합적인 생활인구 특성을 도출함
- 3장 생활권 구분에서는 내국인 생활인구를 중심으로 생활권을 분류함
- 4장의 복합거점생활권에서는 생활인구 중 직장인구와 방문인구, 관내·외 유입인구를, 5장의 일상생활권에서는 생활인구 중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살펴봄

〔표 1-4〕 생활인구 데이터 구분 및 장별 활용

이종현, 2025		본 연구				
구분		인구 구분	생활인구 특성 (2장)	생활권 구분 (3장)	복합거점생활권 (4장)	일상생활권 (5장)
내국인 생활인구	▶	생활인구	○	○	○	○
유입 인구	▶	유입 인구	○	-	○	-
외국인 생활인구	▶	외국인 생활인구	○	-	-	-

02

인천 생활인구 특성 및 도시정책에의 활용 진단

02

인천 생활인구 특성 및 도시정책에의 활용 진단

안내영(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1.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인천 생활인구 분석

1) 인천시 차원의 생활인구 기반 공간 분석과 도시관리에의 활용 모색

(1) 국가 차원의 생활인구 제도화와 정책적 확산

- 전 세계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인구, 서비스인구, 비등록인구 등 다양한 생활인구 관련 개념이 대안적 인구지표로 도입되어 왔음
- 대표적으로 일본은 2014년 지역소멸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살고 있는 사람(정주인구)이나 잠깐 들르는 사람(관광인구) 사이의 모든 인구를 포괄하는 '관계인구'를 도입하였음. 또한, 2019년 UN에서는 거주인구 외에 다른 인구기반이 필요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서비스 인구 개념을 제시함
- 우리나라 역시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생산·소비를 뒷받침하던 전국 인구가 감소하면서,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생활인구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함
-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인구 유입·확대에 집중하고,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민간·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통계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음

(2) 지자체별 생활인구 정의와 인천의 정책 대응 미비

- 국내 지자체들은 주민등록인구 중심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와 관련된 유사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적용하고 있음
- 서울시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상주인구, 비상주인구, 외국인 인구로 구분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상주인구와 비상주인구를 포함하는 '부산서비스인구'를 개발하였음. 또한, 제주도는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상주인구와 유동인구를 합한 '생활인구'를 정책적으로 추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인천은 강화군,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차원의 생활인구 개념 정립과 생활인구 기반의 정책 마련은 아직 미흡한 상황임

(3) 인천시 생활인구 특성 도출에 통한 도시관리정책 활용 가능성 타진

-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생산과 소비를 뒷받침하던 전국 인구가 감소하면서 각 지자체들은 정주인구 중심 행정의 한계를 벗어나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하여 새로운 정책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광역시이지만 향후 추세로 보아 인구 감소에서 자유롭지 않음. 더 나아가 인천시가 주변 도시를 아우르는 광역생활권의 중심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주인구 관점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적용 방법과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야 함
-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생활인구의 개념은 법에서 사용하는 생활인구보다 넓은 개념으로 주민등록인구 중심의 정주인구에서 벗어나 등록되지 않았으나 도시 공간을 사용하고 연계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수와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동태적 흐름을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인천 생활인구 분석이 기존 연구에서도 있었으나 전국 단위 생활인구를 다루면서 일부만으로 다뤄졌음. 이 연구는 인천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데이터를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인천 생활인구의 특성을 도출하고 생활인구를 도시관리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성을 검토하고자 함

2)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내용

■ 통신데이터로 생활인구를 분석하는 장점은 시간과 공간 구분을 분석 필요에 따라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임. 시간대별 분석과 분포 분석을 통해 다양한 차원에서 생활인구 분석을 시도함

■ 생활인구의 시간대별 분석은 분석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뉘어졌음

- 상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의 일반적 변화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2021~2024년 동안 매일, 매시간의 변화를 분석하여 일반적 패턴을 분석함
- 하루의 시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24년 9~10월 평균값을 기준으로 0~23시까지 하루 데이터 값을 구함. 하루데이터 값은 주중, 주말값으로 구분하여 구함
  - 주중은 월~금요일을 기준으로 하고, 주말은 토·일요일을 기준으로 하였음
  - 이 때 공휴일 따로 분류하여 주중과 주말값에서 제외
- 주간, 저녁, 야간에 생활인구 변화 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주간을 9~18시, 저녁을 19~22시, 야간을 23~8시로 구분하여 각 구간의 평균을 구함

■ 생활인구의 공간단위는 필요에 따라 행정동, 기초단위구, 250×250m 단위로 분석

- 생활인구 기초현황이나 행정동별 시간대별 변화 양상, 성·연령별 현황, 유입지 분석은 행정동 단위로 이뤄짐
  - 특히 생활인구 유입데이터와 5세 연령별 데이터는 행정동이 최소단위 데이터임
- 생활인구 분포가 중요한 데이터는 좀 더 세밀한 기초단위구와 250×250m로 구축

〔표 2-1〕 생활인구 데이터 활용(2장)

구분	공간 단위	분석 내용	시간/연령 기준
생활인구	행정동	• 생활인구 기초 현황	월 평균, 1시간
		• 시간대별 생활인구 유형	1시간, 주중 평균, 주말 평균
		• 성·연령별 현황	5세 단위 남녀
	기초단위구	• 주요 시간별 분포	주중 1시, 20시, 14시, 주말 14시
		• 상주인구/직장인구/방문인구 비율	주중 평균, 주말 평균
		• 시간대별 분포	주간(9~18시), 저녁(19~22시), 야간(23~8시) 평균
		• 성·연령별 분포	10대 단위 남녀, 일 평균
	250m×250m	• 직장인구, 방문인구 분포	주중 직장인구 9시, 주중·주말 방문인구 14시
유입 인구	행정동	• 유입지 분석(서울, 경기도, 인천시)	일 평균
외국인 생활인구	기초단위구	• 외국인 인구 기초 현황	월 평균

2. 인천 생활인구의 현황과 분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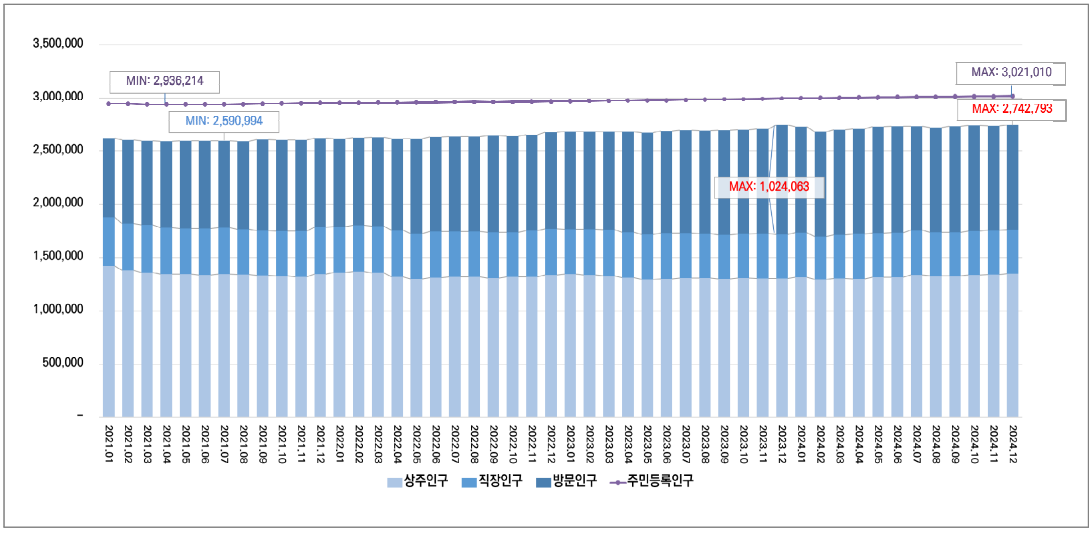
1) 인천 생활인구 기초 현황

(1) 월별 시계열적 변화

❖ 주민등록인구 및 생활인구 규모

- 2021~2024년 월별 주민등록인구 및 생활인구 분석 결과, 두 지표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4월 936,214명으로 가장 적고 2024년 12월에 3,021,010명으로 가장 많으며, 생활인구는 2021년 8월에 2,590,994명으로 가장 적고 2024년 12월에 2,742,793명으로 가장 많음
-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의 86~93% 수준이며, 생활인구에서 0~9세가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비중은 92~99%로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24년 9-10월 평균 주민등록인구는 3,017,224명으로 주민등록인구 0~9세 인구를 빼면 2,820,824명으로 나타남

〔그림 2-1〕 생활인구 및 주민등록인구 변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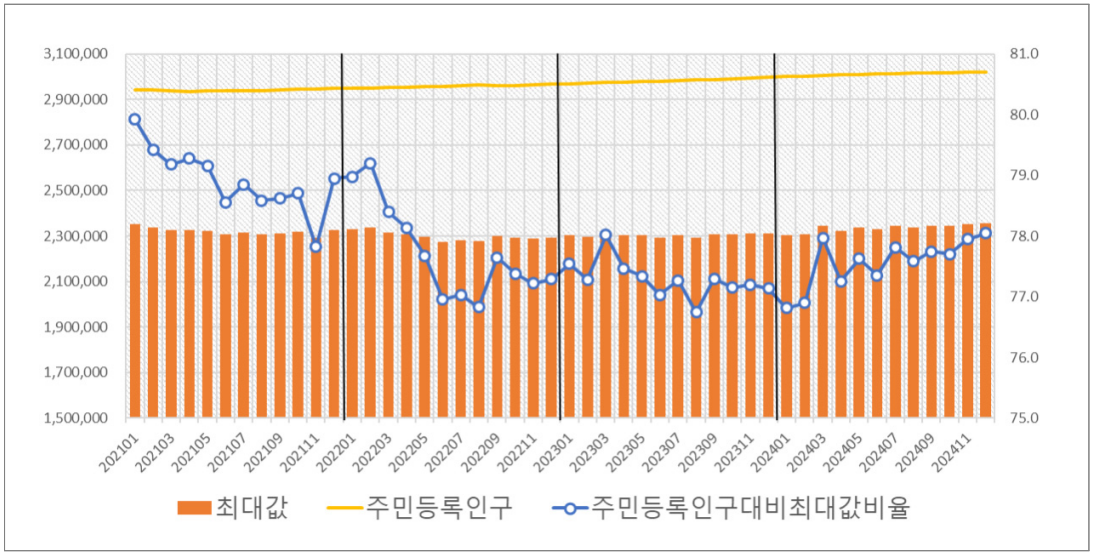


❖ 상주인구는 안정적인 분포, 주민등록인구 80% 내외 수준

- 월별 상주인구 최대값은 228~235만 명으로 약 7만 명의 차이가 있으나 4년 동안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분포를 보임

- 주민등록인구 대비 77~80% 수준으로 나타나며, 생활인구에서 0~9세 인구가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82~87% 수준임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에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상주인구 최대값이 78~80%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77~78% 정도로 소폭 감소함
- 짧은 기간과 코로나19 기간의 특수성으로 월별 경향성을 찾기 어려우나, 월별 패턴을 보면 3월에 상대적으로 상주인구 비율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8월에 낮은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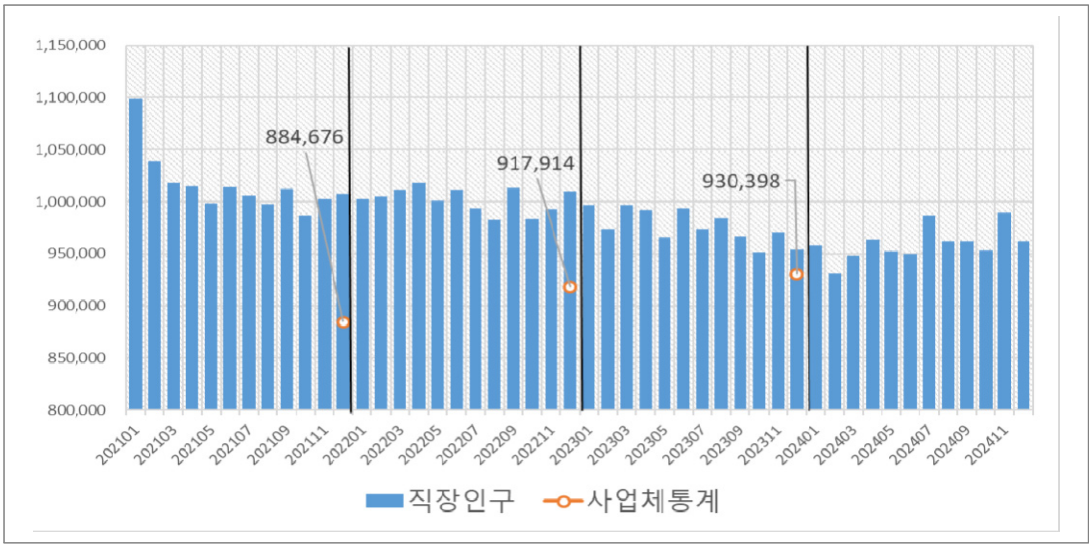
〔그림 2-2〕 상주인구 변화량(2021~2024)



❖ 직장인구는 점진적 감소 패턴, 사업체 통계와의 해석 차이

- 월별 직장인구 최대값은 93~110만 명 수준으로 약 17만 명 차이가 나타나며, 2021년 1월 110만 명에서 2024년 93만 명으로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
- 사업체기초통계량과 비교하면 직장인구가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직장인구를 '전월 기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체류 이력 중, 특정 행정동에서 30% 이상'으로 정의하기 때문임. 이 과정에서 몇 개월의 단기 종사자와 통학자 등도 모두 직장인구로 분류되어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
- 사업체기초통계를 기준으로는 종사자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인구를 기준으로는 직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남. 이는 코로나19 기간과 비교하였을 때 유동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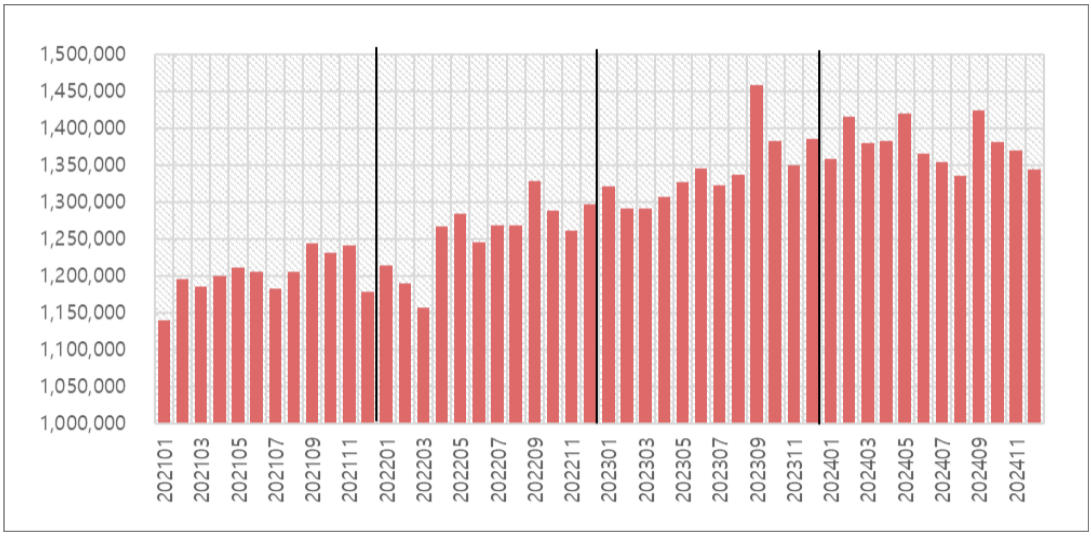
〔그림 2-3〕 직장인구 변화량(2021~2024)



❖ 방문인구는 점진적 증가 추세 및 명절 영향

- 월별 방문인구 최대값은 114~142만 명으로 약 28만 명 차이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2021년에서 2024년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임
  -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에는 114~124만 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134~142만 명의 방문인구 최대값을 기록
- 월에 따라 추석 연휴, 설날 연휴, 어린이날, 성탄절 등 주요 명절에 방문인구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그림 2-4〕 방문인구 변화량(2021~2024)



(2) 일간 변동 추이

❖ 주중은 261~281만 명, 생활인구 23시 최대, 13시 최소

- 주중 생활인구는 하루 동안 시간에 따라 최소 2,610,392명에서 최대 2,807,901명까지 약 19.7만 명이 변동하는 양상을 보임. 최대값은 23시에 나타나고 최소값은 13시에 나타남
- 주간 시간에는 외부 유입 인구(직장·방문)가 중심을 이루고, 야간 시간에는 상주인구 중심 구조로 회귀하는 생활인구 패턴을 보임. 6시 이후부터 상주인구의 비중이 감소하며, 직장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방문인구도 소폭 증가해 외부 유입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나타남
  - 주간 근무 시간대(9~18시)에서는 직장인구와 방문인구가 생활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9시에 직장인구 비중이 최대에 달하며, 13시 기준 생활인구 총량은 하루 중 최저치(2,610,392명)로 나타남
  - 저녁 귀가 시간대(18~20시)에서는 퇴근 및 귀가로 인해 직장인구와 방문인구가 감소하고, 상주인구 비중이 다시 확대되며, 생활인구 규모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임
  - 야간 전환 시간대(21~23시)에서는 상주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방문인구는 일부 남아 있으나 직장인구는 크게 줄어들고 23시 기준 생활인구 총량이 하루 중 최고치(2,807,301명)에 도달함

❖ 주말은 주중 대비 상주·직장인구 감소, 방문인구 증가

- 주말 생활인구는 최소 2,720,904명에서 최대 2,813,825명에서 변화하며, 주중보다 최소값이 크고 최대값이 작아 주말 생활인구가 변동 폭(약 9.3만 명)이 작음
- 주중과 마찬가지로 주간 시간에는 외부 유입 많고 야간 시간에는 상주인구 중심 구조로 회귀하는 특성을 그대로 보이고 있으나, 상주·직장인구 유형은 주중보다 적은 반면, 방문인구 유형은 주중보다 많은 편임
  - 주중 상주인구의 최대값은 228만명, 주말 상주인구는 222만명으로 다소 감소함. 반면 주중 상주인구의 최소값은 45만명, 주말 상주인구의 최소값은 67만명으로 22만명 더 높게 나타남. 이는 주말에 출근인구가 줄어 최소값이 상승한 반면, 여행·이동 등으로 인해 주말 최대값은 6만명 정도 감소한 결과로 해석됨
  - 주말 직장인구의 최대값은 주중 직장인구의 89.6% 수준인 반면, 주말 방문인구는 주중 방문인구의 103.5%로, 주중에는 직장인구가 더 많으며 주말에는 방문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알 수 있음

〔표 2-2〕 주중 및 주말 생활인구 일간 변화량

(단위: 명)

시간	주중 생활인구				주말 생활인구			
	상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	생활인구	상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	생활인구
0	2,261,026	75,329	471,295	2,807,650	2,116,464	77,603	612,991	2,807,057
1	2,235,107	74,169	498,322	2,807,597	2,096,316	76,233	635,696	2,808,244
2	2,216,425	73,480	517,274	2,807,179	2,083,137	75,374	650,714	2,809,225
3	2,196,443	73,714	537,209	2,807,366	2,069,483	75,277	666,437	2,811,196
4	2,154,192	74,713	576,311	2,805,216	2,043,291	75,558	694,794	2,813,643
5	2,053,614	82,495	648,888	2,784,997	1,994,307	79,576	739,941	2,813,825
6	1,898,560	106,128	759,101	2,763,789	1,924,413	87,845	797,656	2,809,914
7	1,626,513	179,823	919,456	2,725,792	1,830,549	101,711	864,261	2,796,521
8	1,314,883	298,126	1,065,121	2,678,129	1,707,013	119,152	950,865	2,777,030
9	559,932	935,783	1,151,463	2,647,178	865,527	838,490	1,052,850	2,756,867
10	513,277	911,955	1,203,559	2,628,791	788,198	799,668	1,152,194	2,740,060
11	488,548	902,598	1,228,330	2,619,476	733,817	768,688	1,227,781	2,730,285
12	472,534	894,803	1,246,009	2,613,345	699,064	747,980	1,277,618	2,724,662
13	458,510	883,340	1,268,542	2,610,392	677,439	733,754	1,310,050	2,721,243
14	453,235	881,622	1,277,855	2,612,712	670,084	727,660	1,323,161	2,720,904
15	470,595	881,976	1,269,715	2,622,285	675,341	727,572	1,320,724	2,723,637
16	504,336	879,513	1,251,397	2,635,246	689,357	728,616	1,311,895	2,729,868
17	562,632	857,528	1,236,778	2,656,937	711,784	727,807	1,299,155	2,738,746
18	649,059	809,078	1,231,326	2,689,463	743,033	728,499	1,274,928	2,746,460
19	1,342,671	170,445	1,209,727	2,722,843	1,397,745	116,107	1,239,435	2,753,287
20	1,418,564	145,020	1,184,379	2,747,963	1,454,636	109,744	1,198,385	2,762,765
21	1,489,941	127,123	1,149,209	2,766,273	1,510,840	103,784	1,159,439	2,774,063
22	1,553,177	113,811	1,114,657	2,781,645	1,559,154	97,890	1,126,530	2,783,573
23	2,280,013	82,407	445,481	2,807,901	2,216,680	76,136	510,695	2,803,510
평균	1,298,908	438,124	977,559	2,714,590	1,385,736	366,697	1,016,591	2,769,024

주) 파란색은 최저값, 빨간색은 최고값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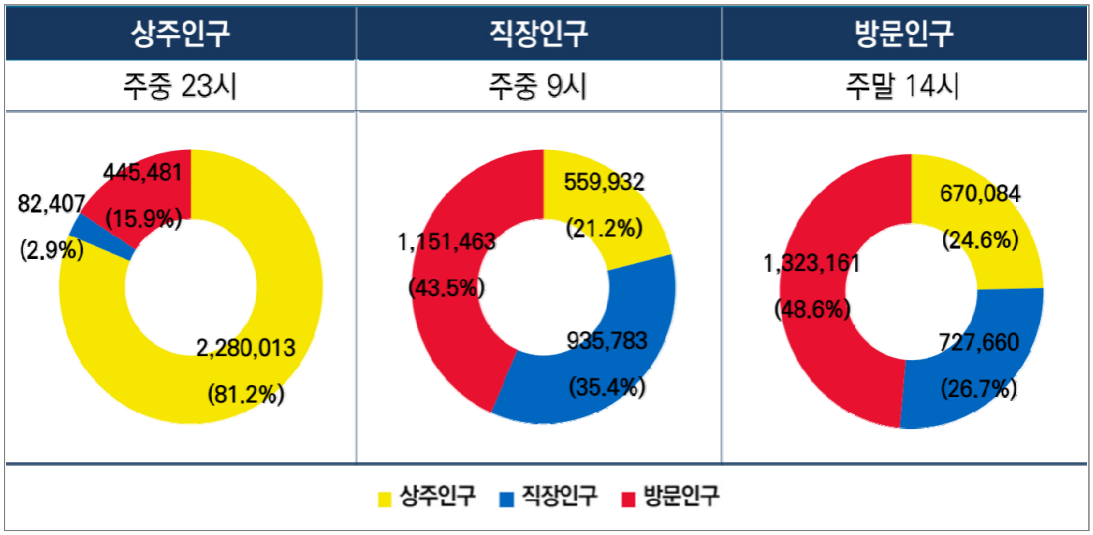
❖ 상주인구 23시, 직장인구 9시, 방문인구 14시에 최대

- 생활인구 유형별로 최대치는 상주인구 23시, 직장인구 9시, 방문인구 14시로 주중과 같은 시간으로 나타남
  - 한편, 주말 생활인구의 최대값은 새벽 5시로 주중 최대값인 23시와 큰 차이를 보인 반면, 최소값은 14시로 주중 최소값인 13시와 비슷한 수준임

❖ 주중 상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 = 48%:16%:36%

- 상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의 하루 평균을 계산하여 비율로 나타내면, 주중은 47.8% : 16.1% : 36.0%, 주말은 50.5% : 13.2% : 36.7%를 보임
  - 주중은 상주인구 1,298,909명, 직장인구 438,124명, 방문인구 977,559명
  - 주말은 상주인구 1,385,736명, 직장인구 366,697명, 방문인구 1,016,591명
- 생활인구 각 유형이 최대치를 기록할 때의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음
  - 상주인구 최대값인 주중 23시에는 상주인구 81.2%, 직장인구 2.9%, 방문인구 15.9%
  - 직장인구 최대값인 주중 9시에는 상주인구 21.1%, 직장인구 35.3%, 방문인구 43.5%
  - 방문인구 최대값인 주말 14시에는 상주인구 24.6%, 직장인구 26.7%, 방문인구 48.6%

〔그림 2-5〕 생활인구 최대 시간대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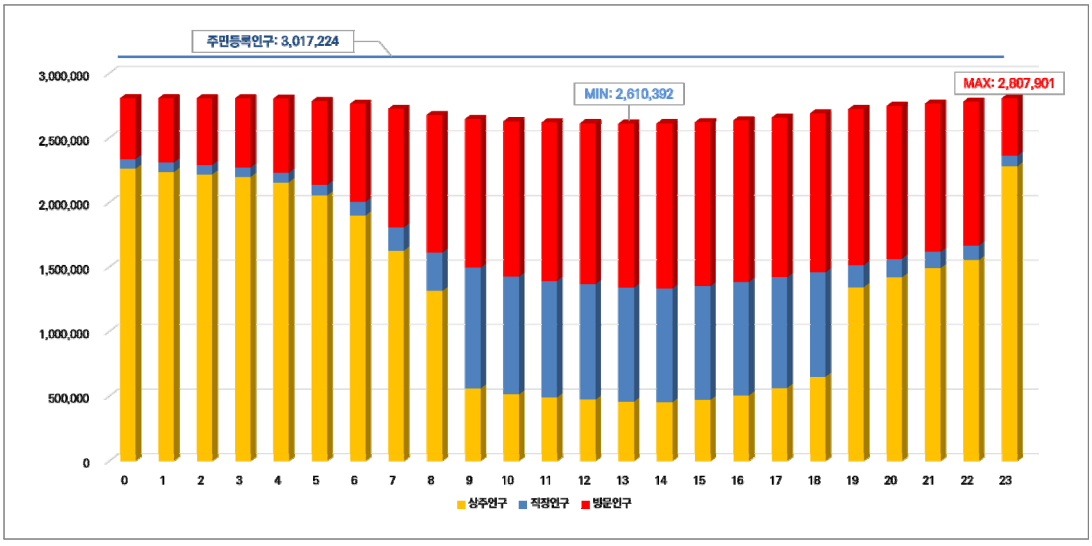


(3) 특성 종합

❖ 인천은 주민등록인구와 생활인구가 비슷한 안정적 구조

- 인천은 총 생활인구가 야간 23시에 약 281만명으로 가장 큰 값을 보이고 오후 13시에 약 261만명으로 가장 작은 값을 보여 약 20만명의 차이를 보임
- 야간 인구가 많고 주간 인구가 조금 작은 형태이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안정적 구조를 이룸
- 상주인구 최대값은 주민등록인구의 80%, 0~9세를 제한 주민등록인구를 비교하면 87%로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인구가 크게 차이가 없음

〔그림 2-6〕 생활인구 일간 변화량



❖ 계절별로도 생활인구는 안정적 구조를 가짐

- 설날과 추석이 있는 1월, 9월~10월, 연말의 12월 등 생활인구가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월별 변화가 크게 차이가 없음
- 2021~2024년 동안 월별 최대값이 274만명, 최소값이 250만명으로 차이는 24만명에 불과

❖ 상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 최대시점은 각각의 분석 시점을 제공

- 상주인구의 최대값은 주말 23시에 나타나고, 직장인구는 주중 9시, 방문인구는 14시에 나타남
  - 최저값은 대략적으로 상주인구는 주중 14시, 직장인구는 새벽 2시, 방문인구는 주중 23시로 나타남

- 시점별로 변화는 생활인구에서 하루의 평균치로는 상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최대값의 시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각각 상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 특성을 파악하는 데 적정함
- 인천시에서 각 생활인구의 최대값을 가지는 시점을 구하여 상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에 따른 적정한 분석시점을 특정하였음

❖ 법정 통계와 생활인구 데이터의 차이와 보완점 이해 필요

- 생활인구 데이터는 0~9세 인구가 생략되어 있어 주민등록인구와 비교할 때 주의가 필요함. 그러나 주민등록인구가 월별 발표인데 비해 생활인구 데이터는 시간대별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생활인구의 직장인구는 임시종사자, 통학자 모두 포함이 되어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기초통계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반면 사업체기초통계는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지만 인천 외 타지역으로 파견 나간 근로자까지 포함하지만 생활인구에는 포함되지 않음
  - 유동성이 낮았던 코로나 19기간에 직장인구가 사업체기초통계값보다 크게 나왔으나 유동성이 높아진 2023~2024년에는 사업체기초통계값과 비슷한 값을 나타냄
- 생활인구는 일별로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인구를 보여주는 데는 유용하지만 추정된 데이터로서 정확한 등록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음.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보완하여 데이터 사용 필요

2) 시간대별 생활인구 유형

(1) 행정동별 유형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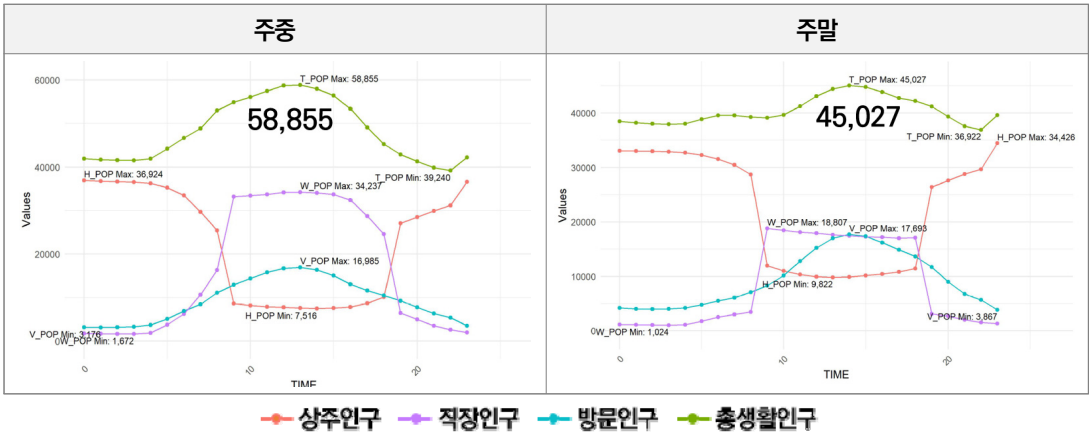
- 상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 생활인구의 시간대별 변화를 그래프로 그리고 유형을 구분함. 시간대는 크게 주간 9~18시, 저녁 19~22시, 야간 23~8시로 구분할 수 있음
  - 156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중에는 주간 시간대에 생활인구가 많은 유형이 26개, 저녁 시간대에 많은 유형이 37개, 야간 시간대에 많은 유형이 70개로 나타남
    - 그 외 주중과 주말의 차이가 있는 유형 13개, 특이 첨두 유형 10개로 나타남
  - 주말에는 주간 시간대에 생활인구가 많은 유형이 52개, 저녁 시간이 많은 유형이 26개, 야간 시간이 많은 유형이 77개로 나타남

- 유형은 주간 시간대 인구가 많은 유형, 저녁 시간대 인구가 많은 유형, 주중야간 시간대 인구가 많은 유형, 주중과 주말이 크게 다른 유형, 특이 첨두를 나타내는 유형으로 구분하고, 해당 행정동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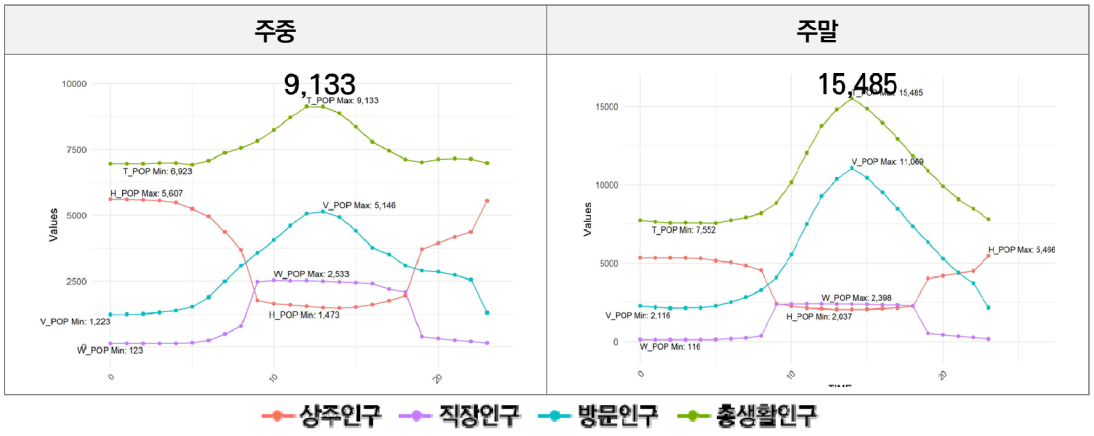
❖ 주간 시간대 유형: 관광·방문 중심형

- 주간 시간대 생활인구가 큰 유형은 종형 모양을 나타내며, 이는 주로 업무 중심형과 관광·방문 중심형으로 구분됨
- 업무 중심형은 직장인구가 많은 행정동이 분류되며 주중 낮 시간대 인구가 집중되어 주중에 생활인구 최대값이 나타남
  - 업무 중심형 사례로 송도3동이 있으며, 송도3동의 주중 생활인구는 최대 58,855명임. 상주인구의 최대값이 36,924명인데 직장인구의 최대값이 최대 34,237명으로, 직장인구 증가가 주간 인구 상승의 큰 요인으로 작용함. 주말에는 상주인구와 방문인구가 증가하지만 직장인구가 감소하여 주중보다 생활인구의 최대값이 낮게 나타남
- 관광·방문 중심형은 방문인구가 많은 유형으로 주말 관광객 유입이 생활인구 증가의 주된 요인이며 주말에 생활인구 최대값이 나타남
  - 관광·방문 중심형 사례로 개항동이 있으며, 개항동의 주말 생활인구는 최대 15,485명으로 주중 대비 크게 증가하며, 특히 방문인구는 최대 11,069명으로 주중 대비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임

〔그림 2-7〕 송도3동 생활인구 변화



〔그림 2-8〕 개항동 생활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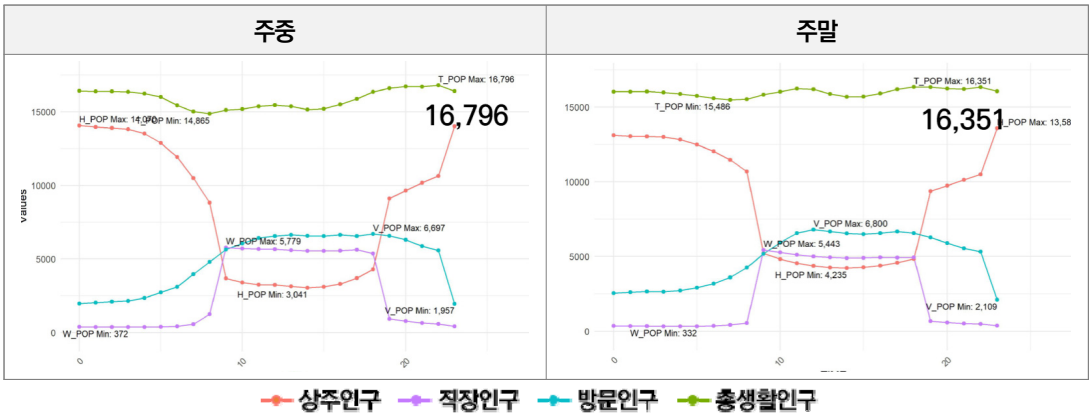


❖ 저녁 시간대 유형: 경제·상권·교통의 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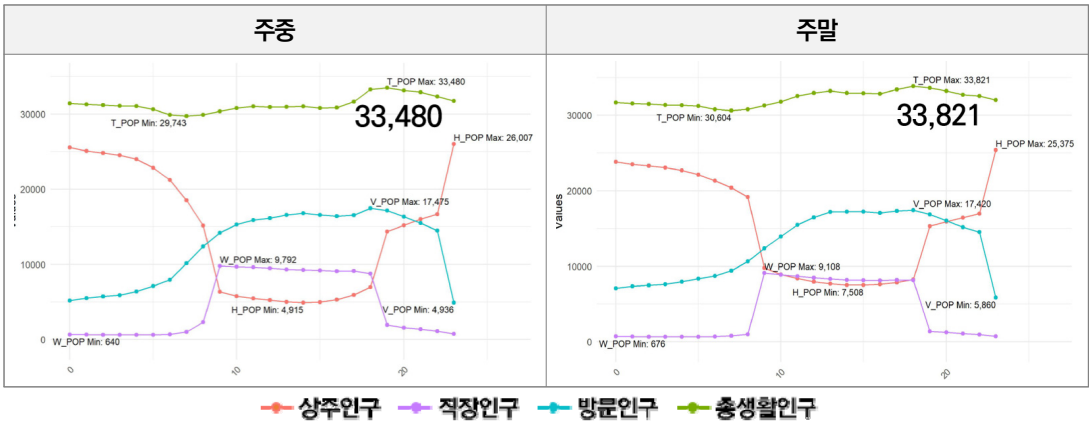
- 저녁 시간대 생활인구가 많은 유형은 하루 동안 생활인구의 변동폭이 크지 않아 ㅡ자형으로 나타나고 주중과 주말의 차이도 크지 않음
- 직장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과 방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야간 경제활동·상권 관리·교통 운영에서 거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큼. 전통시장이 있어 새벽부터 저녁까지 상업활동이 활발한 경우가 많고 식음료점이 많아 저녁시간대의 방문인구가 집중하고 교통의 결절점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임
- 저녁인구가 큰 유형의 사례로 계산1동과 부평1동을 분석함. 계산1동은 주중·주말 모두 생활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직장·주거·상업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지역이며, 부평1동은 대규모 방문인구 유입과 높은 상업활동이 특징인 지역임

  - 계산1동은 직장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주중 최대 생활인구는 16,796명, 주말 최대 생활인구는 16,351명으로 나타남
  - 주중 주말 모두 생활인구수 변동 폭이 크지 않고 직장인구와 방문인구 규모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이는 주거·직장·상업 기능이 혼합된 생활형 상권 지역의 성격을 반영함
  - 부평1동은 방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주중 최대 생활인구는 33,480명, 주말 최대 생활인구는 33,821명으로 나타남
  - 주중·주말 모두 생활인구가 3만 명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특히 저녁 시간대 외부 방문 인구 유입이 활발한 양상은 부평1동이 도심형 상권 중심지로서 상업·소비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2-9〕 계산1동 생활인구 변화



〔그림 2-10〕 부평1동 생활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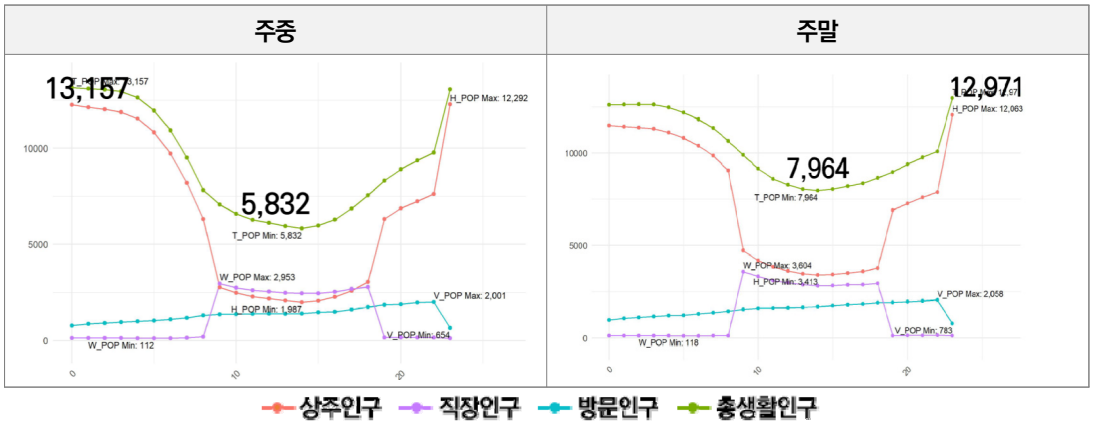


❖ 야간 시간대 유형: 상주인구 중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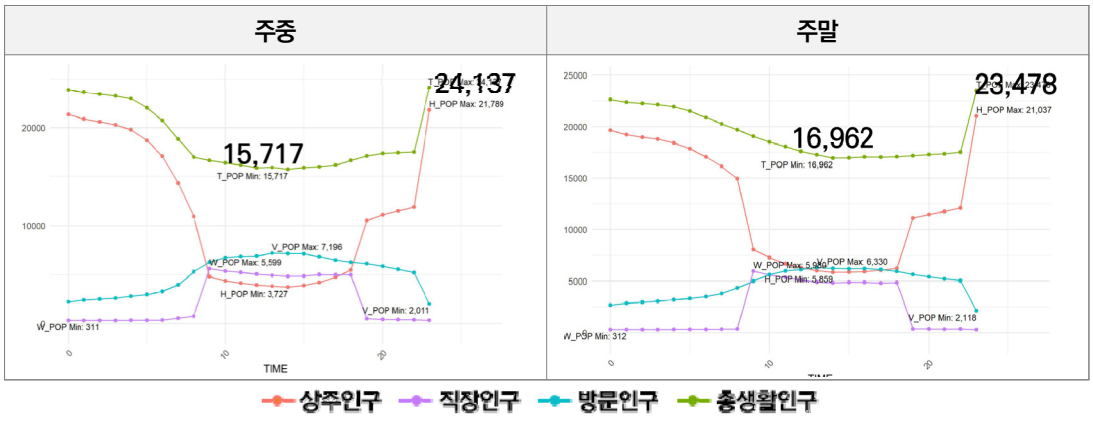
- 야간 시간대 생활인구가 큰 유형은 그래프가 전형적인 U자형으로 야간 시간대의 상주인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동임
- 직장인구와 방문인구가 많지 않고 낮에는 상주인구의 유출로 인해 생활인구가 감소함. 주말에는 상주인구 유출이 적어 하루의 변동 폭이 작게 나타나며, 주말과 주중 모두 직장인구, 방문인구의 규모 차이가 미미함

- 야간인구가 많은 유형인 만수3동의 주중 생활인구는 최대 13,157명(야간~이른 아침), 최소 5,832명으로 상주인구 비중이 높고 직장인구와 방문인구는 소규모이며, 주말의 경우 최대 12,971명, 최소 7,964명으로 주말에도 상주인구 중심 구조가 유지됨
- 구월1동의 주중 생활인구는 최대 24,137명, 최소 15,717명으로 만수3동보다 규모가 크며 상주인구 중심의 패턴이 동일하며, 주말 생활인구는 주중 대비 큰 차이가 없음

〔그림 2-11〕 만수3동 생활인구 변화



〔그림 2-12〕 구월1동 생활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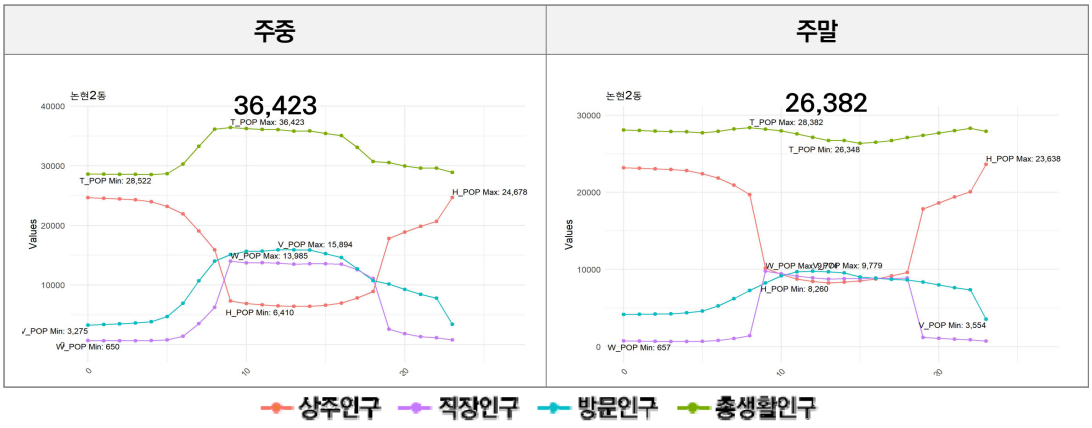


❖ 주중과 주말이 크게 다른 유형: 단일 기능의 대규모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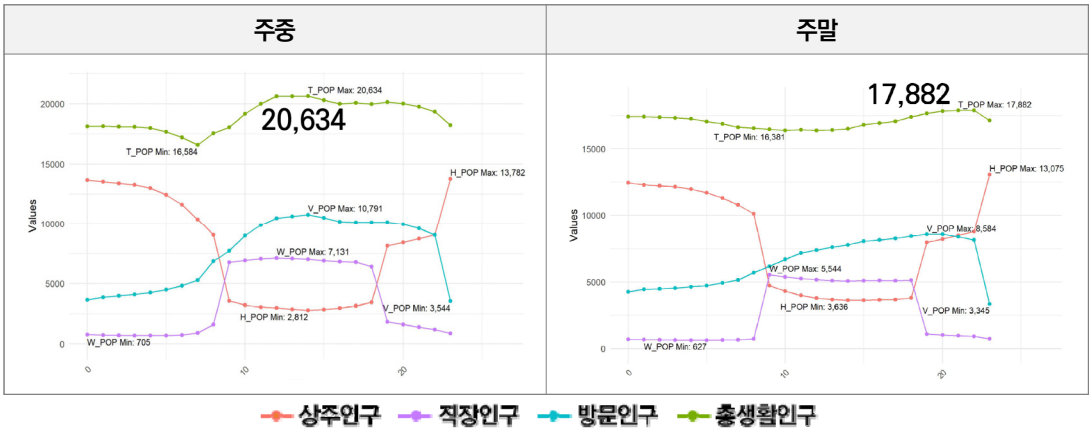
■ 주중에는 최대값이 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데 주말에는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등 차이가 심한 유형으로, 주로 단일 기능을 수행하는 대규모 시설로 나타남

- 공구상가를 포함하고 있는 송림4동과 송림6동, 남동산단을 포함하고 있는 논현2동은 주중에는 주간에 최대값이 발생하나 주말에는 야간에 최대값이 발생함
- 대학가가 있는 용현1·4동은 주중에는 주간에 최대값이 나타나지만, 주말에는 저녁에 최대값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문학경기장 등 체육시설이 많은 문학동과 인천대공원이 있는 장수서창동은 주중에는 저녁에 생활인구가 최대값을 나타내지만, 주말에는 주간에 최대값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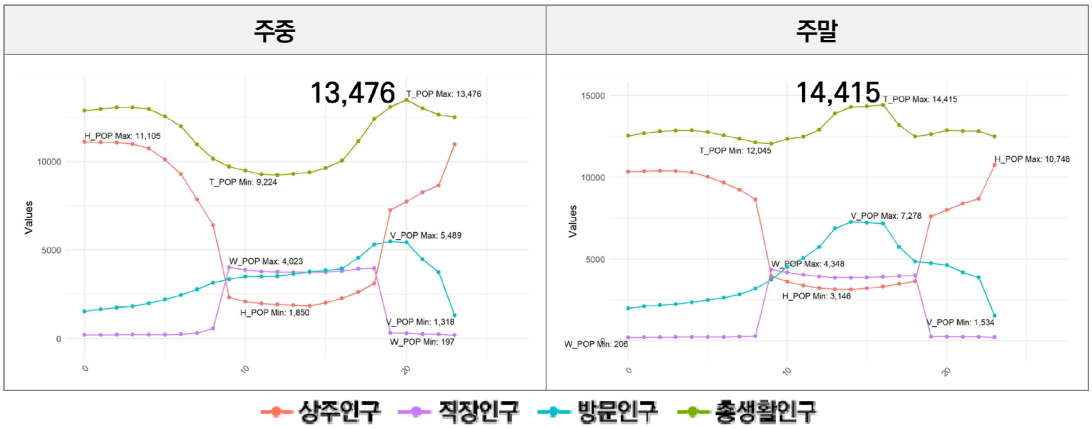
〔그림 2-13〕 논현2동 생활인구 변화



〔그림 2-14〕 용현1·4동 생활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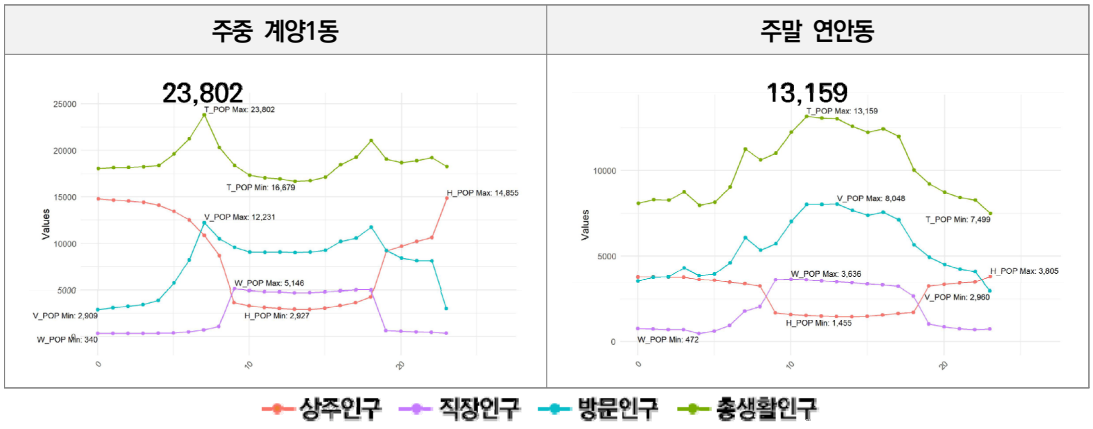
〔그림 2-15〕 문학동 생활인구 변화



❖ 특이 첨두를 나타내는 유형: 환승역, 항만 등 교통 요충지

- 특이 첨두를 나타내는 유형은 환승역이나 항만과 같은 교통 요충지가 있는 행정동에서 나타남
  - 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환승역이 있는 계양1동과 검암경서동은 주중 아침7시에 뾰족한 첨두를 보이며 최대값을 보이고 18시에 약한 첨두를 보임. 주말에는 첨두가 나타나지 않음
  - 연안항이 있는 연안동은 최대값은 11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지만 주말이 되면 아침 7시에 첨두가 나타남. 주중에는 첨두가 나타나지 않음

〔그림 2-16〕 특이 첨두 유형 생활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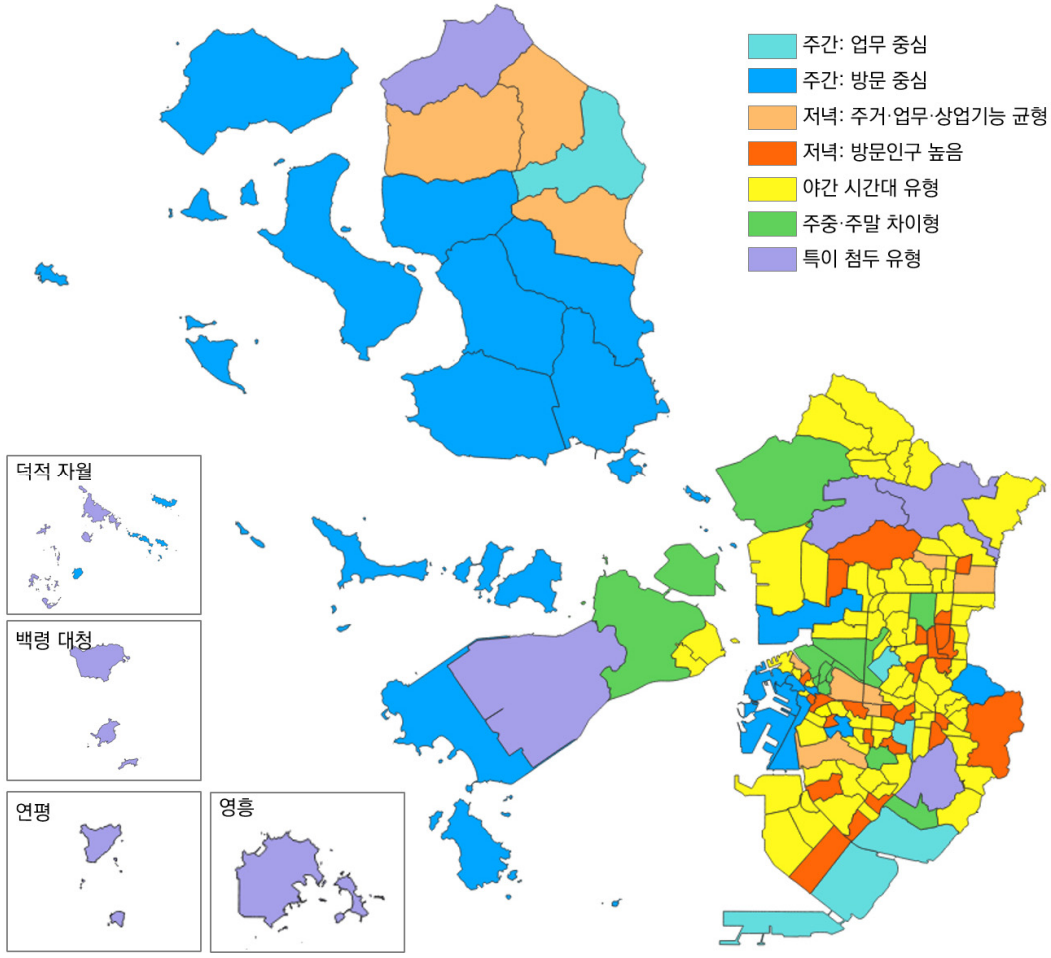
❖ 종합

- 주간의 업무 중심형은 직장인구의 변동에 따라 하루 동안의 인구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유형으로 도심 내 업무기능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주간의 방문 중심형은 업무 관련 방문인구나 관광객 등 외부 유입에 의해 생활인구가 크게 변동하는 유형임
- 저녁 시간대에 생활인구가 많은 유형은 주거·업무·상업 기능이 비교적 균형 있게 나타나는 유형과 야간 경제활동과 상권 관리, 교통 운영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유형으로 구분됨
- 야간 시간대 유형은 상주인구 비중이 야간 시간대에 절대적으로 높은 유형으로, 주거 기능이 뚜렷한 지역에서 나타남
- 주중·주말 차이형은 공구상가, 산업단지, 대학가와 같이 단일 기능이 지배적인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주중과 주말의 인구 패턴이 크게 다른 특징을 가지는 지역에서 확인됨
- 특이 첨두형은 특정 시간대에 인구가 급격히 변동하는 유형으로, 주로 교통 요충지나 섬 지역에서 나타남

〔표 2-3〕 시간대별 생활인구 유형

구분	주간 시간대 유형		저녁 시간대 유형		야간 시간대 유형	주중·주말 차이형	특이 첨두 유형
	업무 중심	방문 중심	주거·업무·상업기능 균형	방문 인구 높음			
중구		개항동 연안동(주중) 신포동 신흥동 동인천동 용유동		도원동	율목동 영종1동 영종2동	영종동	연안동(주말) 운서동
동구		금창동	화수2동	송현1·2동	만석동 화수1·화평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송현3동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1·4동	학익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5동	숭의1·3동 용현3동 도화1동 주안6동 주안7동	숭의4동 용현2동 용현5동 학익2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8동	용현1·4동 (주말) 문학동	
연수구	송도3동			옥련1동 연수2동 동춘2동 송도1동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1동 동춘3동 송도2동 송도4동 송도5동		
남동구	구월3동 논현고잔동			관교동 구월4동 간석1동 만수5동 장수서창동	구월1동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간석4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6동 서창2동 논현1동	논현2동 장수서창동 (주말)	남촌도림동
부평구		일신동		부평1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산곡4동 갈산2동	부평2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청천1동 갈산1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1동 부개2동 부개3동 십정1동 십정2동	청천2동	
계양구			계산1동 작전서운동	계산4동 작전2동	효성1동 효성2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5동 작전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양1동
서구	가좌4동	신현원창동		연희동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석남1동 석남3동 가좌2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아라동	석남2동 가좌1동 가좌3동 오류왕길동	검암경서동

구분	주간 시간대 유형		저녁 시간대 유형		야간 시간대 유형	주중·주말 차이형	특이 첨두 유형
	업무 중심	방문 중심	주거·업무·상업기능 균형	방문 인구 높음			
강화군	강화읍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선원면 하점면 송해면				화도면(주말) 양사면
옹진군		북도면 자월면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영흥면 연평면
합계	5개	21개	10개	27개	70개	15개	1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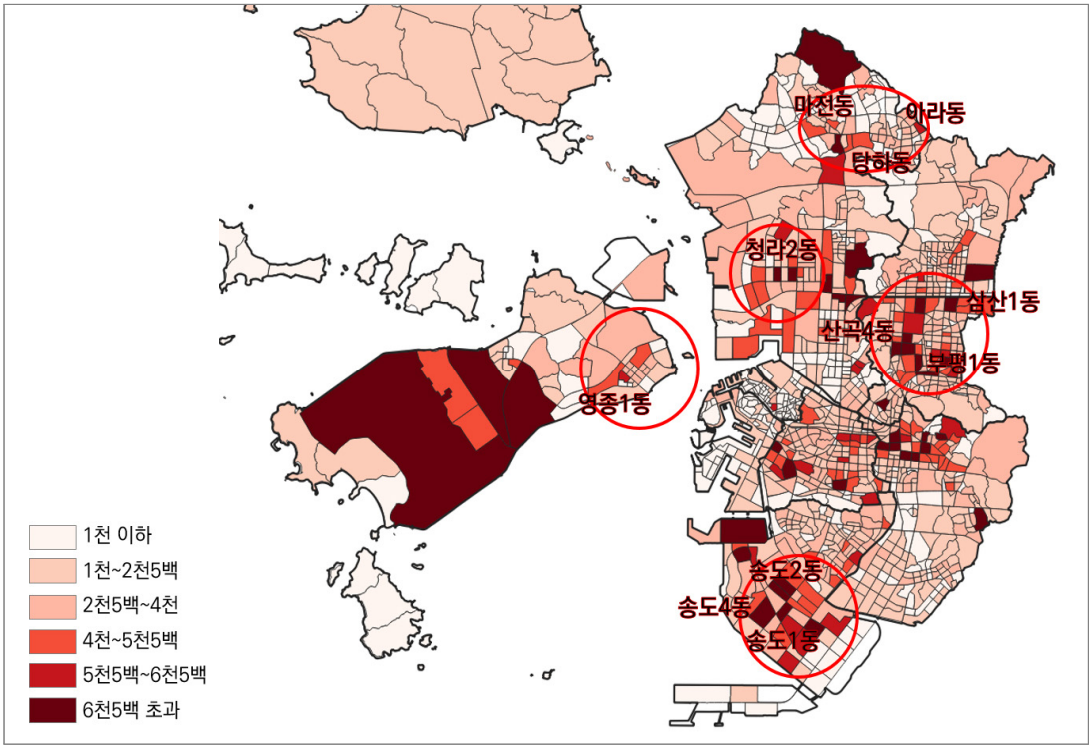
주) 주중·주말 차이형, 특이 첨두 유형은 주말 생활인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복되는 행정동을 함께 기재함

3) 인천 생활인구 공간 특성 분석

(1) 주요 시간별 분포 비교

- 주중 주요 시간의 생활인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주인구가 가장 큰 시간인 1시, 직장인구와 관련성이 높은 20시, 방문인구가 가장 큰 시간인 14시를 기준으로 분포 특성을 도출하였음
- 생활인구 주중 야간 시간에는 주거지역 중심, 주간 시간에는 업무·상업 중심, 저녁 시간에는 주거와 상업 중심이 혼합된 구조로 변화함
  - 시간대별 인구 이동 패턴을 교통·상권 활성화, 안전 관리, 공공서비스 공급 계획 등 도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야간 시간(1시)에는 전반적으로 주거지역 중심으로 인구가 분포하고, 도심·업무 중심지의 밀도는 낮게 나타남
  - 영종도(영종1동), 송도(송도1동, 송도2동, 송도4동), 부평구(부평1동, 삼산1동, 산곡4동) 주거지역, 청라(청라2동), 검단(마전동, 아라동, 당하동) 등 상주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인구수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상업·업무 밀집지는 인구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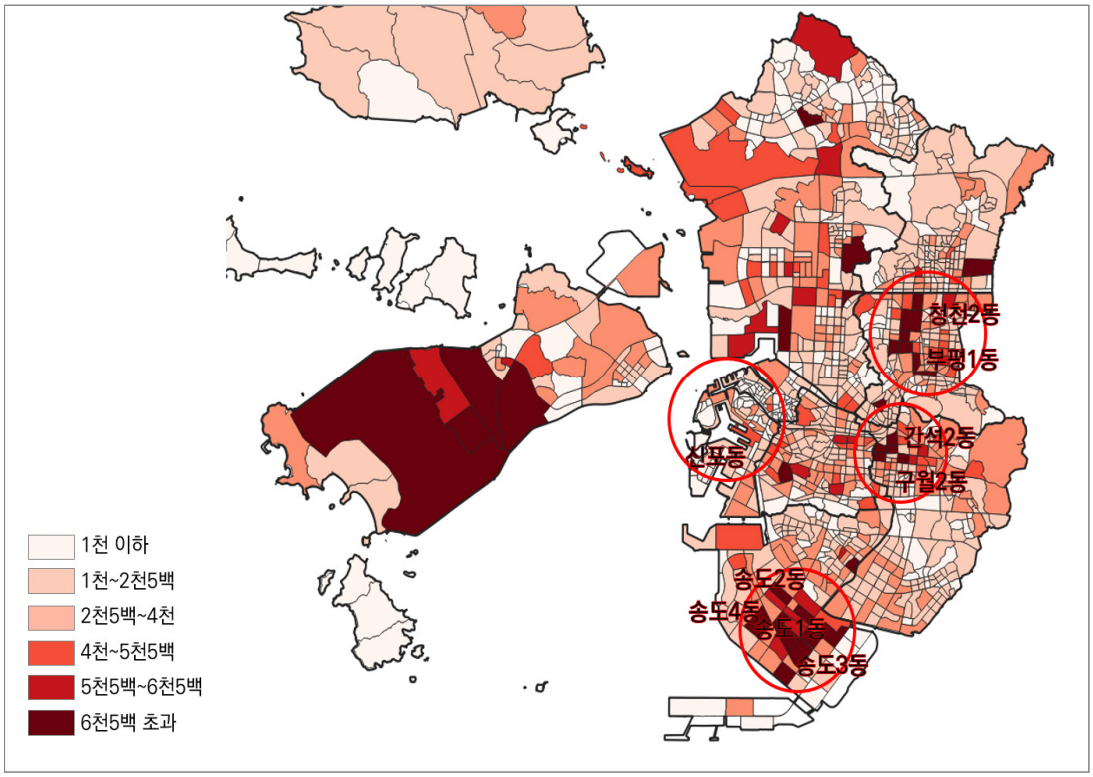
〔그림 2-17〕 주중 1시 생활인구 분포



■ 주간 시간(14시)에는 중구 항만·공항 지역, 연수구 송도, 그리고 도심 등 업무·상업 중심지에서 인구 밀집도가 크게 상승하는 반면, 순수 주거지역은 주간 유출로 인해 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송도(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구월(구월2동, 간석2동), 부평(부평1동, 청천2동)과 일부 중구 원도심(신포동)에서 생활인구 분포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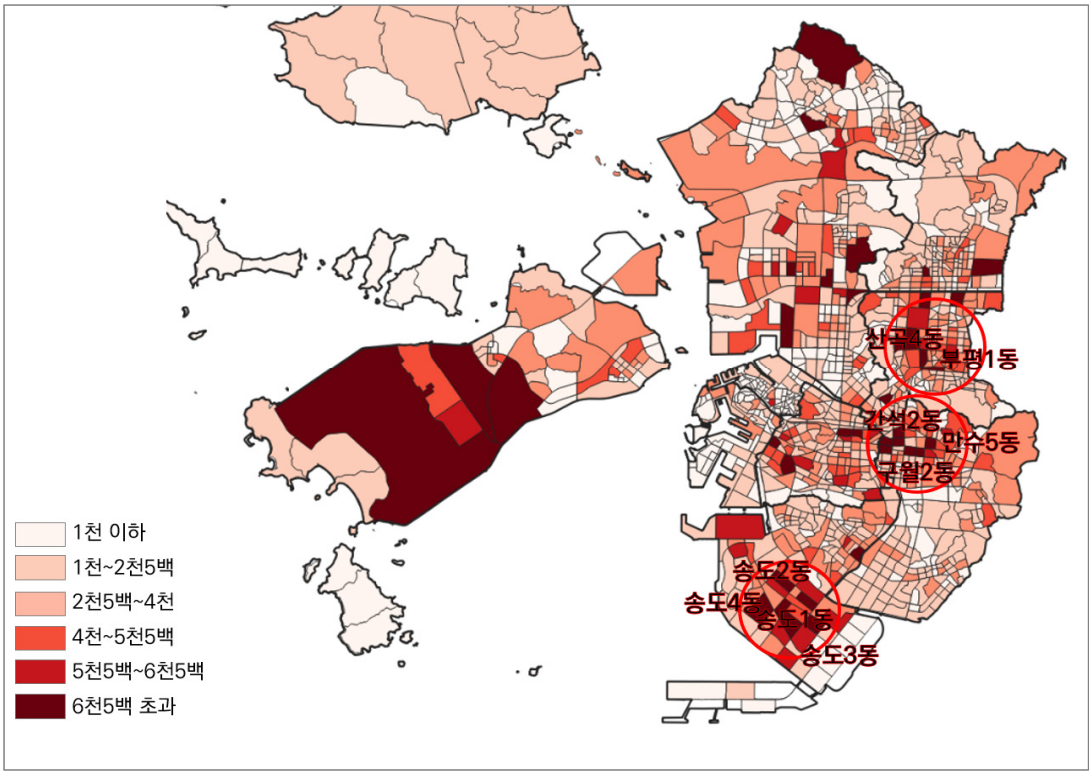
〔그림 2-18〕 주중 14시 생활인구 분포



■ 저녁 시간(20시)대에는 상주인구 귀가로 인해 주거지역 인구가 회복되며, 동시에 주요 상업지역(구월동 로데오거리, 부평역 주변, 송도 상업지 등)에서도 높은 인구 밀도가 유지되는데, 이는 퇴근 이후 상업·문화 활동으로 인한 저녁 시간대 외부 유입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됨

- 주요 상업지역인 부평1동, 구월2동, 간석2동과 송도 상업지인 송도3동, 송도4동, 송도2동, 그리고 근린상업지인 만수5동 등에서 분포가 높게 나타남

〔그림 2-19〕 주중 20시 생활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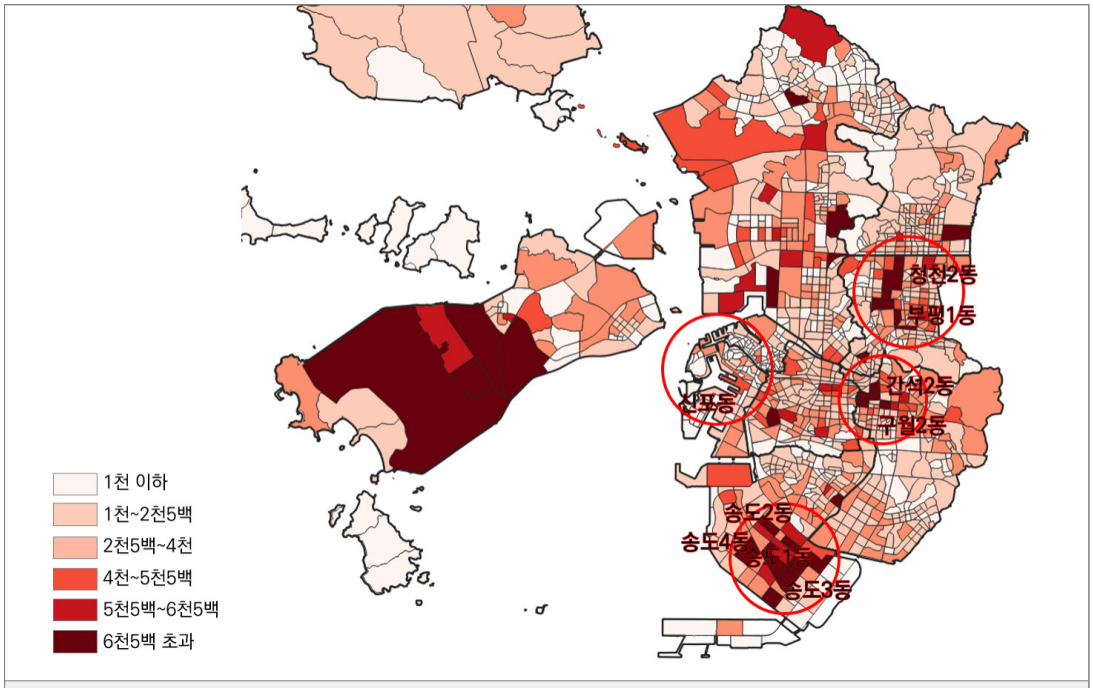


(2) 주중/주말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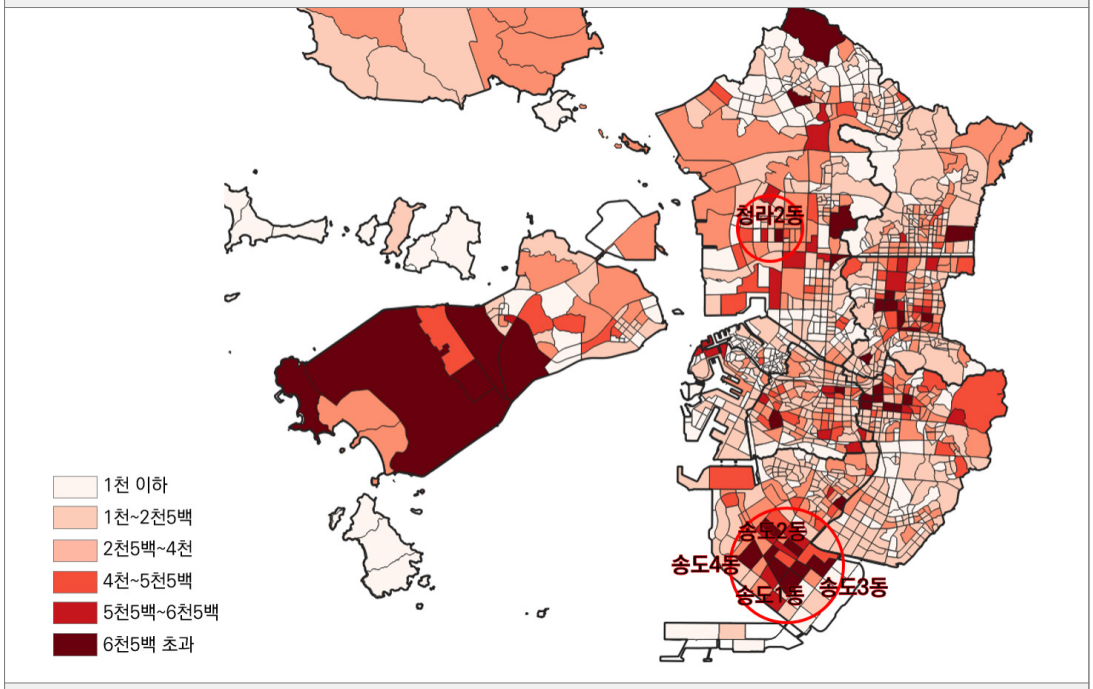
- 주중과 주말 인구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방문인구가 가장 많은 14시를 기준으로 생활인구 분포를 비교함
- 주중 14시의 생활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도심 업무·상업 중심지(남동구 구월동, 부평구 부평동,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공항·항만 지역(중구 영종·항만 배후지)의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남
  - 서구 산업단지, 일부 관공서 밀집지역 등 직장인 중심 지역에서도 높은 생활인구 분포가 나타나며, 주거지역 일부는 낮 시간대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주말 14시의 생활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주중 대비, 도심 상업지뿐 아니라 해양·관광지, 쇼핑·문화시설 인근 지역(송도 컨벤시아 주변, 청라국제도시 상업지, 강화도 주요 관광지 등)의 색이 더 진해져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남
  - 일부 주거지역에서도 주중 대비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주말 가족 활동, 지역 내 소비 활동, 여가·문화 이용이 증가했음을 시사함

▪ 즉, 주중 14시는 업무·산업 중심의 인구 유입 구조가, 주말 14시는 관광·문화·소비 중심의 인구 유입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남

〔그림 2-20〕 인천시 주중 및 주말 14시 생활인구 분포



주중 1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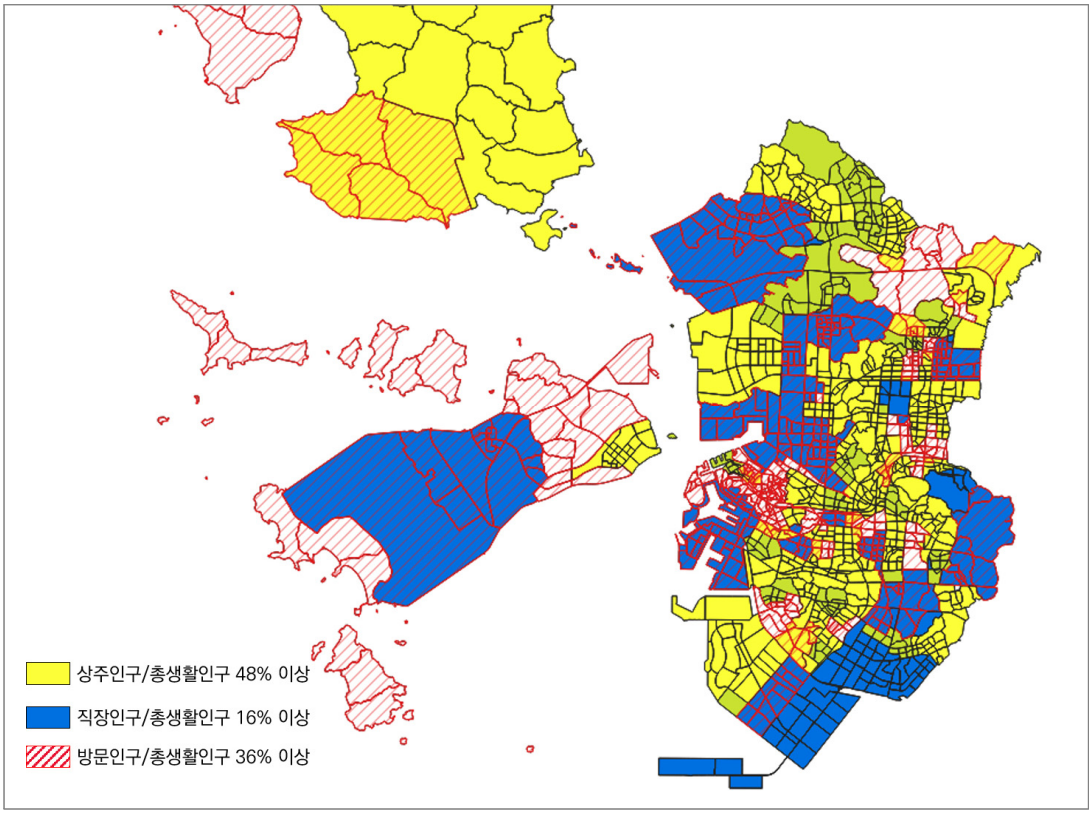


주말 14시

(3) 상주인구/직장인구/방문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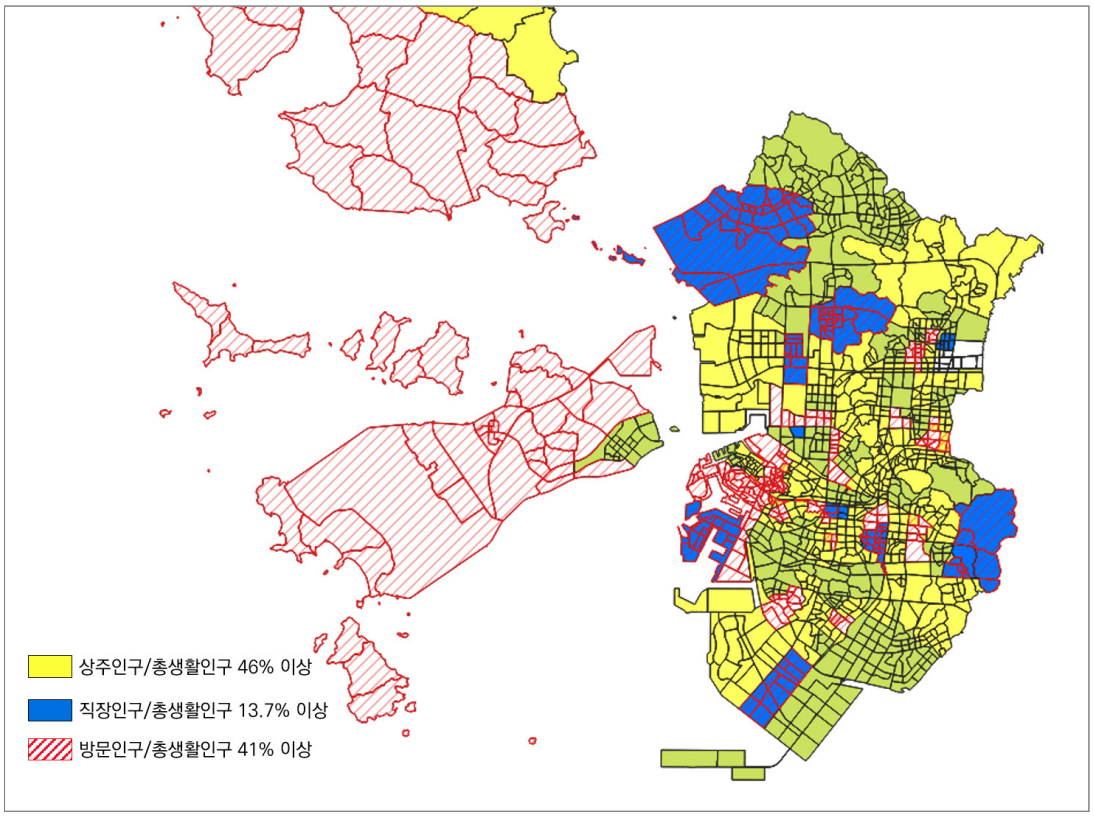
- 주중 상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 평균 비율인 48%, 16%, 36%를 기준으로 기초구역별 생활인구 비율 분포를 확인함
- 주중 상주인구 비율이 48% 이상인 지역은 크게 구도심 택지개발지구와 신도시 중심으로 분포함
- 직장인구 비율이 16% 이상인 지역은 산업단지 및 제조업 중심지, 신도시의 업무지구, 도심부의 업무·상권 중심지로 나타남
- 방문인구 비율이 36% 이상인 지역은 산업단지, 신도시 업무지구, 도심부 업무·상권 중심지 등 직장인구 비율이 높은 곳과 유사하며, 이 외에 중구청 주변의 경우 행정 및 관광 수요, 계양역 일대의 교통 및 상업 수요가 등으로 방문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2-21〕 주중 생활인구 구성비



- 주말의 경우 직장인구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상주인구의 상대적 분포가 확대되어 상주인구와 직장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중첩되는 경향을 보임
- 방문인구의 비중은 주중 대비 확대되어 영종도, 월미도, 개항동 등 관광지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2-22〕 주말 생활인구 구성비



(4) 시간대별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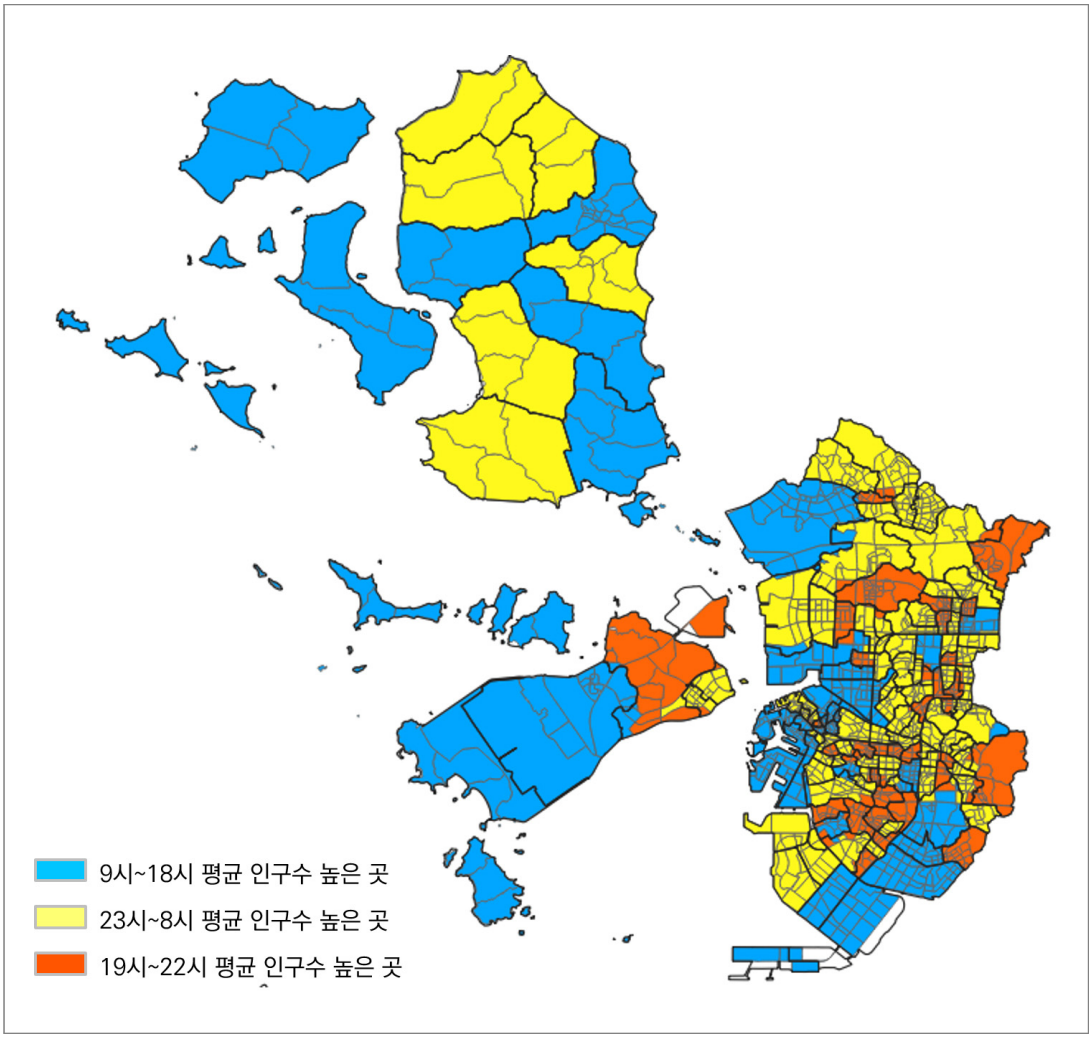
- 시간대는 주간(09~18시), 저녁(19~22시), 야간(23~08시)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시간대별 인구 밀집지역의 공간적 분포 및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함
- 그림에서 하늘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주간(9~18시) 시간대에 평균 인구수가 높은 지역으로, 사무실, 직장, 산업시설 등 업무 중심지이며,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공간 구조를 가짐
  - 대표 지역: 인천항 주변, 주안, 구월, 부평, 서구 일반산업단지 일대
- 주황색 지역은 저녁(19시~22시) 시간대 소비 활동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외식, 쇼핑, 문화 활동이 활발한 상업지역이며, 퇴근 후 유동인구가 유입되는 생활 중심지임

- 대표 지역: 주안, 연수구(선학동, 연수1동, 청학동, 옥련2동), 간석, 논현, 부평 일대

■ 노란색 지역은 야간(23시~8시) 시간대에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주거지 중심 지역이자 실거주지 중심의 인구 분포를 나타냄

- 대표 지역: 학익동, 동춘동, 송도1동, 송도3동, 계양1동, 계양2동, 검단신도시 일대

〔그림 2-23〕 생활인구 시간대별 특징



(5) 특성 종합

❖ 시간대별 변화 특성에 따라 유형 구분 가능

- 주간(9~18시), 야간(23~8시), 저녁(17~22시) 중 어느 시점에 생활인구의 최대값을 가지는가에 따라 지역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 야간(23~8시)에 생활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주로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지역임. 주간에는 출근으로 인해 생활인구가 줄고 야간에는 생활인구가 최대임. 휴일인 주말에는 야간과 주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
- 주간(9~18시)에 생활인구가 가장 큰 곳은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송도나 구월처럼 업무지역이거나 가좌동이나 논현고잔동처럼 산업단지인 곳이 많음. 연안동이나 강화, 옹진 섬 지역과 같이 관광지도 이에 속함. 업무지구이거나 산업단지인 지역은 주중에 생활인구가 많고 주말에 작지만 관광과 연관이 많은 곳은 주중보다 주말의 생활인구가 큼
- 저녁(17~22시)에 생활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음식점이나 판매시설이 밀집된 지역임. 업무와 판매시설이 적당히 섞인 지역과 판매시설 위주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음. 업무와 판매시설이 복합된 지역은 주중에 생활인구가 높은 편이고 판매시설 위주인 지역은 주말에 생활인구가 높은 편임
- 특정 시간대에 첨두 특성을 보이는 곳은 검암동, 계양동 등 환승역이 있거나 연안동 등 항만이 존재하는 지역 또는 배 시간에 의해 유입·유출이 결정되는 섬 지역에서 나타남

❖ 유형 특성은 상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의 비율과도 연관이 있음

- 주중 상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 평균 비율인 48%, 16%, 36%인데 이를 기준으로 각 생활인구의 비율과 유형 특성이 관련 있음
- 야간에 생활인구가 많은 곳은 주거지로서 상주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임
- 주간에 생활인구가 많은 곳 중 업무지역이나 산업단지인 곳은 직장인구 비율이 높고 항만이나 관광지 등은 방문인구 비율이 높음
- 저녁에 생활인구가 많은 곳은 방문인구의 비율이 높음.
- 업무와 판매시설이 많아 직장인구와 방문인구가 많음에도 오피스텔의 밀집으로 상주인구가 많아서 직장인구, 방문인구 비율이 높지 않게 나타나기도 함

  - 구월3동은 직장인구와 방문인구 수가 많음에도 오피스텔이 밀집하여 상주인구도 많아 직장인구, 방문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4) 인천 생활인구 성·연령별 특성 분석

(1) 분석 방법

- 행정동 단위 데이터는 5세별 데이터와 시간별을 같이 구분하지만 50×50m 단위인 세부 데이터는 10세별 남녀별로 하루의 대푯값만 있어 세부 공간별로는 성별과 시간변화를 같이 분석할 수 없음
  - 공간 세분이 필요없는 분석에서는 5세별 데이터를 사용하였음
  - 시간대와 연령 교차분석이 필요한 분석에는 행정동 단위로 분석
  - 상세 공간 분포 분석을 위해서는 10세별 데이터를 기초단위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전체 생활인구에서 각 성·연령별 비율을 구하고 주민등록인구의 성·연령별 비율과 비교. 주민등록인구 구성비와 크게 달라지는 연령이 있는지 확인하였음
- 연령에 따라 통학, 출근의 비율이 다르고 노인일수록 외출이 적어 이동성이 낮아질 것이라 가정하고 상주인구가 가장 많은 23시와 상주인구가 가장 적은 14시의 차이를 비교하여 성·연령별 이동성을 구함
- 성별, 연령별로 주거지의 차이가 발생함. 중년층은 가족 단위 거주일 확률이 높아 연령별 분포가 뚜렷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어 20대와 70대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성·연령별 분포 차이를 구함
- 노인 인구의 주간 방문지를 추출하기 위해 야간 23시의 인구와 주간 14시의 인구 비율을 활용하여 주간에 노인 인구가 집중하는 지역을 분석

(2) 성·연령별 비율

- 주민등록인구와 생활인구를 비교하였을 때 연령별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음
  - 대학이나 계절 노동 등 이유로 인해 특정 나이대가 주민등록인구보다 많은 경우가 있음
- 인천시는 주민등록인구로 구한 성·연령별 비율과 생활인구의 성·연령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음
- 인천은 인구적으로 매우 안정적 도시인 것을 성·연령별 비율에서도 알 수 있음

〔표 2-4〕 주민등록인구 및 생활인구 성·연령별 비율

(단위: 명)

연령	주민등록인구				생활인구			
	남		여		남		여	
10-14세	70,893	2.5%	67,243	2.4%	69,933	2.6%	66,734	2.5%
15-19세	68,787	2.4%	65,457	2.3%	66,654	2.5%	62,969	2.3%
20-24세	79,830	2.8%	75,105	2.7%	75,204	2.8%	70,478	2.6%
25-29세	103,344	3.7%	96,056	3.4%	98,652	3.6%	91,237	3.4%
30-34세	116,051	4.1%	105,286	3.7%	110,176	4.1%	100,754	3.7%
35-39세	103,403	3.7%	95,665	3.4%	96,992	3.6%	92,616	3.4%
40-44세	126,390	4.5%	119,003	4.2%	117,992	4.3%	115,418	4.3%
45-49세	118,767	4.2%	112,670	4.0%	111,155	4.1%	109,225	4.0%
50-54세	132,329	4.7%	129,813	4.6%	125,198	4.6%	126,273	4.6%
55-59세	125,589	4.5%	129,724	4.6%	120,048	4.4%	126,698	4.7%
60-64세	126,565	4.5%	127,731	4.5%	121,557	4.5%	125,124	4.6%
65-69세	98,570	3.5%	103,206	3.7%	95,550	3.5%	101,304	3.7%
70-74세	57,238	2.0%	63,027	2.2%	55,893	2.1%	62,072	2.3%
75세 이상	79,312	2.8%	123,778	4.4%	78,002	2.9%	121,791	4.5%
합계	1,407,064	49.9%	1,413,761	50.1%	1,343,006	49.5%	1,372,694	50.5%

(3) 성·연령별 이동성

- 연령별 시간대별 상주인구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성·연령별 이동성을 측정하였음
- 주중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야간 23시 상주인구 대비 낮 14시 상주인구 비율을 구하여 각 연령대의 이동성을 구함
  - 야간 23시가 상주인구가 가장 큰 시간대이고 낮 14시가 상주인구가 가장 작은 시간대임
  - 상주인구는 각 행정동별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야간 23시 기준 상주인구를 상시 거주인구로 볼 때 연령별로 사람들이 그 행정동을 떠나 다른 동으로 이동한 비율을 분석할 수 있음
- 20~64세까지는 한낮에 거주하는 행정동에 머무르는 비율이 5~11%에 불과함
- 초·중고생 나이인 10~14세와 75세 이상은 60% 이상이 거주하는 행정동에 머물러 어린이와 노인이 이동성이 적음을 보여주고 있음
- 60~64세 구간과 65~69세 구간에서 이동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65세부터 이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65세 미만에서는 성별에 따른 이동성 차이가 크지 않지만 65세 이상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이동성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임

〔표 2-5〕 성·연령별 이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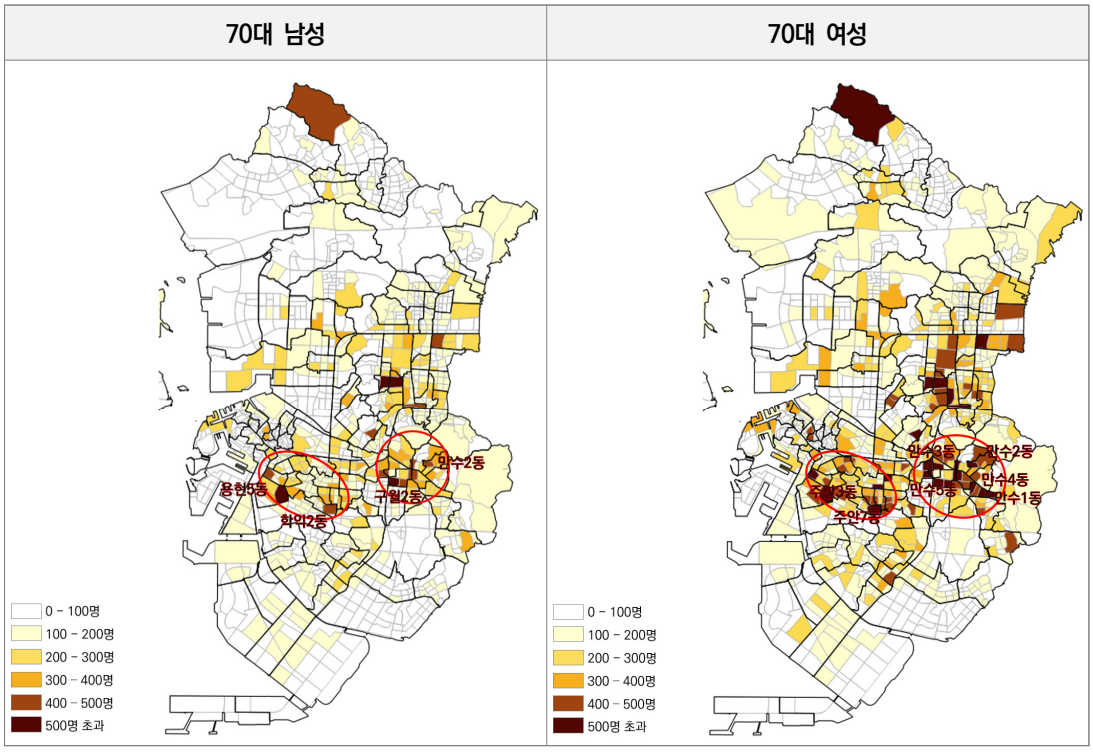
연령	남자	여자
10-14	0.63	0.61
15-19	0.45	0.42
20-24	0.10	0.11
25-29	0.09	0.09
30-34	0.08	0.09
35-39	0.08	0.08
40-44	0.07	0.08
45-49	0.07	0.07
50-54	0.06	0.08
55-59	0.06	0.07
60-64	0.05	0.06
65-69	0.44	0.52
70-74	0.51	0.57
750|상	0.62	0.69

(4) 성·연령별 분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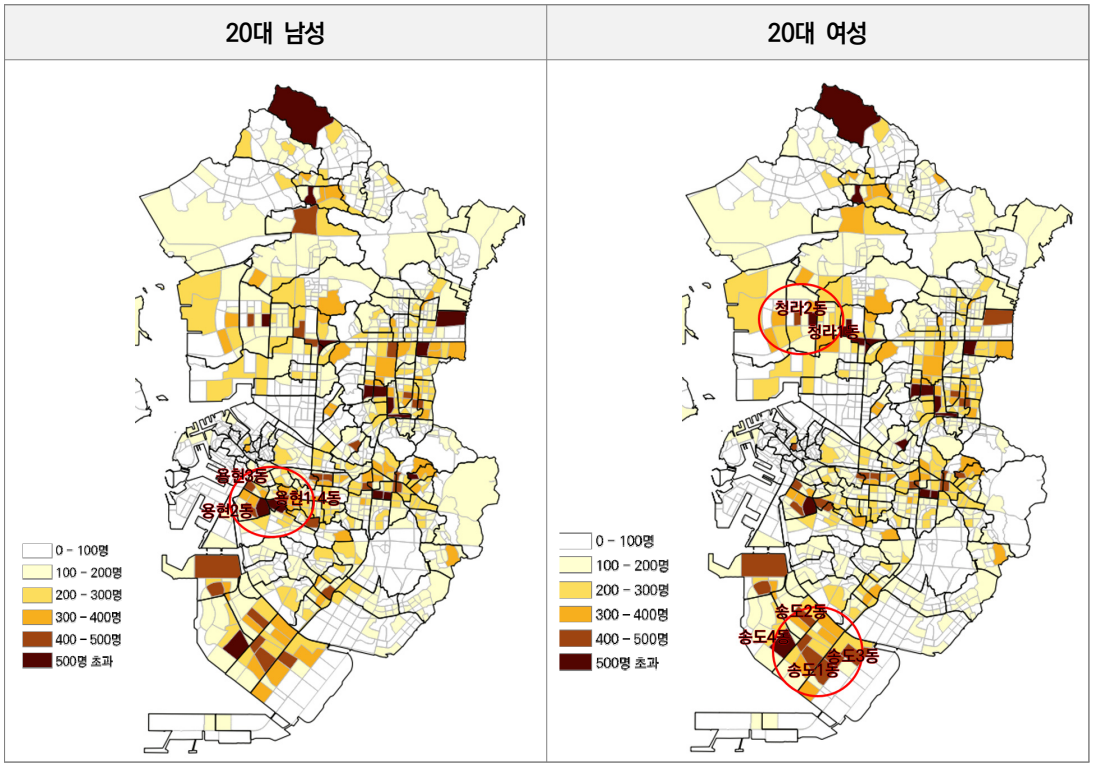
❖ 성·연령별 상주인구 분포 특성

- 인천시 생활인구의 성·연령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이 원도심 중심, 청년층이 대학가와 상업지역 중심으로 분포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성의 생활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고, 상업지 중심의 분포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됨
- 70대 이상 고령층은 전반적으로 원도심 지역에서 높은 밀집도를 보였으며, 특히 미추홀구 주안3동, 주안7동, 주안8동, 남동구 만수1~5동 등 기존 주거지에서 뚜렷한 집중 양상이 나타났고, 이는 장기간 거주에 따른 정착 효과와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고령층 성별 비교시 70대 여성의 분포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평균 기대수명이 높은 여성의 인구 구조 특성과 독립 거주 비중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20대 청년층은 주로 대학가 및 교육시설 인근 지역에서 높은 밀집도를 보였으며, 20대 남성의 경우 대학 입지지역 중심의 분포가 뚜렷하고, 일부 신도시권 및 외곽지역에서는 낮은 밀도를 보임
- 20대 여성은 대학가 외에도 대규모 상업시설이 위치한 중심 상권에서도 높은 밀집도를 나타냈으며, 공간적 확산 범위 역시 남성보다 넓게 확인되었는데 이는 학업 외에도 근무, 소비, 여가 등 다양한 활동 목적이 상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그림 2-24〕 상주인구 70대 남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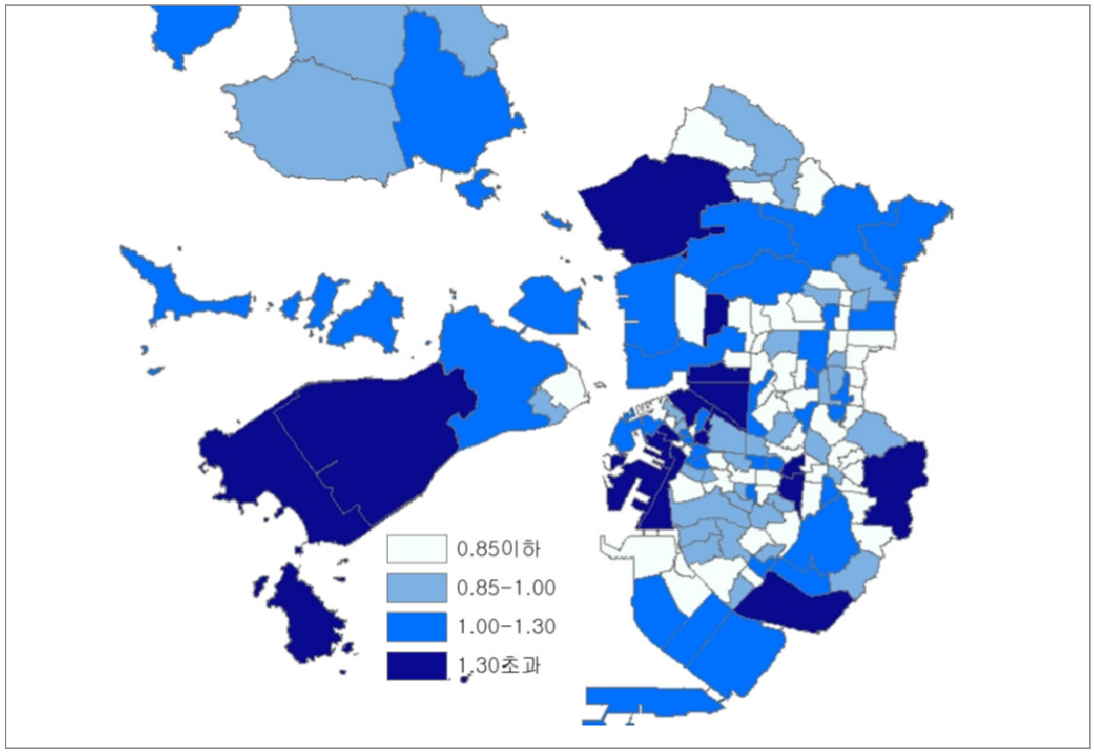
〔그림 2-25〕 상주인구 20대 남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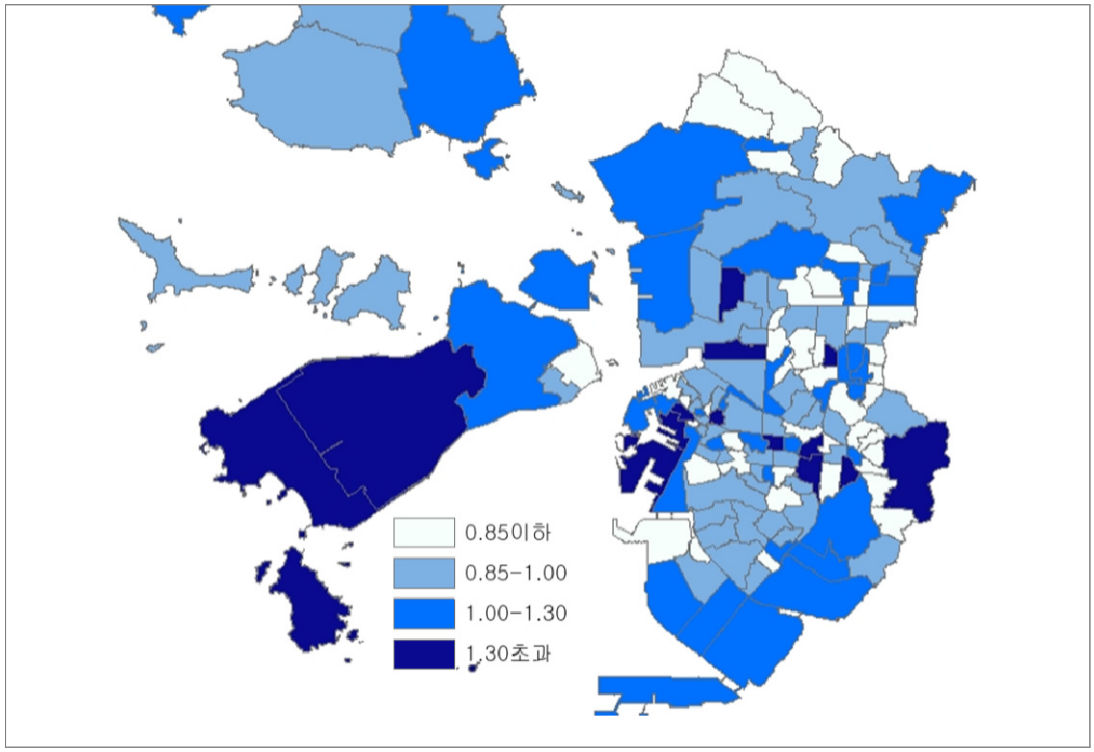
(5) 시간대별 인구차이 활용한 노인의 주요 방문지 분석

- 청·중년층은 주중 낮에 대부분 직장이나 학교 등 소속된 곳에서 생활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반면, 인천에서 노인들이 실제로 어떤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간대별 생활인구 비율을 추출함
- 65~74세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동별로 야간 23시 생활인구 대비 14시 생활인구의 비율을 구하여 노인들의 주요 방문지를 구함
  - 야간 23시가 상주인구가 가장 큰 시각으로 이 시간은 대부분 거주지에 머물 것으로 예상
  - 주간 14시가 상주인구가 가장 작은 시각으로 이 시간이 가장 외부활동을 많이 하는 시간으로 분류
  - $\frac{\text{주간 14시 노인 생활인구}}{\text{야간 23시 노인 생활인구}}$ 가 1보다 큰 곳을 구함
- 14시 생활인구를 23시 생활인구로 나눈 값이 1보다 작은 동은 낮 동안 노인들이 떠나있는 곳이고 1보다 큰 곳은 그 행정동에 거주하지 않는 노인들도 낮 동안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 할 수 있음
- 65~74세 노인인구가 공통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으로 비율 1.3이 넘는 지역은 구월3동, 청라1동, 동인천동, 신포동, 간석1동 등 상업지역이나 연안항이 있는 연안동, 인천대공원이 있는 장수서창동, 여가시설이 많은 용유동 등임. 노인들이 여가시설이 있는 상업지역이나 공원 등에서 낮 시간을 보냄을 알 수 있음. 섬 지역에서 1이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다수임
- 65~74세 남성인구는 신포동, 논현고잔동, 연안동, 오류왕길동, 석남2동 가좌1동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주로 산업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65~74세 여성인구는 동인천동, 간석1동, 석남2동, 신포동 순으로 나타남. 특히 남성이 높게 나타나지 않은 구월4동 등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여성노인이 많은 동은 전통시장이 위치한 경우가 많음

〔그림 2-26〕 남성 노인인구(65~74세) 분포



〔그림 2-27〕 여성 노인인구(65~74세) 분포



(6) 종합 특성

❖ 성·연령별 비율은 생활인구와 주민등록인구가 크게 차이가 없음

- 생활인구의 성·연령별 비율과 주민등록인구의 성·연령별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거의 없음. 보통 대학이나 특정 산업으로 인해 특정 나이대가 주민등록인구보다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인천은 주민등록인구와 흡사한 성·연령별 비율을 보였음
- 이는 인천이 거주자 중심의 매우 안정적 인구 구조를 보여줌을 다시 한번 확인

❖ 10대와 노인의 이동성이 낮으며 특히 65세부터 이동성이 크게 낮아짐

- 주간에 거주지를 떠나는 이동성을 비교하였을 때 출퇴근 인구의 주를 이루는 20~64세까지는 낮시간 거주지에 머무르는 비율이 10% 이하임
- 반면 10대와 65세이상의 노인들은 거주지에 머무르는 비율이 40~60%에 이름
-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동성은 낮아지고 노인 여성일수록 이동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20대는 신도시와 상업지역에 70대 이상은 원도심에 많이 거주

- 20대 청년층은 상업지역과 대학가, 신도시 중심으로 분포하는 경향이 있고 고령층은 원도심에 분포하는 경향이 있음
- 70대 여성의 분포가 70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평균 기대수명이 높은 여성의 인구구조 특성과 독립 거주 비중 증가로 보임
- 20대 청년층은 주로 대학가 및 교육시설 인근 지역에 높은 밀집을 보이는데 20대 남성의 경우 대학 입지 중심의 특성이 뚜렷하고 20대 여성은 대학 주변에서도 오피스텔 밀집 등 상업지역에 거주하는 특성이 있음

❖ 65~74세 노인인구는 주간에 상업지역이나 여가시설이 있는 지역에 많음

- 65~74세 노인인구는 주간에 구월3동, 청라1동, 신포동 등 상업지역이나 연안항이 있는 연안동, 인천대공원이 있는 장수서창동, 용유동 등 여가시설이 많은 곳임. 섬 지역도 높게 나타남

❖ 주간에 65~74세 남성 노인들은 산업지구에, 여성 노인들은 전통시장에 집중 경향

- 낮시간 동안 남성 노인들은 산업지구에 여성 노인은 전통시장에 집중된 경우가 많음. 이것은 65~74세 노동하는 노인들이 남성은 주로 산업지구에서 여성은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음을 유추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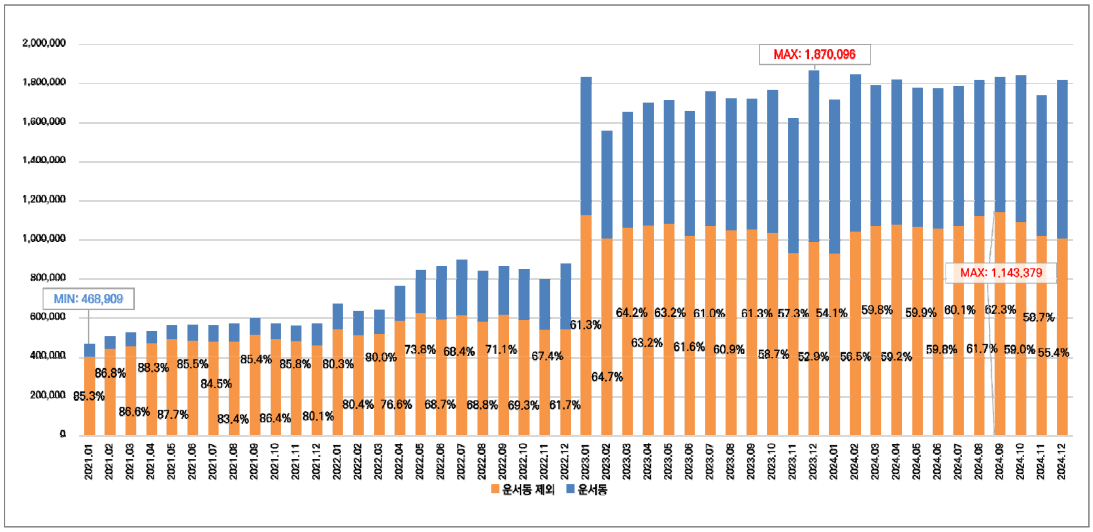
5) 인천 외국인 생활인구 분포 특성

(1) 시계열적 변화

❖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되면서 2023년부터 급격히 증가

-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운서동의 외국인 인구가 전체의 약 40%에 달함. 운서동을 제외하여 산정할 경우, 2021년 월평균 40~60만 명이었던 외국인 인구가 2023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4년 9월에는 114만 명에 이름
  - 외국인 데이터는 월별 단위 자료이며, 2024년 9~10월 평균값을 사용함

〔그림 2-28〕 외국인 생활인구 변화량(2021~2024)



(2) 생활인구 분포

❖ 국제교류 거점 및 산업단지 인근에 집중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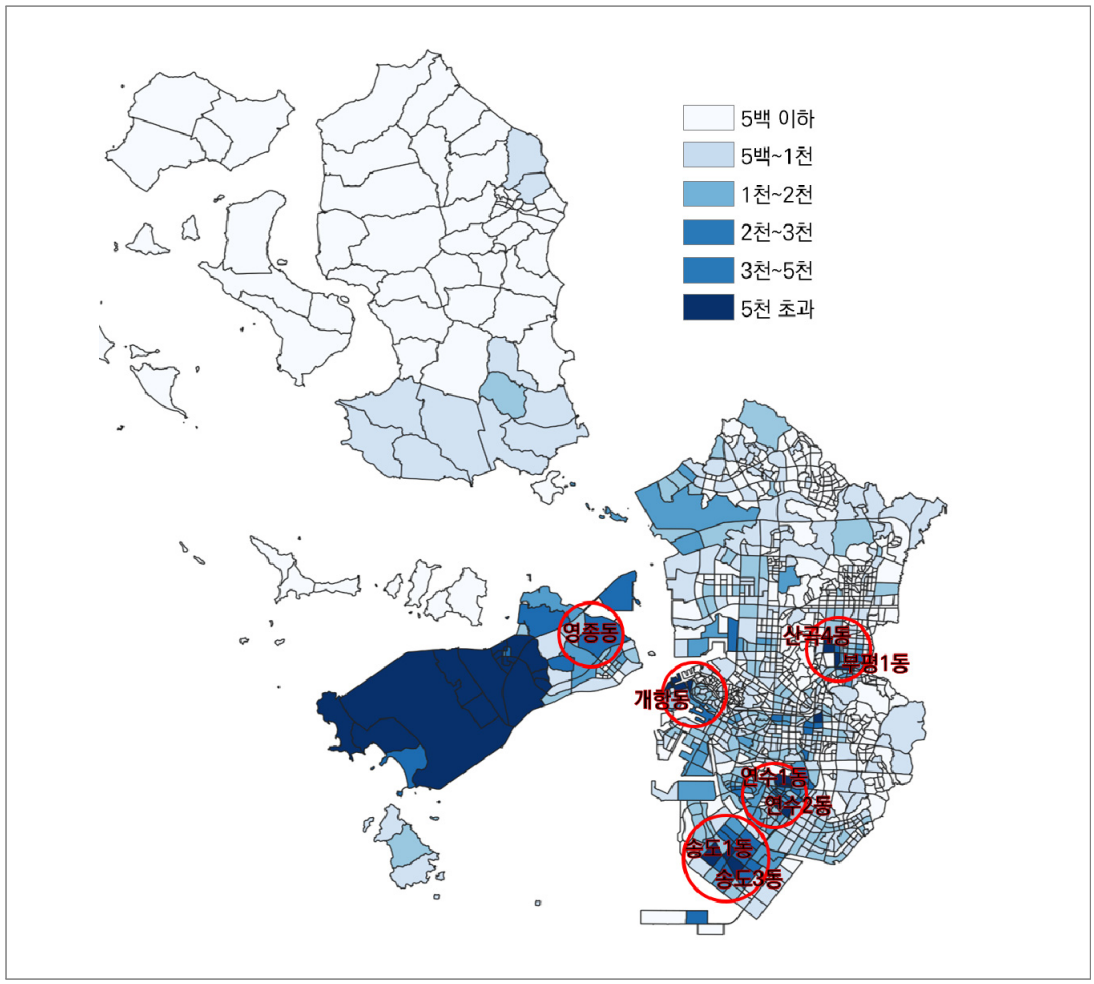
- 인천시 외국인 생활인구는 항만·공항·국제도시 등 국제교류 거점과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며, 중구 영종·운서 일대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는 외국인 생활인구 규모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남
  - 외국인 인구 3만 5천 명 이상 지역은 중구 운서동·용유동, 연수구 연수1동·송도1동으로, 공항, 국제업무지구, 국제학교 등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이 조성된 지역이 해당됨
  - 외국인 인구 2만 5천~3만 5천 명 규모 지역은 중구 개항동·영종동(일부), 연수구 옥련1동·연수2동·송도3동으로, 항만·관광 중심지 및 상업·업무 복합지구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외국인 인구 1만 5천~2만5천 명 규모 지역은 중구 신흥동·영종1동, 연수구 청학동·송도4동, 남동구 간석1동·논현2동·논현고잔동, 부평구 부평1동·부평5동·산곡4동, 서구 석남2동·오류왕길동 등이 해당되며, 제조업·물류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한 산업단지 및 전통 상권 인근에 위치하는 특징을 지님

〔표 2-6〕 행정동별 외국인 생활인구 현황

외국인 인구	중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15,000~25,000명	신흥동, 영종1동	청학동, 송도4동	간석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부평1동, 부평5동, 산곡4동	석남2동, 오류왕길동
25,000~35,000명	개항동, 영종동	옥련1동, 연수2동, 송도3똥	-	-	-
35,000명 이상	운서동, 용유동	연수1동, 송도1동	-	-	-

〔그림 2-29〕 외국인 생활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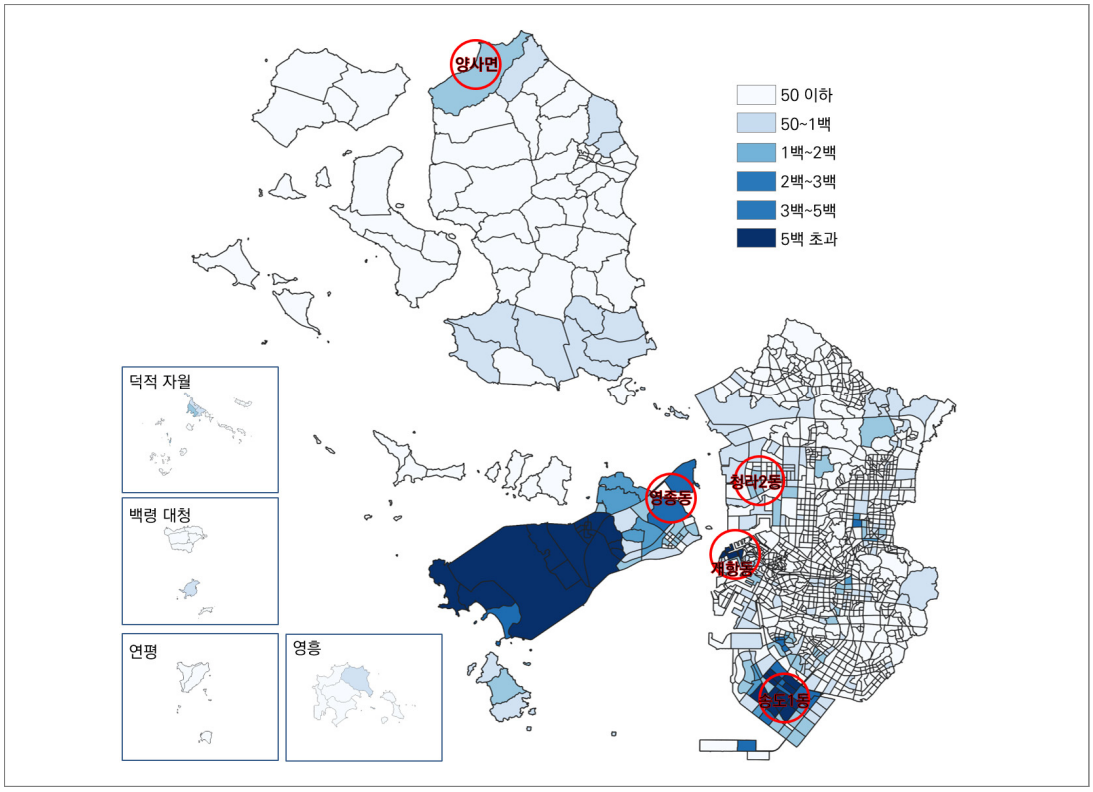


(3) 출신국가별 분포

❖ 북미: IFEZ 전역에 집중 분포

- 북미 출신 외국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전역에서 높은 밀집도를 보였으며, 송도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등 3대 거점 지역에서 100명 이상 수준의 분포가 확인되었고, 특히 영종과 송도국제도시 경우 500명 초과 구역이 넓게 형성되어 있음
- 이러한 분포는 국제업무·교육·주거가 결합된 정주환경, 국제학교 및 다국적 기업 입지, 우수한 교통·물류 접근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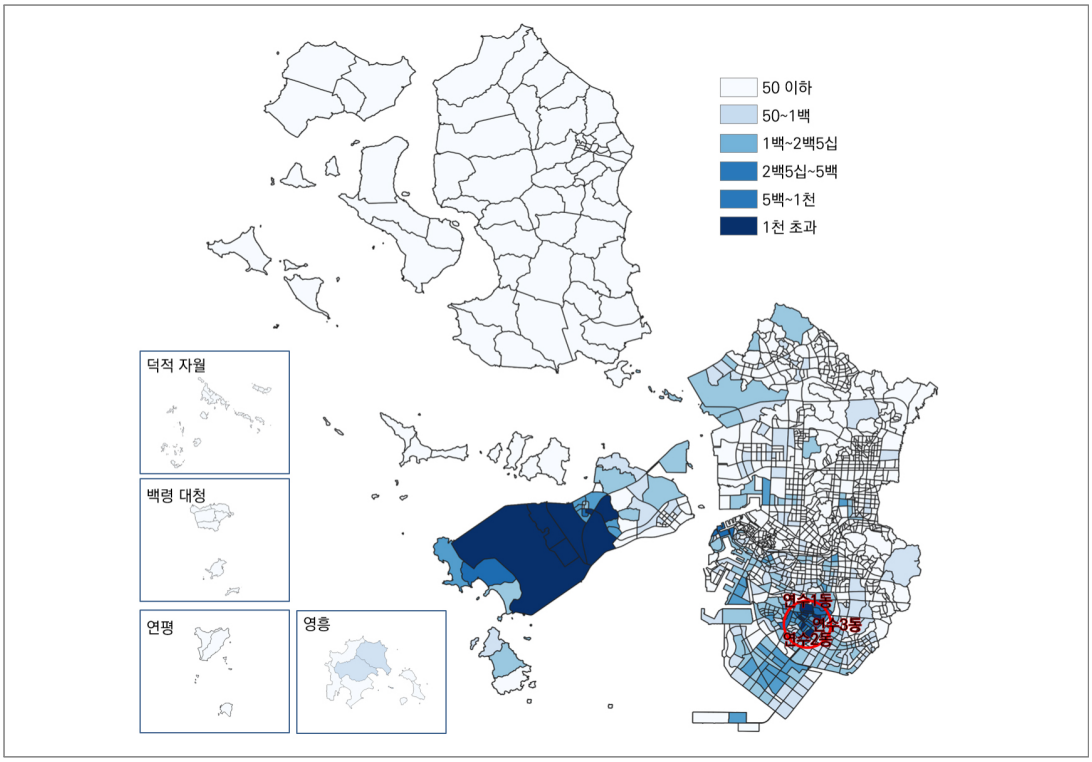
〔그림 2-30〕 북미 출신 생활인구 분포



❖ 러시아: 연수구 원도심, 영종·항만 인근 분포

- 러시아 출신 외국인은 연수구 연수1~3동 일대에서 1천 명 이상으로 매우 높은 집중도를 나타냈으며, 일부 영종국제도시와 항만 인근 지역에서도 100~500명 수준의 분포가 관찰됨
- 연수구의 경우 러시아계 동포 커뮤니티가 결집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영종 및 항만 인근 지역은 항공·해운업 종사자와 관광 관련 체류 수요가 분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그림 2-31〕 러시아 출신 생활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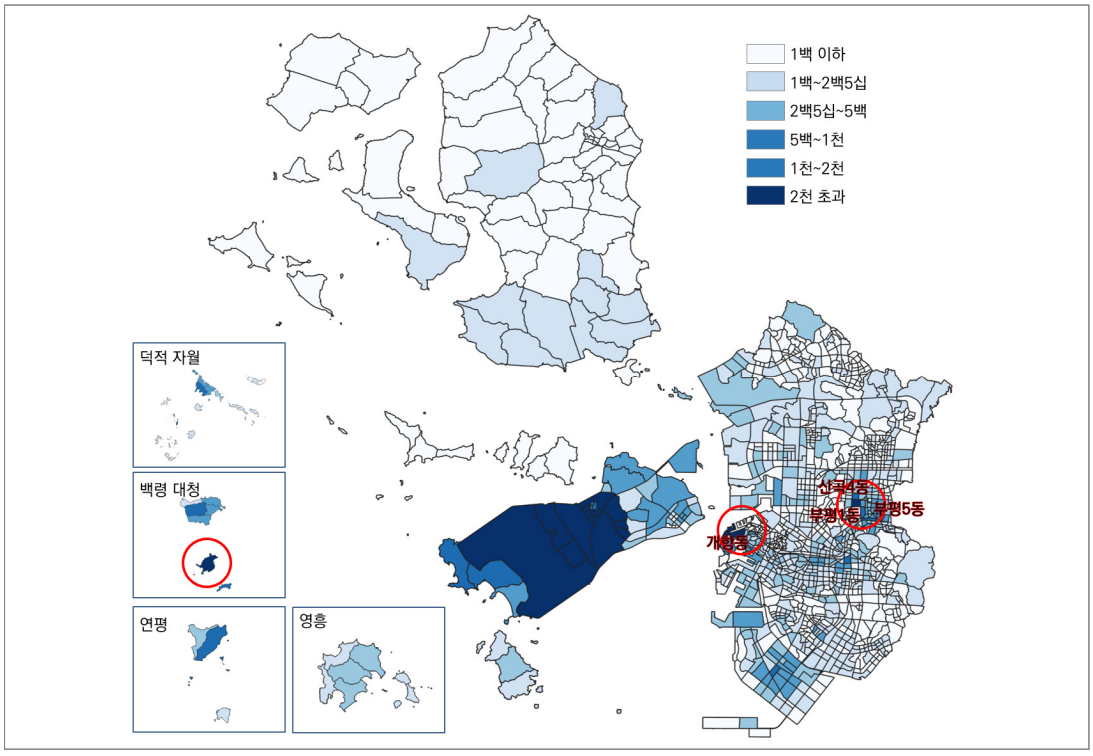
❖ 중국: 중구 개항동, 부평구 산곡4동, 백령면 집중 분포

- 중국계 외국인은 중구 개항동에서 2천 명을 초과하는 매우 높은 밀집도를 보이며, 이는 차이나타운과 주변 상권, 장기 거주 기반의 커뮤니티 형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 부평구 산곡4동의 경우 2천 명 이상, 부평1동, 부평5동 일대 역시 1천 명 이상 분포하고 있으며, 상업·주거 혼합지구이자 교통 결절점 역할을 하는 입지 특성이 반영됨
- 또한 백령면에서 500명 이상의 수준의 거주, 대청면의 경우 6천명 이상의 거주가 확인되는데, 이는 어업 및 가공업 종사자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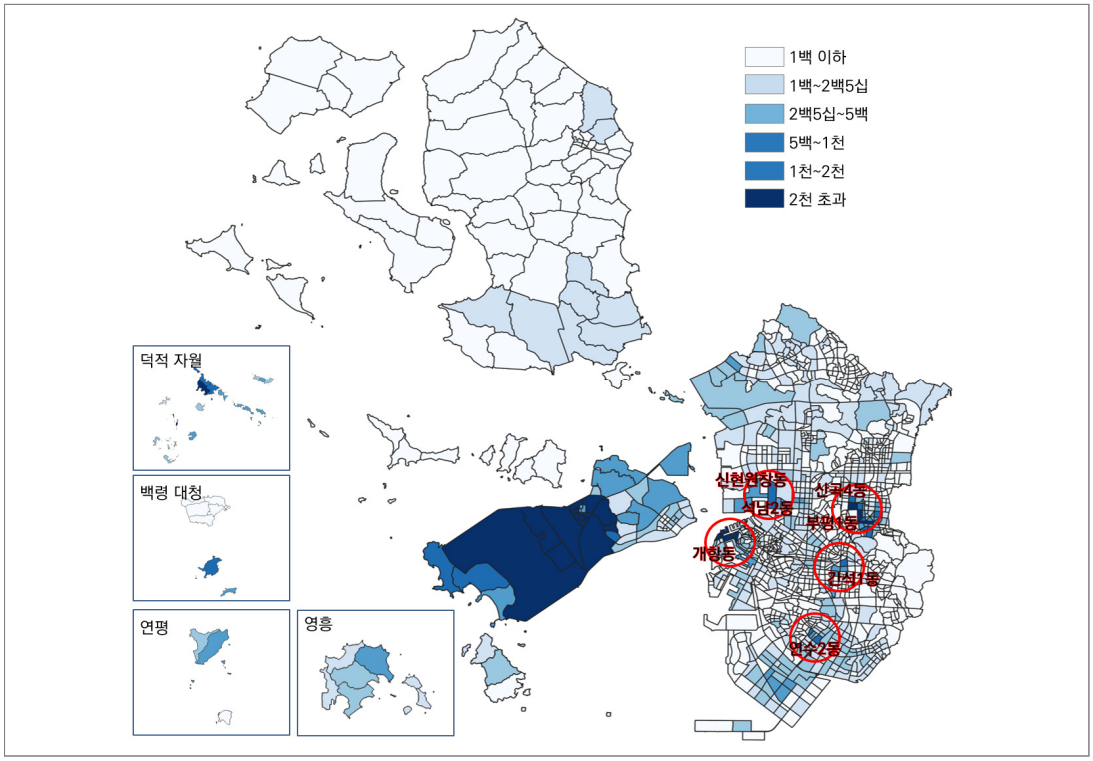
❖ 동남아: 중구 개항동, 부평구, 남동구 등 산업거점에 분포

- 동남아계 외국인은 중구 개항동, 부평구 부평1동·산곡4동과 연수구 연수2동, 남동구 간석동 등에서 1천 명 이상 수준의 밀집 분포가 확인되며, 이러한 지역들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 거주지가 형성된 산업단지 인근이거나, 상업시설 접근성이 높은 도심 지역임
- 또한 동남아계 외국인 역시 백령·대청 등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어업·가공업 관련 종사자와 연계된 거주 특성이 중국계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동남아계의 경우 특정 커뮤니티 중심보다는 산업거점 전반에 분산된 분포가 특징적임

〔그림 2-32〕 중국 출신 생활인구 분포



〔그림 2-33〕 동남아 출신 생활인구 분포



6) 종합 특성

❖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외국인 생활인구 급격하게 증가

- 코로나 19기간 월간 40~60만명이었던 외국인 인구가 2023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월간 110만명에 이름

- 인천공항이 있는 운서동을 제외하고 계산

❖ 출신국가에 따라 분포지역이 달라짐

- 미국, 캐나다 등 북미출신 외국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전역에서 높은 밀집도를 보임. 특이점은 미국 출신 외국인이 강화도 북쪽 접경지역에 분포하는 경향은 군사적 이유로 보임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계 외구인은 연수구 1~3동에 매우 높은 밀집도를 보임. 영종 및 항만 인근 지역에도 집중 지역이 나타남
- 중국계 외국인은 개항장 일대와 부평1동, 부평4동, 산곡동에 밀집에서 나타남. 백령면, 대청면 등 도서 지역에서 높은 밀도를 보임
- 동남아계는 개항동, 부평1동, 산곡4동, 연수2동, 간석동에 집중되어 나타남. 백령, 대청 등 도서 지역에서 높은 밀도를 보임. 중국계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특정 커뮤니티 중심보다 산업거점 전반에 분산 분포함

❖ 외국인 생활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리 필요

- 러시아계는 연수구를 중심으로 중국계는 개항동과 부평지역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음. 최근 미얀마 등 동남아계도 부평 일부거리에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
- 외국인 커뮤니티가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것임

3. 생활인구 유출입을 통한 주요 유입지 분석

1) 유출입량 분석 목적 및 방법

- 도시 내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집중하는 특정 지점을 분석하여 직장, 방문인구 유입의 실질적 중심을 도출하여, 공간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 군·구별 생활인구 유출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인구가 가장 많은 23시와 가장 적은 14시를 기준으로 그 차이를 구하여 유출량을 구함. 직장인구 중심 유입지역은 주중 9시, 방문인구 중심 유입지역은 주중 19시, 주말 14시를 기준으로 도출함
  - 행정동별로 직장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하여 직장인구의 유입이 높은 행정동을 도출하고 250m×250m 격자를 활용하여 업무·산업 유입지를 도출
  - 행정동별로 주중과 주말 방문인구가 높은 14시를 기준으로 하여 방문인구의 유입이 높은 행정동을 도출하고 250m×250m 격자를 활용하여 상업·여가 유입지를 도출

2) 군·구별 유출입 현황

❖ 인천시 전체 19.5만 명 순유출

- 인천시 전체적으로는 유출량은 39.4만 명, 유입량은 19.9만 명으로 순유출입은 19.5만 명이 유출되며, 주민등록인구 대비 순유출량은 6.5%를 차지함. 유입지역은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이며, 유출지역은 그 외 지역에 해당함
  - 중구와 동구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작고 공항, 항만, 대규모 공장이 있어 유입인구가 더 크고 강화군, 옹진군도 관광객 등으로 유입이 높음
  -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10%를 초과하는 유출이 크게 나타나며, 이는 인접한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 남동구와 연수구는 주민등록 인구 대비 순유출이 5% 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구월동과 송도동 등 중심지를 포함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 인천 외에서 유입하는 인구는 총 19.9만 명으로, 서울 6.0만 명(30.0%), 경기 13.7만 명(69.0%), 수도원 외 0.2만 명(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서울 유입 인구는 중구와 서구가 각 1.2만 명으로 가장 높으며, 동구 및 도서지역은 1천 명 내외로 낮은 수준임

- 경기 유입 인구는 서구 2.7만 명, 남동구 2.3만 명으로 높게 나타나며, 서울과 마찬가지로 동구 및 도서지역은 낮은 2천~5천 명 수준에 그침

〔표 2-7〕 군구별 생활인구 유출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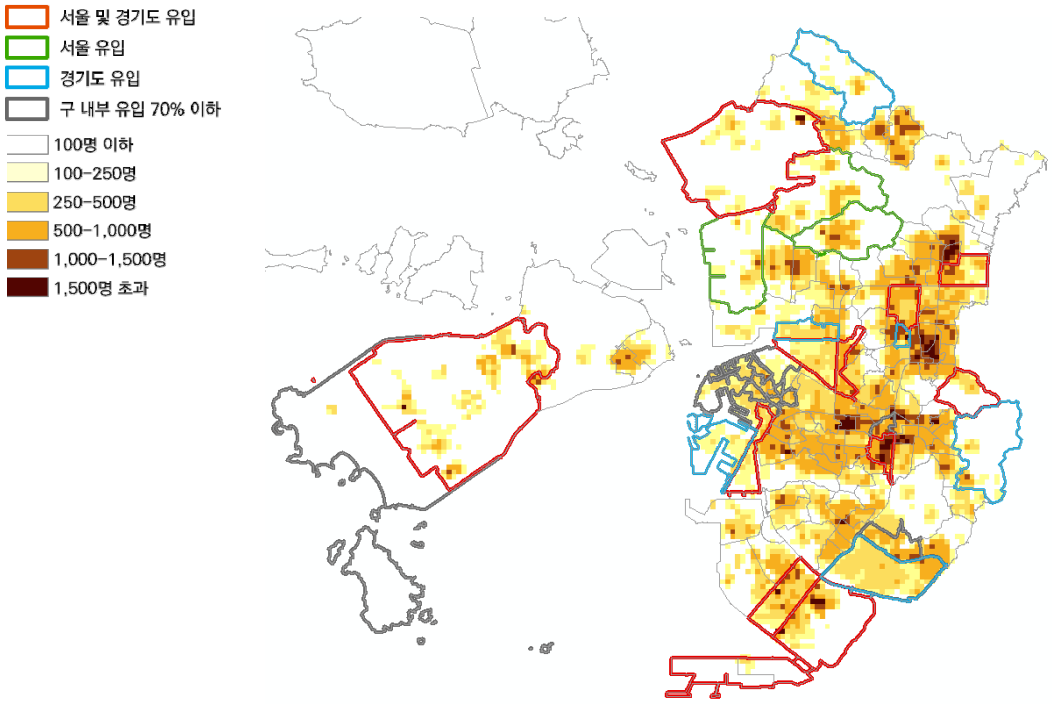
구분	주민등록 인구	유출량	유입					순유출입량		주민등록인구 대비 비율	
			인천타구	서울	경기	수도권 외	소계			유출량	순유출입량
인천시	3,017,224	394,017		59,731	136,970	1,911	198,612	-195,405	**유출**	13.1%	-6.5%
중구	165,590	29,600	50,391	**12,087**	16,176	2,163	80,817	51,217	유입	17.9%	**30.9%**
동구	58,503	20,463	20,083	1,118	2,215	129	23,545	3,082	유입	35.0%	5.3%
미추홀구	411,454	120,863	51,915	5,120	10,608	-180	67,463	-53,400	**유출**	29.4%	**-13.0%**
연수구	399,341	95,280	53,333	7,915	18,900	55	80,203	-15,078	**유출**	23.9%	-3.8%
남동구	487,347	125,801	74,085	6,145	**23,260**	211	103,702	-22,098	**유출**	25.8%	-4.5%
부평구	493,004	150,079	47,364	7,522	19,834	343	75,063	-75,015	**유출**	**30.4%**	**-15.2%**
계양구	281,018	84,226	27,010	5,530	11,961	-47	44,454	-39,771	**유출**	**30.0%**	**-14.2%**
서구	631,847	151,999	63,462	**11,719**	**26,876**	-475	101,583	-50,417	**유출**	24.1%	-8.0%
강화군	69,022	7,252	3,362	1,966	5,298	169	10,796	3,544	유입	10.5%	5.1%
옹진군	20,101	886	1,423	608	1,842	230	4,104	3,218	유입	4.4%	16.0%

3) 직장인구 중심의 유입지역

- 직장인구 중심 유입지역은 서울 유입량 200명 이상 및 유입량 비율 2% 이상, 경기도 유입량 300명 이상 및 유입량 비율 5% 이상이며, 구 내부 유입 70% 이하로 설정함
  - 동일 구 내 이동 비중이 낮고, 외부에서의 유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을 파악하기 위함임
- 분석 결과 서울 및 경기도로부터의 유입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주요 산업·업무지구, 그리고 광역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경계부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서울 및 경기도 유입 지역은 중구 신흥동·운서동, 연수구 송도1동·송도3동, 남동구 구월3동, 부평구 청천2동·일신동, 계양구 작전서운동, 서구 가좌1동·가좌3동·오류왕길동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지역은 국제도시·업무지구, 산업단지 인근, 또는 서울과의 직접 연결성이 높은 교통 거점을 포함하고 있음
  - 구 내부 유입 비율이 70% 이하인 행정동은 중구 신포동·도원동·동인천동·개항동·용유동, 동구 만석동·화수2동·송현3동·송림2동·송림3·5동·금창동, 남동구 간석1동·논현2동·논현고잔동, 강화군 서도면, 대청면 등이 해당되며, 이 지역은 상업·서비스업 중심지, 항만·공항 인근 또는 제조업 기반 산업지역 등으로 외부 거주자의 통근 수요가 높은 특성을 보임

〔표 2-8〕 주중 9시 직장인구 중심 유입지역

군구	서울 유입 유입량 200명 이상+ 유입량 비율 2% 이상	경기도 유입 유입량 300명 이상+ 유입량 비율 5% 이상	구 내부 유입 70% 이하
중구	**신흥동, 운서동**	연안동, **신흥동, 운서동**	신포동, 도원동, 동인천동, 개항동, 용유동
동구	-	-	만석동, 화수2동, 송현3동, 송림2동, 송림3·5동, 금창동
미추홀구	-	-	-
연수구	**송도1동, 송도3동**	**송도1동, 송도3동**	-
남동구	**구월3동**	**구월3동,** 장수서창동, 남촌도림동	간석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부평구	**청천2동, 일신동**	산곡4동, **청천2동, 일신동**	-
계양구	**작전서운동**	**작전서운동**	-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3동, **가좌1동, 가좌3동, 오류왕길동**	**석남2동, 가좌1동, 가좌3동, 불로대곡동, 오류왕길동**	-
강화군	-	강화읍	서도면
옹진군	-	영흥면	대청면



주) 표에서 굵게 표시된 행정동은 「서울 유입」과 「경기도 유입」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임

4) 방문인구 중심의 유입지역

❖ 주중

■ 주중 19시 기준 방문인구 중심 유입 지역은 서울 유입량 250명 이상 및 유입량 비율 5% 이상, 경기도 유입량 600명 이상 및 유입량 비율 10% 이상이며, 구 내부 유입 40% 이하로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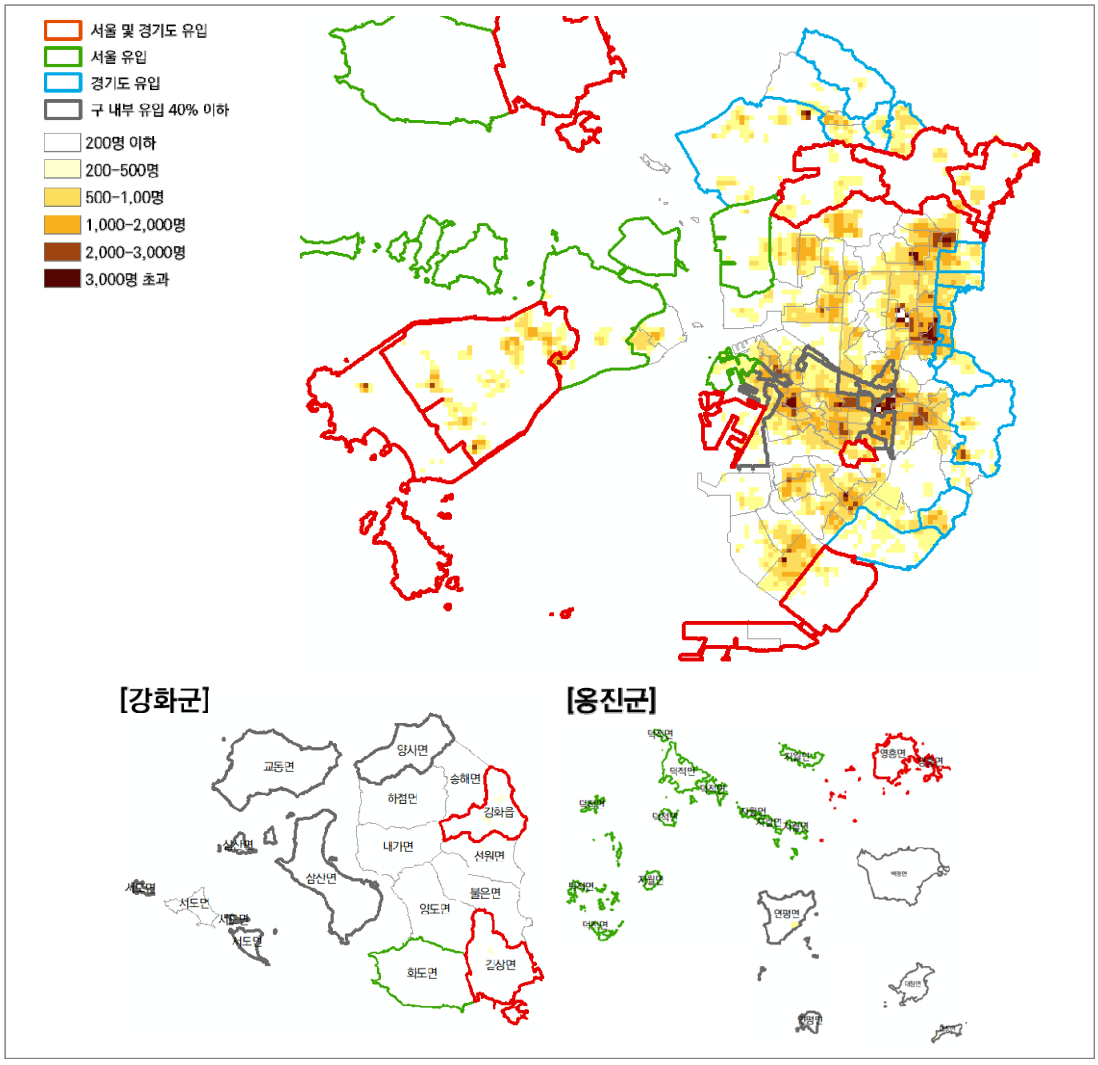
- 서울 및 경기도에서 동시에 유입되는 지역은 중구 연안동·운서동·용유동, 미추홀구 문학동, 연수구 송도3동, 계양구 계양1동·계양3동, 서구 검암경서동, 강화군 강화읍·길상면, 옹진군 영흥면으로 나타남
- 서울·경기도 동시 유입 지역은 광역 교통망과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하는 거점으로 업무기능이 작용하는 공간이며, 서울 유입 지역은 도심·내륙 거점을 중심으로, 경기도 유입 지역은 경계부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분포함
- 구 내부 유입 비율이 40% 이하로 외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중구 신포동·신흥동·동인천동, 동구 송림4동·금창동, 미추홀구 주안5동·주안6동·관교동, 남동구 구월3동·간석4동, 부평구 십정2동으로 상업·서비스업 중심지, 관광지, 또는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저녁 시간대 외부 방문객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

〔표 2-9〕 주중 19시 방문인구 중심 유입지역

군구	**서울 유입** 유입량 250명 이상+ 유입량 비율 5% 이상	**경기도 유입** 유입량 600명 이상+ 유입량 비율 10% 이상	**구 내부 유입** **40% 이하**
중구	**연안동**, 개항동,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연안동, 운서동, 용유동**	신포동, 신흥동, 동인천동
동구	-	-	송림4동, 금창동
미추홀구	**문학동**	**문학동**	주안5동, 주안6동, 관교동
연수구	**송도3동**	**송도3동**	-
남동구	-	장수서창동, 논현1동, 논현고잔동	구월3동, 간석4동
부평구	-	삼산1동,삼산2동, 부개1동, 부개2동, 부개3동, 일신동	십정2동
계양구	**계양1동, 계양3동**	작전서운동, **계양1동, 계양3동**	-
서구	**검암경서동**, 청라3동	**검암경서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오류왕길동, 아라동	-
강화군	**강화읍, 길상면**, 화도면	**강화읍, 길상면**	양사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옹진군	북도면, 덕적면, **영흥면**, 자월면	**영흥면**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주) 표에서 굵게 표시된 행정동은 「서울 유입」과 「경기도 유입」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임

〔그림 2-34〕 주중 19시 방문인구 중심 유입지역 위치



❖ 주말

- 주말 14시 기준 방문인구 중심 유입 지역은 서울 유입량 600명 이상 및 유입량 비율 7% 이상, 경기도 유입량 1,200명 이상 및 유입량 비율 14% 이상이며 구 내부 유입 40% 이하로 설정함
- 주말 오후 2시 방문인구 유입은 평일과 달리 관광·레저·쇼핑 수요가 강하게 반영된 양상을 보임
  - 서울과 경기도에서 동시에 유입되는 지역은 중구 연안동·개항동·영종동·운서동·용유동, 미추홀구 문학동, 연수구 송도3동·송도4동, 남동구 논현1동, 계양구 계양1동·계양3동, 서구 검암경서동·청라3동·아라동, 강화군 강화읍·길상면·화도면·교동면·삼산면, 옹진군 영흥면·자월면으로 나타남

■ 서울과 경기 동시 유입 지역은 국제업무·관광 복합지구, 광역 교통거점, 해양·도서 관광지가 주를 이룸

- 송도·영종, 계양·서구 북부, 강화·옹진 주요 도서지역 등은 서울과 경기도 모두로부터의 접근성이 높아 복합 유입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서울 유입 지역은 대규모 상업·업무지구에서 두드러지며, 경기도 유입 지역은 경기와의 경계부에 위치한 거주지와 산업 거점으로 나타남

■ 구 내부 유입 비율이 40% 이하로 외부 방문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상업·서비스업 중심지, 관광지, 또는 산업거점으로 주말 오후 시간대 외부 방문객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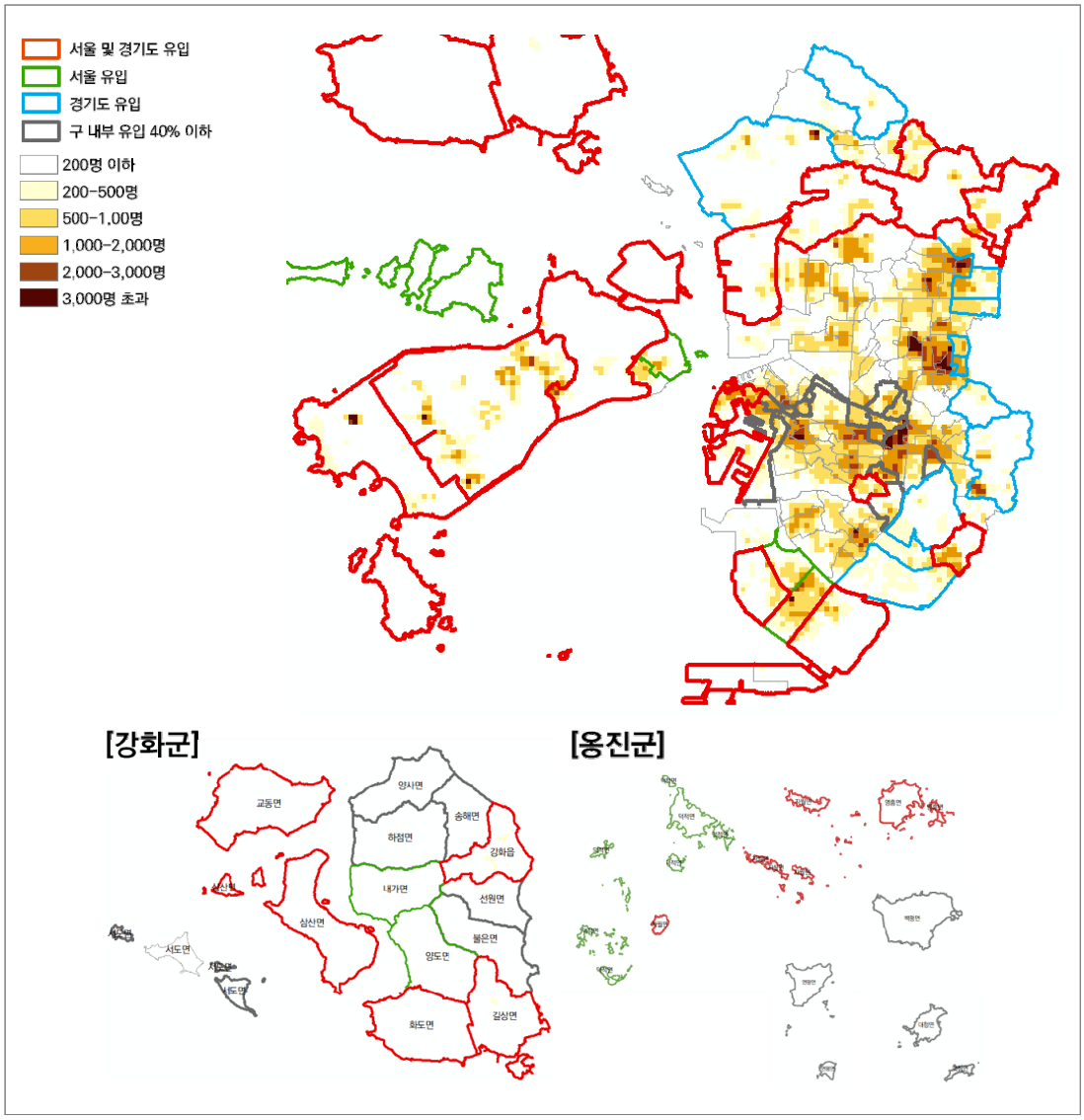
- 구 내부 유입 비율이 40% 이하로 외부 방문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중구 신포동·신흥동·동인천동, 동구 송림3·5동·송림4동·금창동, 미추홀구 주안5동·주안6동·관교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4동·간석4동, 부평구 십정1동·십정2동, 강화군 선원면·불은면·하점면·양사면·송해면·서도면, 옹진군 백령면·대청면·연평면으로 나타남

〔표 2-10〕 주말 14시 방문인구 중심 유입지역

군구	서울 유입 유입량 600명 이상+ 유입량 비율 7% 이상	경기도 유입 유입량 1,200명 이상+ 유입량 비율 14% 이상	구 내부 유입 40% 이하
중구	**연안동, 개항동, 영종동,** 영종2동, **운서동, 용유동**	**연안동, 개항동,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신포동, 신흥동, 동인천동
동구	-	-	송림3·5동, 송림4동, 금창동
미추홀구	**문학동**	**문학동**	주안5동, 주안6동, 관교동
연수구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송도3동, 송도4동**	선학동
남동구	**논현1동**	장수서창동, 남촌도림동, **논현1동**, 논현고잔동	구월4동, 간석4동
부평구	-	부평2동, 삼산1동, 부개2동, 부개3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
계양구	**계양1동, 계양3동**	작전서운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
서구	**검암경서동, 청라3동, 아라동**	**검암경서동**, **청라3동**, 불로대곡동, 오류왕길동, **아라동**	-
강화군	**강화읍,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교동면, 삼산면**	**강화읍, 길상면,** **화도면, 교동면, 삼산면**	선원면, 불은면,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서도면
옹진군	북도면, 덕적면, **영흥면, 자월면**	**영흥면, 자월면**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주) 표에서 굵게 표시된 행정동은 「서울 유입」과 「경기도 유입」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임

〔그림 2-35〕 주말 14시 방문인구 중심 유입지역 위치



5) 분석 종합

❖ 인천시는 하루 19.5만명의 순유출 발생. 부평구, 계양구, 미추홀구에서 유출이 큼

- 시간대별 인구변화로 구별 유입·유출을 비교하였을 때 인천시는 하루 19.5만명의 순유출이 발생함
- 서울과 가까운 계양구와 부평구와 경인선이 통과하는 미추홀구는 유출량이 약 30%이며 순유출은 13~15% 정도임. 주요 업무지가 있는 남동구와 연수구는 유출량이 24~26% 정도이지만 유입량도 많아 순유출입량은 3.8~4.5%정도임
- 유입·유출은 일자리와 직결이 있으므로 유출입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의 자족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

❖ 서울과 경기에서 직장인구 유입이 큰 곳은 IFEZ와 산업지구, 시 경계부

- 서울과 경기에서 직장인구와 주중 방문인구의 유입이 큰 곳은 일자리가 많은 IFEZ와 산업지구임. 시 경계부는 인근 경기도의 유입인구가 많은 편임
- 서울과 경기 유입은 작지만 인천의 타구에서 유입이 높은 곳은 인구가 작은 중구의 내륙지역과 동구이고, 남동구의 간석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등임. 주로 상업, 서비스업 중심지나 항만, 제조업 중심지 등임

❖ 주중 방문인구가 높은 곳은 공항·항만지역, 환승역, 섬 지역

- 서울과 경기에서 주중 방문인구가 높은 곳은 연안동, 운서동 등 항만과 공항이 있는 곳임. 공항철도와 환승역이 있는 계양1동과 검암경서동도 방문인구가 많음
- 송도3동은 업무 중심지로서 주중 방문인구도 높음
- 신포동, 신흥동, 동인천동, 주안동, 구월3동은 인천 타구에서 방문인구가 많음

❖ 주말 방문인구가 높은 곳은 개항장, 송도, 섬 지역 등 관광·레저·쇼핑 수요 높은 지역

- 주말 방문인구는 공항, 항만, 환승역, 섬 지역 등에 주중보다 유입량이 훨씬 증가함
- 대부분의 섬 지역에 서울과 경기 유입이 증가함
- 상업지가 발달한 송도3동, 청라3동, 논현1동도 유입량이 많아짐

❖ 서울과 경기까지 유인력이 높은 곳 송도3동 〉 구월3동

- 송도3동은 직장인구, 주중 방문인구, 주말 방문인구의 구성에서 서울과 경기에서도 유인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구월3동은 직장인구에서는 서울과 경기에서도 유인력이 있어지만 방문인구는 인천에서만 유인력을 가지고 주중 방문인구만 유효하게 나타남
- 개항동, 신포동, 동인천동은 주로 인천 내에서 유인력을 갖지만, 개항동은 방문인구로 서울, 경기까지 유인력을 가짐
- 부평1동, 부평5동은 생활인구가 매우 밀집된 지역인데 주요 유입지로 나타나지 않음. 서울이나 경기에서 유입량은 낮은 편이지만 인천 타 구에서 유입량 자체는 높음. 그러나 부평구 내의 생활인구가 많아 타 구의 유입량이 많은데도 유입비율은 낮게 나타남

4. 생활인구 특성 소결

- 인천의 생활인구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주민등록인구와 생활인구가 유사한 안정적 구조를 보이면서도, 시간대 및 지역별로 상이한 활동 패턴이 존재함을 확인함. 특히 인천은 주·야간 인구 차이가 크지 않아 거주자 중심의 도시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업무·산업 기능이 집중된 송도, 남동공단, 논현고잔 지역 등에서는 주간 생활인구가, 주거 중심 지역에서는 야간 생활인구가 두드러지는 등 지역별 기능에 따른 인구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남
- 또한, 성·연령별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20대 청년층은 신도시나 상업지역, 70대 이상 고령층은 원도심에 주로 분포하며, 성·연령별로 서로 다른 활동 반경을 가지는 특성이 확인됨. 외국인 생활인구 또한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하며 국적별로 상이한 밀집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 기반의 다문화 지원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부각됨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적인 주민등록인구 자료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도시의 실제 활동 밀도와 이동행태를 보여줌. 생활인구 데이터는 특정 시점에 실제로 도시 내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분포와 변동을 반영하므로써, 시간대별 수요 변화와 공간적 불균형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동태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생활인구 데이터는 단순한 인구 현황 분석을 넘어, 도시계획과 관리, 생활SOC 공급, 교통·상권·안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데이터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

단행본/연구보고서

김동영·이중섭·송용호. (2020). 전북 체류인구 활성화 방안. 전북연구원.

안소현·차미숙·유희연·강민석. (2023).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이소영·김도형. (2021). -작지만 강한 연결-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원도·이소영·홍근석. (2023).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김필두·이대연. (2021). 행정수요의 실질적 반영을 위한 새로운 인구개념 검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학술지/학위논문

김해솔·고승욱·이승일. (2024). 서울시 지역특성과 교통접근성이 주중/주말 생활인구 분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토계획, 59(4), 53-68.

박정호·진영주·양주나. (2025). 용도지역별 생활인구 영향요인의 공간적 범위 분석: 다중범위 지리가중회귀 모형의 적용. 토지주택연구, 16(1), 17-41.

변미리·서우석. (2011). 도시 거리의 주간활동인구 측정과 해석: 서울시 유동인구 조사 사례. 조사연구, 12(2), 27-50.

원유복. (2018).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 추계. 지역정보화, 113, 19-23.

이삼수·윤병윤·이미홍·권영환. (2023). 생활인구의 산정방식 및 도시정책 활용을 위한 이슈 고찰. 도시부동산연구, 14(4). 69-87.

이유진·최명섭. (2018). 노인 인구 밀집지역의 시공간적 분포와 결정요인 분석-서울 생활인구 빅데이터의 활용-. 서울도시연구, 19(4), 149-168.

임태경. (2024). 인구감소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인구 유입 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8(4), 125-154.

조항훈·김성아. (2025). 서울시 야간 생활인구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요인 분석: 야간 생활인구의 등급화를 통한 접근. 토지주택연구, 16(1), 59-72.

카마타 요코·남광우. (2023). 도시활력 측정을 위한 생활인구 특성 분석-이동통신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지리정보학회지, 26(4), 173-187.

법률과 특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0866호). 2025.4.1.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996호). 2021.12.31. 〔일부개정〕

☐ 보도자료/신문기사

부산광역시. (2014. 9. 3.).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산시, 최초의 '부산서비스인구통계' 개발. 보도자료. https://www.busan.go.kr/nbtnews/157820(검색일: 2025년 8월 1일)

03

시민의 일상을 담은 생활도시 인천만들기

03

시민의 일상을 담은 생활도시 인천만들기

이종현(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신형준(도시공간연구부 부연구위원)

1. 생활권의 의미와 공간 범위 설정

1) '시민의 일상을 담은 생활도시'의 개념 및 정의

- '시민의 일상을 담은 생활도시'는 일상생활의 기본 단위인 생활권(Life-zone)을 도시계획의 핵심 구조로 설정하고, 이를 보행 중심의 공간 체계 구성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개념임
  - 단순히 행정구역 중심으로 기능을 배치하는 기존의 도시계획적 틀에서 벗어나 시민의 일상적 행위와 생활 동선을 중심으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점에서 기존의 계획과 차별성이 있음
- 특히, 보행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계획은 주거지와 일터, 생활편의 시설 및 공공서비스, 여가·문화 등 도시 내 생활서비스 공간이 15분 내외의 보행 거리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생활권계획은 15분 보행생활권을 기준으로 주거, 일자리, 생활SOC, 문화·여가 시설을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함[8)]
  - 이러한 도시구조는 교통 수요 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건강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생활시설 접근성 제고 등이 가능함

8) 성은영·강현미·허재식. (2021). n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전략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 일상을 담은 생활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생활권의 공간단위를 설정하고 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의함
- 대생활권(자치구 단위), 중생활권(행정동 단위), 소생활권(보행중심)으로 위계를 구분함
  - 대생활권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치구 단위의 생활권역을 의미함
  - 중생활권은 인접 지역 간 연계성을 고려하고 있는 행정동 단위의 생활권역을 의미함
  - 소생활권은 철도역을 기반으로 설정되는 보행중심의 일상공간을 의미함
- 생활권 특성에 따른 전략 및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 생활권 단위인 소생활권(일상생활권)을 주요 공간으로 다루고자 함

2)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설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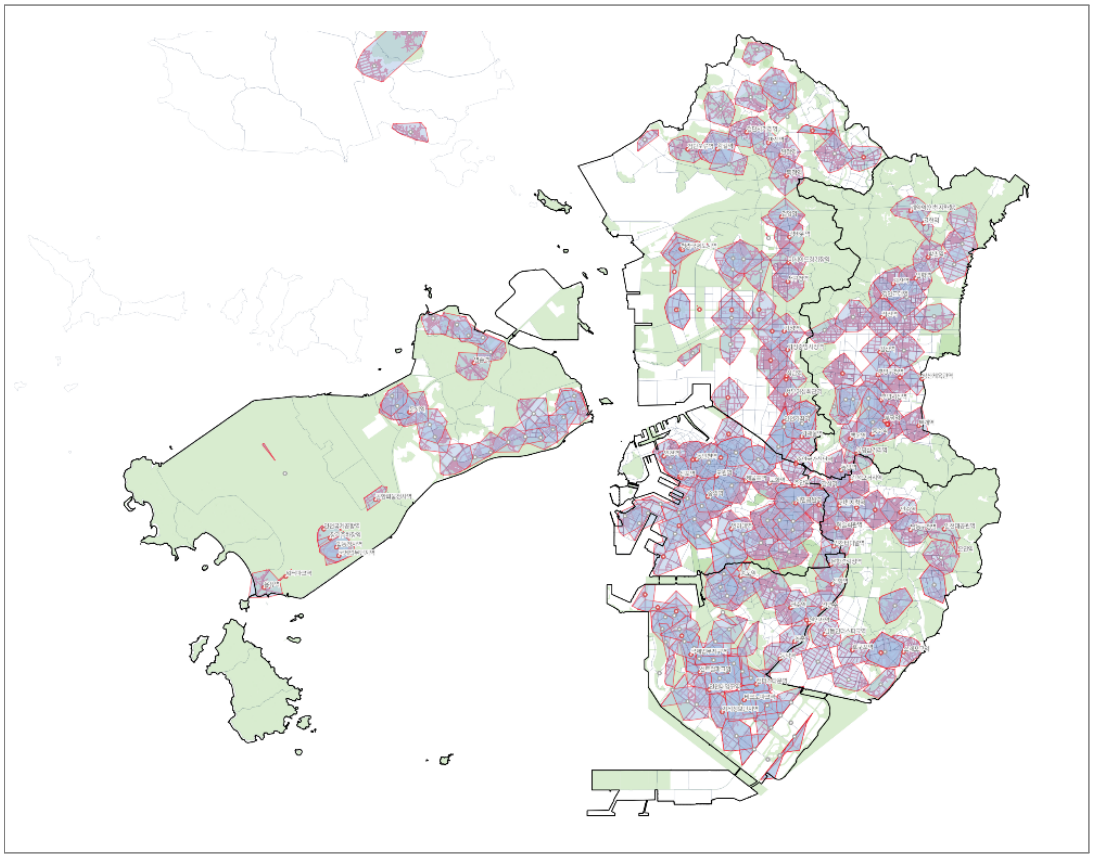
- 역세권을 기준으로 하는 보행 중심의 생활권을 일상생활권으로 정의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시 및 주거 기능의 입지를 살펴보기 위해 공간 범위의 기준을 설정함
  - 일상생활권은 앞서 살펴본 생활권 유형 중 소생활권에 해당함
- 철도역으로부터 15분 이내에 도달 가능한 공간적 범위의 설정을 위해 철도역을 기준으로 접도한 도로네트워크를 분석하여 활용함
  -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용도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구역을 설정하며, 주거기능이 혼재된 준공업지역도 포함됨

3) 일상생활권 범위 설정 방법

❖ 역세권 기준 15분 보행가능구역 분석

- 철도역사를 POINT로 하여 접한 도로를 통해 1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구역을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도출함
- 수치지형도의 도로중심선을 활용하여 도로 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행시간 15분과 보행속도 4㎞/h를 적용함
- 철도역 위치는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시한 철도 계획을 참고하여 향후 2040년을 기준으로 철도역사가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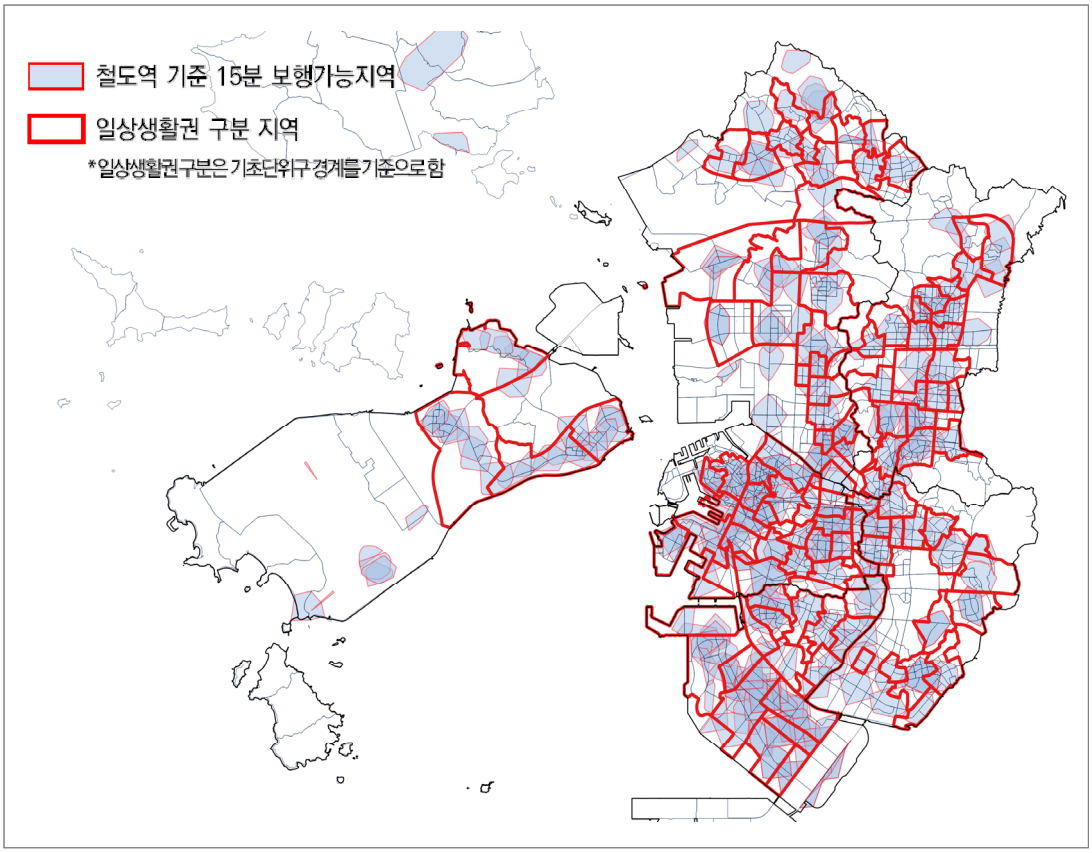
〔그림 3-1〕 철도역 기준 15분 보행 가능구역



❖ 지형 및 도시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일상생활권 범위 설정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된 15분 보행가능구역을 기준으로 생활권 구분에 중요한 도시계획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용도지역(주거, 상업, 준공업), 지형(레벨 차이), 역 출입구의 위치, 보행 단절을 야기하는 대로 등이 해당됨
  - 건널목을 건너야 하거나 대로로 단절된 지역인 경우에는 1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짧음
  - 또한 역 출입구가 없는 방향, 언덕 등 지형의 높낮이가 다른 경우 등 보행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적 현황을 검토하여 구역계 설정 시 반영함
- 구역 설정의 명확성 및 데이터 구축 등의 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도로를 기준으로 일정 이상의 인구를 고려하여 구분된 도시공간의 최소단위인 기초단위구역을 활용하여 일상생활권 구역계를 최종적으로 설정함

〔그림 3-2〕 일상생활권 범위 설정



2. 인천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일상생활권 유형화

1) 분석 방법

- 생활권 내 실제 활동 인구의 분포와 흐름을 반영하여 생활권의 유형을 분류함
  - 기초단위구를 공간 단위로 하여 생활인구 데이터(상주, 직장, 방문)의 일 평균값을 적용함
- 동일 생활권 안에 다양한 생활인구 유형이 혼재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생활권 유형을 설정함
  - 철도역과 가장 인접한 지역의 특성 고려
  - 생활인구 전체 값 높은 지역의 특성 고려

[표 3-1] 생활인구 데이터 활용(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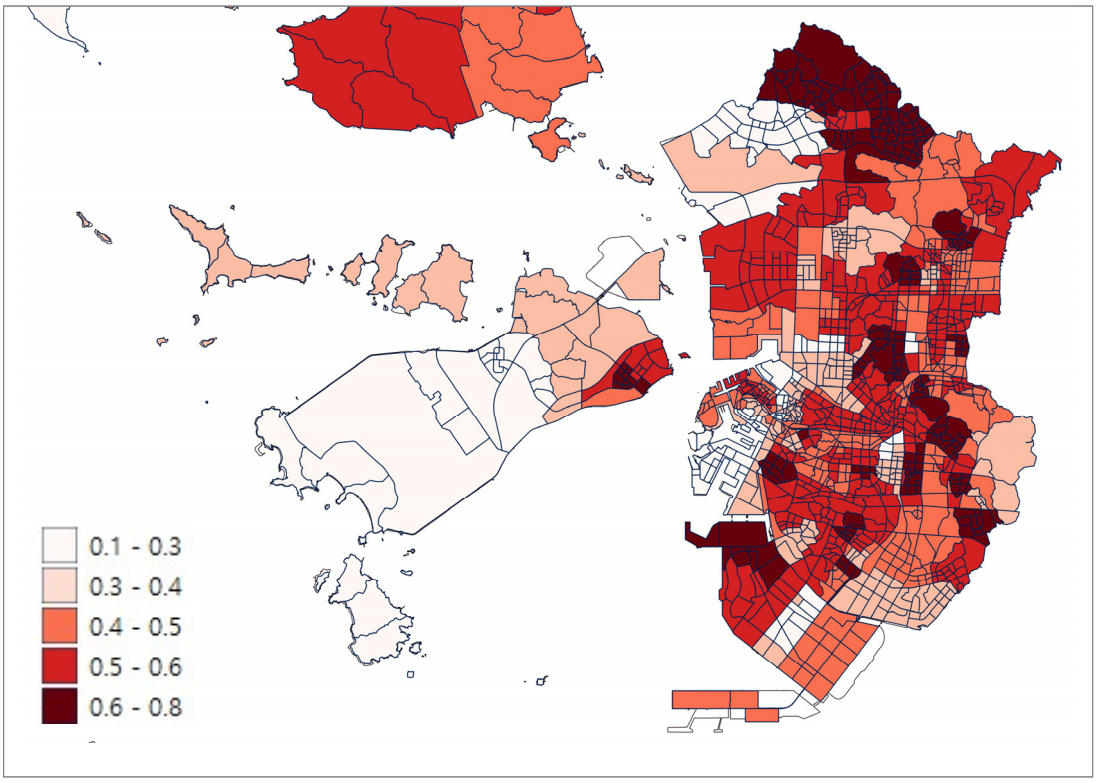
구분	공간 단위	분석 내용	시간/연령 기준
생활인구	**기초단위구**	• 상주인구/직장인구/방문인구 비율	일 평균

2) 생활인구 특성 분석

❖ 상주인구 비율

- 인천의 생활인구 전체에서 상주인구에 해당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단위구별로 상주인구가 최소 10%에서 최대 80%까지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함
- 상주인구 비율에 따라 등개수를 기준으로 하여 5분위로 분류한 결과, 상주인구 비율이 30% 이하로 매우 낮은 지역은 검단오류공단, 남동국가산단, 인천내항 및 남항 일대, 북항 일대, 인천공항 일대 등 공업기능 및 녹지 등이 위치한 곳으로 파악됨
- 상주인구 비율이 30~50%인 지역은 공업지역 및 녹지와 연접한 지역이거나 상업, 준공업 용도로 주거 외에 다른 기능을 하는 공간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검토됨
- 상주인구 비율 50% 이상인 지역은 저층주거지 및 아파트 등 주거지역으로 파악됨
  - 상주인구 비율 50~60%인 지역은 저층·저밀 주거 밀집지와 중·고층 아파트가 혼재한 주거지역이 다수 해당됨
  - 상주인구 비율 60% 이상으로 높은 지역은 인천시 신·구 택지개발지구와 대단지 아파트 및 고밀·고층 공동주택 밀집지 등이 주로 분포한 지역으로 확인됨

〔그림 3-3〕 상주인구 비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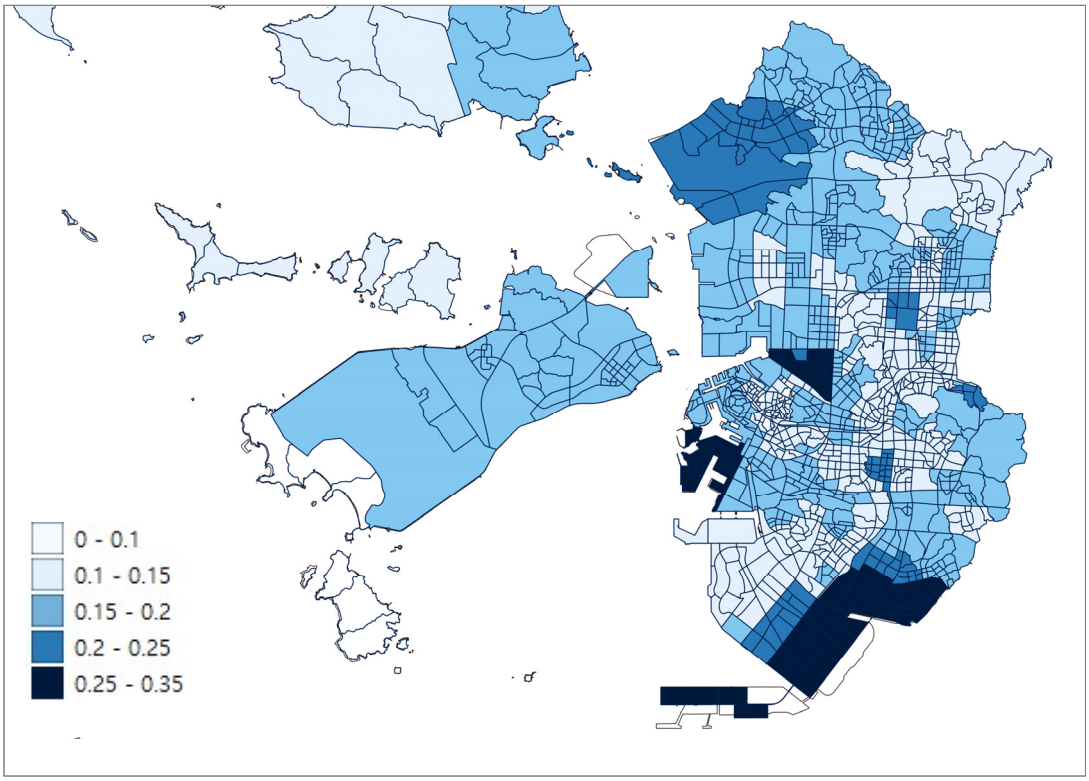
❖ 직장인구 비율

- 인천의 생활인구 전체에서 직장인구에 해당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단위구별로 직장인구가 최소 7%에서 최대 35%까지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함
- 직장인구 비율에 따라 등개수를 기준으로 하여 5분위로 분류한 결과, 직장인구 비율이 10% 미만으로 낮은 지역은 용유, 도원, 송림, 송현동 지역 등 동구와 영종 지역에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함
- 직장인구 비율 10~15%인 지역은 주로 업무 및 산업입지가 어려운 경인전철 주변의 원도심 주거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청라·송도국제도시 지역에서도 주로 주거기능이 밀집한 지역이 포함됨
- 직장인구 비율 15~20%의 비율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

  - 주요 지역으로는 인천내항 일대, 영종도 등 산업입지가 많이 분포한 지역들이 주로 나타나며, 상업지역을 다수 분포한 지역인 부평역 일대, 주안역 일대, 간석오거리 일대, 소래포구 일대와 공공기관(군·구청 등) 및 대학 등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도 다수 포함됨

- 직장인구 비율 20% 이상인 지역 중 매우 높은 직장인구를 나타내는 지역으로 주로 인천남항 일대, 남동국가산업단지, 인천일반산업단지, 송도 바이오산업 밀집지이며, 이 외에 검단오류공업단지, 부평국가산단, 인천시청 일대와 남동산단 및 송도바이오 밀집지와 인접한 지역 등이 있음

〔그림 3-4〕 직장인구 비율 분포



❖ 방문인구 비율

- 인천의 생활인구 전체에서 방문인구에 해당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단위구별 방문인구가 최소 10%에서 최대 80%까지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함
- 방문인구 비율에 따라 등개수를 기준으로 하여 5분위로 분류한 결과, 방문인구 비율이 25% 이하로 가장 낮은 분위에 해당하는 지역은 송도바이오 산업 밀집지, 검단신도시, 검암지역, 만수, 서창 등 상주인구 비율이 매우 높거나 직장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 다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주거기능이 강한 지역일수록 특화된 상권, 관광자원, 대규모 교통거점 등이 부족하여 방문인구 유입 요인이 부족한 특성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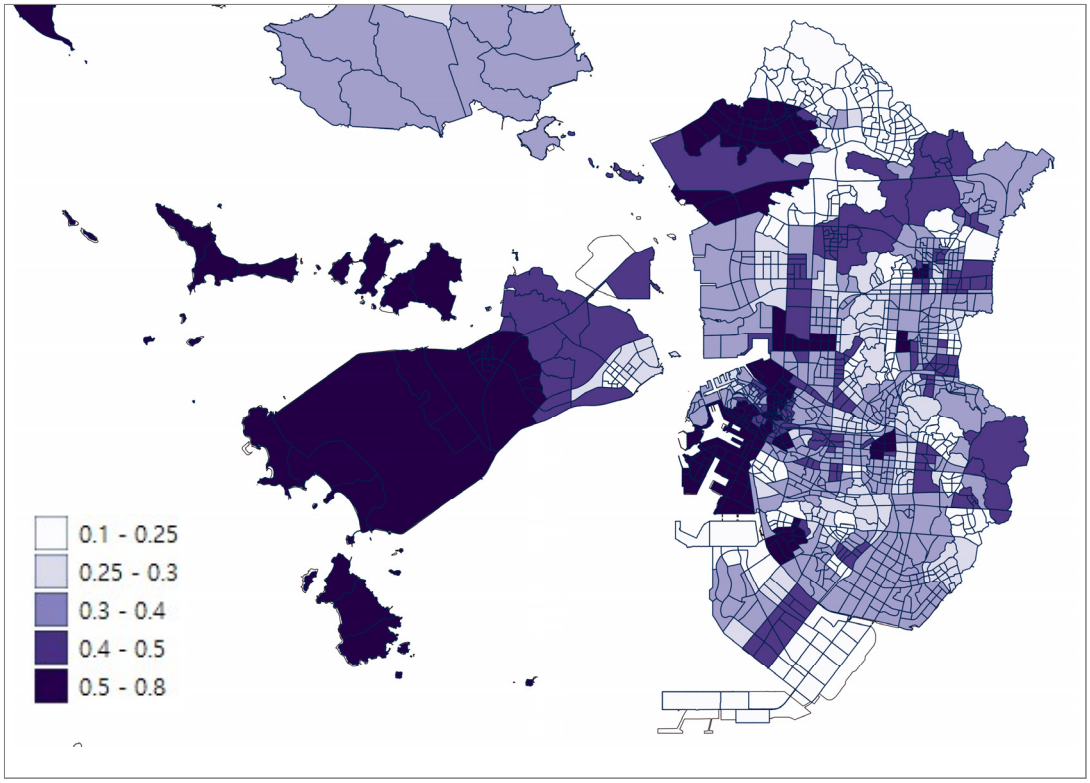
- 산업 유형 중 연구 기반의 R&D 산업이 입지한 경우, 업무 특성상 이동 및 방문 등이 적은 특성을 보임

■ 방문인구 비율 40% 이상인 지역 중 계양산, 인천대공원, 아시아드경기장, 계양경기장, 도원 축구전용경기장 등 공원 및 체육시설이 위치한 지역이 다수 포함됨

■ 방문인구 비율 5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 지역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지역과 관광지인 용유, 인천 개항장 일대, 송도유원지 일대 등이 포함되며, 이 외에는 인천남항, 작전역, 캠프마켓, 인천시청 일대 등으로 나타남

- 방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살펴보면, 공항, 항만을 포함한 지역과 공업단지 주변 지역, 주요 관광지, 행정·업무밀집지 등이 포함됨

〔그림 3-5〕 방문인구 비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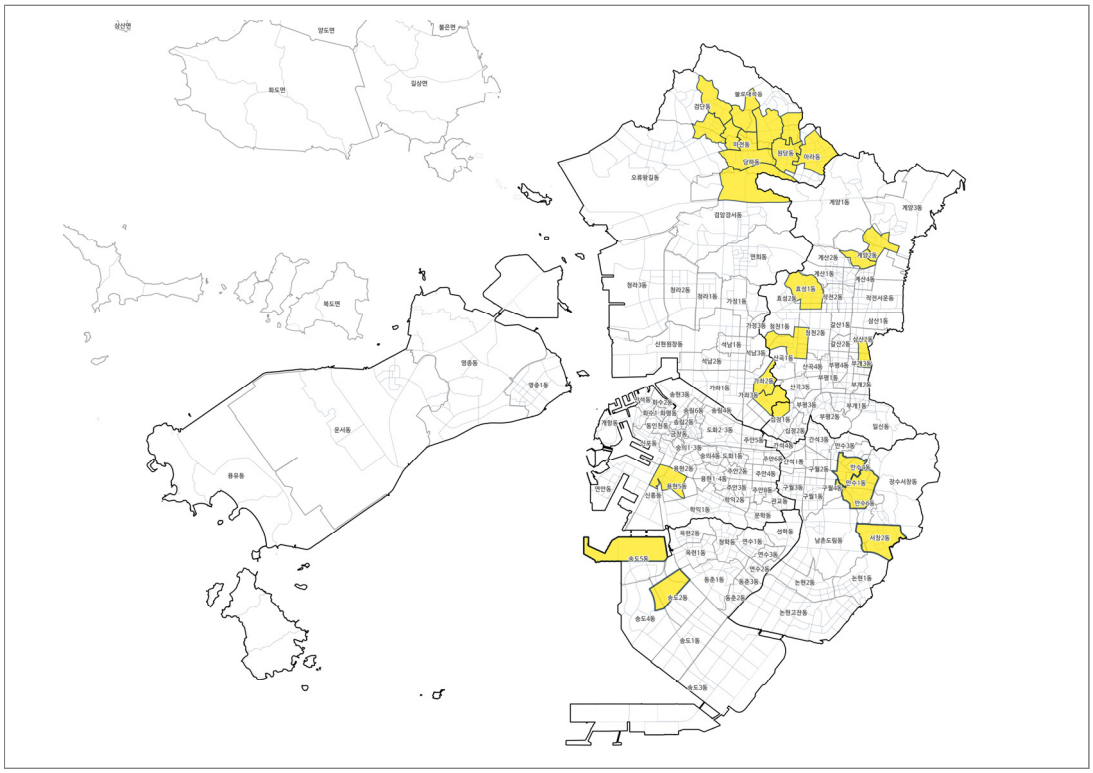


3) 일상생활권 유형 분류 및 특성

(1) 상주인구 우세형 (상주≥60%, 직장<20%, 방문<25%)

- 상주인구 우세형은 상주인구 비율이 60% 이상인 지역을 기준으로, 직장인구 비율 20% 미만, 방문인구 25% 미만인 지역에 해당하는 일상생활권 유형임
- 상주인구 우세형은 높은 상주인구 비중 대비 직장 및 방문인구가 낮은 지역으로, 자족성이 부족한 주거지 중심의 택지개발지구 및 신도시 등이 다수 해당됨
  - 계양, 서구 검단, 남동구 만수·서창, 연수 송도 일부지역 등 대체로 시가지형 주거단지나 도심 외곽의 주거지 중심 지역이 많음
-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주로 중·대형 아파트 단지 위주로 구성된 곳이 많으며,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임
- 서울 및 인천 내 주요 산업·업무지구로 출퇴근하는 패턴이 일반적인 지역이므로 직주균형을 도모하며,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전략 및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거주민 기반의 생활권으로 학교, 공원, 근린상업시설, 소규모 오피스 등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필요한 시설 입지 및 주거환경을 고려한 공간 전략 추진이 우선되어야 하는 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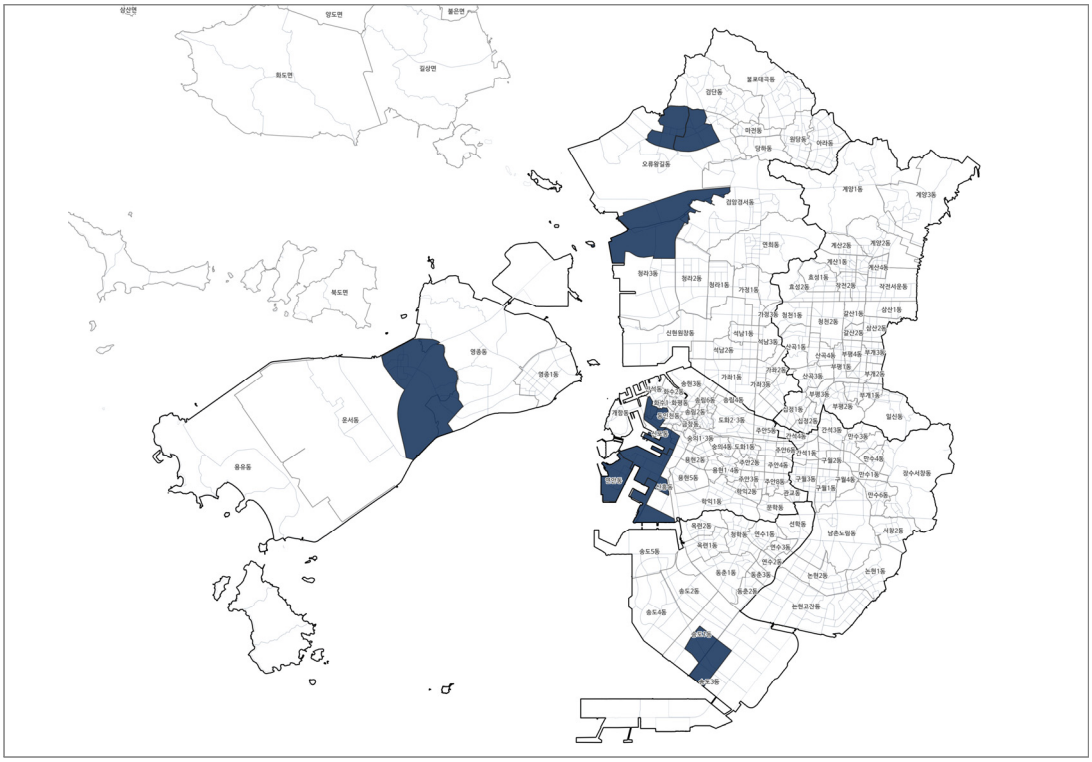
〔그림 3-6〕 상주인구 우세형 일상생활권



(2) 직장인구 우세형 (상주<30%, 직장≥20%, 방문≤50%)

- 직장인구 우세형은 상주인구 비율이 30% 미만으로 매우 낮으나 직장인구 비율이 20% 이상이며 동시에 방문인구가 50% 이상인 지역에 해당하는 일상생활권 유형임
- 직장인구 우세형은 상주인구는 낮은 편이나 직장인구가 높은 지역으로 인천 내에서 직장·상업 기능이 결집된 지역이 주로 해당됨
  - 송도, 청라, 영종 등 신도심 국제업무지구나 인천내항 일대 원도심 상업·서비스 중심지, 공업단지 등 특정 기능에 대한 전문화된 지역 및 고용 밀집시설인 오피스, 공공기관, 항만·공항 배후지, R&D 센터 등이 포함됨
- 해당 지역 중 원도심 지역에 해당하는 인천내항, 인천남항 일대의 일상생활권은 전통적인 상업, 관광, 물류 및 해양산업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임
- 상주인구의 비율이 낮은 등 주간 집중형 인구구조이므로 도심공동화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도시정책 및 전략이 필요함
  - 주간, 야간 인구의 균형을 위한 복합용도 개발과 숙박 및 문화, 야간관광, MICE 산업과 연계한 체류형 방문인구 확대 전략 등이 공통적으로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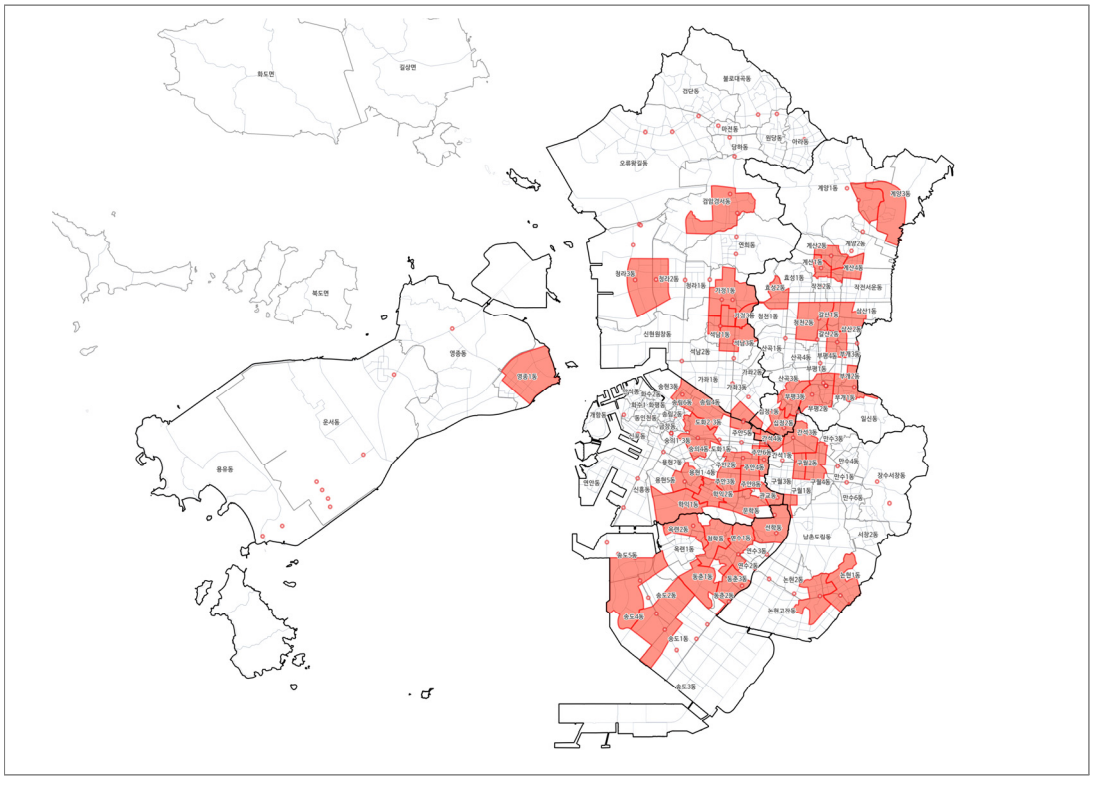
〔그림 3-7〕 직장인구 우세형 일상생활권



(3) 직주균형 A형 (상주≥50%, 직장+방문<50%)

- 직주균형 A형은 상주인구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중, 직장인구와 방문인구 각각 25% 비율 내외인 지역에 해당하는 일상생활권 유형임
- 직주균형 A형은 상주인구와 함께 직장 및 방문인구도 일정규모 이상 존재하는 유형으로 철도와 도로 등 광역적 연계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환경을 갖춘 지역이 해당됨
  - 경인철도 주변지역 및 노후계획도시(구월, 연수, 갈산, 삼산, 부평 택지지구등) 지역으로 높은 상주인구 비율로 인해 정주 환경도 양호하나 노후화가 진행되는 지역이 주로 해당됨
- 주거, 업무, 상업이 혼재된 복합 생활권으로 주거 중심이면서도 일정수준의 고용 기반인 산업단지, 오피스, 상업시설, 대학·병원 등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임
- 인구와 일자리가 비교적 균형을 이루는 일상생활권으로 해당 생활권의 생활인구 유지 및 확대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전략이 필요함
  - 다만 해당 유형이 인천 전역에 분포하고 있어 신도시와 원도심의 세부 특성 차이를 고려한 도시환경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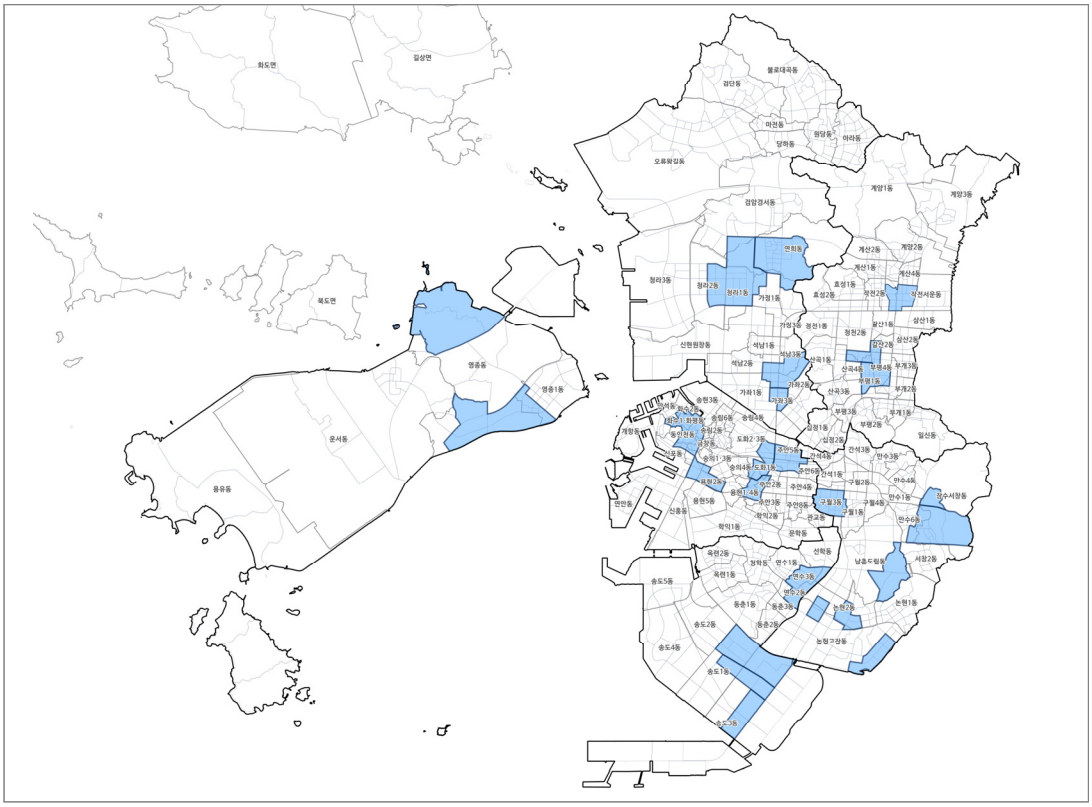
[그림 3-8] 직주균형 A형 일상생활권



(4) 직주균형 B형 (상주30~50%, 직장+방문50~70%)

- 직주균형 B형은 상주인구 비율 30~50%인 지역 중, 직장인구와 방문인구의 합이 50~70%의 비율인 지역에 해당하는 일상생활권 유형임
- 직주균형 B형은 상주인구가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동시에 직장 및 방문인구가 균형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므로 생활인구 구조가 다층적이며, 상업·업무·주거가 혼재된 유형임
  - 석남, 주안, 부평 등 원도심 상업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이 분포하는 지역이 다수 해당됨
- 도시의 중간적·연결적 거점이라는 성격이 강하며, 주거와 일자리가 섞여 있어서 도시활력을 유지하는데 용이한 생활거점형 균형지역의 성격을 보이는 지역임
- 해당 지역에 원도심 지역은 주로 노후화된 주거로 인한 주거 기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상업시설의 재생을 통한 균형 지역 유지·강화 전략이 필요하며, 신도시 지역은 주거·상업·업무 복합화를 통한 생활거점 기능의 유지·강화 전략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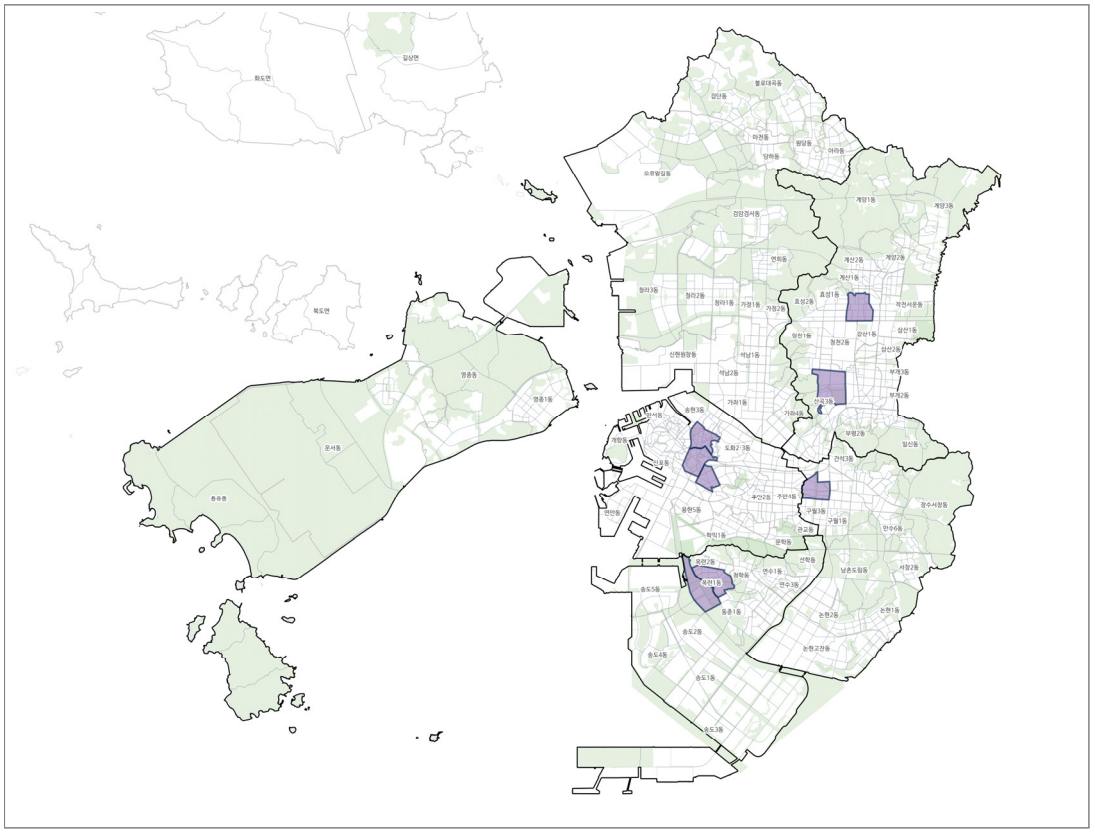
〔그림 3-9〕 직주균형 B형 일상생활권



(5) 방문인구 우세형 (상주≤40%, 직장≤15%, 방문≥50%)

- 방문인구 우세형은 방문인구의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주인구 및 직장인구가 적은 일상생활권 유형임
- 방문인구 우세형은 상주인구 및 직장인구가 적으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방문인구가 높은 지역 유형임
  - 대부분이 원도심에 해당하며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이 예정 또는 진행 중으로 도시 기능의 쇠퇴와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이 다수 포함됨
- 지역적 상징성이 있는 특정 랜드마크나 거점이 있는 지역으로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캠프마켓 공원 등 방문 유인 요인을 충분히 내재하고 있는 지역임
- 방문인구의 소비·문화활동을 지역 경제로 연결시키는 전략과 동시에 정주인구를 일부 회복하거나 체류형 방문(단기거주·체험형 공간)으로 확장하는 전략 등이 필요함
  -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통해 지역 브랜딩 및 방문활동의 질적 향상 도모가 필요함

〔그림 3-10〕 방문인구 우세형 일상생활권



〔표 3-2〕 일상생활권별 유형 구분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상주인구 우세형</th><th colspan="2">직장인구 우세형</th><th colspan="2">직주균형 A형</th><th colspan="2">직주균형 B형</th><th colspan="2">방문인구 우세형</th></tr>
<tr><th>생활권</th><th>관련 행정동</th><th>생활권</th><th>관련 행정동</th><th>생활권</th><th>관련 행정동</th><th>생활권</th><th>관련 행정동</th><th>생활권</th><th>관련 행정동</th></tr>
<tr><td rowspan="19">동북 권역 (계양, 부평) 23개 일상 생활권</td><td>박촌</td><td rowspan="2">계양1동
계양2동</td><td rowspan="19">없음</td><td rowspan="19"></td><td>부평동수</td><td>부평1동
부평2동
부평6동</td><td>작전서운</td><td>작전1동
작전서운동</td><td>캠프마켓</td><td>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td></tr>
<tr><td>임학</td><td>신계양</td><td>계양3동</td><td rowspan="2">부평구청</td><td rowspan="2">갈산2동
청천2동
부평4동</td><td>작전</td><td>작전2동</td></tr>
<tr><td>효성1</td><td>효성1동</td><td>계산택지</td><td>계산4동</td></tr>
<tr><td>삼산체육</td><td>삼산2동
부개3동</td><td>계산</td><td>계산2동
계산3동</td><td>부평시장</td><td>부평1동
부평4동</td></tr>
<tr><td>산곡</td><td>산곡1동
산곡2동</td><td>굴포천</td><td>부평4동
부평5동
갈산2동</td><td rowspan="12"></td><td rowspan="12"></td></tr>
<tr><td rowspan="12"></td><td>효성2</td><td>효성2동</td></tr>
<tr><td>갈산</td><td>갈산1동
청천2동</td></tr>
<tr><td>삼산</td><td>삼산1동
삼산2동</td></tr>
<tr><td>계양귤현</td><td>계양1동</td></tr>
<tr><td>경인교대</td><td>계산1동</td></tr>
<tr><td>백운</td><td>부평3동</td></tr>
<tr><td>부개</td><td>부개1동
부개2동</td></tr>
<tr><td>동암</td><td>십정2동</td></tr>
<tr><td rowspan="19">서북 권역 (서구) 25개 일상 생활권</td><td>아라</td><td rowspan="17">아라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검암경서동</td><td>청라국제도시</td><td>청라3동</td><td>검암검바위</td><td>검암경서동</td><td>서구청
아시아드</td><td>연희동</td><td rowspan="19">없음</td></tr>
<tr><td>신검단</td><td>검단오류</td><td>오류왕길동</td><td>청라호수</td><td>청라2동
청라3동</td><td>청라가정</td><td>청라1동
청라2동</td></tr>
<tr><td>검단호수</td><td>왕길</td><td>오류왕길동</td><td>신현</td><td>신현원창동
석남1동</td><td>서부여성회관</td><td>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td></tr>
<tr><td>원당</td><td rowspan="16"></td><td rowspan="16"></td><td>가정</td><td>가정1동
가정2동</td><td>인천가좌</td><td>가좌3동</td></tr>
<tr><td>불로</td><td>가정중앙</td><td>가정3동</td><td rowspan="15"></td><td rowspan="15"></td></tr>
<tr><td>검단사거리</td><td>석남</td><td>석남1동
석남3동</td></tr>
<tr><td>마전</td><td rowspan="14"></td><td rowspan="14"></td></tr>
<tr><td>완정</td></tr>
<tr><td>독정</td></tr>
<tr><td>검단</td></tr>
<tr><td>가좌트램</td><td>가좌2동</td></tr>
<tr><td>가재울</td><td>가좌4동</td></tr>
</table>

〔표 계속〕 일상생활권별 유형 구분

구분	상주인구 우세형		직장인구 우세형		직주균형 A형		직주균형 B형		방문인구 우세형	
	생활권	관련 행정동	생활권	관련 행정동	생활권	관련 행정동	생활권	관련 행정동	생활권	관련 행정동
중부 권역 (중,동, 미추홀) 26개 일상 생활권	신흥용현	용현5동 신흥동	인천	개항동 동인천동 신포동	인천교	도화2·3동 송림4동 송림6동	동인천	동인천동 화수화평동 송현1·2동 율목동 송림1동	도원	금창동 도원동 숭의1,3동
			신포	신포동 신흥동	제물포	숭의1,3동 숭의4동 도화2·3동	주안	주안1동 주안5동	숭의오거리	숭의2동 숭의1,3동
			남항일대	연안동 신흥동	주안산단		도화	도화1동 도화2·3동	송림오거리	송림2동 숭의3,5동
			연안부두	연안동 신흥동	인하대	용현1,4동 용현5동 학익1동	숭의	용현2동 신흥동		
			신흥남항	연안동 신흥동	시민공원	주안1동 주안2동 주안4동	용현트램	용현1,4동 주안2동		
					석바위시장	주안4동 주안6동				
					학익	학익1동				
					인천터미널	관교동 구월1동				
					주안트램1	주안2동 주안3동 주안7동				
					주안트램2	주안4동 주안8동				
					문학학익	문학동 학익2동				
					학익트램	학익1동 학익2동				
동남 권역 (남동) 17개 일상 생활권	만수	만수1동 만수2동 만수4동 만수5동	없음		간석오거리	간석1동 간석2동 간석3동 간석4동	예술회관	구월3동	인천시청	간석1동 구월3동
	서창트램	서창2동			간석	간석4동	호구포	논현2동		
	남동구청	만수1동 만수6동			석천사거리	구월2동 간석2동	남동인더스파크	논현고잔동 논현2동		
					서창2동	구월2동 구월4동	인천대공원	장수서창동		
					소래포구	논현1동 논현고잔동	운연	장수서창동		
					인천논현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남촌트램	남촌도림동		
							논현트램	논현고잔동		

〔표 계속〕 일상생활권별 유형 구분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상주인구 우세형</th><th colspan="2">직장인구 우세형</th><th colspan="2">직주균형 A형</th><th colspan="2">직주균형 B형</th><th colspan="2">방문인구 우세형</th></tr>
<tr><th>생활권</th><th>관련 행정동</th><th>생활권</th><th>관련 행정동</th><th>생활권</th><th>관련 행정동</th><th>생활권</th><th>관련 행정동</th><th>생활권</th><th>관련 행정동</th></tr>
<tr><td rowspan="10">서남 권역 (연수) 17개 일상 생활권</td><td>국제업무 단지</td><td>송도2동
송도4동</td><td>자식정보단지</td><td>송도1동
송도3동</td><td>송도달빛 축제</td><td>송도2동
송도4동
송도5동</td><td>신연수 원인재</td><td>연수2동
연수3동</td><td>송도유원지 트램</td><td>옥련1동</td></tr>
<tr><td>골든하버 트램</td><td>송도5동</td><td rowspan="9"></td><td rowspan="9"></td><td>센트럴파크 인천대입구</td><td>송도1동
송도2동</td><td>캠퍼스타운</td><td>송도1동
송도3동</td><td>송도상업 트램</td><td>옥련1동</td></tr>
<tr><td rowspan="8"></td><td rowspan="8"></td><td>송도</td><td>옥련2동</td><td>테크노파크</td><td>송도1동
송도3동</td><td rowspan="8"></td><td rowspan="8"></td></tr>
<tr><td>청학</td><td>청학동</td><td>삼성바이오 트램</td><td>송도3동</td></tr>
<tr><td>문학선학</td><td>선학동</td><td rowspan="5"></td><td rowspan="5"></td></tr>
<tr><td>연수</td><td>연수1동</td></tr>
<tr><td>동춘동막</td><td>동춘2동
동춘3동</td></tr>
<tr><td>동춘트램</td><td>동춘1동</td></tr>
<tr><td rowspan="2">영종 권역 (중구) 4개 일상 생활권</td><td rowspan="2">없음</td><td rowspan="2">운서</td><td rowspan="2">운서동</td><td rowspan="2">영종하늘 트램</td><td rowspan="2">영종1동
영종2동</td><td>영종</td><td>영종동</td><td rowspan="2">없음</td><td rowspan="2"></td></tr>
<tr><td>씨사이드 트램</td><td>영종동</td></tr>
</table>

3. 생활도시 인천 구상을 위한 목표 및 실천전략

- 인구감소 시대에 도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새로운 접근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인구 통합 관점은 인천시가 처한 원도심·신도시 간 불균형, 인구유출, 수도권 내 경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임
- 생활권 개념은 도시공간을 시민 생활권 단위로 재구조화하는 공간적 전략이며, 상주인구뿐만 아니라 직장, 방문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까지 고려하는 사람 중심 전략이기도 함
- 시민의 일상을 담은 생활도시 인천을 만드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생활권 유형을 고려한 주요 실천전략을 4가지로 설정함
  - 첫째, 일상을 담은 생활권계획 전략
  - 둘째, 살고 싶은 생활도시 조성 전략
  - 셋째, 일하고 싶은 생활도시 조성 전략
  - 넷째, 머물고 싶은 생활도시 조성 전략

〔그림 3-11〕 기본방향 및 전략별 생활권유형



- 또한 일부 실천전략에서는 특정 거점이나 기능 중심이 아닌, 생활 흐름을 반영하는 정책 단위의 성격으로 실천 프로젝트안을 제안하고자 함
  - 실천프로젝트는 고정된 사업 모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인구 유형별 전략이 실제 도시공간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성격의 계획 제안임

1) 일상을 담은 생활권계획 전략

(1) 전략 목표

- ‘일상을 담은 생활권계획’을 목표로 지역 내 실제로 활동하는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권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화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임

- **(타 계획과 명확한 차별화)**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주·야간 생활인구 패턴과 활동 밀도를 고려하여 공간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및 공간계획을 마련해야 함
- **(보행중심의 일상생활권 설정)** 지형, 인구구조, 산업구조, 공간구조 등 지역별 주요특성을 고려한 보행중심의 일상생활권 범위를 설정하여 공간적 실효성을 갖춘 생활권계획을 수립해야 함
- **(생활인구 특성에 따른 유형화)** 지역 내 효율적인 도시공간, 양질의 생활환경 조성, 이용자의 니즈가 충분히 반영되는 맞춤형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해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일상생활권의 유형화를 도모해야 함

(2) 추진 전략

- 추진 전략을 통해 보행중심의 일상생활권 공간 설정과 더불어 일상생활권 유형별 맞춤형 계획안의 마련 및 주요 일상생활 거점으로의 접근성 개선, 지역 정체성 강화를 통한 지역 특화 발전 방안을 제안함

- **(공간)** 생활권 유형별 맞춤형 복합생활SOC 조성 및 배치, 보육·교육, 문화·체육시설의 균형적 배치 및 소규모 공원, 가로녹지, 보행친화형 가로 조성, 생활밀착형 녹지 인프라 확충으로 생활환경 및 도시공간 개선 전략을 추진해야 함
- **(기능)**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상주·직장·방문인구가 공존하는 일상생활권의 생활인구 균형 유지를 위해 생활거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사회)** 시간대별 생활인구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변적 활용이 가능한 공공서비스 시설 조성 추진.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지역커뮤니티 공간의 확충을 통한 문화·교육 기능의 강화 및 외국인 생활지원센터, 고령층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한 다문화·고령친화 정책을 포함해야 함
- **(제도)** 생활권 유형별(생활인구 기반의 지역특성) 및 지역 세부 특성별(신도시, 원도심) 맞춤형 제도를 설정해야 함
- **(운영)** 각 생활권 유형별로 특성을 고려하되 모든 유형이 균형잡힌 생활권 체계와 포용적 도시발전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주민주도 및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생활밀착형 계획 제도를 바탕으로 정책 운영 전략을 설정해야 함

(3) 정책 구상

- **(생활권 유형)** 상주인구 우세형, 직장인구 우세형, 직주균형 A,B형, 방문인구 우세형이 해당됨
  - 생활권 유형을 고려한 생활권계획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정책 구상이 필요함
  - 모든 생활권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되 균형잡힌 생활권 체계와 다양성·포용성·안전성이 기본이 될 수 있는 공통 목표와 전략, 미래상 설정이 필요함
- **(지역 특성)** 동일한 생활권 유형에 해당하지만 원도심, 신도시 등 지역 세부 현황의 차이가 있는 지역을 고려함
  - 원도심은 인프라 노후화와 상권 침체 등으로 쇠퇴 위험이 크고, 신도시는 인구 유입과 시설 확충으로 성장세가 뚜렷하여 동일 유형 내에서도 격차가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제안이 필요함
- **(핵심 기능)** 원도심 및 기성시가지의 쇠퇴 방지와 재생,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및 스마트 환경 조성 등임
  - 원도심은 재생과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며, 신도시는 자족적 생활·일자리·문화 기반을 갖추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리가 요구됨
- **(운영 방식)** 공공주도 또는 민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함
  - 원도심은 공공주도 재생 중심, 신도시는 민간 협력형 거버넌스의 강화가 적합하며, 두 영역 모두 공공-민간 역할 분담이 핵심

〔표 3-3〕 일상을 담은 생활권계획 전략

구분	주요 내용	
(1) 전략 목표	타 계획과의 명확한 차별화 / 보행중심의 일상생활권 설정 / 생활인구 특성에 따른 유형화	
(2) 추진 전략	공간	맞춤형 복합SOC 조성 및 균형적 배치, 생활밀착형 녹지인프라 확충
	기능	생활인구 균형 유지를 위한 생활거점의 기능 강화
	사회	시간대별 가변적 활용 가능한 공공서비스 시설 조성
	제도	생활권 유형별 + 지역 세부 특성별 맞춤형 생활권계획 제도 도입
	운영	상시적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참여 방식의 도입을 통한 상향식 계획 제도 운영
(3) 정책 구상	생활권 유형	모든 생활권 유형 해당
	지역 특성	동일한 유형의 생활권이지만 원도심, 신도시 간 세부 지역현황 격차 심한 지역
	핵심 기능	원도심 및 기성시가지의 쇠퇴 방지와 재생 /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및 스마트 환경 조성
	운영 방식	공공주도 또는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2) 살고 싶은 생활도시 조성 전략

(1) 전략 목표

■ '살고 싶은 생활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민을 위한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 및 근거리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임

-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 다양한 주택 유형 제공과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생활 SOC 확충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함
- **(생활거점 중심 복합 토지이용)** 역세권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서 용도 규제 및 밀도 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생활 중심의 복합거점을 조성해야 함
- **(공간 복합화)**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통합된 복합용도 단지 개발로 시민들이 근거리에서 생활·여가·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마련해야 함

(2) 추진 전략

■ 추진 전략을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용도규제와 밀도 관리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주거, 상업, 문화 기능이 통합된 생활공간 조성을 제안함

- **(공간)** 양질의 주택 공급과 주거단지 조성, 녹지공간 및 도시공원 확충, 대중교통 편의성 강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능)** 신설 학교·보건소·문화회관·보육시설 등 공공서비스시설을 확충하고, 상업·여가시설 개발을 통해 시민편의를 높여야 함
- **(사회)** 주민자치회·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지역축제 및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등을 통해 공동체 결속력을 강화해야 함
- **(제도)**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세제 혜택, 출산·보육 지원금 등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의 중·소규모 기업 입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운영)** 주민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 요구를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여,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을 높여야 함

(3) 정책 구상

■ **(생활권 유형)** 상주인구 우세형, 직주균형 A형이 해당됨

- 도심권역과 농촌권역 등으로 구분하여, 생활권별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이 필요함

▪ **(지역 특성)** 고령화 심화, 주거환경 취약, 일상시설 접근성 낮은 지역임

- 인구 분포·산업·자원현황을 고려하여, 산간지역은 스마트 영농단지, 해안지역은 친수 여가 거점 등으로 기능을 특화해야 함

▪ **(핵심 기능)** 보건·의료·돌봄, 교육·문화, 생활 서비스, 커뮤니티 활성화 등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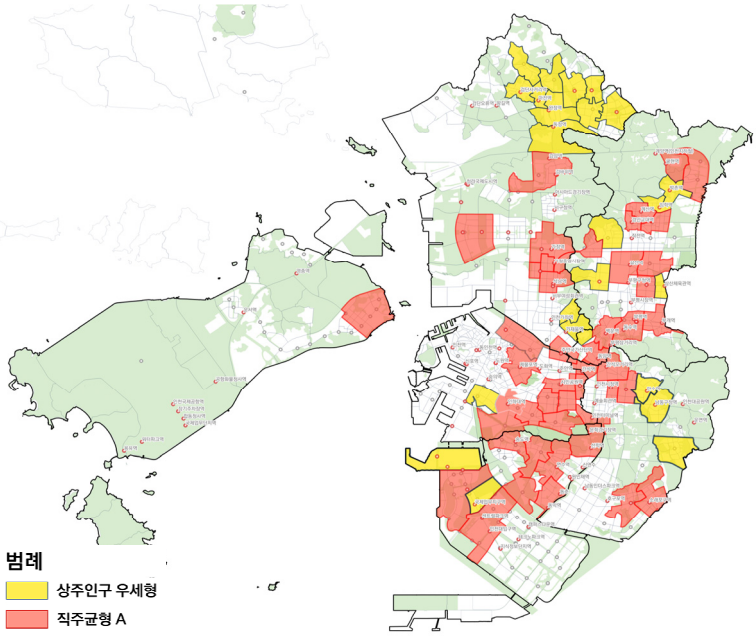
- 기초생활 서비스와 함께 지역공동체 지원 거점 등을 중심 기능으로 설정해야 함

▪ **(운영 방식)** 공공주도 또는 민간협력 방식으로 추진이 필요함

- 생활권별 거버넌스와 주민 참여단을 구축하여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워크숍, 공청회 등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표 3-4] 살고 싶은 생활도시 조성 전략

구분	주요 내용	
(1) 전략 목표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 / 생활거점 중심 복합 토지이용 / 공간 복합화	
(2) 추진 전략	공간	주택 공급, 공원 확충, 대중교통 편의성 강화
	기능	공공서비스시설 확충, 상업·여가시설 개발
	사회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제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시행
	운영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및 서비스 플랫폼 운영
(3) 정책 구상	생활권 유형	상주인구 우세형, 직주균형 A형
	지역 특성	고령화 심화, 주거환경 취약, 일상시설 접근성 낮은 지역
	핵심 기능	보건·의료·돌봄, 교육·문화, 생활 서비스, 커뮤니티 활성화 등
	운영 방식	공공주도 또는 민간협력 방식 추진



(4) 실천 프로젝트안 (어린이공원 및 유치원을 노인친화시설로 단계적 전환)

■ 사업목표

- 유휴화되는 아동시설을 지역 수요에 맞게 전환하여 생활인구의 정주성과 체류성을 강화하며, 생활권 중심의 고령친화적 공간구조 전환을 통해 고령사회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인구 변화 및 시설 활용률 분석을 통해 전환 대상 어린이공원 및 유치원 선별하여 저이용 공간부터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단순한 노인휴게시설이 아닌, 보건, 여가, 돌봄 기능을 통합한 다기능 복합 노인시설로 복합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성이 필요함
- 이동성이 낮은 고령층을 위한 생활권 내 체류 중심의 거점공간 확보를 통해 외부 유출 제어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현황 및 사례

- 국내 1호 실버공원인 서울 양천구 오솔길 실버공원, 기존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한 포항시 생활밀착형 공원 등 사례가 있음

〔그림 3-12〕 서울 양천구 오솔길 실버공원



〔그림 3-13〕 경북 포항시 생활밀착형 공원



출처: 국내 1호 '노인전용 실버공원' 가보니(정책브리핑, 2012.6.21), 포항시, 노후 도시공원 생활 밀착형 공원으로 변신(프레시안, 2024.10.24.)

■ 기대효과

- 저출산에 따른 유휴시설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고령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공간 공급을 통해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제고할 수 있음
  - 기존 시설을 활용한 전환형 개발로 신설비용 절감 및 환경자원 보존
  - 고령층 체류공간 확보로 일상생활권 내 유출 억제를 통해 생활인구 유지 및 확대

3) 일하고 싶은 생활도시 조성 전략

(1) 전략 목표

■ '일하고 싶은 생활도시 조성'을 목표로 직주혼합 공간 조성과 친환경 통근 환경 개선을 통해 직주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전략임

- **(직주혼합 공간 조성)** 주거지 내 소규모 오피스, 공유오피스, 창업·R&D 공간 허용, 용도 혼합 개발로 직주근접 환경을 구현해야 함
- **(지식기반·창업기업 유치)** 소규모 제조업, 디자인, IT 등 산업 기반 업무공간 조성, 공유오피스·카페·소형 회의실 등 스마트워크 허브 지원이 필요함
- **(직장인 복지·휴식 인프라 강화)** 복합문화체육시설, 근린 휴식공간, 웰니스 센터 등 확충으로 근무환경의 매력도를 높여야 함

(2) 추진 전략

■ 추진전략을 통해 직주혼합 공간조성과 창업·R&D 기반 확충을 도모하여 업무 효율성과 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산업·교통·생활 인프라 현대화 등 직주근접 환경 조성을 제안함

- **(공간)** 첨단산업단지 및 기업입주 지구를 조성, 기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현대화, 주요 업무지구와 거주지를 잇는 교통망을 강화 및 완전도로 시스템을 도입한 통근 편의를 높여야 함
- **(기능)** R&D 센터, 창업지원센터, 직업훈련원 등 산업지원 시설을 확충,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융복합 산업 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 대기업·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비즈니스 지원 플랫폼과 다양한 교통접근 수단, 보행편의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사회)** 근로자 복지와 커뮤니티를 강화, 산단 인근에 보육·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 직장인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소셜네트워크를 지원해야 함
- **(제도)** 기업유치 인센티브, 주거·교육 지원 등 직주근접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야 함
- **(운영)** 지역산업 클러스터 운영기구를 설치하여 산업·인력 데이터를 종합관리하고, 민간 투자자와 협업과 기업지원 전담 부서를 통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3) 정책 구상

■ **(생활권 유형)** 직장인구 우세형, 직주균형 B형이 해당됨

- 산업/업무 중심 생활권(산업지구·기업도시), 중심상업 생활권, 교통거점 생활권 등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지역 특성)** 역세권 유휴지, 공업지역 인근, 소규모 유휴부지, 원도심 골목 등을 고려함

- 제조업 중심지, 과학단지, 물류 허브 등 지역별 기존 산업과 자원을 고려해 산업·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해당 분야에 특화된 클러스터를 육성해야 함

▪ **(핵심 기능)** 지식기반, 생활밀착, R&D·교육, 도심형 공장 기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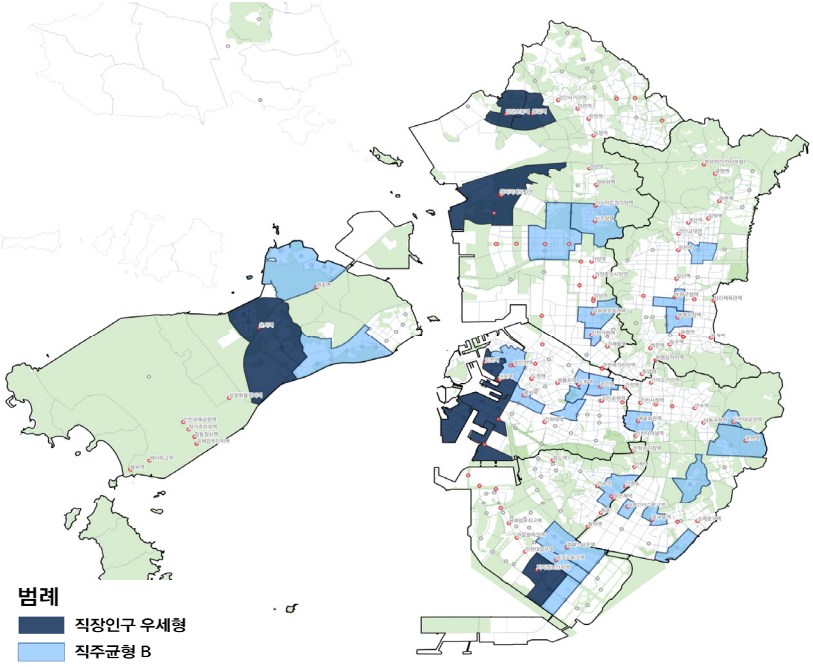
- 일자리 창출 거점(산업단지), 직업교육·훈련 거점(기술교육원), 교통거점(물류·환승) 등을 핵심 기능으로 설정하여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을 구축해야 함

▪ **(운영 방식)** 산학연 연계 방식으로 추진이 필요함

- 지자체와 기업, 학계가 참여하는 산업단지별 거버넌스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표 3-5〕 일하고 싶은 생활도시 조성 전략

구분	주요 내용	
(1) 전략 목표	직주혼합 공간 조성 / 지식기반·창업기업 유치 / 직장인 복지·휴식 인프라 강화	
(2) 추진 전략	공간	첨단산업단지 지구 조성, 기존 산업단지 기반시설 현대화, 교통망 강화
	기능	산업지원 시설 확충, 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비즈니스 지원 플랫폼 마련
	사회	복지, 커뮤니티, 보육, 문화, 휴게기능 지원
	제도	기업유치 인센티브, 직주근접 활성화 정책
	운영	산업·인력 데이터 종합관리, 기업지원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3) 정책 구상	생활권 유형	직장인구 우세형, 직주균형 B형
	지역 특성	역세권 유휴지, 항만, 경자구역 등 공업기능 밀집지, 소규모 유휴부지, 원도심 골목
	핵심 기능	지식기반, 생활밀착, R&D·교육, 도심형 공장
	운영 방식	산학연 연계 방식 추진



(4) 실천 프로젝트안 (공유오피스, 코워킹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 사업목표

- 인천시 전역에 단순한 사무실 기능을 넘어 코워킹, 제조 실험, 창작 활동을 모두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직장인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창업 생태계를 다변화하여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자유로운 좌석·미팅룸 제공, 24시간 이용, 분야별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함께 디지털·제조·미디어 제작 지원 장비 구축, 온라인 예약·멘토링 통합 플랫폼을 운영해야 함
- 소규모·성장형 창업팀 맞춤형 공간, 저렴한 임대와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환류 구조를 마련해야 함

■ 현황 및 사례

- 인천 송도의 스타트업파크는 국내 최대 창업지원 공간으로 코워킹과 메이커스페이스를 갖추고 있으나,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다양한 창업 수요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는 공유 오피스와 커뮤니티 기반 네트워킹을 결합한 민간 성공 사례로, 스타트업 간 협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모델로 평가됨

〔그림 3-14〕 인천 송도 스타트업파크



〔그림 3-15〕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출처: 한국판 실리콘밸리 '인천 스타트업 파크' 송도 최초 조성(산업일보, 2021.2.26.), 헤이그라운드 4주년… 국내 임팩트 생태계 허브 역할(Platum, 2021.7.26.)

■ 기대효과

- 코워킹과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 사무·제조·콘텐츠 기반 창업을 동시에 지원하고, 편중된 지원 분야 및 구조를 보완할 수 있음
- 원도심에 발생하는 상가 등 공실을 창업·업무공간으로 전환해 청년층 정착을 돕고, 상권·유동인구 활성화 촉진할 수 있음

4) 머물고 싶은 생활도시 조성 전략

(1) 전략 목표

■ '머물고 싶은 생활도시 조성'을 목표로 역사·문화적 자산과 도시 정체성을 활용하여 방문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임

- **(역사·문화 자산 활용)** 개항장 등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활용하여 지역 정체성 강화, 인천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랜드마크를 조성해야 함
-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연령대·시간대별 특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 안내 시스템 및 편의시설 구축으로 관광·문화 체험 기회 확대가 필요함
- **(보행·이동 네트워크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조성, 지역 간 이동성 강화, 양질의 녹지·공원 확충으로 개방형 공공공간을 확대해야 함

(2) 추진 전략

■ 추진전략을 통해 역사·문화자산과 도시 정체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체험 콘텐츠 개발, 보행·녹지 네트워크와 숙박·휴양 인프라 확충 등 방문객 체류환경 개선방안을 제안함

- **(공간)** 관광지구 지정과 휴양단지 개발, 유휴부지·폐산업시설을 전시·체험공간으로 전환, 숙박·테마시설 조성, 주요 관광지 교통 접근성과 스마트 관광체계를 강화해야 함
- **(기능)** 지역축제·문화행사 활성화, 산지·해양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전통시장 연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관광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해야 함
- **(사회)** 관광서비스 운영자 교육,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홈스테이·민박 제도 활성화, 주민참여형 체험·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상생을 도모해야 함
- **(제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구도심 빈공장·유휴부지을 생활·문화거점으로 전환 등을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함
- **(운영)** 관광객 통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수요를 실시간 파악하고, 디지털 기반 관광 마케팅(SNS·앱 등)과 방문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전략을 보완, 지역축제·행사를 총괄할 전담조직을 두고, 민간투자·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지속가능한 운영을 추진해야 함

(3) 정책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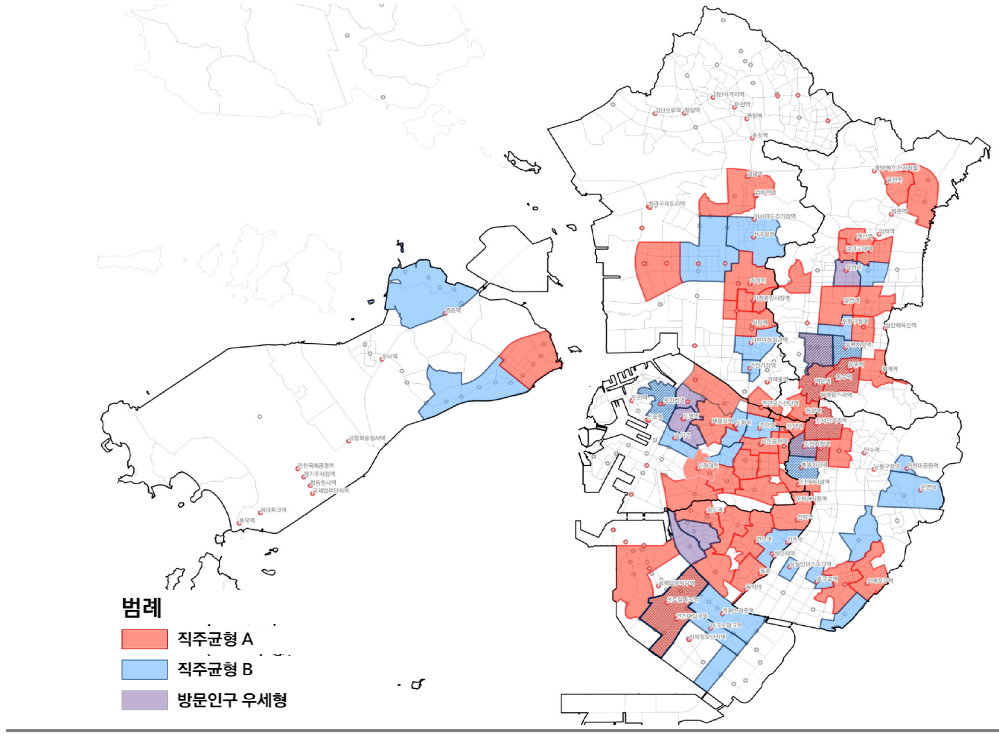
■ **(생활권 유형)** 직주균형 A형, 직주균형 B형, 방문인구 우세형이 해당됨

- 권역별 핵심 관광자원과 연계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함

- **(지역 특성)** 역사문화지역, 해양친수지역, 노후 산업지, 도시녹지·예술공동체 집적지 등임
  - 지역 특산물(농수산물·공예품 등)과 역사·문화유산을 연계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함
- **(핵심 기능)** 체류형 관광 인프라, MICE·컨벤션 센터, 국제행사 개최 시설 기능이 필요함
  - 체류형 관광 인프라와 연계된 생활SOC를 구축해 장기 체류 수요를 창출하고, MICE·컨벤션 센터, 국제행사 개최 시설 등을 통해 방문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해야 함
- **(운영 방식)** 지역 NPO, 청년·시민 협동조합 등 시민 주도 운영이 필요함
  - 민관 관광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지역 소득 창출 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표 3-6〕 머물고 싶은 생활도시 조성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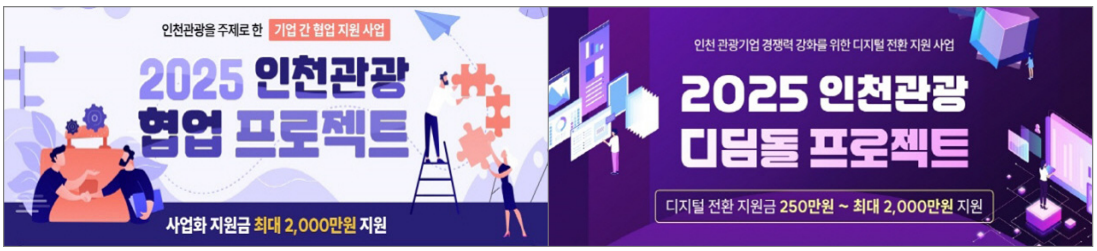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1) 전략 목표	역사·문화 자산 활용 /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 보행·이동 네트워크 구축	
(2) 추진 전략	공간	관광지구·휴양단지, 유휴지 재생, 숙박·테마파크, 교통·스마트 안내 체계 구축
	기능	축제·문화행사, 자연체험, 전통시장 연계, 관광정보 서비스 관리
	사회	서비스 전문화, 홈스테이·민박, 주민참여·상생 효과 기대
	제도	규제완화, 유휴자원 거점 전환, 민관 협력 모델 구축
	운영	모니터링, 디지털 마케팅, 컨트롤타워, 민간투자 활용
(3) 정책 구상	생활권 유형	직주균형 A형, 직주균형 B형, 방문인구 우세형
	지역 특성	역사문화 밀집 지역, 해양 친수지역, 노후 산업지, 도시녹지·예술공동체 집적지역
	핵심 기능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MICE·컨벤션 센터, 국제행사 개최 시설
	운영 방식	지역 NPO, 청년·시민 협동조합 등 시민 주도 운영



(4) 실천 프로젝트안 (문화·체육시설, 선박 및 관광지 입장료 교통카드 적용)

- 사업목표
  - 시민·외부 방문객 모두가 인천시의 다양한 거점을 자유롭게 연계 이용함으로써 지역 체류 시간·소비 활동을 증대시키고자 함
- 추진방향
  - 교통카드 하나로 인천시의 문화·체육·관광시설 입장과 대중교통 이용을 통합해, 방문객과 시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구성해야 함
  - 이를 통해 생활인구(단순 거주민 외에도 정기·일시 체류자) 유입을 촉진하고, 관광·문화·레저 복합체계로 도시 활력을 높여야 함
- 현황 및 사례
  - 인천시는 수도권 통합교통체계 일원으로 버스·지하철 이용 시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문화·관광시설 입장권 결제는 현금/신용카드 위주임
  - 교통카드사와 인천교통공사, 문화관광부서 간 협업 경험이 일부 있으나 제한적임

〔그림 3-16〕 2025 인천관광 협업 및 디딤돌 프로젝트



출처: 인천관광공사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디지털 혁신·협업 프로젝트 공모 실시(메트로신문, 2025.2.25.)

- 기대효과
  - 교통·관광·문화 원스톱 연계로 체류·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으며, 간편 결제·할인·마일리지로 비용 절감 및 이용 활성화가 가능함
  - 관광·상권 소비 확대, 장기 체류로 파급효과 증대가 기대됨

참/고/문/헌

단행본/연구보고서

김지연·김준형·정규철. (2025).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KDI 현안분석.

김진범. (2025).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국토정책Brief. 국토연구원.

성은영·강현미·허재식(2021). n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전략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양재섭·남선희. (2015).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 서울연구원.

이종현. (2024). 일본 입지적정화 제도의 동향과 인천시 시사점. 이슈브리프 No.11. 인천연구원.

이종현·최민아. (2025). 인천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 인천연구원.

허자연·김진하·양재환·양은정·최원빈. (2024). 서울형 보행일상권 구현 위한 일상생활권과 일상시설 탐색 연구. 서울연구원.

학술지/학위논문

김정우·강범준. (2024). 서울시 15분 근린생활권의 실증과 지역생활권 경계 비교: 개인통행실태조사 데이터와 커뮤니티 탐지 알고리즘의 활용.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28, 119-130.

김해솔·고승욱·이승일. (2024). 서울시 지역특성과 교통접근성이 주중/주말 생활인구 분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278, 53-68.

남상연·이정민·홍성조. (2023).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생활권 위계 구분 및 생활서비스 수준 분석:청주시를 대상으로.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Vol.34 No.3, 187-212.

행정자료

서울특별시. (2023).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인천광역시. (2023).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2028).

인천광역시. (2024).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

City of Westminster. (2021). CITY PLAN 2019-2040. City Plan 2019-2024.pdf

보도자료/신문기사

문일요. (2021.07.26.) 헤이그라운드 4주년, 국내 임팩트 생태계 허브로 우뚝. 더나은미래. https://futurechosun.com/archives/57658 (검색일: 2025년 08월 29일)

박동현. (2012.06.21.) 국내 1호 '노인 전용 실버공원' 가보니..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34926 (검색일: 2025년 08월 29일)

박진우. (2024.03.04.). 성수개발진흥지구 4배 확장. IT·디자인 지구로 재편. 집코노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0460811 (검색일: 2025년 08월 29일)

오주호. (2024.10.24.). 포항시, 노후 도시공원 생활 밀착형 공원으로 변신.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02410353823535 (검색일: 2025년 08월 29일)

이종수. (2021.02.26.). 한국판 실리콘밸리 '인천 스타트업 파크' 송도 최초 조성. 산업부동산. https://land.daara.co.kr/news/view.php?g=K&id=221075 (검색일: 2025년 08월 29일)

인천관광공사. (2025.02.25.). 2025년 인천관광 협업 및 디딤돌 프로젝트 공모. 보도자료. https://www.ito.or.kr/main/bbs/bbsMsgDetail.do?msg_seq=1413&bcd=report (검색일: 2025년 08월 29일)

행정안전부. (2023. 05. 17.). 생활인구를 통해 지역 활력 높인다.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0426 (검색일: 2025년 08월 29일)

☐ 전자문서자료/홈페이지

부산광역시. (2025). 부산생활권계획. https://www.busan.go.kr/living_space/index (검색일: 2025년 07월 05일)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996호). 2021.12.31. 〔일부개정〕

☐ 보도자료/신문기사

부산광역시. (2014. 9. 3.).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산시, 최초의 '부산서비스인구통계' 개발. 보도자료. https://www.busan.go.kr/nbtnews/157820(검색일: 2025년 8월 1일)

04

인천 활력있는 복합거점생활권 육성 및 공간전략

04

인천 활력있는 복합거점생활권 육성 및 공간전략

조상운(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서대현(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1. 인천 복합거점생활권 육성을 위한 공간전략

1) 복합거점생활권 육성의 배경과 구상

❖ 인구구조의 변화와 원도심 쇠퇴 대응 필요

-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및 정주인구 감소는 지역경제의 쇠퇴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하에 도시 내 활력이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구 이동성을 고려한 생활인구에 기반한 도시진단 및 정책적 접근이 주목을 받고 있음
  - 생활인구는 한 도시 내 실제 거주인구 뿐만 아니라 특정 시간대에 특정 지역 또는 공간과 관계있는 활동을 하는 통근·통학, 관광, 문화, 쇼핑인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인천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신도심과 원도심 간 불균형 발전에 따른 균형발전, 청년층의 유출과 고령화에 따른 생활권 정책 강화, 원도심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창업공간 제공 등 경제기반 확충 등 체류형 생활인구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2020년 정부발표를 보면, 인천 동구(0.465)는 강화(0.218), 옹진(0.276)에 뒤이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진입하고 있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이 원도심으로 확산,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음

❖ 도시기능의 고도화와 거점성의 증대

- 2021년 기준 전국 특·광역시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을 보면, 인천시는 0.21(전국 평균 0.23)로 하위를 차지하고 있음(서울 0.24, 부산 0.25, 대구 0.23, 광주 0.25, 대전 0.22, 울산 0.16)(이삼수외, 2024)
  -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내 도시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인천으로 유입되는 생활인구보다 서울·경기로의 유출 경향이 우세하다는 것임
  - 서울시에서 발표한 2024.12월 기준 수도권 생활인구 이동 현황을 보면, 같은 지역 내 생활인구의 이동은 인천 81.9%, 경기 86.6%, 서울 84.0%로 인천시가 가장 적고, 생활인구의 이동은 인천→경기 11.5%, 인천→서울 6.6%인데 반해 경기→인천 2.5%, 서울→인천 2.0%로 나타남
- 즉, 이러한 현상은 인천시가 주변 도시와의 관계에서 중심성 또는 거점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체류인구 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복합거점생활권 육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인천시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직장, 관광, 방문 등을 목적으로 그 지역에 체류하면서 활력을 높이는 '체류인구' 또는 '유동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한 복합거점 생활권의 육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임
- 이를 통해 쇠퇴하는 도심의 기능 고도화 및 효율적 공간 활용을 통해 도시에 체류하며 경제활력을 불어넣은 생활인구의 유입은 원도심 활성화 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의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복합거점생활권의 육성을 위한 공간전략 마련

- 지식경제시대에는 기업과 인재가 단순히 외곽 신개발지보다, 다양한 기능이 혼합되고 공공공간의 질이 높으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고밀도의 컴팩트 도심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Hanna, 2016; Katz and Wagner, 2014)
  - 복합거점생활권은 업무, 상업, 주거 등 고밀도의 복합용도 개발로 공간적으로 집적되어 일자리와 기업, 방문객 등 체류형 생활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요소로는 도시기능 집적성, 광역교통 접근성, 공간 확장성, 정책적 실현가능성이 핵심적으로 작용함

- 도시기능의 집적성은 상업·문화·산업 등 복합 기능을 집적하여 경제활동과 교류를 촉진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재생에서는 첨단산업 유치와 로컬네트워크 강화, 고속철도역 개발에서는 상업·문화 기능 확충, 워터프론트 재생에서는 문화·관광거점 조성이 해당됨
- 광역교통 접근성은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높여 외부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복합환승센터 구축, 광역경제권 연결, 물류·보행 네트워크 개선 등이 포함됨
- 공간 확장성은 핵심거점에서 주변 지역으로 기능과 공간을 확장하는 것으로, 순환재생방식, 단계별 확장, 친수·녹지축 연결 등이 제시됨
- 정책적 실현가능성은 법·제도적 기반과 정부·지자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현성을 높이는 것으로, 특별법·재생사업, 국책·지자체 개발사업 등이 해당됨

〔표 4-1〕 선행연구 내 복합거점 요소 정리

구분	연구명	저자	복합거점 영향요소
1	노후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입지선호와 재생정책 – 대구 제3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박종화·황우익 (2021)	• (도시기능 집적성) 첨단특화산업 유치, 로컬네트워크 강화 • (공간 확장성) 순환재생 방식, 점진적 확장
2	이용자 측면에서 본 고속철도역 복합개발과 역세권 성장의 구조적 영향 관계 연구	최종호 (2023)	• (도시기능 집적성) 상업·업무·문화 복합기능 도입, MICE 산업 유치 • (광역교통 접근성) 복합환승센터, 광역경제권 연계
3	지역활성화를 위한 워터프론트 도시의 문화·환경적 공간계획 방향 연구	곽채은 (2021)	• (도시기능 집적성) 문화산업·관광거점 조성 • (공간 확장성) 친수·녹지축 확장 • (정책적 실현가능성) 항만재개발, 도시재생 뉴딜 연계

■ 이를 볼 때, 도시 내 복합거점생활권 육성 전략으로는 복합용도 개발 등 도심기능의 집적, 도심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보행가능성 강화 및 고품질 공공공간의 확충이 공간전략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음

❖ 글로벌도시 인천을 위한 복합거점생활권 육성과 실천전략 모색

■ 인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이라는 비전하에 세계인의 마음길을 여는 제3의 개항인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으로의 도약을 위한 3대 목표 및 6대 전략[9]을 통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이에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합거점생활권의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해 직장·방문인구 중심의 유동인구 확대가 요구됨

9) 6대 전략(6G)으로 제물포르네상스 선도사업 본격 추진, 미래 전략산업 육성, 성장 기반 확대,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지 위상 확립, 고품격 문화의 매력 도시 조성, 공간혁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들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유동인구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토대로 유동인구 및 도시기능의 집적성을 고려한 복합거점생활권을 선정하고, 유동인구 활성화를 보다 촉진할 수 있는 복합거점생활권의 공간전략 및 이를 위한 실천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SKT 통신데이터 서비스인구 중 직장인구와 방문인구를 중심으로 시간대별 및 연령대별 공간분포 특성을 살펴보고, 유동인구의 공간적 집적을 고려한 복합거점생활권을 설정함
- 행정동별 유동인구와 도시공간적 특성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유동인구 활성화와 관련 있는 요인을 도출하여 복합거점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검토대상지를 선정함
- 복합거점생활권별 유동인구 및 지역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점별 공간전략 및 실천방안을 모색함

2)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내용

■ 생활인구 데이터는 군·구, 행정동 단위에서 자료에 따라 일 평균, 1시간 단위 자료를 활용하며, 주중 평균·주말 평균, 주간, 새벽+야간 평균 값을 사용함

■ 특히, 기초단위구의 직장인구와 방문인구에 대한 Getis-Ord Gi* 분석에서는 최대값 시점에 해당하는 주중 직장인구 09시와 주말 방문인구 14시 데이터를 활용함

- 단순히 평균값만 사용할 경우, 특정 시간대의 집중 지역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또한 공간적 범위는 인천시 전역 대상으로 하되, 유동인구 규모의 과소 또는 과다지역은 통계적 오류 등 효과적인 특성 분석을 위해 제외함

- 유동인구 규모 과소: 강화군·옹진군의 도서지역
- 유동인구 규모 과대: 인천공항의 특수성에 따른 중구 운서동 제외

〔표 4-2〕 생활인구 데이터 활용(4장)

구분	공간 단위	분석 내용	시간/연령 기준
생활인구	행정동	• 생활인구	일 평균
		• 시간별 직장인구, 방문인구	1시간, 주중 평균, 주말 평균
		• 연령대별 직장인구, 방문인구	일 평균, 10대 이하,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 시간대별 유동인구	주간(9~19시), 새벽+야간(19~8시)
	기초단위구	• 직장인구, 방문인구의 Getis-Ord Gi* 분석	주중 직장인구 9시, 주말 방문인구 14시
유입 인구	행정동	• 유입지 분석(서울, 경기 시·군)	일 평균

2. 인천시 유동인구 현황 및 특성

1) 인천시 전체 유동인구

❖ 유동인구는 주민등록인구보다 빠른 증가, 방문인구 비중 확대 추세

- 인천시 생활인구(상주인구 및 유동인구)는 2021년 261만 명에서 2024년 274만 명으로 4.8% 증가해 주민등록인구(2.5%)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상주인구와 방문인구는 2021년 대비 각각 0.4%, 16.6% 증가한 반면에 직장인구는 3.5% 감소하여 상반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주인구 증가폭이 정체하고 있어 주로 방문인구의 증가 영향으로 보임

[표 4-3] 주민등록인구 및 생활인구 변화 비교(2021년, 2024년)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 인구	생활인구(총량, 구성비)			
		계	상주인구	유동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
2021년	2,948,375	2,610,558	1,340,323 (51.3)	416,355 (15.9)	853,880 (32.7)
2024년	3,021,010	2,743,582	1,346,206 (49.1)	401,995 (14.7)	995,381 (36.3)
증감률	2.5	4.8	0.4	-3.5	16.6

❖ 특·광역시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유동인구 비율

- LH토지주택연구원 보고서(2024)의 자료를 활용하여,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의 주민등록인구(a)와 유동인구(b)를 합산한 체류인구(a+b) 대비 주민등록인구 비율을 비교함
  - 비율이 낮을수록 외부 또는 내부 다른 거점에서 유입된 인구의 비중이 높음을 의미함
- 인천시는 수도권 내에서 중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광역시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외부 유입이 적은 지역에 해당함
  - 인천시(0.83)는 수도권 내에서 서울(0.81)보다 비율이 높아 서울만큼의 광역 유입력은 아니지만, 경기도(0.84)보다는 낮아 상대적으로 큼
  - 6대 광역시와 비교하면 부산·광주(0.80), 울산(0.81), 대구·대전(0.82)보다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외부 유입이 적음
    - 이는 주변 지역에 대한 중심성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음을 의미함

〔표 4-4〕 타 지자체와의 체류인구 대비 주민등록인구 비율 비교(2021년)

(단위: 명)

구분		체류인구(a+b)				a/(a+b)
		주민등록인구(a)	유동인구(b)			
			계	직장인구	방문인구	
수도권	인천광역시	2,948,375	612,929	142,524	470,405	0.83
	서울특별시	9,509,458	2,263,175	605,146	1,658,029	0.81
	경기도	13,565,450	2,630,382	640,766	1,989,615	0.84
광역시	부산광역시	3,350,380	848,101	189,733	658,368	0.80
	대구광역시	2,385,412	537,601	123,192	414,409	0.82
	대전광역시	1,452,251	316,142	77,821	238,321	0.82
	광주광역시	1,441,611	361,062	77,782	283,280	0.80
	울산광역시	1,121,592	267,708	71,882	195,826	0.81

주1) LH토지주택연구원(2024)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주2) 해당 자료에서는 SKT 통신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의 유동인구(KT 통신빅데이터 활용)와 상이함

❖ 주중 오전 직장인구 집중, 주말 오후 방문인구 절정

- 2024년 기준, 인천시 전체 유동인구는 주중 141.3만 명, 주말 138만 명으로, 주중이 주말보다 약 3.3만 명 많은 근소한 차이를 보임
  - 인천시는 주중과 주말 간 유동인구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음
- 직장인구는 주중(43.6만 명)에서 주말(36.8만 명)보다 약 6.9만 명 많고, 방문인구는 주말(101.3만 명)에서 주중(97.8만 명)보다 약 3.6만 명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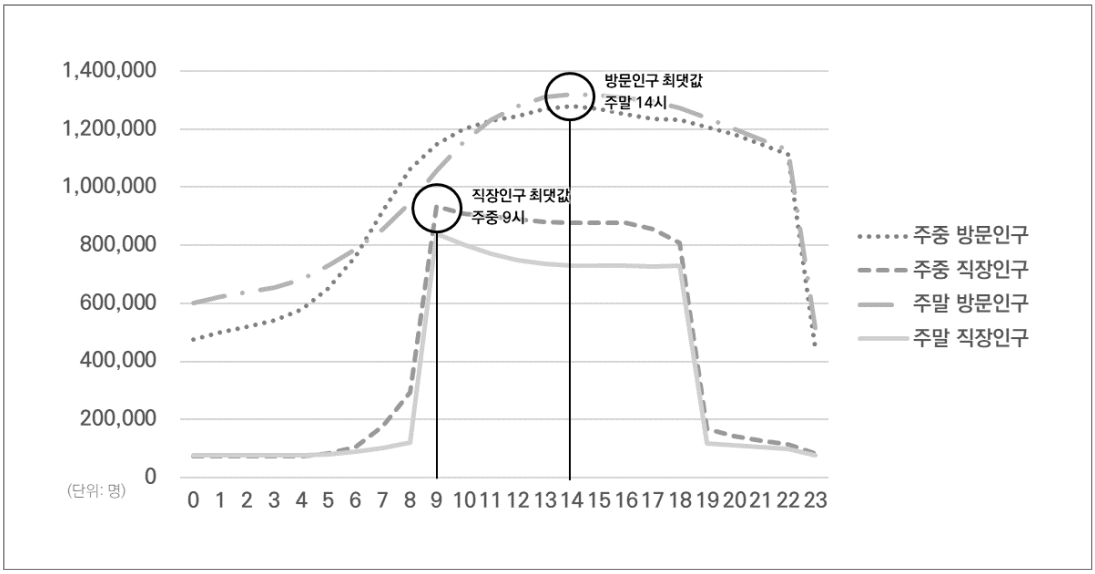
〔표 4-5〕 주중 및 주말 유동인구

(단위: 명)

구분	주중	주말
직장인구	436,306	367,684
방문인구	977,621	1,013,140
유동인구	1,413,927	1,380,824

- 직장인구는 주중 9시, 방문인구는 주말 오후 2시에 최대치를 보임
  - 주중 직장인구는 9시(93만 명)에서 최대치를 기록하며, 이후 18시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뚜렷한 업무 중심의 시간대 패턴이 나타남
  - 주말은 직장인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방문인구는 오전부터 점차 증가하여 14시(132만 명)에서 절정에 달한 후, 23시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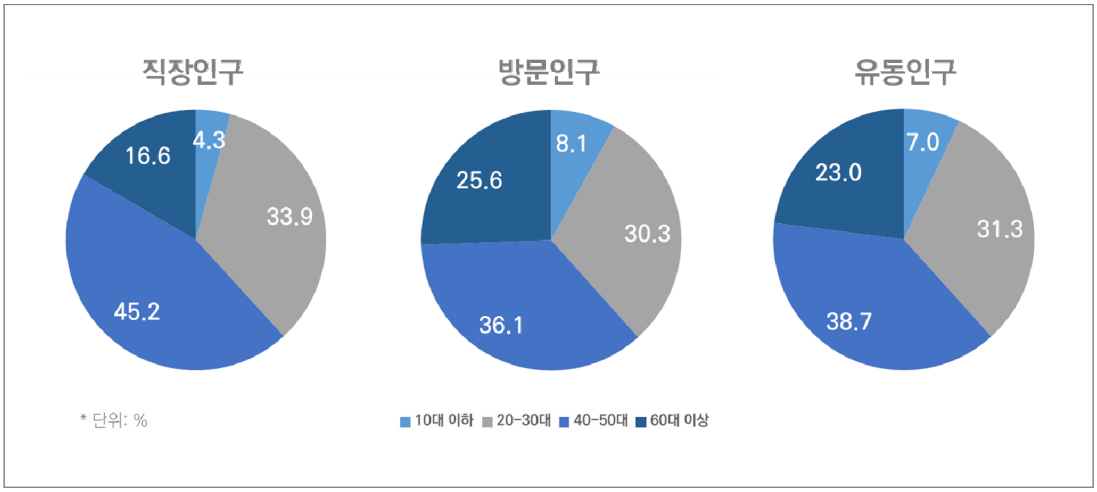
〔그림 4-1〕 주중 및 주말 시간대별 유동인구 그래프



❖ 직장인구는 청년층과 중년층, 방문인구는 60대 이상이 상대적 높음

- 인천시 유동인구 중 청년층(20-30대)이 44만 명(31.3%), 중년층(40-50대)이 54만 명(38.7%)으로 총 98만 명(70%)을 차지하여 대부분이 경제활동 중심 연령대에 집중됨
  - 직장인구와 방문인구 모두 40-50대와 20-30대 비중이 차례로 높게 나타났으나, 방문인구의 경우 60대 이상 비중이 25.6%로 직장인구(16.6%)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4-2〕 인천시 연령대별 유동인구 구성비



2) 군·구별 유동인구

❖ 유동인구 추이: 서구 최대 규모·중구 최고 증가율, 남동구 유일하게 모두 감소

■ 군구별 유동인구는 서구(26만 명)가 가장 크며, 증가율은 중구(44.6%)가 가장 높음

- 중구 유동인구 증가는 코로나19(2021년) 이후 인천공항의 특수성에 기인함
- 남동구는 유동인구가 감소하였으며, 남동산단 등 산업기능 유동인구 감소 영향으로 보임

〔표 4-6〕 군구별 유동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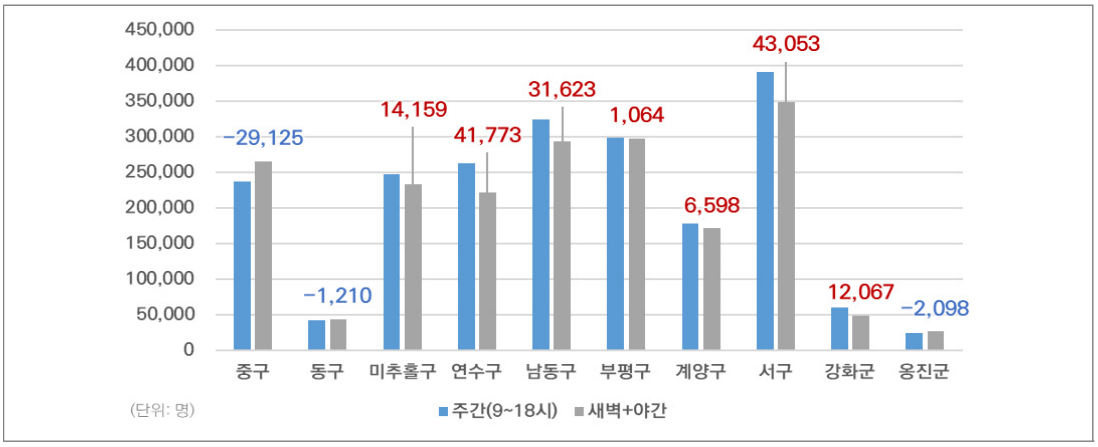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유동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		
	2021년	2024년	증감율	2021년	2024년	증감율	2021년	2024년	증감율
중구	96,691	174,561	**44.6**	31,456	35,609	**13.2**	65,235	138,952	**113.0**
동구	28,885	29,448	1.9	6,405	6,030	-5.9	22,480	23,418	4.2
미추홀구	163,845	166,142	1.4	50,518	47,680	-5.6	113,327	118,462	4.5
연수구	158,274	169,449	6.6	57,409	55,977	-2.5	100,865	113,472	12.5
남동구	227,067	215,486	**-5.4**	72,792	66,616	**-8.5**	154,274	148,870	**-3.5**
부평구	198,611	205,278	3.3	60,762	56,273	**-7.4**	137,849	149,005	8.1
계양구	118,109	120,798	2.2	39,246	33,834	**-13.8**	78,863	86,964	10.3
서구	227,285	259,698	**12.5**	81,269	83,847	**3.2**	146,016	**175,852**	**20.4**
강화군	38,067	38,897	2.1	11,659	11,193	-4.0	26,407	27,704	4.9
옹진군	13,401	17,617	23.9	4,839	4,935	2.0	8,562	12,682	48.1

■ 군·구별로 주간인구와 새벽·야간인구의 차이를 살펴보면, 서구(+4.3만 명), 연수구(+4.2만 명), 남동구(+3.2만 명) 등은 주간인구가 새벽+야간인구보다 뚜렷하게 많은 직장중심형 지역으로, 경자구역과 산업단지에 따른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반면, 중구(-2.9만 명), 동구(-1천 명), 옹진군(-2천 명)은 새벽+야간인구가 주간보다 많음

〔그림 4-3〕 군구별 주간 및 새벽·야간 시간대 유동인구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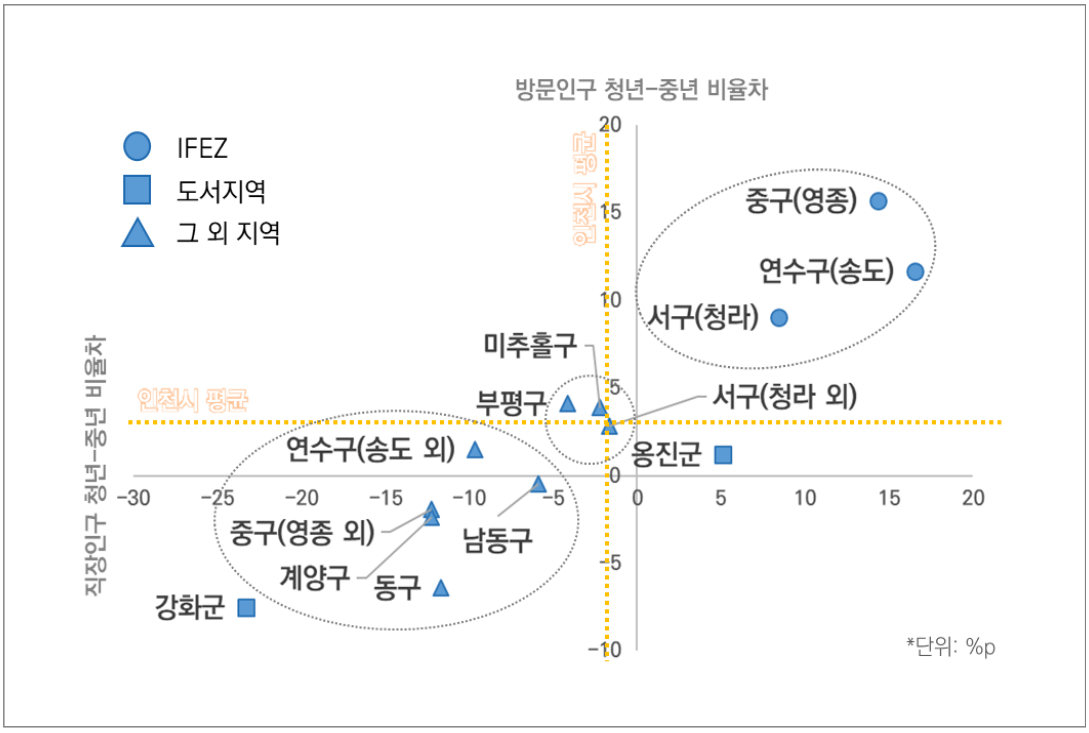


주) 각 막대 위 수치는 주간 인구와 새벽·야간 인구의 차이를 데이터 레이블로 표시한 것임

❖ IFEZ 청년층 강세, 도서지역 및 중·동구 중년층 우세

- 주중 직장인구와 주말 방문인구를 기준으로 군구별 청년·중년 비율을 비교한 결과,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 IFEZ(송도·영종·청라)는 직장·방문인구 모두 청년층 비중이 높으며, 송도는 직장, 영종·청라는 방문인구에서 특히 두드러짐
  - 도서지역(강화·옹진)은 전반적으로 중년층이 우세하며, 군부대 입지의 영향으로 옹진 일부에서만 청년층 비중이 높음
- 그 외 지역은 대부분에서 청년층보다 중년층이 우세하며, 특히 중·동구인 제물포구에서 청년층과 중년층의 비율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청년층 유입을 위한 유동인구 유도 전략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됨
  - 서구(청라 제외)·미추홀구·부평구는 평균보다 청년층 비율이 높으며, 검단신도시 개발, 대학·상업·문화 기능 등 지역 특성과 연계됨

〔그림 4-4〕 군구별 직장인구 및 방문인구 청년층-중년층 구성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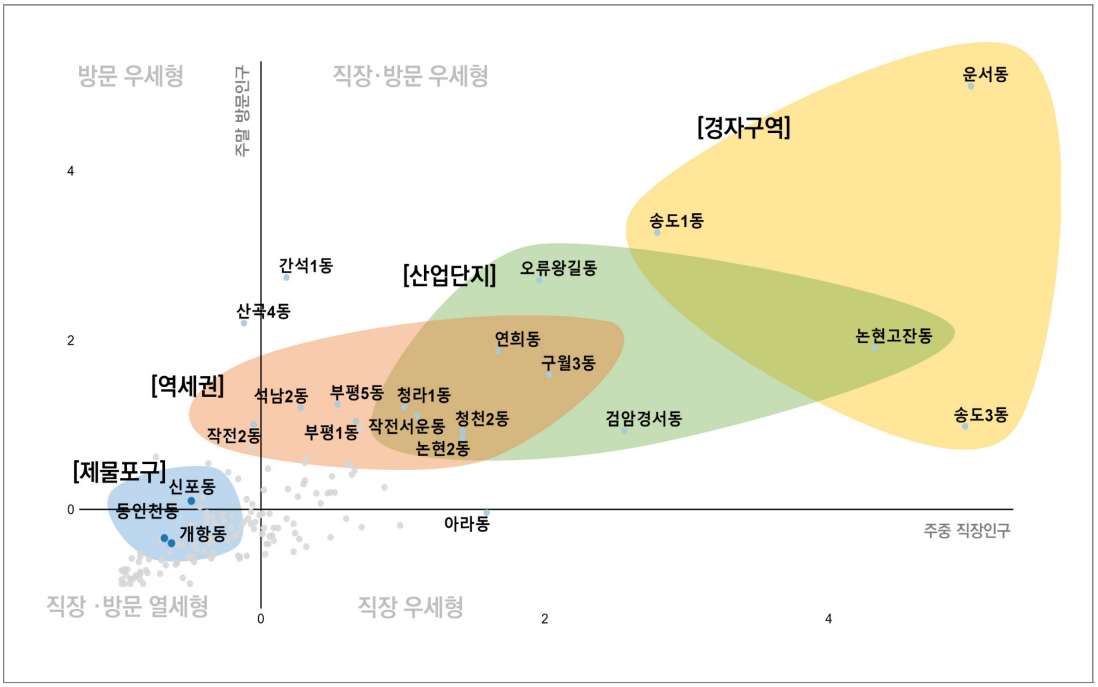


3) 행정동별 유동인구

❖ 주중 직장인구 및 주말 방문인구는 원도심과 IFEZ간 뚜렷한 격차

- 행정동별 주중 직장인구와 주말 방문인구를 표준화하여 이를 사분면 상에 표현한 결과, 우상향의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 특징임
- 직장·방문 우세형은 운서동, 송도1동, 송도3동인 IFEZ 지역과 논현고잔동, 오류왕길동인 산업단지에서 주도적으로 나타나며, 일부 부평1동, 구월3동 등 역세권 지역도 포함됨
- 방문 우세형 역시 역세권 접근성이 높은 작전2동 등이 해당함
- 이러한 특성을 볼 때, 기업 및 상업기능의 집적지로, 역세권 등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서 인구 유동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신포동, 동인천동, 개항동 등 원도심 중심지는 대부분 직장·방문 열세형으로, 중심기능 쇠퇴에 따라 인구 유동이 열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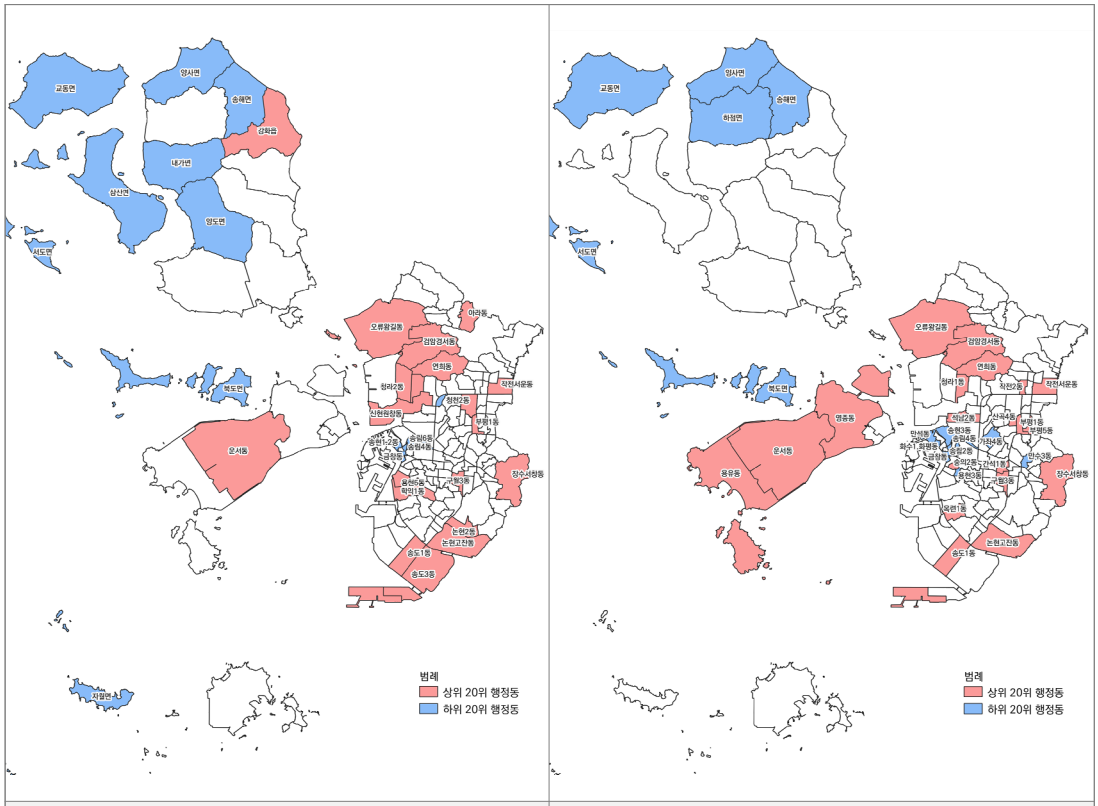
〔그림 4-5〕 행정동별 직장·방문인구 유형 분포



주1) 주중 직장인구 하루 평균 및 주말 방문인구 하루 평균을 각각 표준화함
주2) 축을 ±5로 제한하였으며, 그 이상 값(운서동)은 경계에 표시함

- 주중 직장인구 상위 행정동은 운서동, 송도3동, 논현고잔동, 송도1동 순으로 일평균 1만 명 이상이 근무하며, 구월3동과 부평1동을 제외하면 원도심 내 대부분 지역은 직장인구 상위지역에 포함되지 않음
  - 주중 직장인구 하위 행정동은 하위 20위 내 대부분이 서도면, 자월면, 북도면 등 강화·옹진 섬 지역과 율목동, 송림2동, 도원동 등 중·동구의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음
- 주말 방문인구 상위 행정동은 인천공항이 위치한 중구 운서동으로, 일평균 약 7만 5천 명이 방문하여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 뒤는 송도1동, 간석1동, 오류왕길동, 산곡4동, 연희동이며, 모두 평균 2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말 방문인구 하위 행정동은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등 섬 지역인 옹진군이 다수를 차지하며, 내륙지역은 송림2동, 율목동, 화수1.화평동, 만석동과 같이 동구에 집중되어 있음

〔그림 4-6〕 유동인구 규모별 상·하위 행정동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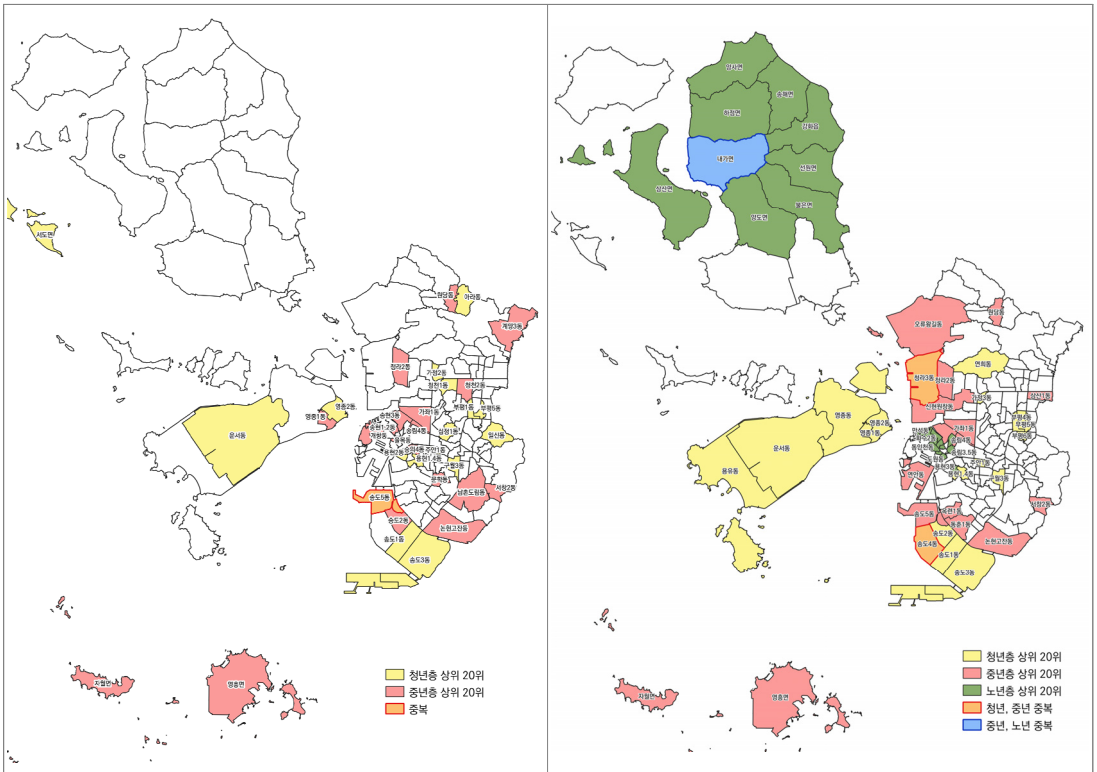


주) 직장인구와 방문인구 수는 각각 주중 및 주말 일 평균값으로 계산

❖ 청년은 신도시 위주, 중년은 원도심·산단, 노년은 강화·동구를 선호

- 주중 직장인구의 청년층 비율이 높은 행정동은 용현1·4동 등 대학가와 송도1·3·5동, 운서동, 영종2동 등 경자구역, 구월3동(인천시청 주변)으로 구분됨
  - 중년층 비율이 높은 행정동은 원도심(율목동, 송현3동, 숭의4동), 전통 산업단지(청천2동, 논현고잔동, 남촌도림동), 일부 경자구역(송도2동, 청라2동, 송도5동) 등 다양하게 분포함
- 주말 방문인구의 청년층 비율이 높은 행정동은 원도심 상업지역(부평4·5동, 구월3동), 신도시 지역(송도1·2·4동, 청라3동), 중구 영종도(용유동, 운서동, 영종동) 등으로 나타남
  - 중년층 비율이 높은 행정동은 연안동, 송현3동, 송림5동 등 중·동구의 원도심 지역과 청라2동, 청라3동, 송도4동, 송도5동 등 경제자유구역, 자월면, 영흥면, 덕적면, 내가면 등 옹진군·강화군 일부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 노년층 비율이 높은 행정동은 불은면, 양사면, 양도면, 강화읍 등 대부분의 강화도 전역과 화수1.화평동, 송림3.5동, 화수2동 등 동구에 집중적으로 분포됨

[그림 4-7] 유동인구 연령대별 상·하위 행정동 분포



주중 직장인구 | 주말 방문인구

주) 직장인구와 방문인구 수는 각각 주중 및 주말 일 평균값으로 계산

4) 외부 유입 유동인구 특성

❖ 출발지 기준 유입인구는 시 인접 지역에서 주로 유입

- 인천시 외부 유입인구 규모는 총 24만 명으로, 경기가 13.5만 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6.8만 명, 기타 지역 4만 명 순임
  - 경기에서 가장 많이 유입되는 지역은 부천시(3.2만 명), 김포시(1.8만 명), 시흥시(1.6만 명)로, 각각 경기 전체 유입량의 23.8%, 13.1%, 11.9%를 차지함
  - 서울 또한 마찬가지로 인천시와 인접한 지역인 강서구에서 9천여 명(12.53%)가 유입되며, 그 뒤를 이어 양천구(6천 명, 8.5%), 구로구(5천 명, 7.6%) 순으로 유입인구 많음

〔표 4-7〕 수도권 유입인구 상위 3개 시군구

(단위: 명, %)

지역		유입량	구성비
경기	1. 부천시	32,077	23.8
	2. 김포시	17,714	13.1
	3. 시흥시	16,091	11.9
서울	1. 강서구	8,523	12.5
	2. 양천구	5,765	8.5
	3. 구로구	5,139	7.6

❖ 목적지 기준 유입인구는 주로 경자구역 및 공항과 남동산단에 집중

- 서울·경기에서의 유입인구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직장 또는 방문의 유입 목적에 따라 공간적으로 상이한 분포를 보임

〔표 4-8〕 수도권 유입인구 상위 3개 목적지

(단위: 명, %)

구분	직장인구			방문인구		
	지역	유입량	구성비	지역	유입량	구성비
군구별	1. 서구	6,205	19.81	1. 중구	70,695	33.36
	2. 연수구	5,102	16.29	2. 서구	31,550	14.89
	3. 중구	4,900	15.65	3. 부평구	24,251	11.45
행정동별	1. 운서동	3,639	11.62	1. 운서동	54,627	25.78
	2. 송도3동	2,861	9.14	2. 용유동	7,253	3.42
	3. 논현고잔동	1,710	5.46	3. 오류왕길동	5,065	2.39
계	31,318			211,886		

- 직장인구 유입은 영종(운서동 11.62%)·송도(송도3동 9.14%)·남동산단(논현고잔동 5.46%) 지역이 상위권에 속함
- 방문인구 유입의 주요 목적지는 영종(중구 33.36%, 운서동 25.78%, 용유동 3.42%) 지역으로, 공항으로 인한 유입량이 주를 이룸

❖ 내·외부 유입인구 연계구조로 본 생활권은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과 상이

■ 인천시 내·외부 유입인구 흐름을 바탕으로 연계구조를 살펴보면,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과는 일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중부생활권에 속해있는 미추홀구의 경우, 동구 뿐만 아니라 중구(영종)과 연수구(송도외)와 생활권으로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남생활권에 속해있는 연수구(송도)의 경우, 인천대교에 따른 중구(영종)과 유동인구 유입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보임
- 즉, 행정구역 또는 정주인구 중심의 기존 생활권체계는 유입인구 흐름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생활권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특히,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부천·고양·김포 등 주변 도시와 인근 자치구와의 연계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유동인구 기반의 연계생활권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4-9〕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과의 비교

<table>
<tr><th>구분</th><th>도시기본계획 대생활권</th><th>유입인구 기반 생활권</th><th>연계생활권</th><th>비고</th></tr>
<tr><td>중부</td><td>중구(영종 외), 동구, 미추홀구</td><td>중구(영종 외), 동구, 미추홀구</td><td>양천구</td><td>동일</td></tr>
<tr><td>서남</td><td>연수구</td><td rowspan="3">연수구, 남동구, 중구(영종), 미추홀구</td><td rowspan="3">구로구, 시흥시, 양천구</td><td rowspan="3">미추홀구 추가</td></tr>
<tr><td>동남</td><td>남동구</td></tr>
<tr><td>영종</td><td>중구(영종)</td></tr>
<tr><td>동북</td><td>계양구, 부평구</td><td rowspan="2">계양구, 부평구, 서구, 동구, 미추홀구</td><td rowspan="2">김포시, 고양시, 강서구, 부천시, 양천구</td><td rowspan="2">동구, 미추홀구 추가</td></tr>
<tr><td>서북</td><td>서구</td></tr>
<tr><td>강화</td><td>강화</td><td>강화</td><td>-</td><td>동일</td></tr>
<tr><td>옹진</td><td>옹진</td><td>옹진</td><td>-</td><td>동일</td></tr>
</table>

3. 인천시 복합생활거점 설정 및 공간특성

1) 기초단위구 유동인구 공간분석 개요

❖ 행정동보다 세부화된 기초단위구를 활용한 유동인구 공간분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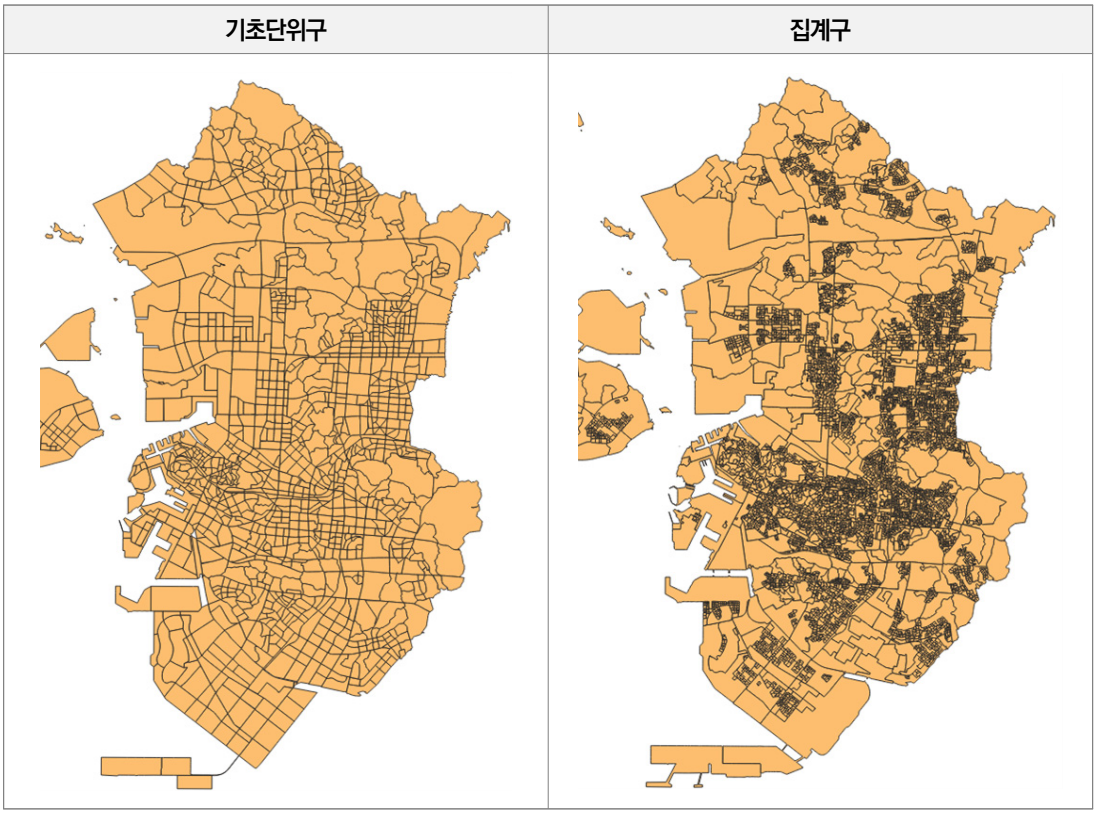
- 본 연구는 행정동보다 한 차원 더 세부화된 공간 단위인 기초단위구(기초구역)를 활용하여 유동인구 공간 분포를 분석함. 기초구역은 행정동 경계보다 작은 블록, 건물군 단위까지 구획되어 소규모 지역의 공간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음
  - 또한 면적이 비교적 균일하게 나누어져 있어, 핫스팟 분석 등 공간통계 분석을 사용할 때 과대·과소 평가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어 유리함
- 2025년 2월 기준, 인천시 기초구역은 총 1,344개로 구성되며, 서구 290개(21.6%), 남동구 201개(15.0%), 미추홀구 144개(10.7%), 중구 111개(8.3%) 순으로 나타남. 평균 면적은 강화·옹진군과 중구 등 도서지역에서 넓게 나타나고,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등 원도심에서는 상대적으로 좁게 형성됨

〔표 4-10〕 인천시 군구별 기초구역 및 집계구 통계

구분	기초단위구			집계구		
	수(개)	비율	평균면적(㎡)	수(개)	비율	평균면적(㎡)
중구	111	8.3%	1,273,003	349	5.6%	425,528
동구	75	5.6%	96,244	127	2.0%	56,271
미추홀구	144	10.7%	172,661	847	13.5%	29,462
연수구	133	9.9%	422,210	819	13.0%	77,155
남동구	201	15.0%	285,370	1046	16.7%	55,071
부평구	160	11.9%	200,503	1016	16.2%	31,608
계양구	130	9.7%	350,245	588	9.4%	77,438
서구	290	21.6%	456,589	1250	19.9%	106,119
강화군	63	4.7%	6,513,053	152	2.4%	2,718,457
옹진군	37	2.8%	4,659,244	88	1.4%	2,105,096
합계	**1,344**	**100.0%**	**803,300**	**6,282**	**100.0%**	**176,720**

주) 기초단위구는 2025년 2월 기준, 집계구는 2025년 2분기 기준

〔그림 4-8〕 기초구역 및 집계구 면적 비교



주) 기초단위구는 2025년 2월 기준, 집계구는 2025년 2분기 기준

❖ 유동인구의 최대값 시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

- 기초구역 분석에는 유동인구의 시공간적 특성을 평균값으로 처리할 경우 상대적으로 집중 지역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값 시점에 해당하는 주중 직장인구 09시와 주말 방문인구 14시 데이터를 사용함. 기초구역 분석은 행정동 단위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행정동 내 직장 또는 방문인구의 밀집지역이 나타난다는 특성을 가짐
  - 각 기초구역의 유동인구 값이 전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표준화 지표인 Z-score 값을 산출하여 분석함
  - 또한, 유동인구가 특정 지역에 밀집되는 공간적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Getis-Ord Gi*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특정 지역에서 유동인구가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게 집중되는 군집 현상을 토대로 복합생활거점을 확인함
- 분석의 공간 범위는 인천국제공항과 도서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유동인구의 최소·최대값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서지역과 인천국제공항에 해당하는 기초구역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표 4-11〕 기초구역 분석 개요

공간단위	분석 내용	데이터	공간 범위
Z-score	기초구역 Z-score 1 이상 분포	• 주중 직장인구 09시 • 주말 방문인구 14시	도서지역,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
	연령대별 Z-score 1 이상 분포	• 주중 직장인구 일 평균값 • 주말 방문인구 일 평균값	
Getis-Ord Gi* 분석	콜드스팟, 핫스팟 분포	• 주중 직장인구 09시 • 주말 방문인구 14시	
	핫스팟 중첩 지역	• 주중 직장인구 09시 • 주말 방문인구 14시	

2) 주중 직장인구 및 주말 방문인구 밀집지역 분포

(1) 규모별 분포

❖ 주중 직장인구 밀집지역은 산업·행정·상업 거점에서 주로 나타남

- 주중 직장인구는 주로 개별 공장지역, 대규모 산업단지, 물류센터, 지식정보산업단지, 행정 업무시설이 위치한 구역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함
  - 공장 및 산업단지, 대규모 물류센터: 서운일반산업단지(작전서운동), 청천공단(청천1동), 부평 국가산업단지(청천2동), 수도권매립지·뷰티풀파크(오류왕길동), 인천 북항(신현원창동), 남동공단,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송도5동)
  - 지식정보산업단지: 송도지식정보 일반산업단지와 테크노파크역, 송도컨벤시아(송도1동)
  - 행정 업무시설: 인천시청 인근지역(간석1동, 구월2동),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경찰청(학익2동), 송도 해양경찰청 인근(송도1동)
- 또한, 주중 직장인구는 기존 도심 상업지역이나 신도시 대규모로 조성된 상업지역, 지역생활권 거점의 근린생활시설에서도 밀집되어 있음
  - 원도심 상업지역: 부평역 인근(부평1동, 부평 5동), 주안역 남측 상업지역(주안1동)
  - 신도시 대규모 상업지역: 테크노파크역 인근 쇼핑센터(송도3동), 청라 일반상업지역(청라1동, 청라2동 일부)
  - 근린생활시설 밀집지: 만수역 주변(만수2동, 만수5동), 연수역 인근(연수2동), 송도2동 준주거지역(송도2동)

■ 일부 주요 집객시설이 있는 곳이나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도 직장인구가 밀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하대학교 근처(용현5동, 학익2동), 연세대, 글로벌캠퍼스(송도3동), 인천계양체육관(작전서운동), 주안장로교회(산곡4동)나 검단신도시 개발지역(당하동, 불로대곡동) 등임

❖ 주말 방문인구 밀집지역은 상업 및 여가 거점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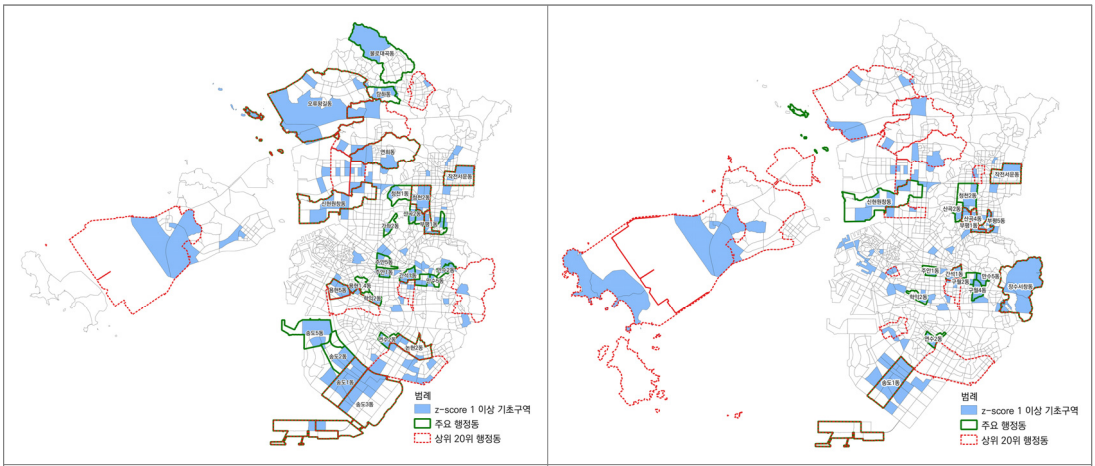
■ 주말 방문인구가 높은 지역은 전체의 9.0%로, 54개 행정동에서 확인되었으며 이 중 16개가 주요 행정동으로 분류됨

- 행정동 단위로는 뚜렷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중·동구의 일부 기초구역에서 방문인구의 집중이 나타남
- 미추홀구는 주중 직장인구 분포와 마찬가지로 주안1동의 주안역 인근과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경찰청 주변지역이 포함
- 연수구는 연수2동의 연수역·원인재역 인근의 상업지역에 분포함
- 남동구는 구월2동과 구월4동의 모래내시장, 만수5동의 만수역 인근 근린생활시설에 밀집됨
- 부평구는 산곡2동의 아파트 밀집지역과 청천2동의 부평국가산업단지·한국지엠부평공장 인근에 분포함

■ 주말 방문인구는 크게 대규모 상업지역, 근린생활시설 밀집지역, 대규모 공원, 체육·교육시설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남

- 대규모 상업지역: 부평역 상권(부평1동·부평5동), 주안역 남측 상권(주안1동), 중구 개항장 인근, 송도현대아울렛
- 근린생활시설 밀집지역: 연수역·원인재역(연수2동), 만수역(만수5동), 모래내시장(구월4동)
- 대규모 공원: 인천대공원(장수서창동), 송도센트럴파크·해돋이공원(송도1동), 캠프마켓(산곡4동), 부평공원, 바다·섬(용유동)
- 체육시설, 교육시설: 인천계양체육관(작전서운동), 문학경기장, 인천아시아드경기장, 인하대학교 등

〔그림 4-9〕 규모별 주중 직장인구 및 주말 방문인구 밀집지역



주중 직장인구 | 주말 방문인구

주) 도서지역, 인천국제공항에 해당하는 기초구역 제외

(2)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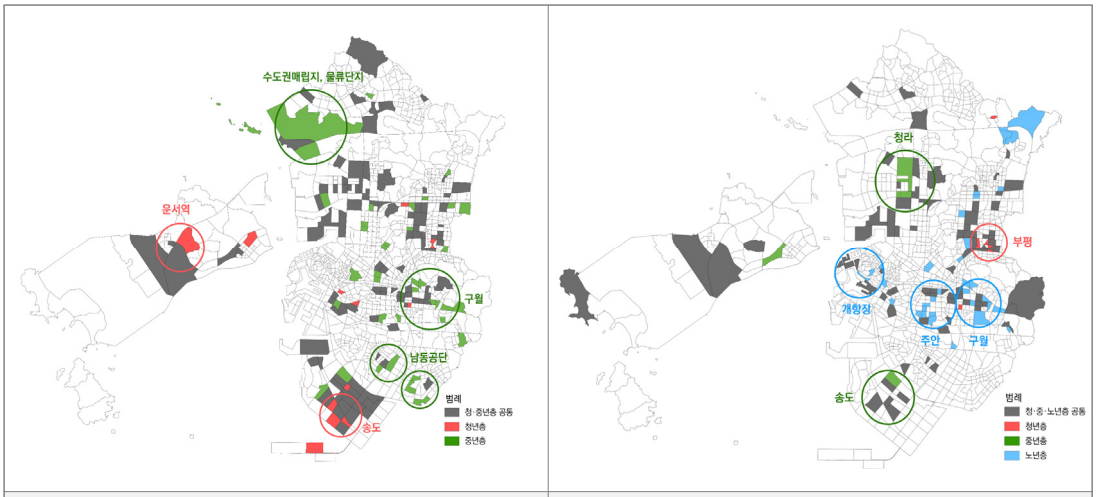
❖ 청년층은 첨단산업, 중년층은 제조·행정 중심에 주로 분포

- 청년층과 중년층 주중 직장인구는 송도·영종·청라 등 IFEZ와 부평·구월·용현 등 원도심에 분포함
  - 청년층은 송도·영종 등 IFEZ에 더 집중되며, 이는 첨단산업 중심 고용 구조와 연계된 것으로 해석됨
  - 중년층은 IFEZ 외에도 남동산단·주안산단 같은 제조업 밀집지와 구월 같은 행정기능 도심에 분포하는 경향을 보임

❖ 주말 방문은 청년=상업·문화, 중년=신도시 여가, 노년=원도심

- 전 연령층의 주말 방문인구는 부평, 송도, 구월, 개항장, 인천대공원 일대에서 활발하며, 연령별로는 분포 차이가 확인됨
  - 청년층은 부평 상업·문화·교통 중심지, 중년층은 송도·청라 등 신도시형 상업·여가 공간, 노년층은 구월·주안·개항장 등 원도심에 집중됨
- 주중 직장인구와 비교할 때 IFEZ와 원도심 간 차별적 양상이 나타남
  - 개항장·주안·구월은 방문인구가 직장인구보다 많아 문화·역사·상업 기반의 방문 수요가 강하게 작동함
  - 송도·청라는 직장인구는 밀집되지만 주말 방문은 적어 문화·여가 기능의 한계를 시사함

〔그림 4-10〕 주중 직장인구 및 주말 방문인구 밀집지역



주중 직장인구 | 주말 방문인구

주) 도서지역, 인천국제공항에 해당하는 기초구역 제외

(3) 분석 종합

- 직장인구는 산업·업무·상업·집객시설에서, 방문인구는 상업·공업·문화시설 중심으로 나타나며, 연령대별로 공간적 분포 양상이 다소 차이가 있음
- 주중 직장인구는 대규모 산업단지·공장지역, 물류센터, 행정업무시설이 위치한 지역에서 주로 분포하며, 기존 도심 상업지역이나 지역 생활거점의 근린생활시설에도 밀집함. 또한, 대학 캠퍼스, 체육시설과 같은 주요 집객시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남
  - 주말 방문인구는 대규모 상업지역, 근린생활시설 밀집지역, 대규모 공원, 대규모 체육시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됨
- 주중 직장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청년층은 행정동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주로 송도국제도시지역, 인하대 주변지역, 청천2동 산업단지에 밀집함. 반면, 중년층은 행정동 분포와 상이하며, 인천시 전역에 걸쳐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임
  - 주말 방문인구의 연령별 분포는 청년층의 경우 행정동 분포와 유사하게 송도, 영종, 청라, 부평 전역에 밀집하는 반면, 중년층은 행정동 분포와 상이하게 상업·근린생활시설 밀집지, 대규모 공원 및 경기장, 해안가를 중심으로 분포함. 노년층은 상위 행정동 분포와 달리 부평, 구월, 만수, 주안, 개항장, 송도국제도시 일부 지역에서 주로 나타남

3) 인천시 유동인구의 공간적 군집 특성

(1) 주중 직장인구 및 주말 방문인구 군집지역

❖ 주중 직장인구의 핫스팟(IFEZ, 산단 등) 및 콜드스팟(검단신도시, 산지 등)

- 주중 직장인구 수에 대한 Getis-Ord Gi* 분석 결과, 핫스팟은 IFEZ, 산업단지, 행정업무시설, 상업지역 등으로 집중됨
  - 99% 신뢰수준 구역은 82개로, 평균 직장인구는 1,885명임. 송도1동·송도3동·운서동·송도2동(IFEZ), 청천2동(산업단지), 구월2동·구월3동(행정 업무시설), 부평1동·부평5동·주안1동(상업지역) 등이 해당됨
  - 95% 신뢰수준 구역은 52개로, 평균 직장인구는 1,075명임. 청라1동·청라2동(청라 일부 지역), 논현고잔동·검암경서동·당하동(산업단지, 개별공장 입지지역) 등이 포함
- 콜드스팟은 직장인구의 집중도가 낮은 지역으로 검단신도시, 동구·중구 원도심 일대에 분포함
  - 99% 신뢰수준 구역은 11개로, 평균 직장인구는 91명임. 불로대곡동(검단신도시 지역), 송림3.5동·금창동·만석동·송림4동·송림6동·화수1.화평동(동구 일대) 등이 해당됨
  - 95% 신뢰수준 구역은 54개로, 평균 직장인구는 176명임. 신뢰수준 99%와 마찬가지로 송림3.5동, 송림6동, 화수1.화평동, 개항동, 만석동 등 중·동구에 밀집됨

〔표 4-12〕 주중 직장인구 핫스팟 및 콜드스팟 행정동 목록

구분	해당 행정동
핫스팟	• IFEZ: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5동, 운서동, 청라1동, 청라2동 • 산업단지 및 개별공장 지역: 청천2동, 논현고잔동, 검암경서동, 당하동 • 행정업무시설 인근: 구월2동, 구월3동 • 상업지역: 부평1동, 부평5동, 주안1동, 구월1동
콜드스팟	• 검단신도시 일대: 불로대곡동, 오류왕길동, 검단동 • 동구·중구 원도심: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 만석동, 화수1·화평동, 개항동 • 산지·저밀지역: 계양1동(계양산), 청학동(문학산)

❖ 주말 방문인구의 핫스팟(IFEZ, 상업지역 등)과 콜드스팟(검단신도시, 원도심)

- 주말 방문인구 수에 대한 Getis-Ord Gi* 분석 결과, 핫스팟은 IFEZ, 주요 상업지역, 전통시장, 공원, 대학 인근 등에서 확인됨
  - 99% 신뢰수준 구역은 76개로, 평균 방문인구는 3,158명으로 높은 수치임. 송도1동·송도2동·송도3동·운서동(IFEZ), 부평1동·부평4동·부평5동·주안1동·주안6동(상업지역), 용유동(해안지역), 구월4동(모래내시장) 등이 이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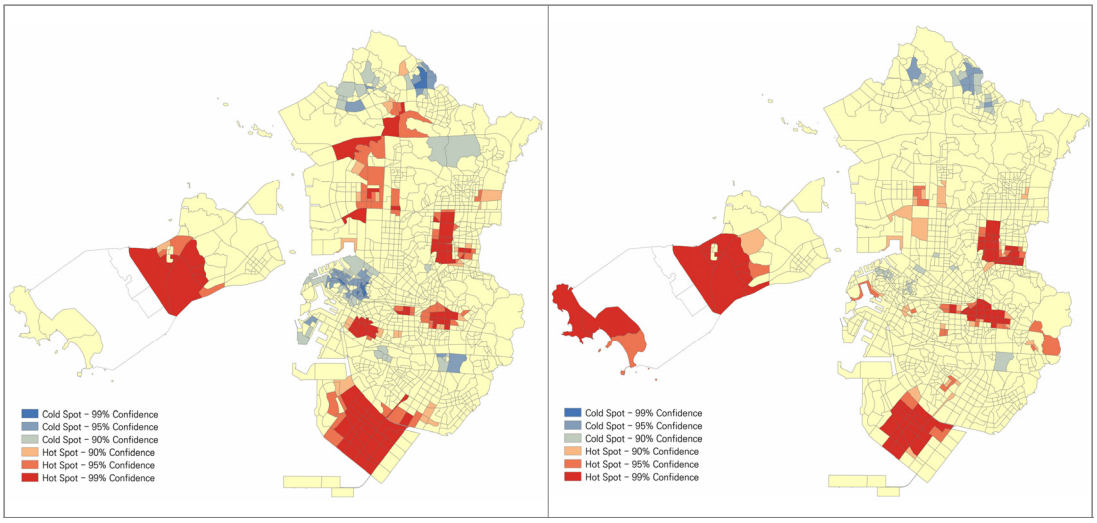
- 95% 신뢰수준 구역은 33개로, 평균 방문인구는 1,721명임. 청라1동(청라 상업지역), 장수서창동(인천대공원), 주안7동(신기시장), 개항동(개항장 일대) 등이 포함됨

■ 콜드스팟은 주말 방문인구의 집중도가 낮은 지역으로, 검단신도시 일대와 동구 일부 지역에 소규모로 분포함

〔표 4-13〕 주말 방문인구 핫스팟 및 콜드스팟 행정동 목록

구분	해당 행정동
핫스팟	• IFEZ: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운서동, 용유동, 청라1동 • 주요 상업지역/역세권: 부평1동, 부평4동, 부평5동, 주안1동, 주안6동, 주안7동, 구월3동, 구월4동, 연수2동, 가정1동 • 전통시장 인근: 모래내시장(구월4동), 신기시장(주안7동)/ 공원·여가 거점: 인천대공원(장수서창동) • 관광·문화 거점: 개항장 일대(개항동) / 대학 인근: 인하대학교 일대(숭의2동)
콜드스팟	• 검단신도시 일대: 불로대곡동, 아라동, 원당동, 검단동 • 원도심: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그림 4-11〕 주중 직장인구(좌) 및 주말 방문인구(우) 핫스팟 및 콜드스팟



주) 도서지역, 인천국제공항에 해당하는 기초구역 제외

(2) 직장·방문인구 핫스팟 중첩지역: 송도·영종·청라, 부평·구월·주안 일대

■ 주중 직장인구와 주말 방문인구가 동시에 밀집된 지역은 송도·영종·청라 등 IFEZ와 부평·구월·주안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은 직장과 방문 기능이 결합된 인천시 유동인구의 핵심 거점으로 확인됨

- 주중 직장인구는 용현, 수도권매립지, 남동산단 등으로 확장되는 반면, 주말 방문인구는 개항장, 용현, 용유지역 등에서 추가 분포가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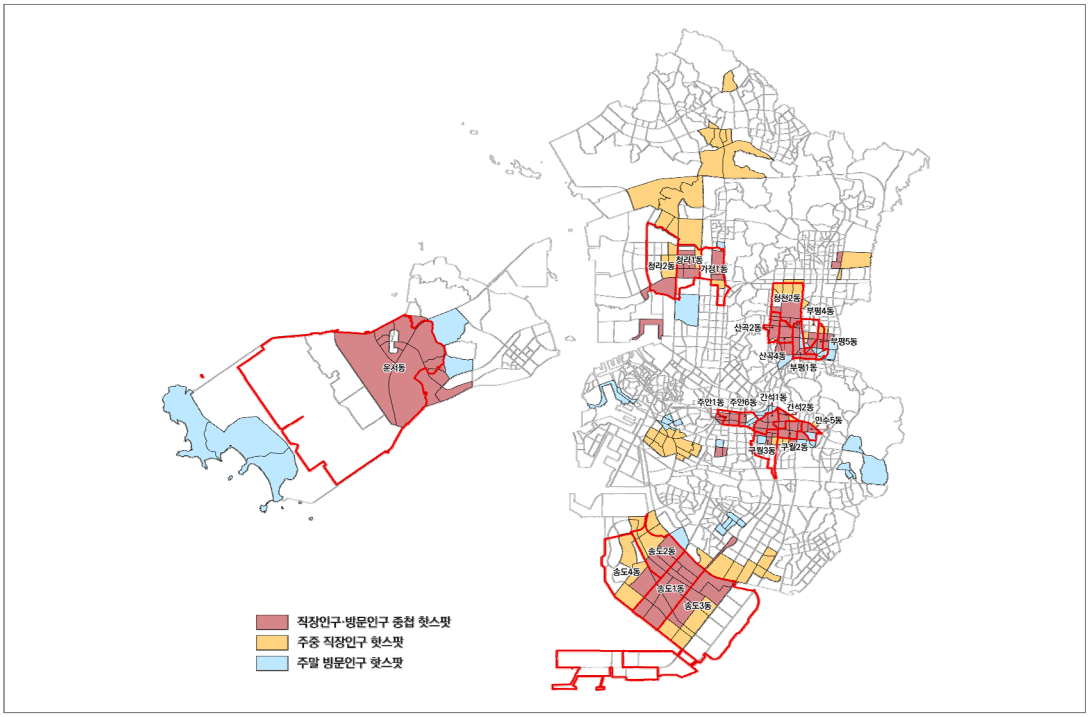
■ 거점별 특성을 보면, 송도는 직장인구 5.2만 명·방문인구 6.0만 명으로 총량이 가장 크지만, 면적이 12.9㎢로 넓어 밀도는 4천 명/㎢ 수준에 그쳐 분산형 구조를 보임

- 반대로 부평(직장인구 3.6만 명, 방문인구 6.9만 명)과 구월(직장인구 2.8만 명, 방문인구 5.8만 명), 주안(직장인구 1.0만 명, 방문인구 1.4만 명)은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방문인구 밀도가 7천~1만 6천 명/㎢에 달해 고밀도로 집적된 경향을 보임 특히 방문인구는 부평(6.9만 명)이 송도(6.0만 명)보다 많아, 원도심 상권의 흡인력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4-14〕 핫스팟 중첩 기초구역 기초통계량

거점 지역	기초구역	직장인구		방문인구	
	면적(㎡)	합계(명)	밀도(명/㎢)	합계(명)	밀도(명/㎢)
송도	12,892,457	52,172	4,047	59,903	4,646
영종	19,895,416	17,694	889	38,884	1,954
청라	3,399,038	9,888	2,909	14,838	4,365
부평	5,146,225	35,978	6,991	68,987	13,405
구월	3,404,161	28,056	8,242	58,353	17,142
주안	888,597	10,148	11,420	14,247	16,033

〔그림 4-12〕 주중 직장인구, 주말 방문인구 핫스팟 분석



주1) 주중 직장인구 09시, 주말 방문인구 14시 기준 / 주2) 도서지역, 인천국제공항에 해당하는 기초구역 제외

4) 유동인구의 영향요소 및 복합생활거점의 설정

(1) 유동인구 영향요소 분석

❖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변수를 분석지표로 하여 분석을 실시

▪ 유동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유의하다고 밝혀진 변수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상관성 분석을 수행함

- 시간적 범위는 2024년 기준이며, 일부 항목은 2023년 자료를 보완적으로 사용함
- 공간적 범위는 도서지역인 강화군·옹진군과 공항이 위치한 운서동을 제외하였으며, 영종1동과 영종2동을 영종1동으로 통합하여 총 134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함

▪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영향요소를 구체화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 종속변수는 2장에서 수행한 시간대별 유동인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중 직장인구의 최댓값(9시 기준)과 주말 방문인구의 최댓값(14시 기준)을 설정하였음
-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네 가지 범주(교통접근성, 물리적 환경, 인구구성, 경제활동)를 세분화하여 구성하였음
  - 물리적 환경은 시설과 용도지역으로, 경제활동은 산업활동과 카드소비로 구체화하였으며, 인구구성과 교통접근성 지표 또한 보완하여 활용하였음

❖ 주중 직장인구 영향요소: 교통·산업·소비 기반과 청년층 비율

▪ 주중 직장인구는 교통 접근성이 높고, 상업·업무·공업시설이 집적된 지역에서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상업시설 연면적, 공업·상업지역 면적이 뚜렷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청년층 비율 또한 직장인구와 높은 정(+)의 관계를 나타냄
- 산업활동 지표에서는 소비·상업 분야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게 확인되었고, 여가·문화, 사무·지원, 산업·제조 분야도 모두 정(+)의 관계를 보임
- 카드소비 총액·건수 역시 직장인구와 밀접하게 연계됨

▪ 이를 볼 때, 산업구조가 다변화되고 청년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직장인구 유입이 강화되며, 소비활동이 뒷받침되는 지역이 핵심 거점으로 작용함

❖ 주말 방문인구 영향요소: 상업·여가·문화 기능과 소비활동 중심

- 주말 방문인구는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상업·여가·문화 기능이 발달한 지역에 밀집함
  - 상업시설 연면적과 상업지역 면적이 가장 강한 정(+) 상관을 보였으며, 청년층 비율 또한 방문인구와 정(+)의 관계를 보임
  - 산업활동 지표에서는 소비·상업, 여가·문화 분야의 영향력이 크며, 카드소비 총액·건수 역시 방문인구와 강한 상관성을 가짐
- 청년층 중심의 인구구조와 소비 기반이 강한 지역일수록 주말방문 유인이 강화되며, 전반적으로 '소비–여가–문화'가 핵심 동력으로 작용함

〔표 4-15〕 주중 직장인구 및 주말 방문인구 영향요소

구분		변수	주중 직장인구 상관계수	주말 방문인구 상관계수
물리적 지표	교통접근성	지하철 노선 구분	0.183	0.193
		지하철 수	0.357	0.425
	시설	상업시설 연면적 합계	0.694	0.536
		업무시설 연면적 합계	0.547	0.364
		공업시설 연면적 합계	0.596	0.257
	용도지역	공업지역 면적	0.552	0.232
		상업지역 면적	0.379	0.301
사회 경제적 지표	인구구성	청년층 비율	0.355	0.188
		노년층 비율	-0.557	-0.231
	산업활동	사무·지원 분야 사업체 수	0.51	0.305
		산업·제조 분야 사업체 수	0.531	0.196
		소비·상업 분야 사업체 수	0.629	0.535
		여가·문화 분야 사업체 수	0.543	0.445
	카드소비	일평균 카드소비 총액	0.582	0.443
		일평균 카드소비 건수	0.633	0.45

주) 모든 변수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거점 활성화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

- 분석 결과, 유동인구의 집적이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상업시설 연면적은 주중 직장인구와 주말 방문인구 모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 이는 상업시설이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지역 내 유동인구를 끌어들이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함

■ 공업시설 연면적과 공업지역 면적은 주중 직장인구 유입에 뚜렷한 영향을 미침

- 이는 인천의 산업단지 중심 제조업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청년 직장인구 유입과도 연계됨
- 따라서 노후산단 재생, 첨단업종 유치,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산업 거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여가·문화 분야 사업체 수는 주말 방문인구뿐 아니라 주중 직장인구와도 높은 상관성을 보임

- 이는 고용 중심지에 여가·문화시설이 집적될 경우 직장인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소비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Work-Live-Play'가 통합된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업무시간 외 활용 가능한 여가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2) 복합생활거점의 설정: 주중 직장인구 및 주말 방문인구 핫스팟 중첩지역 특성

■ 주중 직장인구 및 주말 방문인구의 핫스팟 지역으로 중첩되어 나타난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영향요소별 기초통계량을 살펴봄

〔표 4-16〕 주중 직장인구 및 주말 방문인구 핫스팟 중첩지역 해당 행정동

지역	행정동 (총 21개 동)
송도	•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4개 동)
영종	• 운서동 (1개 동)
청라	• 청라1동, 청라2동, 가정1동 (3개 동)
부평	• 부평1동, 부평4동, 부평5동, 산곡2동, 산곡4동, 청천2동 (6개 동)
구월	• 간석1동, 간석2동, 구월2동, 구월3동, 만수5동 (5개 동)
주안	• 주안1동, 주안6동 (2개 동)

■ 분석 결과, 중첩지역에 해당하는 행정동은 인천시 전체 대비 물리적·사회경제적 지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교통접근성 측면에서 총 27개의 지하철역을 보유하여 인천시 전체(92개)의 29.3%를 차지함. 이는 거점지역이 도시 내 주요 교통 결절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 상업시설 연면적은 총 878만㎡로 인천시 전체의 28.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구성 측면에서는 청년층 거주 인구가 18.7만 명으로, 인천시 전체 청년층 인구의 24.2%를 차지하고 있어 직장 및 방문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일수록 청년층이 선호하는 주거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

- 산업활동 측면에서는 소비·상업 분야 사업체가 2.3만 개로 인천시 전체의 28.5%를 차지하며, 원도심인 부평과 구월을 중심으로 밀집 분포한다는 점에서 향후 복합거점생활권의 육성을 위해 소비·상업 분야의 활성화 또한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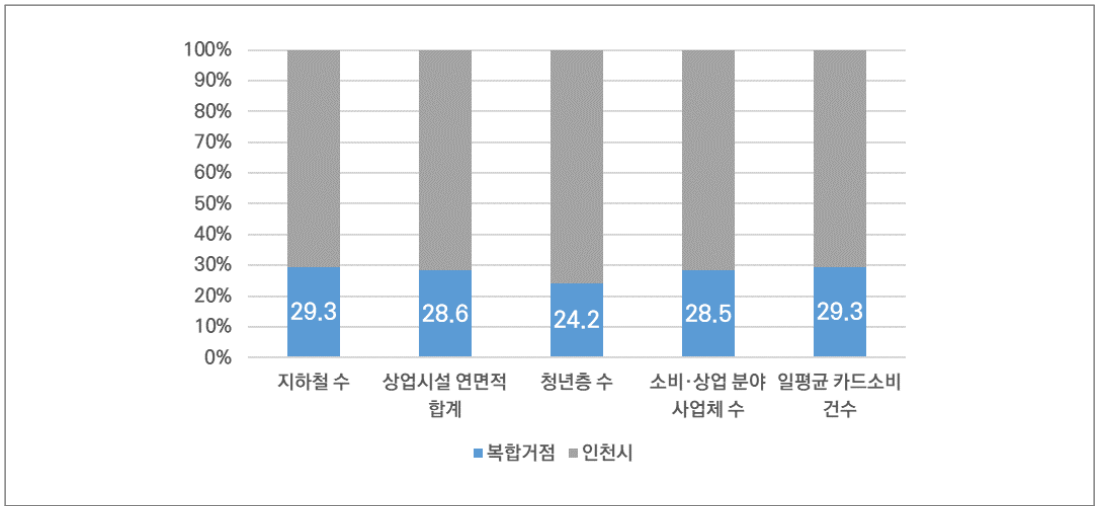
- 카드소비 측면에서는 일평균 소비 건수가 64만 건으로 인천시 전체의 29.3%를 점유하여, 생활소비 활동의 상당 부분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종합하면, 현재 인천의 주중 직장인구 및 주말 방문인구 밀집지역은 인천시 전체에서 약 30% 내외 도시기능이 집적되어 있으며, 청년층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교통·상업·소비 기능이 집약된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합생활거점으로 설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7] 복합거점생활권 내 유동인구 영향요소 및 인천시와의 비교

지역	지하철 수	상업시설 연면적 합계	청년층 수	소비·상업 분야 사업체 수	일평균 카드소비 건수
송도	7	2,567,247	43,090	4,553	159,783
영종	4	615,718	16,455	1,352	135,871
청라	2	1,215,642	32,277	3,246	82,200
부평	5	1,797,163	50,689	7,567	167,940
구월	6	1,774,174	32,263	4,524	47,578
주안	3	818,760	12,494	2,102	45,637
복합거점	27	8,788,705	187,268	23,344	639,009
인천시	92	30,740,375	773,280	81,976	2,178,184

[그림 4-13] 인천시 대비 복합거점생활권 유동인구 영향요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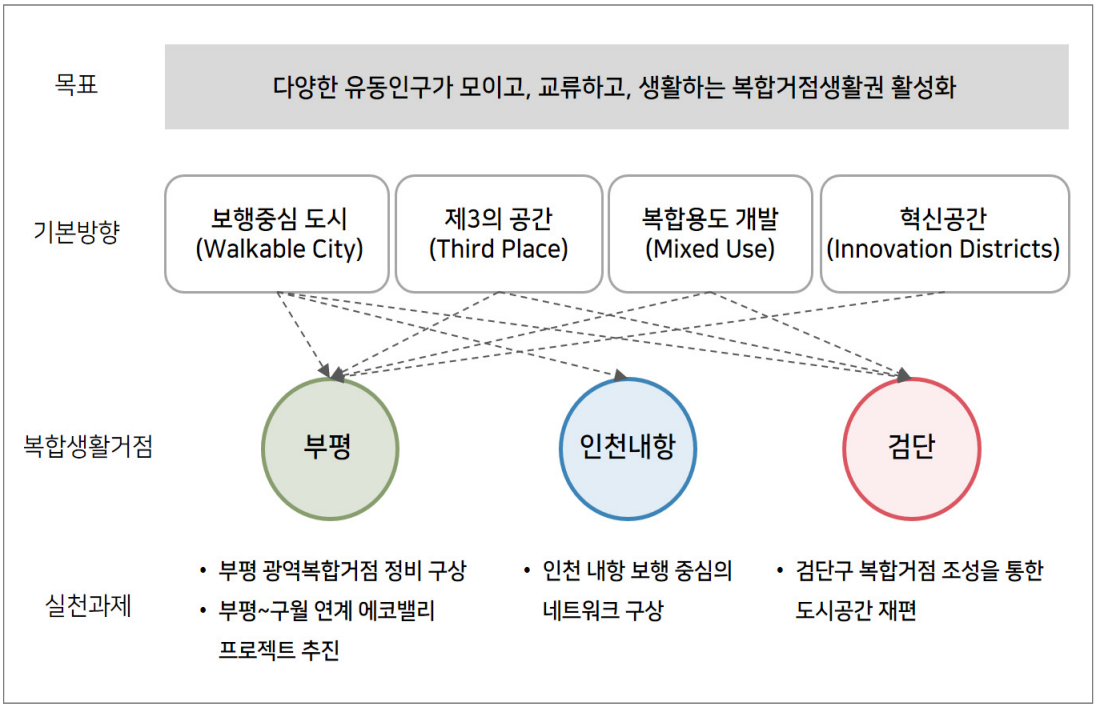
4. 인천 복합거점생활권 활성화 방안

1) 목표 및 기본방향

❖ 복합거점생활권 육성을 위한 목표 및 실천과제 제안

- 복합거점생활권의 공간특화 및 경제활력 증진을 통한 복합거점생활권의 육성을 위한 목표 및 실천과제를 제안함
  - 직장 및 방문인구 증대를 위한 핵심 복합거점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공간전략을 모색함
  - 도시기본계획 및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등 상위계획의 정책 목표의 실현과 유동인구 특성 결과를 토대로 실천과제 및 방안을 제시함
- 복합거점생활권의 공간전략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함
  - 목표: 다양한 유동인구가 모이고, 교류하고, 생활하는 복합거점생활권 활성화
    - 복합: 역사와 문화, 직장과 생활의 복합적 기능이 혼재된 곳
    - 거점: 다양한 기능이 한곳으로 집적되고, 생활인구가 모이는 곳
    - 생활: 일하고, 살고, 즐기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창출

〔그림 4-14〕 기본방향 및 복합거점생활권



❖ 복합거점 활성화를 위한 4대 기본방향 설정

▪ 기본 방향은 보행중심 도시, 제3의 공간의 매력 증진, 압축적인 복합용도 개발, 혁신공간의 조성 4가지로 설정함

- 보행중심 도시(Walkable City): 보행중심의 활력있는 네트워크 형성
- 제3의 공간(Third Place)의 매력증진: 새로운 활동이 일어나는 매력적인 공공공간 등 다양한 제3의 공간을 창출
- 압축적인 복합용도 개발(Mixed Use): 교통접근성이 양호하고 다양한 기능이 혼재된 복합용도 개발의 활성화
- 혁신공간(Innovation Districts)의 조성: 역세권 등 민간개발을 통한 거점 중심의 혁신기업과 인재의 집적

2) 검토대상지의 선정 및 실천과제

(1)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 유동인구 핫스팟분석과 기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대상지를 선정

▪ 유동인구 핫스팟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광역교통접근성, 공간확장성, 정책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합거점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검토대상지를 선정함

- 도시기능의 집적성: 유동인구(직장 및 방문인구) 및 도시기능이 집적된 지역으로, 유동인구 핫스팟 분석 결과를 반영
- 광역교통 접근성: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국제공항으로의 접근성,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의 접근성(GTX-B, 지하철 등), 전국으로의 접근성(KTX 환승역에의 접근성)을 고려
- 공간 확장성: 환승역세권으로서 상부 역사의 복합개발사업 가능 여부와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 등 거점의 확장가능성을 고려
- 정책과의 연계성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와의 정합성, 철도지하화 사업, 제물포르네상스 등 정부·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의 적용가능성을 반영

❖ 복합거점생활권 검토대상지로 부평, 내항, 검단을 선정

■ 복합거점생활권의 검토대상지는 부평·내항·검단의 3개 지역으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송도, 청라, 영종의 경제자유구역과 구월은 최종적으로 제외함

■ 제외사유는 다음과 같음

- 경제자유구역 제외

  • 유동인구 및 도시기능의 집적지인 송도·청라·영종지구의 경우, 현재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중인 상황으로, 향후 개발 완료 후 복합거점생활권의 육성 및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검토대상지에서 제외함

- 구월 제외

  • 구월의 경우, 유동인구 규모 및 도시기능의 집적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고, 인천지하철1, 2호선과 GTX-B 환승역이라는 광역교통 접근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음

  • 다만, 인천시청역 일대 도시구조 및 토지이용을 고려할 때, 복합환승센터 등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부의 가용부지가 중앙공원 이외에는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주변 토지이용이 신규 아파트 단지로 정비된 주거지역의 특성을 가지는 등 공간의 확장가능성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판단하에 제외함

  • 다만, 부평 복합거점생활권과 지리적으로 근접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부평~구월을 연계하는 실천과제로 일부 보완함

- 내항 및 검단 추가

  • 내항은 제물포르네상스를 비롯한 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경인철도 지하화사업 등 중앙정부 및 인천시 차원의 정책수요를 고려, 미래 발전가능성이라는 측면을 반영함

  • 검단의 경우, 검단신도시 개발이 진행중이며, 2026년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신설구의 자립적 공간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측면과 GTX-D 및 서울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접근성 등 장래 발전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함

■ 주요 검토지역의 광역교통 접근성은 다음과 같음

-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의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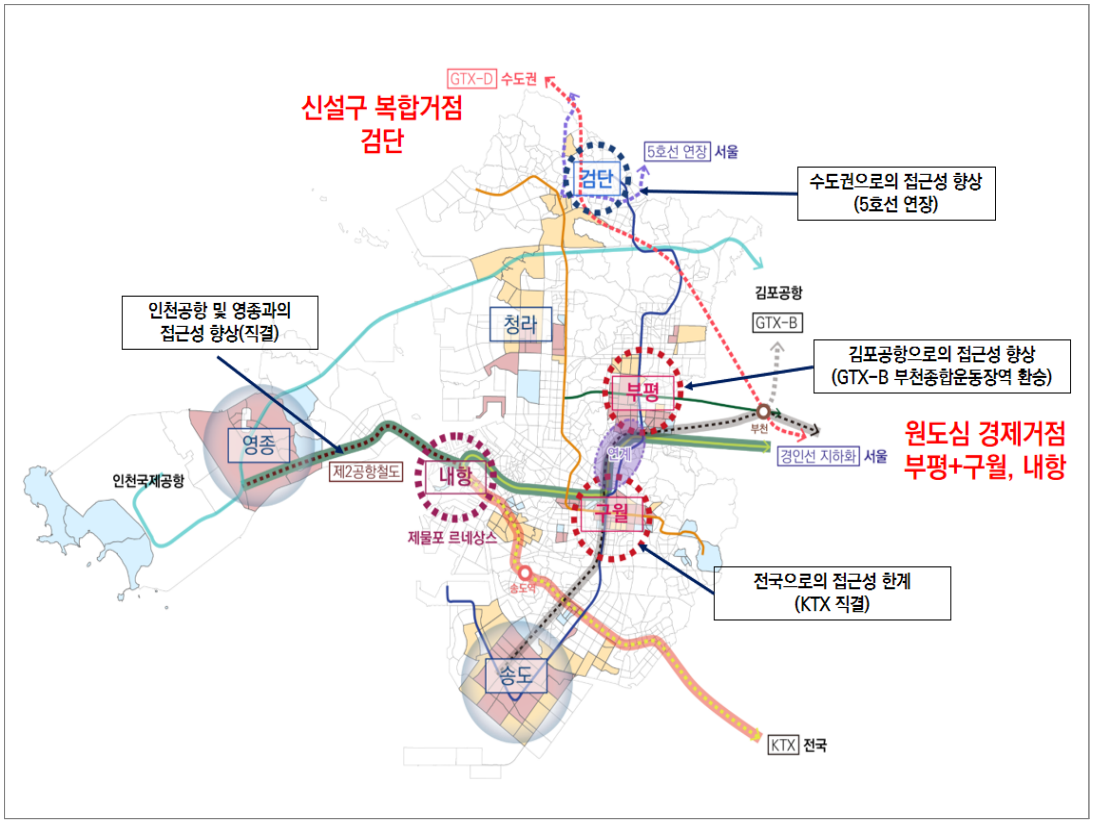
  • 공항철도가 유일한 직결 노선으로 영종을 제외한 검토대상지 모든 지역에서 최소 1회 환승 내지 2회 환승해야 하는 구조를 보임

- 시간적으로 김포공항은 30~60분, 인천공항은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음
- 김포공항으로의 접근성은 현재 검암역이나 계양역에서 환승하는 구조에서 GTX-B의 부천종합운동장역(서해선)에서 김포공항까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지리적으로 부평 복합거점생활권이 송도나 구월보다는 다소 유리함
- 인천공항으로의 접근성은 현재까지 인천공항으로의 철도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복합거점생활권의 육성에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전국으로의 접근성(KTX 환승)

- 현재 인천 내 KTX 직결 노선은 없는 상태로, 인천발 KTX 사업으로 송도역(수인분당선) 완료되면, 검토대상지에서 전국으로의 접근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
- 검토대상지에서의 KTX 직결 노선은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복합거점생활권의 육성에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4-15] 인천시 복합거점생활권 검토대상지(안)



〔표 4-18〕 인천 복합거점생활권 검토대상지 비교

구분			송도	영종	청라	부평	구월	내항	검단
도시기능 집적성			우수 유동인구 112,075명 (인천시 비중 8.0%)	우수 유동인구 56,578명 (인천시 비중 4.0%)	미흡 유동인구 24,726명 (인천시 비중 1.8%)	우수 유동인구 97,640명 (인천시 비중 7.0%)	우수 유동인구 74,973명 (인천시 비중 5.4%)	미흡 유동인구 17,811명 (인천시 비중 1.3%)	미흡 유동인구 6,260명 (인천시 비중 0.4%)
광역교통접근성[10]	공항 접근성	소요시간[11]	김포공항 64분 인천공항 49분	김포공항 30분 인천공항 7분	김포공항 17분 인천공항 20분	김포공항 31분 인천공항 56분	김포공항 40분 인천공항 62분	김포공항 63분 인천공항 66분	김포공항 20분 인천공항 50분
	KTX (송도역)[12]		24분	67분	67분	30분	19분	30분	37분
	GTX 및 지하철(예정)		GTX-B 인천대입구역	GTX-D 도입 예정	GTX-D, 7호선 도입 예정	GTX-B 부평역	GTX-B 인천시청역	×	GTX-D, 5호선 도입 예정
공간확장성	상부역사		지하구조	미정	미정	지상구조	지하구조	지상구조	미정
	관련 사업		송도국제도시 개발	제3연륙교 건설 영종하늘도시 개발 등	청라국제도시 개발	캠프마켓 굴포천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	내항1·8부두 재개발 인천역 복합개발	검단신도시 개발
관련 정책 및 사업			×	'26년 행정구역 재편	'26년 행정구역 재편	철도 지하화사업	×	'26년 행정구역재편 제물포 르네상스철도 지하화사업	'26년 행정구역 재편
검토대상지						●		●	●

(2) 실천과제: 부평, 인천내항, 검단을 중심으로 한 복합거점생활권 활성화

- 복합거점생활권의 활성화 목표 및 기본방향의 실현을 위해 부평, 인천내항, 검단의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원도심 미래 경제를 선도하는 부평 복합거점 정비 구상
  - 부평~구월 복합거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에코밸리 프로젝트 추진
  - 인천내항 복합거점생활권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상
  - 검단구 복합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재편

10) 송도: 송도센트럴파크역(인천1호선) 기준, 영종: 운서역(공항철도) 기준, 청라: 청라국제도시역(공항철도) 기준, 부평: 부평역(1호선) 기준, 구월: 인천시청역(인천1호선) 기준, 내항: 인천역(1호선) 기준, 검단: 검단호수공원역(인천1호선) 기준
11) 환승 소요시간은 김포공항역(공항철도) 및 인천공항1터미널역(공항철도)을 기준으로 네이버 지도에서 산출한 최적 결과임
12) KTX 송도역 예정 위치(수인분당선 송도역)를 기준으로 네이버 지도에서 산출한 최적 경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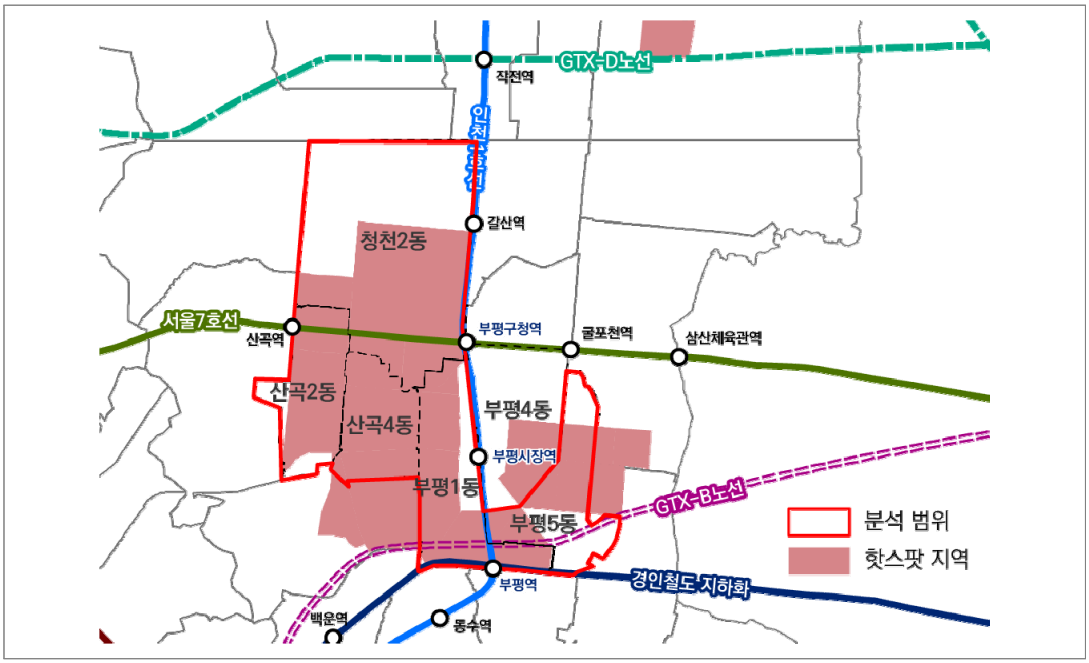
3) 복합거점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실천방안

(1) 원도심 미래 경제를 선도하는 부평 복합거점 정비 구상

❖ **GTX-B와 철도지하화를 기반으로 한 부평의 미래 거점 육성**

- (현황) 부평 일대는 현재 경인철도, 서울7호선, 인천1호선 등 주요 노선이 통과하며, 향후 GTX-B노선의 거점역으로 외부 유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부평1동, 부평4동, 부평5동, 산곡2동, 산곡4동, 청천2동 행정동에 해당

〔그림 4-16〕 부평 복합거점생활권 공간적 범위



- (기본전제 및 방향) 2030년 GTX-B 개통 및 복합환승센터 설치, 장기적 경인철도 지하화 추진을 전제로 부평을 교통·상업·주거 기능이 융합된 원도심 핵심 복합거점으로 육성함
- (공간전략) 환승·보행·창업이 어우러진 활력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복합환승센터 통합적 정비) 인천지하철1호선, 경인철도, GTX-B 환승체계의 통합적 공간 재편과 주변 지역으로 이어지는 보행 네트워크 구축
  - (복합용도개발 점진적 추진)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는 여건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부평역세권 일대 노후하고 쇠퇴한 상업지역에 대한 점진적 재개발을 유도
  -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대중교통 중심 공간 개편) 부평역 인근 통행의 목적 및 수단에 부합하도록 공간구조 개편 시도

- (청년창업 등 새로운 기능의 도입으로 지역활력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관련 공간·기능·지원 시설이 집적하는 창업벨트를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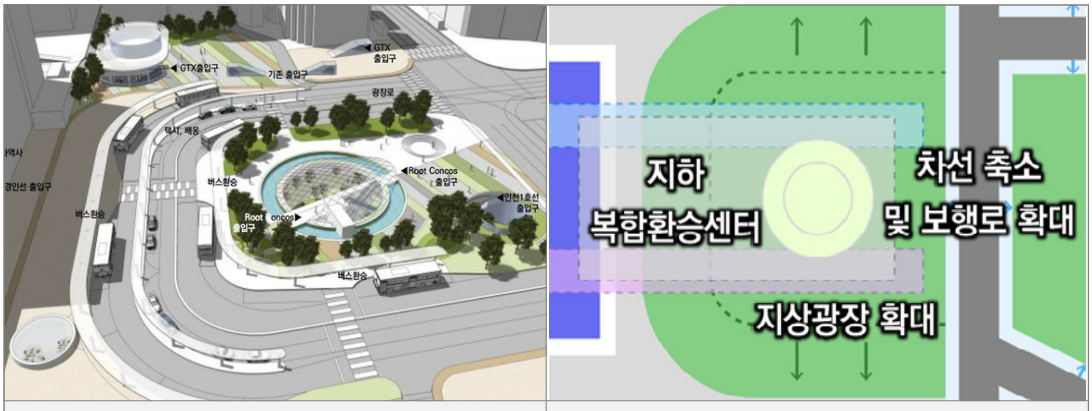
❖ (단기) 부평 복합거점생활권 정비 장기구상 수립

- GTX-B와 경인철도 지하화를 전제로 부평 복합거점생활권 발전 방향을 제시할 마스터플랜을 수립함
  - 단기적으로는 GTX-B 개통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복합환승센터와 주변 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환승체계를 구축함
  - 장기적으로는 철도 지하화와 연계해 역사 및 선로 상부공간의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상위계획과 연계한 통합 정비구상을 마련함
- 점진적 복합용도개발은 선도사업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공간혁신구역·도심복합사업 등 제도를 활용하여 개발 수요와 공간 수요를 창출함

❖ (장기) 사람·대중교통 중심의 공간 개편

- 부평역 광장 통과교통을 억제하고 신호체계·차로를 재편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를 강화함
  - 확보된 공간은 보행전용 광장과 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하여 버스킹·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가능한 지역 활력 거점으로 활용함

〔그림 4-17〕 부평 복합환승거점 조감도 및 계획



부평역 환승센터 조감도 | 부평역 복합환승센터 및 광장 재정비 제안

출처: (좌) 부평구 열린구청장실 홈페이지

❖ (중기) 청년의 꿈으로 넘치는 창업벨트 육성

- 부평대로·부평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창업공간과 지원시설을 집적한 “i-dream Zone”을 조성하여 청년층 유입과 지역 활력을 촉진함
  - 공실 오피스·시장 유휴 상가 등을 활용해 창업공간을 확충하고, 산업단지와 연계한 지원센터 운영으로 시제품 제작·B2B 판로 개척을 지원함
  - 굴포천·캠프마켓 등 친환경 자산과 연계해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창업기업 수요에 맞춘 공공디자인과 편의시설을 확충함

〔그림 4-18〕 부평 복합거점 공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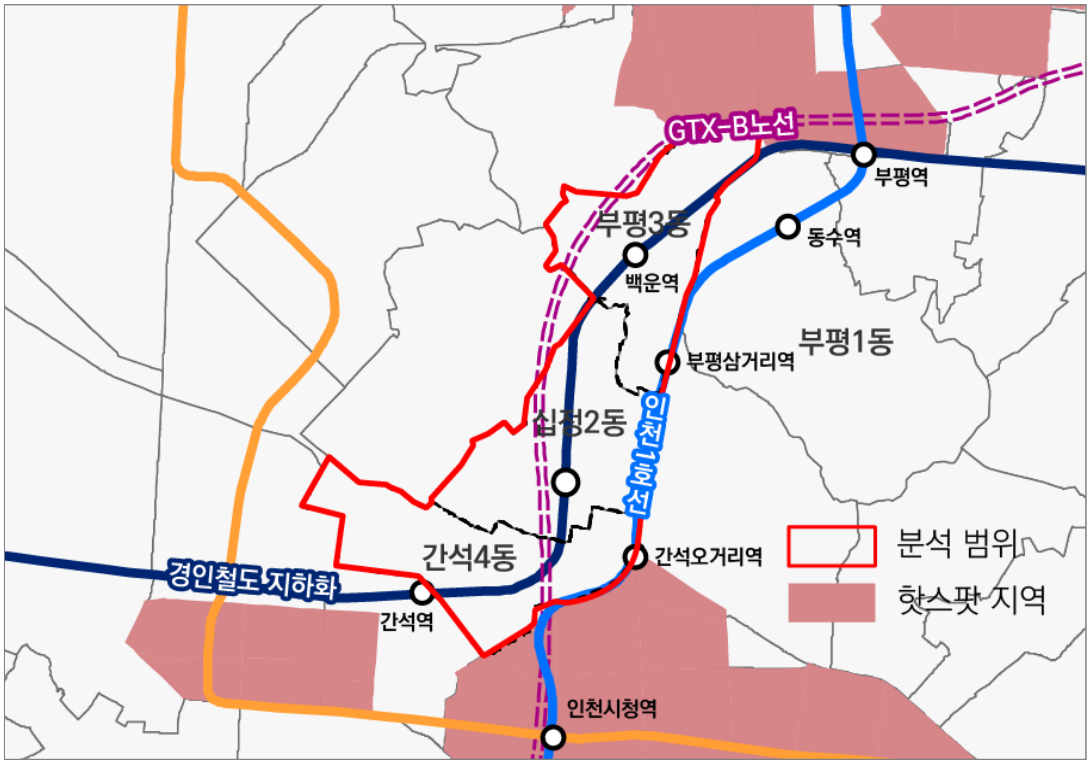


(2) 부평~구월 복합거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에코밸리 프로젝트 추진

❖ 철도지하화와 교통거점을 기반으로 한 부평~구월 복합거점 육성

- (현황) 부평~구월 복합거점생활권은 부평역을 지나는 경인철도와 인천시청역을 지나는 인천1호선 사이 구역임. 현재는 경인철도와 인천1호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향후 GTX-B노선 개통과 경인철도 지하화에 따라 도시공간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행정동 기준 부평3동, 십정2동, 간석4동이 이에 해당함

〔그림 4-19〕 부평~구월 복합거점생활권 공간적 범위



- (기본전제 및 방향) 부평과 구월의 우수한 교통 여건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동인구가 이용하는 경쟁력 있는 복합거점생활권으로 조성함
- (공간전략) 광역 녹지축과 정비사업을 연계하여 생태·문화도심을 재창조함
  - (광역형 생태·녹지축 조성) 경인철도 지하화에 따른 상부공간의 선형공원을 조성하여, 부평~구월 거점 간 광역형 도심 생태·녹지축 조성 및 상징화함
  - (정비사업 연계 활성화) 정비사업 시 역세권 및 생태회랑을 중심으로 문화·공공시설 등 생활SOC 및 거점시설 배치로 생활의 편리성 증대 등 활성화를 촉진함

❖ (장기) 부평거점~구월거점을 잇는 광역형 도심 생태·녹지 네트워크 조성 추진

- 경인철도 지하화 상부에 약 4km 규모의 선형공원을 조성하여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인천을 대표하는 생태·녹지공간으로 육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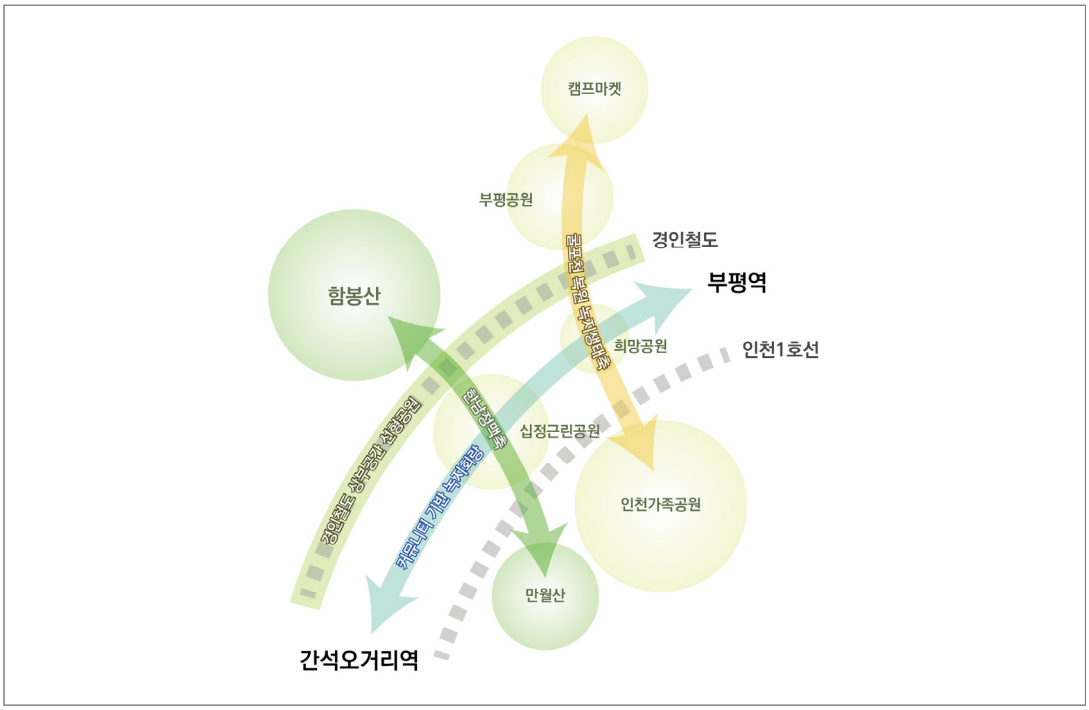
> ①광역녹지축: 중앙공원~선형공원(경인철도 상부공간)~부평역~캠프마켓·굴포천
> ②녹지·생태축 복원: ①경인철도로 단절된 S자 녹지축(원정산~법성산~만월산) 복원, ②굴포천 상류구간(부평1동 행정복지센터~부평삼거리역)의 복원사업 연장을 통한 생태축 복원

- 인천시 차원의 통합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철도 지하화와 연계한 도시재창조를 추진[13)]

❖ (중기)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시 커뮤니티 기반 생태·녹지회랑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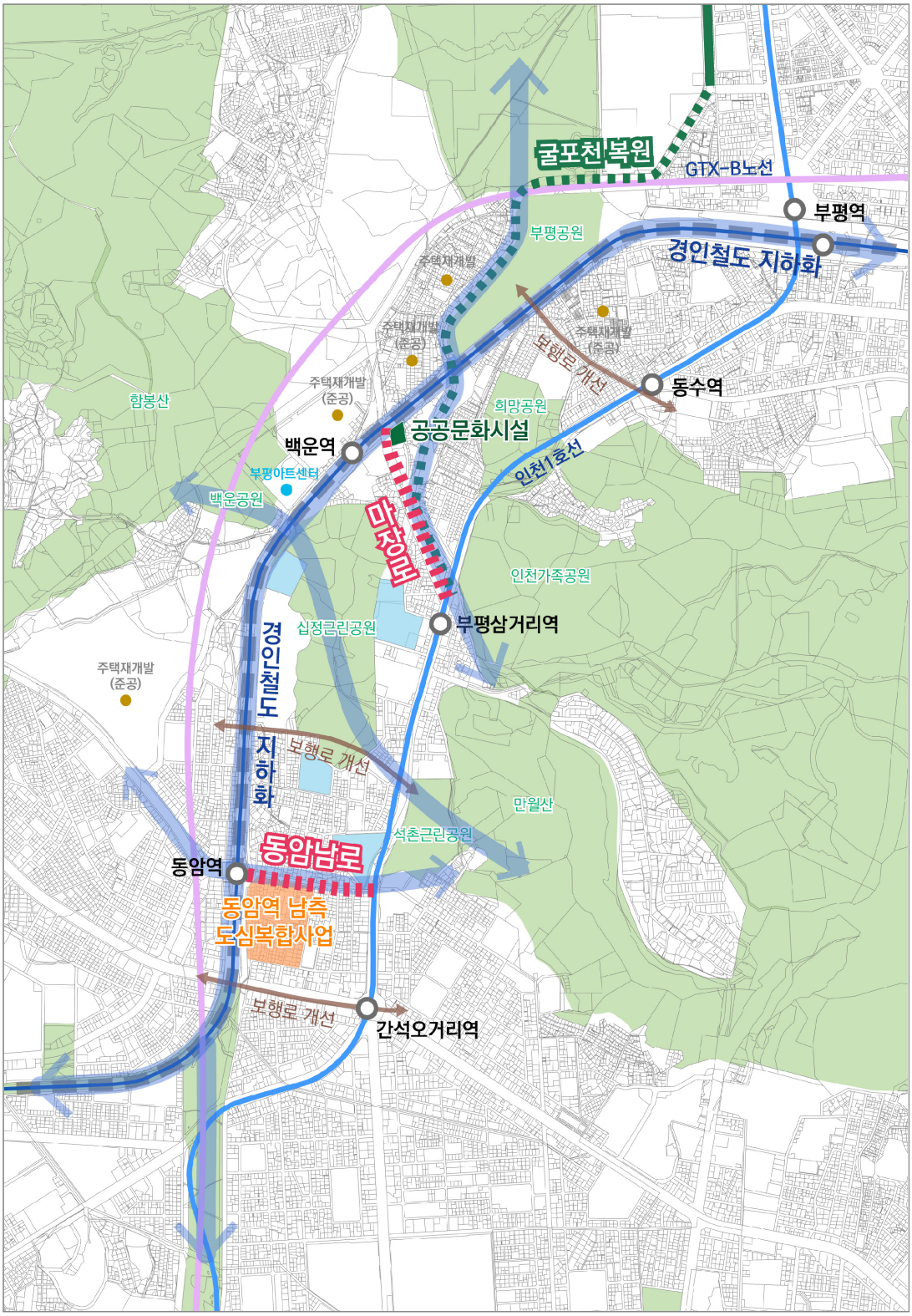
- 동암역 남측 등 정비사업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기반의 녹지·생태 회랑을 형성하고,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개발과 생활SOC 배치를 통해 공공공간의 질을 향상함
- 인접역 간 보행환경 개선과 민간 참여 유인을 통해 도심형 광역 생태·녹지네트워크를 확충함

[그림 4-20] 부평~구월 광역형 도심 생태·녹지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13)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반영, 확정 결과에 따라 인천시가 수립하는 '경인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시 사업대상 범위로 설정하여 철도지하화와 연계한 통합개발 추진 가능

〔그림 4-21〕 부평~구월 복합거점 공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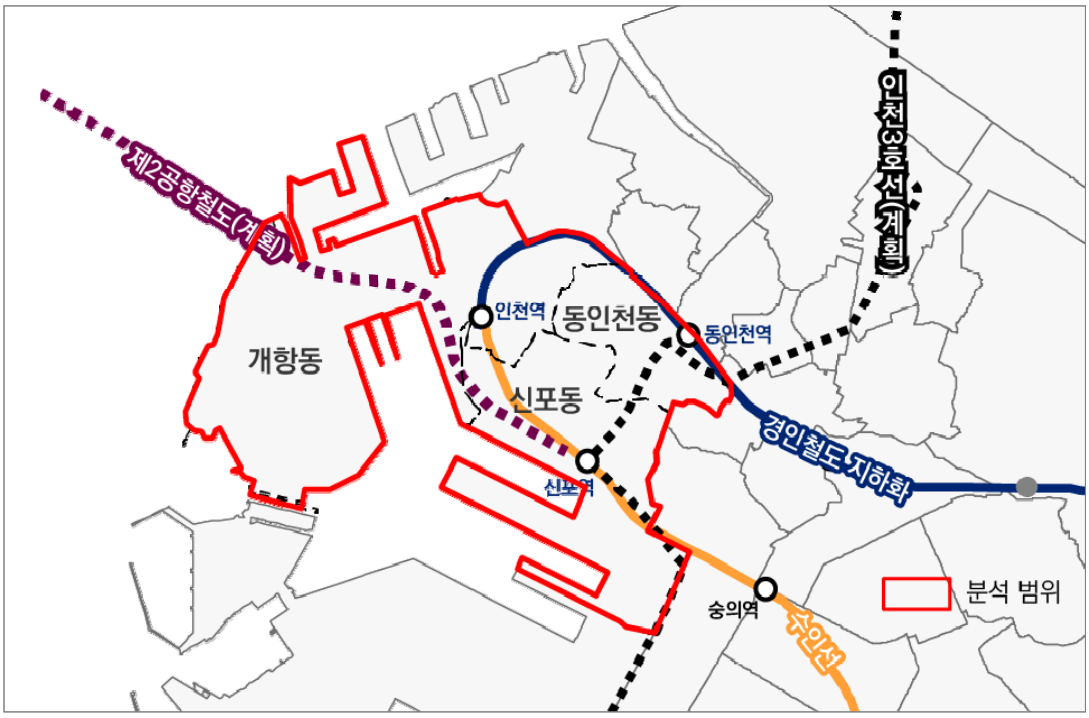


(3) 인천내항 복합거점생활권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상

❖ 제물포르네상스를 기반으로 한 내항 복합거점 육성

- (현황) 인천내항 일대는 현재 경인철도와 수인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향후 인천3호선 및 제2공항철도 계획으로 인천 내외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임
  - 개항동, 신포동, 동인천동 행정동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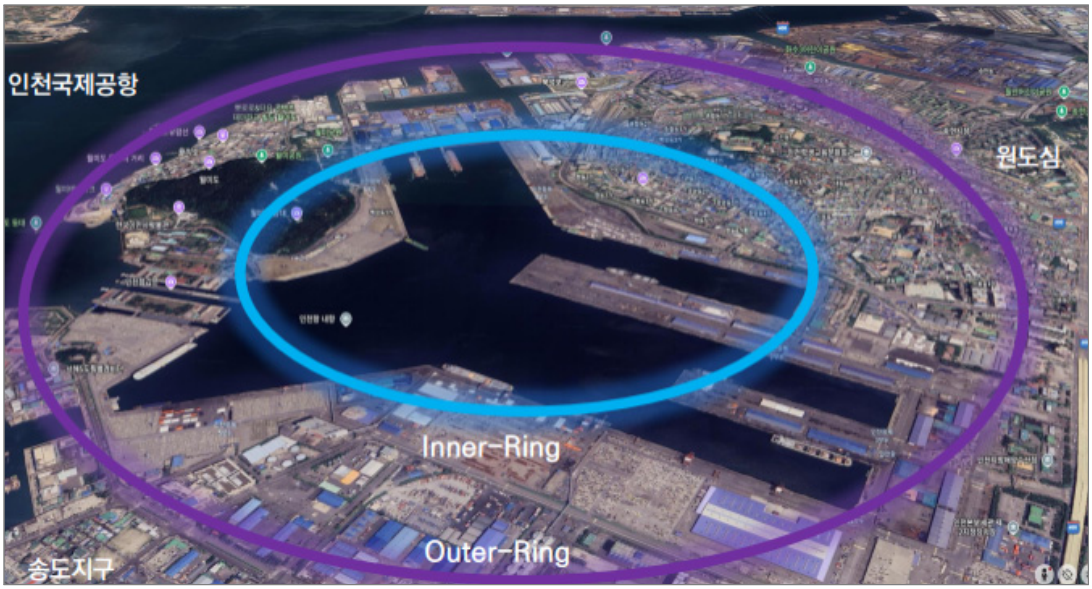
〔그림 4-22〕 인천내항 복합거점생활권 공간적 범위



- (기본전제 및 방향)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의 내항개발 구상을 토대로, 보행 중심의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공간특화 및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함[14]
- (공간전략) 보행축과 도시축을 결합한 내항 르네상스를 구현하고자 함
  - (인천내항 르네상스 RING형 네트워크) 내수면과 수변을 활용한 Inner-Ring(해양·관광·여가)과 배후지를 통합하는 Outer-Ring(산업·생활·문화)을 조합한 이중 네트워크 전략을 추진함

14)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서는 원도심 르네상스, 문화관광 르네상스, 산업경제 르네상스, 내항개발 르네상스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됨

〔그림 4-23〕 인천내항 르네상스 RING형 공간개념도



❖ (장기) 인천내항 르네상스 3+3 네트워크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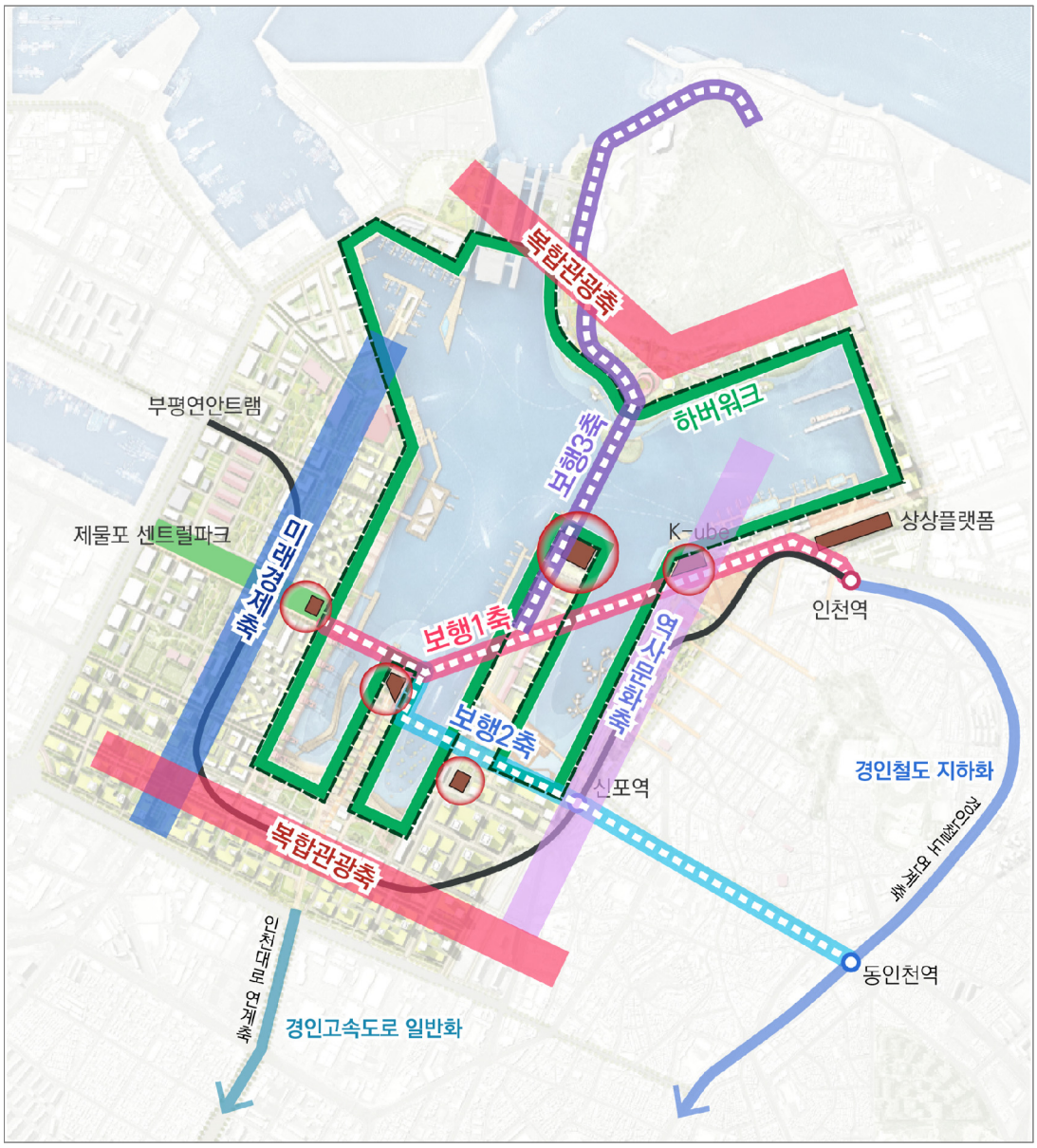
- 내항을 3대 보행축(보행연계·자원연계·차량분리)과 3대 도시축(역사문화·복합관광·미래경제)으로 재편하여, 항만·배후지·앵커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RING형 네트워크를 조성함

①보행1축: 인천역→상상플랫폼→K-ube→보행1교→2부두→보행2교→연안부두 구간
- '원도심 연계축'의 대안적 노선으로, 역사·문화·관광 연계축을 주요 기능으로 설정

②보행2축: 동인천역→신포역→세관공원→1부두→2부두→보행2교→4부두→제물포센트럴파크
- '개항창조도시연계2축'의 대안적 노선으로, 내항재개발과 연계하여 가로상권 활성화를 도모
- 일부노선은 (2부두~제물포센트럴파크)은 보행1축과 중복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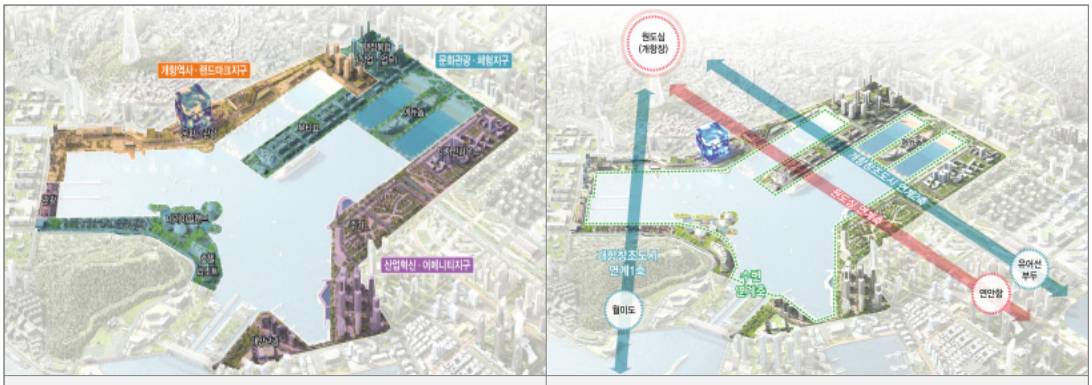
③보행3축: 인천역→상상플랫폼→2부두→보행3교→6부두→해양박물관→월미도·미러아일랜드
-'개항창조도시연계1축'의 대안적 노선으로 구상하였으며, 월미도·소월미도와의 보행연계축을 고려

〔그림 4-24〕 인천내항 르네상스 3+3 네트워크 구상(안)



- 내항재개발 토지이용계획과 도로·가로 디자인, 앵커시설 배치계획에 반영하여 방문객의 회유성과 유동인구를 늘리고, 보행교 및 공공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상징성을 강화함

〔그림 4-25〕 인천내항 르네상스 특화지구 및 연계축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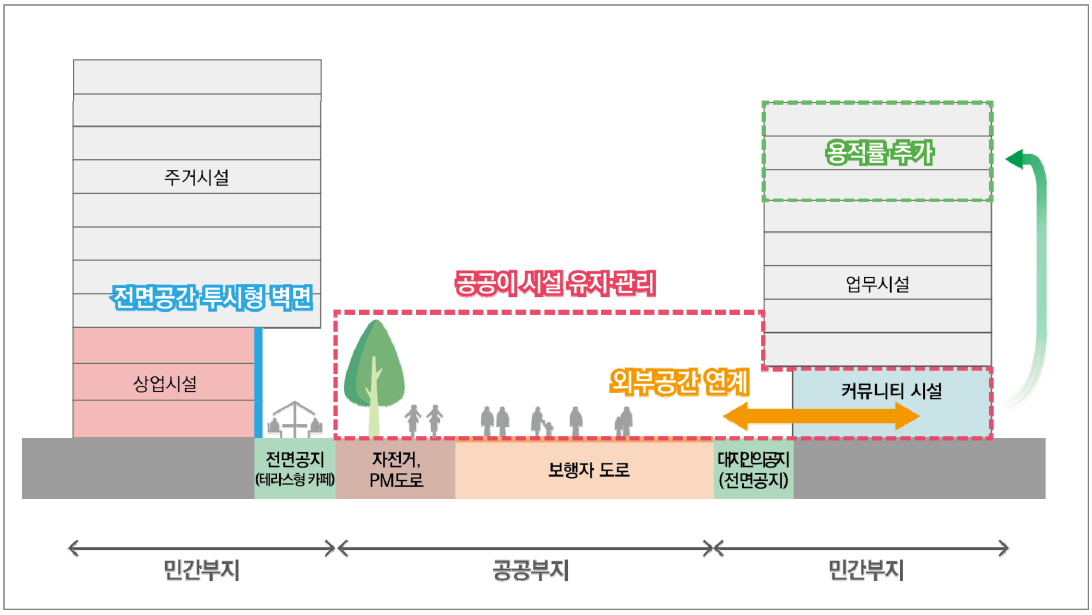
내항개발 특화지구 구상도 | 내항개발 연계축 구상도

자료(출처),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종합보고서, p. 293~295

❖ (장기) 걷고 싶은 공공공간 장소만들기 전략 구상

- 활동이 일어나는 머무는 공간, 점진적 육성, Only One의 공간, 민간의 공공공간화 프로젝트라는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보행축 중심의 질 높은 공공공간을 형성함
- LQC(Lighter, Quicker, Cheaper) 방식으로 선도사업(1·8부두 광장·공원 등)을 시범 조성하고, 이후 확대 적용하여 내항 전역의 매력적 공간 네트워크로 확산함
- 민관협력을 통한 민간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보행자 시선에 맞춘 가로디자인 및 공공공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함

〔그림 4-26〕 걷고 싶은 가로공간 만들기를 위한 민간의 공공공간화 프로젝트(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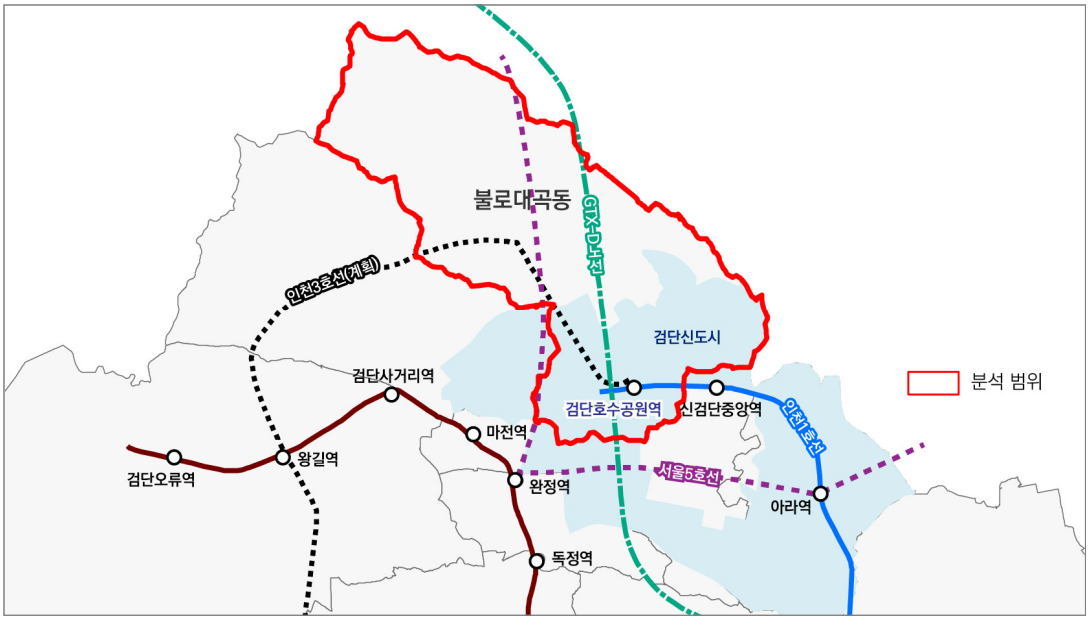


(4) 검단구 복합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재편

❖ 광역교통망과 커낼 콤플렉스를 연계한 검단구 중심거점 육성

- (현황) 검단호수공원역 일대는 검단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인천1호선과 향후 인천3호선·GTX-D노선이 연결될 예정으로 광역 교통 접근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불로대곡동 행정동에 해당

〔그림 4-27〕 검단구 복합거점생활권 공간적 범위



- (기본전제 및 방향) 검단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2026년 신설되는 검단구의 행정·교통·상업 중심거점을 육성함
- (공간전략) 교통·행정·상업이 어우러진 검단구 복합공간 구현을 달성하고자 함
  - (집적형 복합거점) 복합환승센터·구청사·업무·상업시설·호수공원을 연계하여 교통·행정·문화가 집적된 공간 조성
  - (연계형 보행축) 커낼 콤플렉스 광장과 호수공원, 상업가로를 연결하는 보행축 형성
  - (개방형 상업경관) 전면공지 활용한 테라스형 상업거리 조성
  - (네트워크 중심지) 서울5호선·GTX-D 등 광역교통망과 생활SOC를 결합한 서북부 광역거점으로 발전

❖ (장기) 검단호수공원역세권 복합거점생활권 육성

- 검단호수공원역 복합환승센터와 검단구청사를 연계하여 행정·교통·상업 기능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함
  - 보행축을 따라 호수공원·상업시설과 연결해 지역 정체성과 중심성을 강화함

〔그림 4-28〕 검단호수공원역세권 복합거점생활권 육성



❖ (단기) 전면공지를 활용한 테라스형 상업거리 활성화

- 전면공지를 활용한 테라스형 상업·카페거리를 조성하여 공원과 상업가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신도시 특유의 폐쇄적 경관 개선을 유도함
  -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역성 반영한 활력 있는 보행상권 형성을 유도함

〔그림 4-29〕 전면공지를 활용한 테라스형 상업거리 활성화



4) 실천과제 종합

■ 인천시 유동인구 및 공간분포 특성 결과를 토대로 복합거점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실천전략과 실천방안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표 4-19〕 실천전략 및 실천방안 종합

실천전략	실천방안	세부 내용
원도심 미래 경제를 선도하는 부평 복합거점 정비 구상	(단기) 부평 복합거점생활권 정비 장기구상 수립	• (입체 네트워크 구축) GTX-B 복합환승센터와 주변 지역의 열차-차량-보행 동선 간 입체적 네트워크 구축 • (복합용도개발 추진) 부평역 주변지역 공간혁신구역 지정,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복합용도개발 유도 • (역사 복합개발 추진) 부평역사 및 상부공간 입체복합개발 추진
	(장기) 사람·대중교통 중심의 공간 재편	• (부평역 통행 동선 재구성) 경원대로 및 광장로의 신호체계 개선 및 차도 축소, 보행로 확대 • (부평역 광장 재정비) 부평역 광장을 보행 전용 광장으로 조성하여 문화공간 재창조
	(중기) 청년의 꿈으로 넘치는 창업벨트 육성	• (i-dream Zone 조성) 공실 오피스·시장 유휴상가 활용 창업공간 확충 • (i-dream Zone 지원) 산업단지 연계 지원센터 운영, 시제품 제작·B2B 판로 개척 지원 • (i-dream Zone 환경) 굴포천·캠프마켓 등 친환경 자산과 연계한 쾌적한 업무환경 및 편의시설 조성
부평~구월 복합거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에코밸리 프로젝트 추진	(장기) 부평거점~구월거점을 잇는 광역형 도심 생태·녹지 네트워크 조성 추진	• (광역 녹지축 조성) 중앙공원~경인철도 상부 선형공원~캠프마켓·굴포천 연계 • (녹지·생태축 복원) 철도로 단절된 녹지축 및 굴포천 상류 구간 복원 • (철도 지하화 연계) 지하화 통합개발과 연계한 도심형 광역 녹지축 조성
	(중기)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시 커뮤니티 기반 생태·녹지회랑 확보	• (정비사업 연계) 공공기여를 통한 생태·녹지회랑 및 개방형 공공공간 확보 • (보행환경 개선) 인접역 간 가로·보행공간 정비 및 공유공간·생활SOC 확충 • (민간참여 유도) 녹지회랑 연계 개발 시 공공기여·규제완화 지원
인천내항 복합거점생활권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상	(장기) 인천 내항 르네상스 3+3 네트워크 구상	• (3개 보행축) 지하철역 및 주요 앵커시설 연계, 차량 및 보행을 완전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3개 보행축을 제시 • (3개 도시축) 대중교통 순환, 부두와 배후지와의 통합개발, 부두의 공간적 연결을 목표로 3개 도시축을 제시
	(장기) 내항 르네상스 걷고 싶은 공공공간 장소만들기 전략 구상	• (공공공간 실천적 프로세스 도입·시행) 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 시 공공공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향후 르네상스 프로젝트 전체로 확대 • (민간의 공공공간화 프로젝트 참여 유도) 민간개발 시 참여가능한 공공공간화 가이드라인과 용적률 특례 등의 지원제도 마련
검단구 복합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재편	(장기) 검단호수공원역세권 복합거점생활권 육성	• (검단호수공원 복합환승센터) 검단호수공원역 사거리에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여, 보행자 및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 극대화 • (검단구청사 조성) 복합환승센터와 연결되는 검단호수공원역 북동측에 위치한 업무용지에 유치 추진
	(단기) 전면공지를 활용한 테라스형 상업거리 활성화	• (테라스형 전면공지 설정) 전면공지의 옥외설치물 설치 예외 사항을 신설하여, 검단호수공원과 상업공간을 연결하는 테라스형 카페거리 조성

단행본/연구보고서

조상운·김영은. (2023).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실천적 대안모색 및 공간의 재해석. 인천연구원.

이인재·김효정. (2024). 가로 활성화를 위한 전면공지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 인천연구원.

하혜영·임준배. (2024).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도입된 생활인구 제도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Hanna, Nagy K. (2016). Mastering Digital Transformation: Towards a Smarter Society, Economy, City and Nation. Bingley, UK: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학술지/학위논문

石山　恒貴. (2021). サードプレイス概念の拡張の検討. 日本労働研究雑誌. 732. 4-17.

Katz, B., & Wagner, J. (2014). *The rise of innovation districts: A new geography of innovation in America*. Brookings Institution.

법률과 특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19137호). 2024.1.1. 〔제정〕

도심 복합개발 특별법(법률 제20251호). 2024. 2. 6. 〔제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153호). 2024. 1. 25. 〔제정〕

행정자료

인천광역시. (2022).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인천광역시. (2023).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본보고서.

보도자료/신문기사

국토교통부. (2024. 5. 16.). 경기·인천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URL: [https://www.molit.go.kr/USR/NEWS_0201/m_40700/DTL.jsp](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771) (검색일: 2025년 8월 29일)

박규호. (2025. 4. 8.). 인천시, 경인전철 지하화·인천3호선 송도검단선 속도낸다. URL: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470 (검색일: 2025년 8월 29일)

☐ 전자문서자료/홈페이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분류. URL: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검색일: 2025년 8월 29일)

서울시 건축물대장: 서울특별시. 건축물대장. URL: https://eum.go.kr/ (검색일: 2025년 8월 29일)

국가교통DB 철도망: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 URL: https://www.ktdb.go.kr/ (검색일: 2025년 8월 29일)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통계청. (2024).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URL: https://sgis.kostat.go.kr/ (검색일: 2025년 8월 29일)

KOSIS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2024). KOSIS 국가통계포털. URL: https://kosis.kr/ (검색일: 2025년 8월 29일)

브이월드: 국토교통부. (2024). 브이월드. URL: ttps://www.vworld.kr/ (검색일: 2025년 8월 29일)

一般財団法人 民間都市開発推進機構 홈페이지, サード·プレイスから都市再生を考える URL: https://www.minto.or.jp/assets/pdf/urban/u40_01.pdf (검색일: 2025년 8월 29일)

☐ 인터뷰, 개인소장자료 등

김홍주. 도심형 혁신공간 사례와 시사점. 2025. 인천연구원 전문가발표회 발표자료(25.05.21).

양재섭.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운영경험과 발전방향. 2025. 인천연구원 전문가발표회 발표자료(25.02.28).

이삼수. 인천 생활인구를 고려한 정책방향. 2025. 인천연구원 전문가발표회 발표자료(25.02.28).

이승민. 한국과 일본의 지역 재생 프로젝트. 2025. 인천연구원 전문가발표회 발표자료(25.06.18).

허자연. 소비이동으로 본 일상생활권. 2025. 인천연구원 전문가발표회 발표자료(25.05.21).

05

인천 지속거주를 위한 매력적인 일상생활권 구축 전략

05

인천 지속거주를 위한 매력적인 일상생활권 구축 전략

기윤환(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일상생활권 의미와 필요성

1) 생활권계획상 일상생활권

❖ **일상생활 필요 서비스 중심의 시간도시(Chrono-Urbanism) 생활권계획**

- 2020년 파리시는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15분 이내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가능한 근거리 생활기반의 도시조성 계획을 발표함
  - 직장, 학교, 의료, 상점, 식당, 휴양시설 및 공원을 도보, 자전거 또는 대중교통을 통해 1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계획임
- 15분 도시 개념은 보고타의 활력있는 근린(Bogota's Barrios Vitales), 포틀랜드의 완전한 근린(Portland's Complete Neighbourhoods), 멜버른의 20분 동네(Melbourne's 20 Minute Neighbourhoods) 등 N분 도시계획 정책 및 계획 사례에 기반하여 시간도시 계획 개념으로 발전하였음
- N분 도시의 주요 계획 원리는 밀도(Density), 근접성(Proximity), 다양성(Diversity), 디지털화(Digitalization)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에 쉽게 접근토록 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 삶의 질, 지속가능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

❖ 기초생활인프라와 연계한 생활권계획

- 국내에서는 기초생활인프라 및 생활SOC 등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근린 생활권 내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
- 2012년에 시행한 서울시의 10분 동네 프로젝트는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걸어서 10분 이내에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10분 동네 개념을 도입한 사업임[15)]
  - 서울시는 10분 동네 생활SOC 3개년 확충계획(2019)을 통하여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을 통한 생활서비스시설 설치 추진

❖ 하이퍼로컬 계획(Hyper-local Planning)과 동네생활권

- 하이퍼로컬 계획과 동네생활권은 동네·근린 단위의 생활권을 기준으로 주민 생활권과 공동체 범위를 반영하여 정책과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접근 방식임
- 동네생활권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문화와 정체성 형성 및 공유하며, 지역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로 장보기, 외식, 근린 및 공공·의료서비스 이용, 통학, 여가·문화·체육, 친교·사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함
- 또한, 동네생활권은 주민의 생활패턴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도시공간 수요나 공간구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임. 도시계획상의 생활권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근린 활성화를 위해 설정되는 근거리 생활권임
  - 동네생활권은 도시·지역별 특성, 인구 밀도, 주거지 특성, 주민 활동 및 커뮤니티 특성 등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하고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표 5-1〕 동네생활권의 일상생활 시설

목적	활동	관련 시설	비고
하이퍼장보기·구입	장보기	(생필품·식료품) 슈퍼마켓, 편의점, 시장, 마트 등 (비생필품) 문구점, 잡화점, 철물점, 꽃집, 서점 등	생활밀착업종
	외식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근린서비스 이용	세탁소, 이·미용실, 목욕탕 등	
서비스 이용	공공·의료서비스 이용	우체국, 동사무소, 은행, 병·의원, 약국 등	기초생활인프라
	통근·통학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하이퍼로컬플래닝	여가·문화·체육	작은 도서관, 영화관, 생활체육시설 등	
	친교·사교	경로당, 마을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출처: 정민영·성은영·정인아·변은주. (2023).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응하는 동네생활권. auri brief. 건축공간연구원

15) 서울특별시. 서울시,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공시설 골고루 확충. 2012년 3월 23일

2) 일상생활권의 개념 및 의미

❖ 소생활권상 거점생활권과 일상생활권 구분

- 생활권은 권역(대)생활권, 지역(중)생활권, 소생활권으로 구분되며, 일상생활권은 소생활권에 속하여 거점형과 일상형으로 세분화함
- 소생활권 중 거점생활권은 도시의 중심성 및 위계가 높은 생활권으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및 접근성이 뛰어나 지역거점, 복합거점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소생활권 중 일상생활권은 주민의 일상생활 영역에 해당하여 주거중심의 동네생활권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 절의 연구 대상임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상시설서비스 범위의 생활권

- N분 생활권, 기초생활인프라 연계 생활권 등의 기준은 주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근거리 생활권을 중심으로 설정됨
- 일상시설서비스의 범위는 도시에 따라 10~20분으로 지역마다 차별화되며, 주로 보행,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기반으로 함
- 이러한 의미에서 주민의 주거중심 일상생활영역에 해당하는 일상생활권은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시설을 도보 10~20분에 접근 가능한 범위라 할 수 있음
- 이에 본 절에서는 주거일상생활영역 일상생활권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일상시설의 서비스 범위는 살고 있는 집에서 10분 거리를 목표로 설정함

❖ 하이퍼로컬 플래닝의 지속거주 유도를 위한 동네단위 생활권

- 하이퍼로컬(hyper-local)은 '아주 좁은 범위의 특정 지역에 맞춘'이라는 의미로 편한 복장으로 여가·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동네 단위 주거 중심 생활권이라 할 수 있음
  - 주거 중심의 일상생활권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중심지인 동네 거점을 조성하여 생활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 강화, 자족기능을 부여하여 지속성을 확보하는 '동네플랫폼(local platform)'이 중요
- 지속거주 유도를 위한 일상생활권은 동네단위 생활권으로 동네거점을 중심으로 주민커뮤니티 형성 및 활동, 일상생활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 자립적 일상생활이 가능한 주거중심형 일상생활권이라 할 수 있음

❖ **저층주거지 중심의 자립적 동네생활권 형성 구축**

- N분 생활권, 기초생활인프라 연계 생활권, 하이퍼로컬 플래닝 등 국내외 도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생활권계획의 주요 관점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된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유럽 등의 주거지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저층주거지 중심으로 형성

- 국내의 경우 아파트 중심 주거지는 제도적으로 기초생활인프라를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저층주거지는 시설 설치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주민 커뮤니티형성, 일상생활서비스 확보 등이 주요 과제임

- 이러한 측면에서 생활권계획의 주요 관점은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인프라의 확보, 커뮤니티 공간 확충, 지역커뮤니티 조성 등에 초점이 맞추어짐

3) 생활인구 중심의 일상생활권 구축 필요성

(1) 생활인구 중심 일상생활권 구축 필요성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살고 싶은 정주환경을 위한 일상생활권 조성**

- 2020년 이후 인구성장률 감소에 따른 대안적 인구개념으로 서비스인구, 비등록인구, 생활인구 등을 도입하여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2022년 생활인구 개념이 제도화되면서 서울시, 제주시 등에서 정주인구와 함께 생활인구 및 서비스인구 활용 정책을 마련함

- 생활권계획에서 활동인구를 반영한 생활공간의 확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내 지속거주를 위한 정주환경 구축이 고려되어야 함. 하지만 현재 원도심 지역 내 거주지는 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과 단독·다가구 중심의 저층주거지가 차별적으로 분포하며, 정주환경 확보를 위한 기반은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지에 집중되는 상황임

- 저층주거지 중심의 일상생활권에서는 주민 수요와 실제 설치된 기반·편의시설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정적·지속적 거주가 가능한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구축하여 주거생활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정주환경 확보를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시설 확충 필요**

- 디지털 서비스의 일상화,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확산으로 인한 원거리 이동 감소에 따라,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동네 안에서 일상생활을 즐기는 경향이 강해짐. 근거리

생활 반경 내에서 먹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일거리 등을 누릴 수 있는 동네 인프라와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의 접근성, 동네생활 편의성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인천시 생활SOC의 평균 접근성은 도보 15.35분, 대중교통 13.38분으로 주로 10~20분 거리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으며[16], 도보와 대중교통 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 시설 확충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노인복지관의 경우 거점시설로서 주 접근 수단은 대중교통이었으며, 접근성이 낮게 나타나 시설 확충 필요
  - 유치원, 마트/상점, 경로당, 병의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시설의 확충을 통해 도보 10분 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건강지원센터, 노인복지센터, 생활문화·체육센터,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등 거점시설은 대중교통 10~15분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권계획상 시설 확충 필요

❖ 지역주민 주도의 자립적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자족적 주거생활권 구축 필요

- 동네 중심의 일상생활권 구축을 위해서는 동네의 중심이 되는 지역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이 필수적임. 특히 저층주거지는 동네 관리 및 운영의 제약이 크므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운영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마을단위 커뮤니티 기구와 중심 거점 설치를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강화의 구심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일상생활 활동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동네플랫폼 조성이 필요하며, 이는 생활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 강화, 지역 자족기능 부여 등의 기반이 됨. 또한 자족적 주거생활권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주민자치회 등 지역커뮤니티 활용과 공공·민간의 로컬서비스 연계 복합화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중심의 자립적 활동과 활동거점을 마련하여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지속거주 및 유입정착을 위한 수요 맞춤형 시설 복합화 유도 필요

- 주거중심 일상생활권은 아파트단지와 저층주거지로 주거지 분리가 진행되었고,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주거서비스 측면에서 지역별·계층별 격차가 심화되어 공적 일상생활서비스 지원 및 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

16) 기윤환·윤혜영·민혁기·이용갑. (2024). 모두에게 공평한 주거지역 특화정비. 인천연구원

- 청년가구, 무자녀 부부가구, 유자녀 부부가구, 노인가구, 청년·노인 1인 가구 등 가구분화에 대응하여 살기 좋은 동네 중심의 일상생활권을 조성하여 '모두가 함께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서비스를 영위하는 지역사회 주거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지속적·안정적 거주를 위한 아이·노인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 통합 지원과 유입·정착을 위해 수요에 부합한 시설 및 서비스의 통합·복합화가 필요하며, 동네플랫폼과 연계 구축하여 지역거점 기능 수행이 가능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 대응을 위해 아이돌봄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부모 및 아동 니즈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시설 통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통합시설 또는 단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
  - 고령화 대응을 위해 의료·요양시설과 함께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아동돌봄·보건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

(2) 지속거주를 위한 일상생활권 구축을 위한 필요성 및 방향

-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정주인구 감소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 지역 주도의 정주여건 개선 정책이 추진됨. 또한 시민 중심의 공간경험을 중시하고 동네활동과 가치에 중점을 둔 일상생활 중심의 생활권계획이 대두되면서 개인생활, 경제활동 등을 위한 주거지 인근의 보행생활권 구축이 도시계획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생활인구의 확충은 지역 내 지속 거주를 위한 상주인구의 안정적 정주 유도와 방문인구의 지역 내 유입 정착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에 지속거주를 위한 일상생활권은 생활인구 중에서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주거일상생활권 정립하고, 주민등록인구와 비교를 통한 일상시설 검토, 지역주민 주도 커뮤니티 지속성을 위한 자립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한 검토와 방향 설정이 필요함
  - 이를 위해 SKT 통신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인구 중에서 상주인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주민등록인구와 비교 분석을 통한 일상생활권별 일상시설 이용 수준, 지역별·연령별 이용실태 등을 분석하여 상주인구의 지속 거주 및 유출방지를 위한 주거생활권 정비 방향, 생활SOC 공급 방향 등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일상생활권 구축 방향 설정
  -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은 전체 및 연령별 생활인구,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공간단위는 행정동과 일상생활권으로 구분하여 분석

〔표 5-2〕 생활인구 데이터 활용(5장)

구분	공간 단위	분석 내용	시간/연령 기준
생활 인구	행정동	• 생활인구, 상주인구	주중 평균, 주말 평균
		• 연령별 생활인구, 상주 인구	주중 평균, 주말 평균, 일평균 청소년 이하(10대 이하), 청년(20~30대), 중년(40~50대), 노년(60대 이상)
	일상생활권	• 생활인구, 상주인구	주중 평균, 주말 평균

2. 인천시 일상생활권 여건 및 진단

1) 일상생활권 진단 방법

(1) 주거중심 일상생활권 진단

❖ **주거지 여건 분석**

- 인천시 전역의 일상생활권 중 주거중심의 일상생활권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일상생활권의 용도지역 분포 특성을 활용한 도시계획적 분석을 실시하고, 아파트 밀집 주거지, 저층주거지 등 주거 유형별 특성을 비교 분석함

❖ **일상생활권 생활SOC 분석**

- 기초생활인프라인 생활SOC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설치되었으며, 주거중심 일상생활권의 시민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함
- 생활SOC는 군·구별, 일상생활권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시설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적정 수준 여부를 진단하고, 연령별 수요에 부합한 재배치 방안을 도출함

(2)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인구 비교 진단

❖ **비교분석 이유**

- 상주인구는 생활인구 중 야간시간대에 체류하는 인구로 주소지가 등록되고 거주하는 인구와는 차이가 있음
- 특히, 112개 일상생활권 유형 구분은 기초구역 단위 생활인구 기준으로 설정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인구를 비교 분석하여 체류하는 인구와 실제 정주하는 인구를 고려한 일상생활권을 진단함
  - 생활SOC 설치 기준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행정구역 단위로 배치하여 일상생활권 분석 기준인 기초구역과 행정동 단위 분석을 수행함

❖ **상주인구 분석**

- 일상생활권 분석 공간적 기준은 기초구역 단위로 설정하고, 생활인구 중에서 상주인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직장인구와 방문인구도 함께 고려함

- 생활인구 데이터는 주중 평균, 주말 평균과 일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생활인구 및 상주인구을 진단함
- 연령별 생활인구는 청소년 이하(10대 이하), 청년(20~30대), 중년(40~50대), 노년(60대 이상)으로 연령대를 구분하여 비율을 계산함
- 공간적 범위는 상주인구가 과소한 강화군·옹진군의 도서지역은 제외한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부 분석에서는 일상생활권에 해당하는 구역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함
- 생활SOC 등 일상시설 이용분석을 위해 청년, 중년, 고령자 등 계층별 생활인구, 상주인구 등을 분석하여 시설 설치 적정성을 검토함
  - 생활인구는 SKT 통신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10대 미만 연령의 인구가 누락되는 한계가 있어 주민등록인구를 동시에 분석함

❖ 주민등록인구 분석

- 생활인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설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인구 분석을 통해 체류와 거주의 관계를 도출함
- 생활SOC 등 일상시설의 설치와 배분 기준이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1차적으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생활인구와 상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재배분함
  -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유아·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고령자 등 계층별 정주여건을 분석하여 시설 재배치 기준으로 활용함

❖ 상주인구 및 주민등록인구 비교 분석 방법

- 생활권별 주민등록인구 비율과 평균 비율의 차이와 상주인구 비율과 평균 비율의 차이를 비교하여 집중거주 우위지역과 열위지역을 도출함
  - ①주민등록인구와 상주인구 모두가 평균 이상인 지역은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인구 우위지역으로 주거중심지역, ②주민등록인구 비율은 평균 이하, 상주인구 비율은 평균 이상인 지역은 상주의 지속거주 유도 지역, ③주민등록인구와 상주인구 모두 평균 이하인 지역은 직장·방문인구 등 유동인구가 높은 지역, ④주민등록인구 비율은 평균 이상, 상주인구 비율은 평균 이하인 지역은 상주인구 유입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진단
- 연령별 주민등록인구의 비율과 평균 비율의 차이와 연령별 상주인구와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여 연령별 지속 거주 및 유입 유도 지역을 도출함

- ①특정 연령대의 주민등록인구와 상주인구 모두 평균 이상으로, 해당 연령층이 주로 거주하고 생활하는 지역, ②주민등록인구는 평균 이하, 상주인구는 평균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주민등록인구는 적지만, 생활인구 상 상주인구가 많은 지역, ③주민등록인구와 상주인구 모두 평균 이하로, 해당 연령층 거주하고 생활하는 인구가 적은 지역, ④주민등록인구는 평균 이상, 상주인구는 평균 이하로, 해당 연령층은 주로 등록 거주하지만, 활동하는 상주인구는 적은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연령별 우위 지역 진단

■ 일상생활권 단위 분석에서는 ±10% 이상(직장인구의 경우 ±5%)에 해당하는 일상생활권 지역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표 5-3〕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인구 비교 방법

공간단위	구분	상호 비교 진단 계산식	
일상 생활권	주민등록인구와 상주인구 비율 우위·열위 분석	(주민등록인구 ÷ 전체 주민등록인구 ×1000) – 생활권별 주민등록인구 비율의 평균	(상주인구 ÷ 생활인구×100) – 생활권별 상주인구 비율의 평균
	연령별 주민등록인구와 상주인구 비율 우위·열위 분석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 연령별 전체 주민등록인구×1000) – 생활권별 주민등록인구 비율의 평균	(연령별 상주인구 ÷ 연령별 생활인구×100) – 생활권별 연령별 상주인구 비율의 평균

2) 일상생활권 주거지 분포 특성

(1) 일상생활권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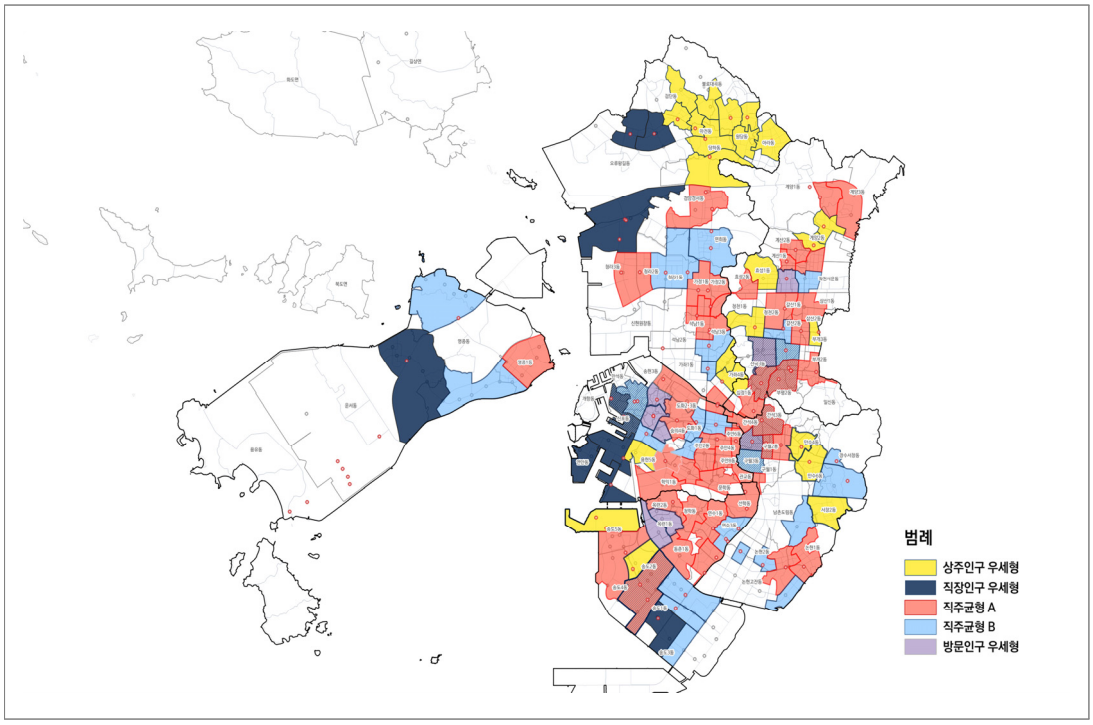
■ 3장에서 도출한 112개 일상생활권을 기준으로, 주거중심 일상생활권 진단을 실시하고, 이 중에서 상주인구 우세형 23개 생활권과 진단결과를 비교 분석함

- 상주인구 우세형 기준: 상주인구 60% 이상, 직장인구 20% 미만, 방문인구 25% 미만

〔표 5-4〕 상주인구 우세형 일상생활권

구분	일상생활권	세부 지역	
		군·구	행정동
동북권역	박촌역, 임학역	계양구	계양1동/2동
	효성역1(예정), 삼산체육역, 산곡역	부평구	효성1동, 삼산2동/부개3동, 산곡1동/2동
서북권역	아라,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 원당역, 불로역, 검단사거리역, 마전역, 완정역, 독정역, 검단역, 가좌(예정)역, 가재울역	서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 당하동, 검암경서동(아라뱃길 북부지역) 자좌2동
중부권역	신흥용현역(예정)	미추홀구	용현5동/신흥동
서남권역	국제업무단지역, 골든하버역(예정)	연수구	송도2동/4동, 송도5동
동남권역	만수, 남동구청역, 서창역(예정)	남동구	만수1동/2동/4동/5동, 만수1동/6동, 서창2동
합계	23개 역세권	–	26개 행정동

〔그림 5-1〕 일상생활권 유형 구분



(2) 일상생활권 주거지 분포 특성 진단

❖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중심 주거 일상생활권 분포

- 3장에서 도출한 일상생활권 기준으로, 용도지역 면적 비율은 주거지역이 45.1%로 가장 높으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9.7%, 9.4%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권 중 주거지역 비율이 높아 주거중심의 생활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치구는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가 많으며, 주거지역 비율이 낮은 지역은 중구, 연수구, 남동구에 분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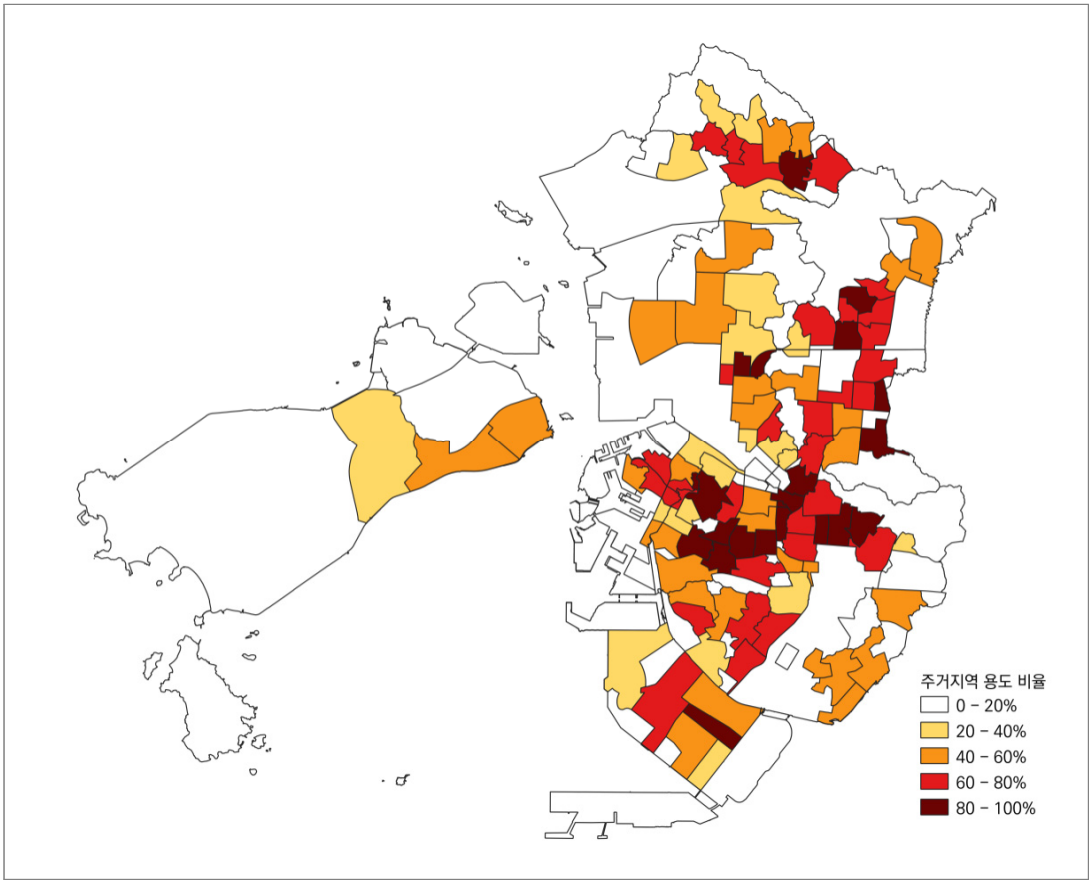
❖ 중구, 동구, 부평구, 연수구 중심 주거+일자리+상업 복합 일상생활권 분포

- 중구, 동구, 부평구는 주거와 일자리 중심의 일상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으로 중구의 신흥남항, 신포, 남항일대, 연안부두, 영종 생활권과 부평구의 갈산 생활권 등이 해당함
-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는 상업기능이 집중된 일상생활권이 분포하며, 연수구의 국제업무단지, 골든하버트램 생활권에 해당하며, 해당 생활권은 주거, 상업 등의 기능이 강한 지역임

〔표 5-5〕 일상생활권 용도지역 면적 비율

구분	일상생활권 면적(㎢)	주거지역 비율(%)	상업지역 비율(%)	공업지역 비율(%)	녹지지역 비율(%)
중구	14.7	32.0	14.5	21.4	40.6
동구	26.6	55.5	10.0	29.4	5.3
미추홀구	5.9	63.1	13.3	10.8	13.1
연수구	18.5	43.1	10.5	7.0	40.6
남동구	21.3	48.3	6.8	4.2	40.6
부평구	61.2	57.3	8.7	13.8	20.3
계양구	43.8	58.7	5.9	4.8	30.6
서구	44.8	40.7	7.0	2.0	45.9
합계	236.9	45.1	9.7	9.4	36.5

〔그림 5-2〕 일상생활권 주거지역 면적 비율



〔표 5-6〕 일상생활권별 주거지역 비율 상하위 지역

구분	주거지역 비율 80% 이상	주거지역 비율 20% 이하
중구	-	신흥남항, 신포, 남항일대, 연안부두, 영종
동구	제물포역	-
미추홀구	주안트램2, 문학학익, 주안트램1, 용현트램, 간석역, 석바위시장, 인하대	주안산단
연수구	테크노파크	국제업무단지, 골든하버트램, 송도유원지트램
남동구	석천사거리, 만수, 서창2동	남동인더스파크, 운연, 남촌트램
부평구	동암, 부개, 삼산체육	갈산
계양구	계산, 작전	계양귤현
서구	원당역, 가정중앙시장	청라국제도시, 검단오류

3) 인천시 생활인구 중 상주인구 특성

(1) 시간대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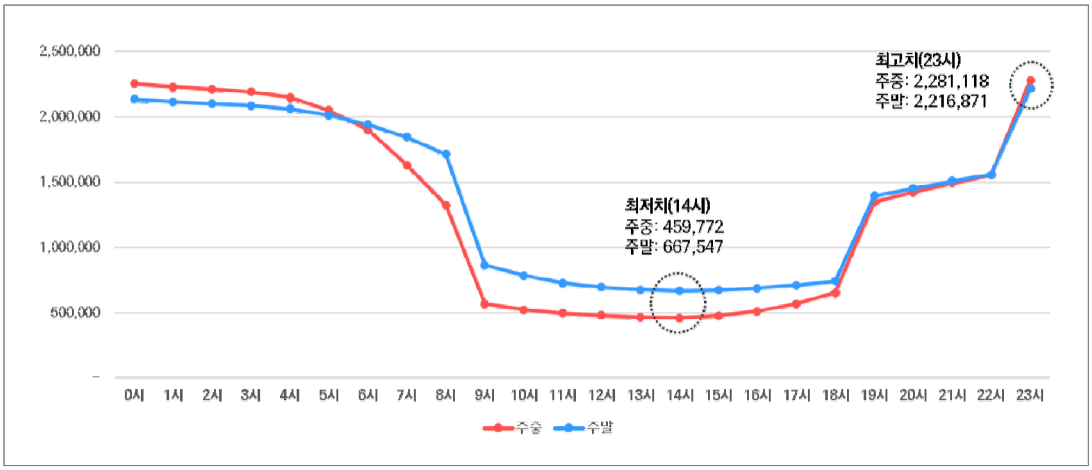
❖ 야간시간대 최대 상주인구 분포

- 생활인구 중 상주인구 평균은 주중 1,301,773명(47.9%), 주말 1,390,638명(50.2%)를 차지하며, 이들은 행정동 지역 내 거주하는 인구라 할 수 있음
- 시간대별 상주인구는 주중 23시에 최고치 2,281,118명이며, 주중 14시가 최저치 459,772명으로 최대-최소 차이가 4~5배 정도 차이가 발생함
  - 최대 상주인구(야간시간 23시~06시)는 해당 행정동내에 거주하면서 외부 지역에 직장, 방문 등의 활동하는 인구로 추정
  - 최소 상주인구(주간시간 09시~18시)는 해당 행정동내에 거주, 직장, 학교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인구로 추정

❖ 지역 내 안정적 거주보다 지역외 활동 상주인구 2배 수준

- 9시~18시 동안의 상주인구는 거주하는 행정동 지역 내 통근·통학·거주하는 자영업자, 직주근접 직장인, 학생, 노년층 등으로 46만명~67만명 수준임
- 23시~6시 동안의 상주인구는 거주하는 행정동 이외의 지역에서 주간에 활동하는 사람으로 82만명~98만명 수준임

〔그림 5-3〕 시간대별 상주인구 특성



(2) 연령대별 특성

❖ 상주인구 최대치 228만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77% 수준

- 생활인구 중 상주인구 평균 비율은 주중 47.9%, 주말 50.2%로 주중보다 주말 상주인구가 2.3% 높게 나타나지만, 최대치의 경우 228만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77% 수준에 해당함. 10대 미만 인구가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82%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일상시설 중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생활SOC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생활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비교 분석을 통한 진단 필요
- 중년층과 노년층 상주인구는 주중보다 주말에 더 많게 나타나지만, 차이는 크지 않음. 청년층 이하 계층은 주중과 주말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직장인구와 방문인구에서 차이가 발생함
  - 중년층 상주인구는 주중 30.9%, 주말 31.7%이며, 노년층 상주인구는 주중 33.3%, 주말 32.5%로 나타남

❖ 청소년 이하·노년층은 지역 내, 청년층은 지역 외 활동 중심

- 청소년 이하와 노년 계층은 주중, 주말 모두 상주인구 비중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직장, 방문 등 주거지와 해당 행정동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특성을 가짐
- 청년층은 주중 기준 타계층 대비 상주인구 비율(41.3%)이 가장 낮고, 타계층 대비 방문인구 비율(38.4%)이 가장 높으며, 주말에는 방문인구 비율(41.7%)이 타계층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나 주거지보다 타지역에서의 이동성이 높은 특징을 보임

〔표 5-7〕 연령별 생활인구 현황

(단위: 명, %)

구분		생활인구		상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	
		인구 수	비율	인구 수	비율	인구 수	비율	인구 수	비율
주중	청소년 이하	266,290	100.0	162,790	61.1	22,720	8.5	80,780	30.3
	청년	736,111	100.0	304,038	41.3	149,671	20.3	282,401	38.4
	중년	952,007	100.0	402,086	42.2	194,041	20.4	355,880	37.4
	노년	761,293	100.0	432,859	56.9	69,874	9.2	258,559	34.0
	합계	2,715,700	100.0	1,301,773	47.9	436,306	16.1	977,621	36.0
주말	청소년 이하	264,779	100.0	172,429	65.1	11,871	4.5	80,480	30.4
	청년	767,956	100.0	324,935	42.3	122,958	16.0	320,062	41.7
	중년	972,211	100.0	440,740	45.3	169,016	17.4	362,455	37.3
	노년	766,516	100.0	452,534	59.0	63,839	8.3	250,143	32.6
	합계	2,771,462	100.0	1,390,638	50.2	367,684	13.3	1,013,140	36.6

4)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인구 비교 진단

(1) 주민등록인구 대비 상주인구 비율 비교

❖ 상주인구 및 주민등록인구 모두 우위: 아파트 밀집지역 중심

-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인구 모두 평균 이상인 우위 지역은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 아파트 및 저층주거 혼합지역 일상생활권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파트 밀집지역은 중구의 영종하늘트램, 연수구의 센트럴파크인천대입구, 남동구의 만수, 서창트램, 석천사거리, 서구의 아라, 가정 생활권이 해당됨
- 아파트+저층주거 혼합지역은 신흥용현 생활권, 부평의 삼산 생활권이 포함됨

〔표 5-8〕 상주·주민등록인구 평균 대비 우위·열위 지역

구분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인구 우위 지역	주민등록인구 대비 상주인구 우위 지역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인구 열위 지역	상주인구 대비 주민등록인구 우위 지역
중구	주중	영종하늘트램, 신흥용현	-	신흥남항, 신포, 남항일대, 연안부두, 인천	운서
	주말	신흥용현		영종, 신흥남항, 신포, 남항일대, 연안부두, 인천	
연수구	주중	송도달빛축제, 센트럴파크인천대입구	골든하버트램	-	-
	주말			송도유원지트램	
남동구	주중	만수, 서창트램, 석천사거리	-	운연, 인천대공원	인천시청
	주말				
부평구	주중	삼산	삼산체육	-	부개, 부평시장
	주말		-		
계양구	주중/말	효성1	-	-	-
서구	주중/말	아라, 가정	가좌트램, 검단, 검단호수, 불로, 신검단, 원당	검단오류, 왕길	청라가정

❖ 주민등록인구 열위, 상주인구 우위: 신개발사업 추진 지역

- 개발 중인 지역에는 서구의 검단, 검단호수, 신검단 생활권 등이 해당됨

❖ 주민등록인구, 상주인구 모두 열위: 산업단지, 공장밀집지역

-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인구 열위 지역으로는 산업단지·개별공장 및 물류단지가 입지한 지역 또는 대규모 공원 및 상업지역이 입지한 지역으로 나타남
- 산업단지, 공장밀집지역, 물류단지 지역은 중구의 신흥남항, 남항일대, 연안부두, 검단오류, 왕길, 운연 생활권이 해당됨
- 대규모 공원은 인천대공원에 해당하며, 상업지역이 입지한 지역은 연수구의 송도유원지트램 생활권이 해당됨

(2) 연령별 주민등록인구비율과 상주인구비율 비교

❖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및 상주인구비율의 우위: 지속거주 정주환경 조성

- 전 연령층 기준으로는 주로 IFEZ 지역, 신도시 지역, 택지개발지역으로 나타남. 중년층은 부평시장, 청라호수 생활권이 추가로 포함되며, 노년층은 서창2동, 부개 생활권이 추가로 포함됨. 이는 계층별 질적 정주환경을 확충함으로써 지속적 거주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표 5-9〕 연령별 상주·주민등록인구 평균 대비 우위 지역

구분	전 연령층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중구	영종하늘트램, 신흥용현	영종하늘트램	영종하늘트램, 신흥용현	신흥용현
동구	-	-	-	-
미추홀구	-	-	-	-
연수구	송도달빛축제, 센트럴파크인천대입구	송도달빛축제	센트럴파크인천대입구, 송도달빛축제	-
남동구	만수, 서창트램, 석천사거리	서창트램, 만수, 석천사거리	서창트램, 만수, 석천사거리	서창트램, 만수, 서창2동
부평구	삼산	삼산	부평시장, 삼산	부개, 삼산
계양구	효성1	효성1	효성1	효성1
서구	아라, 가정	가정, 아라	가정, 아라, 청라호수	-

❖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대비 상주인구 열위: 유입인구 활성화 필요

- 평균 대비 주민등록인구는 높고, 상주인구는 낮은 일상생활권은 유입인구 활성화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전 연령층은 운서, 인천시청, 부개, 부평시장, 청라가정이 해당되며, 청년층은센트럴파크인천대입구 생활권이, 노년층은 동인천 생활권이 추가로 포함됨

▪ 이들 지역은 업무·상업·교육기능이 집중된 곳으로, 계층별 상주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다양한 기능이 복합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5-10〕 연령별 상주인구 열위 지역 및 주민등록인구 우위 지역

구분	전 연령층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중구	운서	운서	운서	동인천, 운서
동구	-	-	-	-
미추홀구	-	-	-	-
연수구	-	센트럴파크인천대입구	-	-
남동구	인천시청	인천시청	-	인천시청
부평구	부개, 부평시장	부개, 부평시장	부개	부평시장
계양구	-	-	-	-
서구	청라가정	청라가정	청라가정	-

5) 일상생활권 생활SOC 진단

(1) 생활SOC 분포 특성

❖ 일상생활권내 생활SOC 서비스 82.4% 수준

▪ 도서지역을 제외한 생활SOC는 보육·교육시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어린이집 1,549개, 유치원 363개로 집계됨. 문화시설은 작은도서관 298개, 공공도서관 47개 등으로 분포하며, 복지시설은 경로당 1,257개로 가장 많음. 체육시설은 체육관 42개, 수영장 23개가 운영 중임

- 자치구별로 분포를 보면, 서구 870개로 가장 많고, 남동구 562개, 부평구 547개, 연수구 530개 순으로 높은 반면, 동구 108개, 중구 263개로 생활SOC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 일상생활권이 차지하는 생활SOC 현황을 보면, 전체 규모 대비 수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시설의 분포 특성은 유사함. 전체 생활SOC는 3,054개로 82.4%를 차지함

▪ 자치구별 전체 생활SOC 대비 일상생활권 생활SOC 비율을 보면, 평균은 87.2%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모든 자치구가 80% 이상을 기록하여 생활SOC가 일상생활권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미추홀구(96.2%)와 연수구(95.3%)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표 5-11〕 자치구별 전체 생활SOC 현황

구분	보육·교육		문화						복지					체육		종합
	어린이집	유치원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노인문화센터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관	체육관	수영장	
중구	111	19	1	9	-	1	4	15	-	93	3	1	1	3	2	263
동구	30	12	1	1	-	1	2	12	-	38	1	3	2	3	2	108
미추홀구	182	40	1	4	-	1	9	24	3	167	1	7	2	3	2	446
연수구	246	50	2	4	1	2	8	40	-	165	1	1	3	5	2	530
남동구	213	61	2	3	-	1	4	63	2	188	7	3	1	10	4	562
부평구	240	62	1	2	-	1	6	33	2	181	6	3	1	5	4	547
계양구	120	33	1	2	1	1	6	36	3	156	6	6	1	7	1	380
서구	406	86	2	2	-	1	8	75	3	269	2	2	2	6	6	870
합계	1,548	363	11	27	2	9	47	298	13	1,257	27	26	13	42	23	3,706

❖ 일상생활권 내 노인시설 중심 생활SOC 서비스 수준이 높고 문화시설은 낮음

- 전체 대비 90% 이상이 일상생활권에 포함되는 시설은 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작은도서관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60% 미만에 그친 시설은 박물관, 미술관으로, 상대적으로 일상생활권 내 분포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됨

〔표 5-12〕 일상생활권 생활SOC 현황

구분	보육·교육		문화						복지					체육		종합
	어린이집	유치원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노인문화센터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관	체육관	수영장	
중구	100	17	-	3	-	1	5	14	-	70	3	3	2	1	1	220
동구	27	12	1	2	-	1	2	11	-	30	1	1	1	3	2	94
미추홀구	181	40	1	2	-	1	5	24	3	162	1	5	1	2	1	429
연수구	236	48	1	2	1	2	6	39	-	159	1	1	3	4	2	505
남동구	178	50	2	1	-	1	2	53	2	147	5	2	1	6	4	454
부평구	197	50	1	1	-	1	4	28	2	147	5	3	1	5	4	449
계양구	107	26	-	1	-	-	4	33	2	132	5	3	1	3	1	318
서구	350	73	2	2	-	1	7	68	3	243	1	1	2	4	5	762
합계	1,376	316	8	14	1	8	35	270	12	1,090	22	19	12	28	20	3,231

〔표 5-13〕 전체 대비 일상생활권 생활SOC 비율

(단위: %)

구분	보육·교육		문화						복지					체육		종합
	어린이집	유치원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노인문화센터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관	체육관	수영장	
비율	88.9	84.1	72.7	51.9	50.0	88.9	74.5	90.6	92.3	86.7	81.5	73.1	92.3	66.7	87.0	82.4

〔표 5-14〕 자치구별 일상생활권 생활SOC 비율

구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합계
전체	263	108	446	530	562	547	380	870	3,706
일상생활권	220	94	429	505	454	449	318	762	3,231
비율	83.7%	87.0%	96.2%	95.3%	80.8%	82.1%	83.7%	87.6%	87.2%

(2) 아동·노인 생활SOC 이용수준 진단

❖ 서구, 연수구, 미추홀구 등 높은 아동 관련 생활SOC 이용 밀도

- 어린이집은 총 1,570개, 수용능력은 75,472명으로, 1개소당 평균 수용 능력은 497명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연령(0~7세) 인구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개소당 주민등록인구는 91명으로 나타남
  - 개당 인구수는 동구 62명에서부터 서구 98명까지 자치구당 차이가 있음
- 유치원은 총 391개소, 수용능력은 48,131명으로, 1개소당 평균 수용 능력은 123명임. 유치원을 이용하는 연령(5~7세) 인구를 고려할 경우, 개소당 주민등록인구는 123명으로 나타남
  - 개당 인구수는 동구 67명에서부터 연수구 219명으로 자치구당 차이가 있음

〔표 5-15〕 보육·교육시설 이용수준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주민등록인구/0~7세	개소수	수용능력	개당 수용능력	개당 인구수	주민등록인구/5~7세	개소수	수용능력	개당 수용능력	개당 인구수
중구	9,410	111	5,654	51	85	3,991	19	2,476	130	210
동구	1,848	30	1,449	48	62	805	12	1,298	108	67
미추홀구	17,567	182	9,759	54	97	7,216	40	4,973	124	180
연수구	23,937	246	10,244	42	97	10,929	50	7,730	155	219
남동구	18,420	213	9,882	46	86	8,634	61	9,018	148	142
부평구	20,540	240	12,015	50	86	8,479	62	6,727	109	137
계양구	9,448	120	6,449	54	79	4,084	33	3,655	111	124
서구	39,882	406	18,854	46	98	17,049	86	11,301	131	198
합계	143,503	1,570	75,472	48	91	62,112	391	48,131	123	123

❖ 중·동구 등 노인문화시설 부족

- 노인문화센터는 총 13개소, 1개소당 인구수는 57,164명이며, 경로당은 총 1,257개, 1개당 인구수는 591명으로 나타남
- 노인문화센터의 경우, 남동구, 부평구는 평균보다 개소당 인구수가 높지만, 계양구, 미추홀구는 평균보다 낮았으며, 중구, 동구, 연수구는 해당 시설이 없어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함
- 경로당의 경우, 중구, 서구, 연수구는 평균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고,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는 평균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남

〔표 5-16〕 노인문화센터·경로당 이용수준

구분	인구수/60세 이상	노인문화센터		경로당	
		개소수	개당 인구수	개소수	개당 인구수
중구	37,321	0	0	93	401
동구	20,881	0	0	38	550
미추홀구	118,418	3	39,473	167	709
연수구	82,191	0	0	165	498
남동구	133,933	2	66,967	188	712
부평구	137,408	2	68,704	181	759
계양구	81,269	3	27,090	156	521
서구	131,713	3	43,904	269	490
합계	743,134	13	57,164	1,257	591

❖ 중·동·연수구 대비 남동·부평구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수준 최대 10배 이상 차이

- 노인대학은 총 27개로 1개당 인구수는 27,523명,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총 26개로 1개당 인구수는 28,582명, 노인복지관은 총 13개로 1개당 인구수는 57,164명으로 나타남
- 노인대학의 경우,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개소당 인구수를 보인 반면, 중구, 계양구, 남동구, 동구는 평균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동구에서 특히 개소당 평균 인구보다 낮은 수치를 보임
- 노인복지관의 경우, 부평구, 남동구는 개소 당 인구가 평균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며, 연수구, 동구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7〕 노인대학·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복지관 이용수준

구분	인구수/ 60세 이상	노인대학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관	
		개소수	개당 인구수	개소수	개당 인구수	개소수	개당 인구수
중구	37,321	3	12,440	1	37,321	1	37,321
동구	20,881	1	20,881	3	6,960	2	10,441
미추홀구	118,418	1	118,418	7	16,917	2	59,209
연수구	82,191	1	82,191	1	82,191	3	27,397
남동구	133,933	7	19,133	3	44,644	1	133,933
부평구	137,408	6	22,901	3	45,803	1	137,408
계양구	81,269	6	13,545	6	13,545	1	81,269
서구	131,713	2	65,857	2	65,857	2	65,857
합계	743,134	27	27,523	26	28,582	13	57,164

6) 일상생활권 과제 도출

(1) 일상생활권 생활인구 적용 시 계층별 차별화 필요

❖ 안정적 지속 거주 계층인 노년층은 주거생활 안정화 유도

- 생활인구 중 상주인구 비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주중 기준 청소년 이하는 61.1%, 노년 56.9%로, 두 연령층에서 상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노년층은 상주인구 공간 분포에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등 신도시 지역에서 밀집도는 낮은 반면, 중구 원도심 및 부평구 원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이는 노년층의 주거 특성을 고려한 주거생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됨을 시사함

❖ 유출입 잦은 계층인 청년층은 유입 중심의 지속 거주 유도

- 청년층은 유동인구(직장인구, 방문인구)의 비율이 높으며, 주중 기준 상주인구 비율은 41.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생활인구 우위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등 신개발지에서 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지속 거주를 유도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안정·유출입 복합 계층은 중년층은 안정적 상주 활동 유도

- 중년층의 상주인구 비율은 주중 기준 42.2%로, 청년층과 노년층의 중간 수준에 해당함
- 생활인구와 주민등록인구 우위 지역은 중구 운서동,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남동구 만수 인근, 부평구의 부평역·삼산역 인근, 서구의 청라·가정동 인근 등으로 나타남

▪ 따라서 중년층의 안정적인 생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인구 지원정책이 필요함

(2) 지속거주 유도를 위해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인구 동시 고려 필요

❖ 상주인구 최대치는 주민등록인구의 80% 수준

▪ 상주인구 최대치는 228만명으로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보다 과소하며, 이는 생활SOC 등 일상시설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생활SOC 등 일상시설 확충시 생활인구와 주민등록인구 중 최대치를 반영 필요

▪ 현재 생활SOC 설치 기준은 주민등록인구로 설정되어 있지만, 유동인구를 고려한 일상생활권계획 수립시에는 생활인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직장인구, 방문인구 등을 고려한 생활SOC 확충은 외부 인구유입 측면에서 생활인구와 주민등록인구 중 최대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주거 중심 일상생활권의 생활인구 적용 시 계층별 유출 방지 차원 소극적 접근

▪ 연령별 생활인구와 주민등록인구 비율 분석 결과, 생활인구와 주민등록인구는 대체로 선형적 비례 관계로 나타났음. 다만, 연령별로 생활인구의 우위지역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면서도 일부 공간에서는 약간 다른 공간분포 특성을 나타냄

▪ 따라서 주거일상생활권을 적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인구를 주요 기준으로 삼되, 상주인구의 계층별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적 접근 방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시범대상지 선정을 통한 주거일상생활권 구축 방안 마련 필요

▪ 일상생활권별로 상주·직장·방문인구, 연령별 상주인구, 연령별 생활인구에서 서로 다른 공간적 특성이 확인됨. 시범대상지의 인구 특성(수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생활SOC 공급·재배치와 맞춤형 주거일상생활권 구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일상생활권별 안정적 지속거주와 유입 정착 계층의 차별적 접근

❖ 주민등록인구와 상주인구비율이 높은 생활권 중심 지속거주 정주환경 조성

▪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해 조성된 지역은 아파트 중심의 계획적 주거지로 조성되어 모든 연령층이 밀집 거주하고 있음

▪ 계층에 부합한 정주환경의 질적 수준 확충을 통한 지속적 거주 유도 지역은 중년층의 경우 부평시장, 청라호수 생활권, 노년층의 경우 서창2동, 부개 생활권 등의 일상생활권계획 수립시 반영이 필요함

❖ 주민등록인구보다 상주인구 우위 생활권 중심 유입인구 활성화 필요

▪ 주민등록인구 대비 상주인구 낮은 일상생활권은 유입인구 활성화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운서, 인천시청, 부개, 부평시장, 청라가정 일상생활권이 해당함

▪ 청년층 유입이 필요한 지역은 센트럴파크인천대입구 생활권이며, 이들 지역은 업무·상업·교육기능이 집중된 곳으로, 계층별 상주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다양한 기능이 복합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계층별 수요에 부합한 일상시설 차별적 설치

❖ 주민등록인구 기반, 생활인구 확대를 고려한 계층별 시설 설치 유도

▪ 생활SOC에는 ①아동 이용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②노인 이용 시설(노인문화센터,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관), ③전 연령 공용 시설(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구분하고 있음

▪ 군구별, 일상생활권별로 생활SOC의 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연령대별 수요에 맞는 시설의 재배치와 적정 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청년층, 노년층 등 지속거주와 유입정착을 위한 차별적 시설 설치 유도

▪ 청년층은 유출입 등 이동이 잦은 계층으로 지역 내 유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주거와 연계한 일자리, 문화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함

- 전 연령층, 특히 청년층이 이용가능한 시설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등으로 주민등록인구 분포 및 생활인구 유입을 고려하여 청년층의 문화·여가 관련시설의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노년층은 안정적으로 지속 거주하는 계층으로 고령자의 지역 내 활동을 위해 노인복지·여가 시설 중심으로 확충하고, 주거+의료+복지 등 서비스 통합화가 필요함

- 노년층은 경로당, 노인문화센터, 노인대학 등 다양한 복지·여가 시설이 포함됨. 시설 설치 시 단순한 수적 확대보다는 노인 인구 분포를 고려한 공간적 배치가 필요함

- 또한 주거+의료+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통합적 시설 설계를 추진함으로써, 노년층이 한 장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함

3. 일상생활권 목표 및 실천과제 도출

1) 기본방향

❖ 생활인구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간과 사람에 대한 균형적 접근

-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주인구의 지속 거주 및 외부 유출방지와 방문인구의 유입·정착을 위한 정주공간과 사람에 대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함
-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정주하는 상주인구의 체류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 생활공간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방문인구의 증대를 유도하고 지역 내 활동시간을 연장하고 정착을 유인하는 다양한 지역콘텐츠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과 지원체계를 구축함

❖ 상주인구의 지속적 거주를 위한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

- 생활인구 중 상주인구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로 지속적인 거주와 외부 이주를 방지하기 위한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함
- 상주인구 중 안정적 거주 계층은 10대 이하 계층과 노년층으로 고령자를 위한 시설과 접근성 향상을 통한 고령사회에 대응함
-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상주인구를 위한 적정 시설 배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동네 단위의 로컬 플래닝(생활권계획)을 통한 수요 맞춤형 계획적 접근이 필요함
- 지속거주 유도를 위한 일상시설의 적정 공급과 일상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거지역 정비와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

❖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활력증진을 위한 청년인구 유입

- 상주인구 중 지역 내 유출입이 잦은 계층은 청년계층으로 청년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 문화기능의 확충을 유도함
-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가구 분화 추세 대응을 위한 청년문화활력공간 조성을 통하여 지역 내 체류를 유도함
- 지역 내 방문을 통한 체류시간 연장을 위해 지역방문을 유인할 여가, 문화, 교육 등의 지역콘텐츠를 발굴하고 양적·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함

❖ 저출산·고령화 대응 유아·고령자 시설 복합화를 통한 일상생활권 구축

-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생활인구 중 상주인구의 증가가 필수적이며, 이는 주민등록인구 증가로 연결되어 출산율 향상 및 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아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적 배치가 필요함
- 신혼부부가 아이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아이돌봄시설과 양육자의 문화시설 복합화를 위한 정주환경과 일상생활권을 조성함
- 고령화에 따른 고령사회 진입과 고령자 인구 증가를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통합돌봄서비스와 연계된 주거, 문화 공간의 복합화를 통한 고령자가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함
- 지역 내 정주하는 인구특성을 고려하여 아동, 청년, 고령자 등을 위한 일상시설의 재배치 및 복합화를 유도함

2) 세부 목표 및 실천과제

(1) 세부 목표: 매력적인 주거일상생활권 구축

- 생활인구 중심의 주거일상생활권은 상주인구의 지속적인 거주와 방문인구의 유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부합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제공되고 적정한 시설이 설치된 매력적인 공간조성과 주거지 정비가 필요함
- 이에 '수요에 부합한 주거생활서비스는 살고 있는 주택에서 10분 내에 제공하고, 계층별 적정한 시설배치를 통하여 매력적인 동네 중심의 주거생활권을 구축하여 정주환경의 양적·질적 수준과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둠

- 일상생활권 구축은 전철역 중심 15분으로 설정하여 역세권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에, 매력적인 주거일상생활권은 살고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10분 내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어 차별적으로 접근함

(2) 실천과제

- 지속거주를 위한 살고 싶은 정주환경 구축을 위해 로컬플래닝에 기반한 주거생활권을 중심으로 수요에 부합한 ①주거일상생활권 일상시설 재배치, ②일상생활권 시범사업 등의 실천과제를 통해 일상생활시설의 양적,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

- 동네 중심의 일상생활권 구축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일상생활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적정한 주거생활서비스 공급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로컬플래닝과 N분 생활권 개념을 도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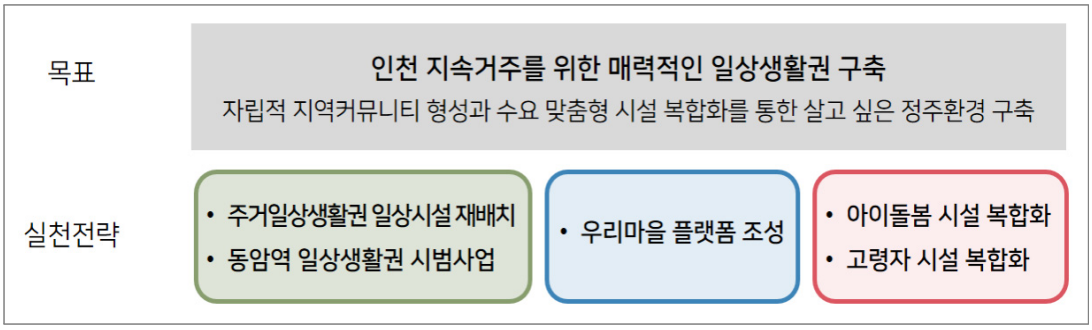
■ 매력적인 주거일상생활권 구현을 위해 지역 내 전문가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동네의 구심점을 조성하여 주민간 소통·화합을 통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③우리마을 플랫폼을 설치하는 것을 실천과제로 제시함

- 우리마을 플랫폼은 동네 중심의 하이퍼 로컬플랫폼으로 주민커뮤니티공간, 상업 및 문화활동공간, 마을관리 및 운영공간 등이 통합된 동네 거점이라 할 수 있음

■ 주거중심 일상생활권은 아파트단지와 저층주거지로 주거지 분리가 진행되었고,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주거서비스 측면에서 지역별·계층별 격차가 심화되어 공적 일상생활서비스 지원 및 통합, 지속적·안정적 거주를 위한 아이·노인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 통합 지원과 유입·정착을 위해 ④아이돌봄시설 복합화, ⑤고령자 시설 복합화 등의 실천과제를 추진함

- 청년가구, 무자녀 부부가구, 유자녀 부부가구, 노인가구, 청년·노인 1인 가구 등 가구분화에 대응하여 살기 좋은 동네 중심의 일상생활권를 조성하여 '모두가 함께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서비스를 영위하는 지역사회 주거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그림 5-4〕 일상생활권 목표 및 실천전략



〔표 5-18〕 일상생활권 실천방안

실천전략	실천방안
① 주거일상생활권 일상시설 재배치	• 생활SOC 시설의 재배치 • 행복마을 가꿈사업 연계 추진
② 동암역 일상생활권 시범사업	• 동암역 주변 근린상업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및 청년복합시설 확충 • 저층주거지역 상주인구 지속 거주를 위한 일상시설 설치 및 동암초등학교 시설복합화
③ 우리마을 플랫폼 조성	• 우리마을 플랫폼 공모사업 추진 • 행복마을 가꿈사업 연계 추진
④ 아이돌봄시설 복합화	• 원도심지역 아이돌봄시설 복합화 • 신개발지역 아이돌봄 통합단지 조성
⑤ 고령자시설 복합화	• 원도심 지역 고령자시설 복합화 • 신개발지역 세대통합형 고령자 단지 건설

4. 지속거주를 위한 매력적인 일상생활권 구축 방안

1) 주거일상생활권 일상시설 재배치 방안

(1) 필요성

❖ 10분 일상생활권의 일상시설 조정 및 저층주거지 특화 정비 필요

- 10분 일상생활권은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생활SOC로 접근하는 시간이 도보 10분, 대중교통 10분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생활권내에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생활SOC를 확충, 재배치하는 것임
- 특히 원도심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밀집 저층주거지역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나 건축밀도가 높아 정비사업을 통한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생활SOC 공급 중심의 특화정비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관리방안이 요구됨

❖ 생활권 수요에 부합한 기초생활인프라 부족과 지역별 불균형적 시설 분포

- 인천시 기초생활인프라는 주요 시도들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대체로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 목표량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존재함
- 인구를 기준으로 한 양적 지표와 접근성을 고려한 지표는 시설과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서비스 영역 안에 있더라도 시설의 수용량이 불충분하면 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생활SOC는 인구 수가 많은 서구,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에 집중 분포하여 지역별 차이가 있음. 한편 생활체육시설, 생활문화센터, 박물관 등은 인구 수가 적은 중구와 동구에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시설 수가 많더라도 인구 밀집도가 떨어지는 곳에 입지하면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생활권별 수요를 고려한 확대 공급이 필요함

❖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생활SOC 공급 중심 특화정비 필요

- 원도심 주거지내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밀집 저층주거지역의 노후화가 심각함
  - 1990년대 이후 공급량이 많아진 다세대주택의 노후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공급한 저층 공동주택의 경우도 노후화가 진행되어 관리 필요성 높음
- 다세대와 연립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건축밀도가 높아 정비사업을 통한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어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의 관리는 새로운 방식의 요구됨

▪ 특히, 다세대와 연립주택 비율이 높은 미추홀구, 계양구, 서구, 부평구에서는 저층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

❖ 지역특성에 따른 생활SOC 공급 방향 설정

▪ 원도심 지역은 평균 연령대가 높고 중, 동, 미추홀구의 경우 고령인구가 우세하여 우위연령에 대한 접근성을 우선 고려하고, 향후 젊은 연령대가 지역 내에 유입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함

〔표 5-19〕 저층주거지 내 동별 인구 우위 특성

구	소아인구	학령인구	핵심가임연령인구	소비활력인구	고령인구	초고령인구
중구	-	-	운서동	-	-	개항동
동구	-	-	-	-	송현3동	송현3동
미추홀구	-	-	용현1,4동	-	용현3동	용현3동
남동구	-	-	구월3동	-	-	-
부평구	-	-	십정1동	-	-	-
계양구	-	-	-	계양3동	-	-

▪ 생활SOC 시설이 부족하여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접근성 확대와 시설 확충, 유사시설로 인하여 과도한 시설이 중복된 경우에는 기능전환 등 재배치,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도시정비가 진행되는 지역은 사업 연계를 통한 확충 등으로 접근함

(2) (장기) 10분 주거생활권 일상시설 재배치 방안

❖ 일상시설 재배치 기준

▪ 어린이집(0~7세), 유치원(5~7세) 등은 수용능력을 기준으로 연령별 인구의 80%를 수용한다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산정함

▪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노인대학,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를 대상으로 인천시 평균 수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전제로 산정함

▪ 공공체육관, 공공수영장,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은 국가 생활SOC 추진 목표 및 기준을 적용함

〔표 5-20〕 국가 생활SOC 추진 목표 및 기준

시설 유형		2022년 착수 목표 기준
공공체육	공공체육관	• 10분내 접근(1,400여 개) • 34만명/개소, 선진국 60% 내외
	공공수영장	• 15분내 접근(600여 개) • 85만명/개소, 선진국 55% 수준
생활문화	공공도서관	• 10분내 접근(1,200여 개) • 43만명/개소, 선진국 90% 수준 • 문화·돌봄 등과 복합, 리모델링
	생활문화센터	• 300여 개 • 시·군·구당 1.3개
자녀돌봄	공공부문 어린이집	• 공보육 40% • 수해아동 50.2만명(8,600여 개)
	국공립유치원	• 국공립 취원율 40%
	온종일돌봄체계(초등돌봄)	• 수혜아동 53만명 • 초등돌봄교실 1.5만 여 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800여 개소
공공의료	지역책임의료기관	• 40여 개소 지정
	주민건강센터	• 110여 개소 • 시·군·구당 0.5개소

출처: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2021). 생활SOC, 내실 다지고 피부에 닿는 성과 낼 때. 2021년 1월 26일 보도자료

❖ 지역별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일상시설 재배치(안)

- 어린이집은 208개소의 확충이 필요하며, 중구와 동구 이외의 지역에서 확충이 필요함
- 유치원은 189개소를 기능전환하여 활용토록 유도하고, 남동구, 서구, 부평구 등의 지역에서 많은 유치원의 조정이 필요함
- 노인 관련 시설은 적정한 수준으로 이용영향권에 따라 일부 조정이 필요하며, 미추홀구와 계양구의 경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하여 조정이 필요함
- 공공도서관 19개, 작은 도서관 90개 등 기반시설 확충 시 도서관을 우선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문화시설은 29개를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중·동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개항장문화지구 등 역사·문화 기능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임
- 생활문화센터는 3개 확충이 필요하며 이 중에서 2개는 중구와 서구에서 확충해야 함

〔표 5-21〕 아동, 노인 관련 생활SOC의 재배치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노인대학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현재	필요개소	현재	필요개소	현재	필요개소	현재	필요개소	현재	필요개소	현재	필요개소
중구	111	-3	19	-7	1	0	0	1	3	-2	1	0
동구	30	-5	12	-9	2	-1	0	0	1	0	3	-2
미추홀구	183	32	40	-17	2	0	3	-1	1	3	7	-3
연수구	245	22	50	-22	3	-1	0	2	1	2	1	2
남동구	211	40	61	-38	1	1	2	1	7	-2	3	1
부평구	234	41	62	-31	1	1	2	1	6	-1	3	2
계양구	118	24	33	-18	1	0	3	-1	6	-3	6	-3
서구	402	62	86	-34	2	0	3	0	2	3	2	2
인천광역시*	1,556	208	391	-189	14	0	15	0	28	0	26	0

주) 인천광역시 합계에는 강화군, 옹진군이 포함된 수치임

〔표 5-22〕 도서관, 문화시설 등 관련 생활SOC의 재배치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예회관		생활문화센터	
	현재	필요개소	현재	필요개소	현재	필요개소	현재	필요개소
중구	4	0	15	7	10	-6	1	1
동구	2	0	12	-4	2	-1	1	0
미추홀구	9	1	24	30	5	6	1	0
연수구	8	1	40	13	7	3	2	0
남동구	4	7	63	1	5	7	1	0
부평구	6	5	33	32	3	10	1	0
계양구	6	1	36	1	4	3	1	0
서구	8	7	75	8	4	12	1	1
인천광역시*	51	19	308	90	48	29	11	3

주) 인천광역시 합계에는 강화군, 옹진군이 포함된 수치임

❖ 일상시설 재배치를 위한 조정 방향

- 어린이집은 208개소는 공보육율 40%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 확충이 필요함
- 유치원은 과다 공급되어 50% 이상을 기능 전환이 필요하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청년, 노인 등의 복합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함
- 도서관은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며, 작은 도서관은 동네단위의 생활권계획 및 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함
- 노인 관련 시설 중 노인일자리센터는 시설 재배치나 시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표 5-23〕 생활SOC 조정 재배치 기본방향

구분	조정 재배치		기본 방향
	재배치 개소	기준	
아동 돌봄 시설	어린이집 208개소 → 공보육 40% 기준 과소	확충	• 가정, 민간어린이집의 국립 전환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확충
	유치원 50% → 90개소	기능 전환	• 입지·규모 등 고려한 청년·노인복합시설 기능전환
도서관	공공도서관 19개소	확충	•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정비 등 사업시 확충
	작은도서관 90개소	확충	•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정비 등 사업시 확충 • 부평구 32개소, 미추홀구 30개소, 연수구 13개소 등 유치원·어린이집기능 전환
문화 시설	미술관·박물관·문예회관 29개소 남동·부평·계양 20개소, 서구 12개소 등	확충	• 시설 집적, 지역균형배치 등 고려 확충 • 중구 내항·개항장 일대 집적 • 부평캠프마켓, 서구도시개발사업 등 활용 확충
노인 시설	노인문화센터: 연수·남동구 3개소 노인대학: 미추홀구3개소, 서구 3개소 노인일자리센터: 미추홀·계양구 3개 축소, 연수·서구 2개 확충	확충 확충 재배치	• 노인복지관: 군·구당 기본 1개소, 노인인구비율 높은 지역 추가 1개소 이상 등 • 노인문화센터: 군·구당 기본 1개소, 중·동·연수구 1개 이상 확충 • 노인대학: 노인재교육수요 고려 재배치, 남동·계양 축소 • 노인일자리센터: 계양구 축소 재배치

(3) (단기) 생활SOC 확보를 위한 사업 연계 방안

❖ 중앙정부의 뉴:빌리지 사업 연계

- 뉴빌리지 사업은 5만~10만 ㎡ 규모의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 정비와 기반·편의시설을 포함하여 국비 15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도시쇠퇴지역[17] 또는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18] 대상지역, 저층주거용 건축물 비중 2/3에 해당하여 뉴:빌리지 사업 기준을 만족하는 저층주거지역의 경우 뉴:빌리지 사업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 가능
-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접도율·협소도로 개선을 통한 접근성 향상, 아이돌봄시설, 체육시설, 작은도서관, 노인복지관 등 돌봄시설과 체육시설, 생활 문화시설의 조성이 가능함

17) 인구감소, 산업체 감소,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이상 중 2개 기준 만족 시 해당됨
18) 노후, 불량건축물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해당됨

〔표 5-24〕 뉴:빌리지 사업에서 제시하는 편의복지시설 구성 기능(안)

예시	내용
대분류	기반시설(주차장), 돌봄시설(노인·어린이), 체육시설, 생활·문화시설(도서관) 등
예시	주차장, 북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육아센터 등 어린이 돌봄 시설, 노인복지관,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건강증진센터, 공용세탁실, 정비지원기능 등
부가	쓰레기처리장, 무인택배함, 방범CCTV·보안등, 전기차 충전시설 등

출처: 국토교통부, (2024).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안)

-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건립지원사업, 문화체육부의 생활체육시설 건립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사업을 연계할 수 있음

❖ 인천시 행복마을 가꿈사업과의 연계

-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 사업으로, 범위 약 1만~1만 5천 ㎡ 규모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1개소당 33억 원 이내 재원 지원하여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주택개량 등을 시행하는 사업임
  - 사업의 유형은 주거성능개선형, 정비기반시설형, 생활복합공간형, 지역특화재생형 등임
- 이 중 기반시설 여건 지원은 주민체육시설이나 경로당, 북카페, 작은도서관과 같은 주민공동시설 확충, 내집 앞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 내 보행길 조성, 주민역량강화에 해당하는 영유아돌봄교실 등이 가능하며 사업 유형에 따라 시설 조성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추진하면 사업예산 33억원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확충과 복합화가 가능함

2) 동암역 일상생활권 시범사업 추진

(1) 필요성

❖ 복합거점생활권을 연결하는 일상생활권 역할에 대한 사전적 검토

- 동암역 일상생활권은 부평역 거점생활권과 인천시청 거점생활권의 중간적 위치에 입지하여 경인철도 지하화 사업 등에 따라 2개의 거점이 생태회랑을 통해 연결시키는 일상생활권 역할 수행이 가능함
- 동암역 일상생활권은 동암역과 간석오거리역세권에 속하고, 재개발사업, 저층주거지관리사업 등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정비와 저층주거지의 보전이 양립하며 역세권 중심으로 도심공공복합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반영한 시범적 생활권계획 수립 필요성이 높은 지역임

❖ 10분 주거일상생활권계획의 실행력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필요

- 10분 주거일상생활권은 일상시설을 재배치하여 내집 중심으로 10분 거리에 주거생활서비스를 만족하는 생활권계획으로 생활권 단위 검토를 통한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방식임
-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검토하여 실제 지역주민이 거주하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실행력 검증이 필요함
- 주거일상생활권의 일상시설 재배치에서 데이터 분석만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특성들이 있으며, 일상생활권에서 설정한 영역 중 지역의 요구도나 시설 확충의 우선순위 등에서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2) 기본방향

❖ 상주인구의 지속 거주를 위한 생활권계획

- 생활인구 기준 청년인구의 유입이 높은 수준으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5% 이상이 유입되어 청년인구의 유입·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 및 시설 도입이 요구됨
- 상주인구는 27,527명으로 청소년 이하 비율이 낮고, 청년, 중년층, 노년층이 평균 이상으로 구성됨. 생활권 내에 안정적, 지속적 거주 유도를 통한 유출방지 사업 추진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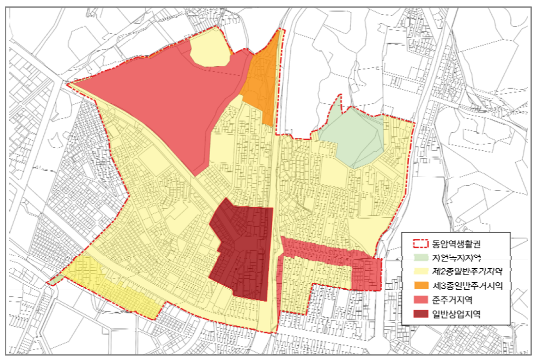
❖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일상시설의 재배치

- 동암역 일상생활권 면적은 약 1.2㎢이며, 용도지역 비율은 주거지역 91.8%, 상업지역 7.1%, 녹지지역 4.4%를 차지함
- 동암역 주변 일반상업지역에 방문·체류하는 인구로 유입·정착을 통한 지역 활력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5-25〕 동암역 일상생활권 용도지역 현황

구분	면적(㎡)	비율
일상생활권(㎡)	1,202,428	100.00%
주거지역(㎡)	1,103,244	91.8%
상업지역(㎡)	85,808	7.1%
공업지역(㎡)	0	0.0%
녹지지역(㎡)	52,629	4.4%

〔그림 5-5〕 동암역 일상생활권 용도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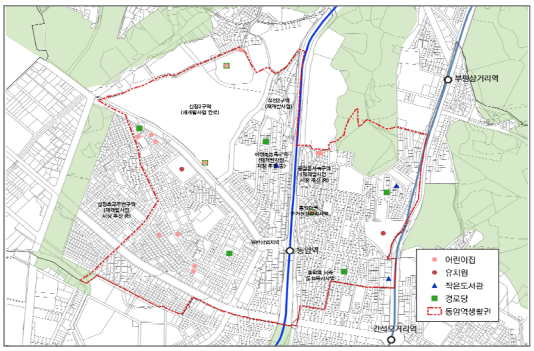


▪ 동암역 일상생활권 생활SOC는 어린이집 14개소, 유치원 2개소, 작은도서관 3개소, 경로당 16개소인 총 35개 시설이 있음. 유아·노인시설이 대부분이며 단독시설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음. 반면, 청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공간은 부족한 상황임

〔표 5-26〕 동암역 일상생활권 생활SOC 현황

구분	면적(㎡)	비율
어린이집	14	40.0%
유치원	2	5.7%
작은도서관	3	8.6%
경로당	16	45.7%
합계	35	100.0%

〔그림 5-6〕 동암역 일상생활권 생활SOC 현황



❖ 청년인구 유입, 유아·노인 시설 복합화 등 시설의 효율화

▪ 노인 중심의 인구구조와 정주활동을 위한 노인 관련 시설은 도서관 등과 복합되어 있으며, 모든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아동돌봄 및 복지시설, 지역커뮤니티시설 등과 통합 설치를 통하여 지역거점 역할이 필요함

▪ 청년인구는 직장·방문인구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역 이동이 높아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청년유입을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함

- 청년계층은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과 같은 미혼청년, 결혼한 신혼부부 등으로 구성되어 미혼청년을 위한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 공간, 신혼부부를 위한 아이돌봄시설 등 계층별 수요에 부합한 시설 확충이 요구됨

(3) 실천방안

❖ (중기)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SOC 배분

▪ 동암역 일상생활권은 십정2구역이 뉴스테이 사업으로 완료되었고, 십정2구역, 십정3구역, 십정4구역, 십정5구역 등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상태이며, 동암중학교와 하청초등학교 주변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임

▪ 생활권 서북측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아파트 중심의 주거지역으로 형성될 예정임

▪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확보해야 할 생활SOC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이며, 작은 도서관은 사업대상지 내 1개 이상의 확충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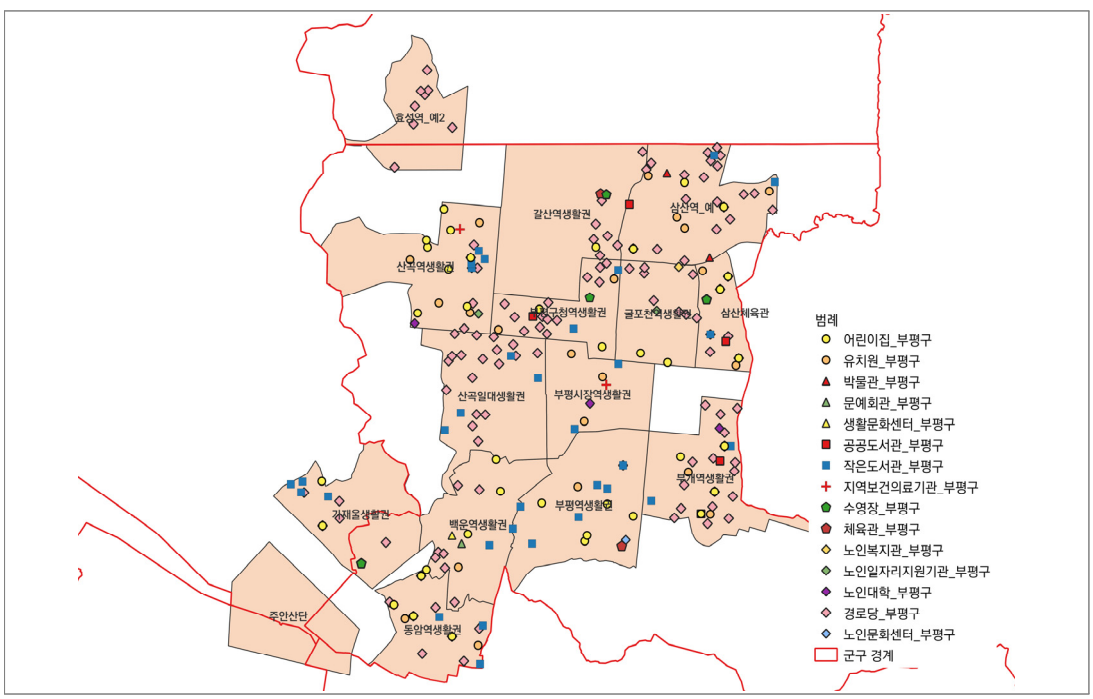
- 시설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공공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은 사업 규모에 따라 확충하며,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미술관 등 문화시설, 문화센터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

〔표 5-27〕 부평구 일상생활권별 생활SOC 현황

(단위: 개소)

생활권명	어린이집	유치원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역보건의료기관	박물관	문예회관	생활문화센터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경로당	수영장	체육관	합계
가재울	2	-	-	4	-	-	-	-	-	-	-	-	6	1	1	14
갈산	1	-	-	-	-	-	-	-	-	-	-	-	7	1	2	11
굴포천	2	-	-	-	-	-	-	-	1	1	-	1	11	-	-	16
동암	6	2	-	3	1	-	-	-	-	-	-	-	16	-	-	28
백운	3	1	-	1	-	-	1	1	-	-	-	-	14	-	-	21
부개	4	2	2	2	-	-	-	-	1	-	-	-	29	-	-	40
부평구청	2	2	1	2	-	-	-	-	-	-	-	-	13	1	-	21
부평시장	-	3	-	2	1	-	-	-	1	-	-	-		-	-	7
부평동수	5	1	-	7	-	-	-	-	-	-	1	1		-	1	16
산곡역	8	4	-	4	1	-	-	-	2	-	1	1	6	-	-	27
캠프마켓	-	-	-	4	-	-	-	-	-	-	-	-	18	-	-	22
삼산	3	4	1	2	-	2	-	-	-	-	-	-	20	-	-	32
삼산체육	3	2	1	1	-	-	-	-	-	-	-	-	10	1	1	19
효성1	-	-	-	-	-	-	-	-	-	-	-	-	8	-	-	8
합계	39	21	5	32	3	2	1	1	5	1	2	3	158	4	5	282

〔그림 5-7〕 부평구 생활SOC 현황



❖ (장기) 역세권 상업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① 동암역 주변 상업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 동암역 일대의 상업지역은 소규모 필지의 중저층 건물로 구성되어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의 소규모 정비사업은 2024년 12월 기준 108개가 추진 중이며, 이 중 부평구는 24개로 부평역 일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1개 사업은 동암역 일대에서 시행함
- 동암역 일대는 기존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적합하여 1만㎡ 이하 규모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창업 및 업무공간 등을 복합하여 추진하여 청년인구의 유입, 정착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② 소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한 청년복합시설 확충

- 청년복합시설은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공유오피스 등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주거, 업무, 상업, 문화 활동을 연계 집적토록 유도함
- 청년주택은 인천형보다 원룸 형식으로 민간공급이 적절하며, 공유오피스와 같이 복합화하여 청년 주거와 활동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청년공유오피스는 임대료 절감을 통한 청년유입 증가와 함께 크리에이티브 및 창업활동을 장려하여 청년 중심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함

❖ (중기) 저층주거지역의 일상시설 설치 및 시설복합화

① 상주인구 지속 거주를 위한 일상시설 설치

- 동암역 일상생활권 내 저층주거지역은 2014년~2019년 동안 총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된 동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추진되었음
  - 이를 통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주민공동이용시설(노인정, 어린이집, 체력단련장, 마을주택관리소 등)을 동암마을 주민협의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동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추진된 지역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권 거점으로 우리마을 플랫폼 조성 등을 위해 행복마을 가꿈사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기반시설 정비 보다는 시설복합화를 통한 우리마을 플랫폼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토록 유도함

② 동암초등학교 시설복합화

- 동암초등학교는 학교건물 이외의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가 넓은 상황으로 이를 활용하여 수영장, 주민커뮤니티 공간, 노인복지시설 등을 복합화하고 우리마을 플랫폼으로 조성하여 어린이, 청소년, 어른, 노인 등 세대간 교류를 촉진함
- 동암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시, 기존의 학교 건물을 공유나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학생교육공간과 지역커뮤니티 공간의 분리가 가능하며, 체육시설 개방 시에는 학생과 이용자 간의 동선을 분리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함
  - 특히, 동암초등학교 시설복합화는 기존의 주민협의체나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참여형 설계 등을 도입하여 주민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조성하도록 함
- 도입시설은 커뮤니티 공간, 노인복지시설, 아동돌봄시설 등을 통합하고, 수영장 등 체육시설은 재정지원 수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접근함
- 이를 통해 동암역 주거생활권의 마을중심지인 우리마을 플랫폼으로 형성시켜 모든 세대가 교류하는 공간으로 조성함

❖ (단기) 동암역세권 도심공공복합사업과 연계한 청년주택 등 청년시설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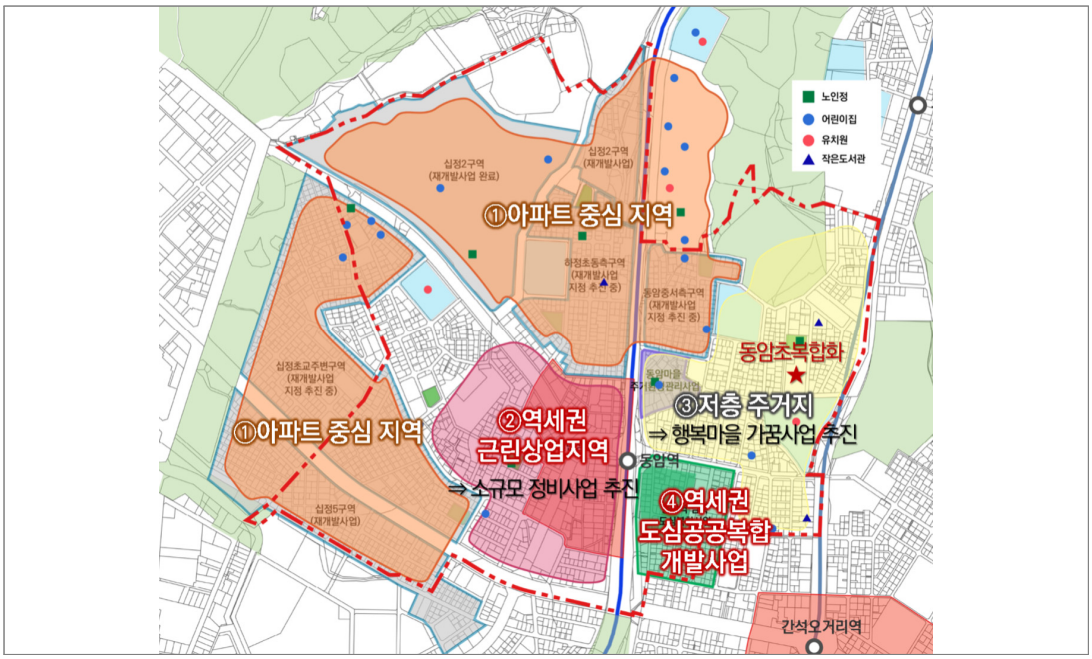
①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인천형 청년주택 확보

- 동암역세권 도심공공복합사업은 단독주택 밀집지역 53,205㎡를 대상으로 도심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2024년에 지구 지정됨
  - 주택공급은 전체 1,800세대이며, 이 중에서 공공분양 1,530세대(이익공유형 180세대), 공공임대 134세대로 구성됨
- 공공임대주택 180세대 중에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주택은 40호가 공급될 예정임
  - 청년주택 40호는 인천형 청년주택으로 특화하여 공급을 유도하고, 인천형 청년주택은 빌트인 시설이 완비된 주택으로 청년문화공간, 아이돌봄시설 등 일상생활시설과 복합된 공공임대주택으로 특화

② 청년주택과 연계한 아이돌봄과 청년시설 복합화

-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과 청년창업활동, 문화활동 등이 연계된 청년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신혼부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공동육아시설 등 아이돌봄시설 복합화하여 원도심 지역 내 청년계층의 유입을 유도함

〔그림 5-8〕 동암역 일상생활권계획(안)



3) 우리마을 플랫폼 조성

(1) 필요성

❖ 도시재생사업의 장기화와 주민참여의 한계 극복

- 인천시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사업은 2018년 더불어마을사업, 2022년에 행복마을가꿈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됨
- 저층주거지사업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확충이 이루어졌지만, 마을단위의 중심지 역할 수행보다 사업효과 측면의 물리적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자족적 기반과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저층 주거밀집지역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주민참여 필요

- 10분 주거일상생활권은 주거생활시설의 설치와 서비스 제공과 함께 로컬생활권내에서 주민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점을 통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주민조직의 자족성 확보 등을 위한 플랫폼이 필요함
- 2015년부터 추진한 마을주택관리소는 노후주택 집수리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시설로 거주자의 집수리 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마을 단위의 거점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하이퍼로컬서비스와 주거환경유지관리 기능을 확대한 중심 기능이 필요함

(2) (단기) 우리마을 플랫폼 구축 방안

❖ 우리마을 플랫폼 개념

- 우리마을 플랫폼은 동네단위 하이퍼로컬 플랫폼으로 저층주거지역 내 주민, 자치단체,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고 공공정책 및 사업의 연계·지원을 통해 조성되고 지역커뮤니티가 운영하는 동네 단위의 물리적·사회적 구심점임
- 물리적 조성은 공공정책 및 사업 연계, 공공지원 등에 기반하여 지역 대학, 건축가 등의 전문가와 연계하고 빈집매입, 가로·공원복합화, 마을상가 및 주택 등을 활용하여 조성함
- 사회적 구심점은 운영·관리주체로 지역주민, 자치단체,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동네조합 또는 개별 단체를 형성하여 마을 유지·관리, 생활서비스,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수행함
- 특히,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과 연계하여 동네카페, 놀이방, 특산물 판매 등의 생산활동을 통해 자립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성을 확보함

〔그림 5-9〕 우리마을 플랫폼 개념도



❖ 우리마을 플랫폼 참여 주체별 역할

- 우리마을 플랫폼 조성을 위한 참여 주체는 지역주민 및 주민자치회, 사회적 기업 및 소상공인, 지역전문가, 지자체 및 공공 등으로 구성됨
- 지역주민 및 주민자치회는 주민커뮤니티를 구성하고 플랫폼의 지속적인 운영주체로써 계획, 사업, 운영 등에 참여하는 주도적인 추진 주체 역할을 수행함

- 사회적 기업 및 소상공인은 지역 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주체로써 상업 및 생산활동을 통한 동네활성화의 주체임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 마을조합 등의 구성, 외부의 사회적 기업 유치 등을 통한 마을운영·관리, 문화·교육 등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역할 수행
  - 소상공인은 지역 내 주민으로 커뮤니티 참여, 플랫폼 내 입주를 통한 영업활동 등을 통한 우리마을 플랫폼의 주도적 역할 수행
- 지역전문가는 대학교수, 건축가 등으로 구성되어 우리마을 플랫폼 계획수립 주체로써 플랫폼 설계,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 공간배분 및 기능설계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지자체 및 공공은 우리마을 플랫폼 조성을 위한 사업연계, 공간제공, 조성 초기 재정지원, 운영프로그램의 지원, 주거생활서비스 연계 및 제공 등 사업연계한 행재정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우리마을 플랫폼 조성 수단 및 방법

- 우리마을 플랫폼 조성을 위해 수단으로 공간제공은 공공 차원에서 빈집 및 빈상가 매입, 공원부지 활용 등을 통하여 제공함
  - 공공은 동네 활성화를 위한 주택, 상가 등의 활용할 경우 리모델링, 증개축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으로 민간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함
- 우리마을 플랫폼 조성을 위해서는 건축설계, 주민커뮤니티 조성, 운영공간프로그램 등 지역전문가의 지원이 필수적임
  - 우리마을 플랫폼 조성을 위한 건축설계, 시공 등의 조성비용은 도시재생사업, 저층주거지 사업 등 공공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비를 지원함
- 지역전문가는 지역 내 대학, 건축설계사무소 등의 교수, 건축가 등과 연계하여 프로젝트 매니저(PM), 총계계획가 등으로 지정·참여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우리마을 플랫폼 전반적인 계획, 설계, 시공 등을 수행함

❖ 우리마을 플랫폼 공간 및 운영

- 공간활용은 커뮤니티 활동과 연계한 동네플랫폼, 공공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상업활동, 청년창업, 아이 및 고령자 돌봄 공간 등 복합적 공간으로 구성하여 활용함
- 우리마을 플랫폼 운영은 주민자치회, 주민커뮤니티나 조합,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을 유치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상업활동,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재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3) (단기) 우리마을 플랫폼 공모사업 추진

❖ 지역 대학과 연계한 공모사업

- 지역전문가 중 인천지역 내 대학은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학강의 연계 등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지역주민참여, 지역특성반영 등을 통한 사업추진에 용이함
- 공모사업은 인천시·군·구 등 공공이 주체가 되어 공공공간과 사업비를 제공하고, 지역대학과 주민이 연계한 프로그램 및 제안서를 통해 추진함
- 인천지역 내 건축, 도시 등의 전공이 있는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청운대학교, 연세대학교 등과 연계한 우리마을 플랫폼 공모사업은 노후한 저층주거지의 재생,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빈집 및 상가 등 유휴공간 재생 등이 가능함
  - 대상지역은 행복마을 가꿈사업 규모를 적용하여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내 가로(도로) 경계로 구성된 면적 1만~1.5만㎡ 이내로 설정
  -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에 형성된 주민협의체나 주민자치회와 협력하여 참여하고 향후 운영 등을 전제로 추진

❖ 지역건축가와 연계한 공모사업

- 지역전문가 중 인천지역 내 건축가 연계는 지역의 기후 및 자재, 역사·문화적 특징, 주민의 생활방식 등의 반영으로 장소성 및 정체성 확보가 용이함
- 건축설계에 대한 차별화와 함께 공간전략에서 지역 주민의 일상 소비, 방문인구의 이동방식(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 체류시간 등을 고려한 동선 배치, 커뮤니티 구조에 따른 공간 기획 등의 추진이 가능함
- 공모사업은 인천시·군·구 등 공공이 주체가 되어 공공공간과 사업비를 제공하고, 인천광역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지역건축가와 주민이 연계한 프로그램 및 제안서를 통해 추진함
  -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에 형성된 주민협의체나 주민자치회와 협력하여 참여하고 향후 운영 등을 전제로 추진
-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 등 지역주민커뮤니티, 지역건축가 등 민간, 지자체 등 공공이 통합된 민+관 합동방식으로 추진함

(4) (단기) 행복마을 가꿈사업 연계 우리마을 플랫폼 조성

- 인천시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재생사업의 보완을 통해 2023년부터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변경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지속성을 확보하고, 생활밀착형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임
  - 2023년부터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10개소, 2024년 9개소, 2025년 11개소 등 총 3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개소당 사업비 33억원 이내(인천시 30억원, 군·구 3억원), 총괄코디네이터 등 전문가를 지원함
  -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공동체활성화, 지역정체성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 우리마을 플랫폼과 추구하는 목표가 유사하여 사업내용의 추가가 가능함
- 단기적으로 2025년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 내에 우리마을 플랫폼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시행함
  - 2025년 선정된 대상지역은 정비기반시설형 8개소, 주거성능개선형 1개소, 생활복합공간형 1개소, 지역특화재생형 1개소 등 11개소임
- 특히, 2025년 선정된 대상지역 중 생활복합공간형, 지역특화재생형 등이 우리마을 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이 적합함
- 행복마을 가꿈사업 총괄코디네이터는 공간설계, 커뮤니티프로그램 개발, 주민소통 등까지 확장하여 지역 내 건축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마을 플랫폼은 생활SOC 복합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행복마을 가꿈사업 중 생활복합공간형, 지역특화재생형 등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정비기반시설형, 주거성능개선형 등은 공간마련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

[표 5-28] 우리마을 플랫폼 적용 가능 대상지역

구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2025년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중구	운서동, 개항동	송월동1가, 북성동1가 등
동구	송림3·5동	-
미추홀구	용현3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5동, 주안8동, 문학동, 용현1·4동, 도화2·3동	용현3동, 용현5동
연수구	연수1동, 청학동	선학동, 옥련1동
남동구	구월3동, 구월4동, 간석3동, 만수5동, 남촌도림동	도림동
부평구	부평5동, 부개1동, 십정1동, 십정2동	부개1동
계양구	계산1동, 계산2동, 계양2동, 계양1동	-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가정1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신현원창동	연희동, 마전동

4) 아이돌봄시설 복합화 방안

(1) 기본방향

❖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설 복합화 및 유형화

- 아이돌봄시설 복합화는 아동통합돌봄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부모커뮤니티, 지역생활서비스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내 기능배치를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아이돌봄 필수시설과 생활서비스 시설이 통합된 시설복합화, 아이돌봄 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 및 단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도심, 신도시 등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게 부지를 선정하고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원도심 지역은 부지확보의 한계로 인하여 기존 시설과 연계한 시설 복합화가 필요함
  - 학교, 빈집, 행정복지센터, 주민커뮤니티 공간 등 공공과 민간시설 중 활용가능한 공간의 확보가 최우선 고려 대상이라 할 수 있음
  - 일상생활권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마을 플랫폼 조성과 연계한 아이돌봄 시설 복합화는 동네 중심의 일상생활서비스와 통합이 가능함
- 신개발지역은 공공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아이돌봄통합단지로 복합화하는 것이 효과적임
  - 넓은 부지확보,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측면에서의 사업비 확보 등에서 용이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합하고 부모 관련 일상생활서비스 시설을 복합화하는 것이 적합함

❖ 원도심과 신개발지역 아이돌봄시설 복합화 차별적 대응

- 원도심 지역 내에서 아이돌봄시설 복합화는 기본 필수시설로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이며 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서비스 시설과 복합화가 가능함
  - 특히, 동네 거점인 우리마을 플랫폼은 아이돌봄, 청년 및 중년 문화서비스, 고령자 돌봄 및 커뮤니티 서비스 등의 통합이 가능하여 원도심 지역 내 아이돌봄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추진이 가능함
- 신개발지역은 부지확보 용이성 때문에 단지화가 가능하여 민간시설 설치를 통한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통합 돌봄시설, 아이돌봄 프로그램, 돌봄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필수시설(공공운영)과 선택시설(민간운영)로 구분하여 접근함

(2) (중기) 원도심지역 아이돌봄시설 복합화 방안

- 신생아 출생 가능 인구분포가 원도심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에, 아이돌봄시설의 접근성 불량 및 시설노후화, 단일시설 중심 분산화 등으로 육아시설 복합화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성 확보가 필요함
  - 원도심 지역은 부지확보의 한계 극복을 위해 빈집, 폐교, 공원, 행정복지센터 등 활용가능한 시설을 중심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시설과 생활서비스 시설간 복합화를 유도함
- 아이돌봄시설 복합화는 공공이 운영하는 필수 아이돌봄시설로 한정하고, 주민문화·복지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함
- 공공이 운영하는 필수시설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으로 최소화하여 공공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함
- 생활서비스 시설은 지역주민조직, 사회적 기업,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설로 도시재생사업, 행복마을 가꿈사업, 우리마을 플랫폼 등과 연계하여 확보함
  - 특히, 우리마을 플랫폼과 연계한 아이돌봄 시설 복합화는 동네 단위의 생활권계획과 주민참여프로그램, 공공의 지원을 통해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3) (중기) 신개발지역 아이돌봄 통합단지 조성

- 신개발지역은 넓은 부지의 확보가 용이하여 아이돌봄통합서비스를 위한 통합 돌봄시설, 아이돌봄 프로그램, 돌봄서비스가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제공 가능한 단지화로 조성함
- 아이돌봄 통합 단지는 공공이 운영하는 필수 아이돌봄 및 복지시설을 기본시설로 설정하고,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수익시설을 선택적으로 적용함
- 서비스는 통합 돌봄시설, 아이돌봄 프로그램, 돌봄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필수시설(공공운영)과 선택시설(민간운영)로 구분하여 접근함
  - 공공이 운영하는 필수시설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24시간 시간제 보육, 놀이터, 어린이식당 등으로 공공서비스 제공
  - 민간이 운영 가능한 선택시설은 유치원, 키즈카페, 키즈공방/요리교실, 생태체험시설, 공유식당, 작은도서관, 지역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민간이 건설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설임

- 아이돌봄통합시설 통합단지조성은 노후한 원도심 보다 신도시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며, 대상지역은 부지확보가 수월한 검단 및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검암 및 구월 공공주택지구, 송도·영종 경제자유구역 등이 적합함
- 신개발지역은 공공이 추진하는 개발사업 대상지로써 인천시, 지자체, iH, LH 등이 협력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시행주체는 iH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
- 기본시설은 군·구가 담당하여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고, 사업비는 인천시, 군·구, 공공기여 등을 통해 확보토록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선택시설은 군·구, iH가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법인, 민간단체, 민간기업 등 민간유치를 통해 시설설치와 운영을 담당하여 투입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유도함

5) 고령자시설 복합화 방안

(1) 기본방향

❖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 필수 제공

- 일반적으로 고령자복지주택은 같은 건물 내에 노인복지관이 입주하여 노인을 위한 다양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하지만, 노인 의료·돌봄통합지원 서비스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제공 및 돌봄서비스 제공이라고 할 수 있음
-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택의료센터 설치, 요양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관과 연계한 통합재가센터 설치 등 전문 서비스기구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함

❖ 지자체 통합돌봄팀 지원

-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돌봄 통합지원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통합돌봄팀의 지원을 통해 주거, 복지, 돌봄 등이 연계·통합 제공되는 것임
- 주거·보건의료·요양·일상 생활지원 서비스 연계·통합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 통합돌봄팀의 지원임
- 노인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필요하여 행정차원에서 지자체의 공식 조직이 지원해야 함

❖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위한 관련 기관 연계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케어)이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라 할 수 있음
- 노인이나 장애인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주도해야 하는 지자체는 서비스 범주의 연계와 통합제공을 위하여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요함
- 주거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사회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기관의 통합·연계가 필수적임
  - 주거서비스는 LH와 지자체 도시개발·공공주택 관련 지방공사·출자기관 등
  - 보건의료서비스는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의료기관,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등
  - 요양돌봄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의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 관련 시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 일상생활 지원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기관·민관협의체(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

❖ 중앙정부의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통합 정책 연계

- 중앙정부는 노인·장애인·아동 등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요양돌봄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함
- 중앙정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천시는 2022년에 「2022년 인천광역시 지역 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3개 자치구에서 실시함
- 2024년 3월에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3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중앙정부 사업 파악,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자체사업 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2) (중기) 원도심 지역 고령자 시설 복합화

- 노인인구 및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실버타운, 헬스케어시설, 의료시설 등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고령자의 구매력 부족, 재원부족 등의 한계로 원도심 내 고령자 시설의 설치는 부족한 상황임

- 원도심 지역 고령자 복합화를 위한 기본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 주민커뮤니티시설 등이며 지역커뮤니티의 거점시설과 연계한 복합화가 필요함
  - 선택적 시설은 다양한 연령대별로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교육시설 등 지역 커뮤니티시설과 복합된 형태로 조성하여 고령자, 유아, 청년 등을 포괄하는 복합형 공생 공간으로 유도함
- 원도심 지역은 유휴공간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기존의 지역거점, 학교 등을 활용하고, 여러 복지 대상자가 아우를 수 있도록 시설을 복합화하고 시설 내 공동공간을 확보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됨
- iH의 원도심 지역 매입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주택으로 공급하고 사회적 기업 등의 참여를 통해 건물 운영 및 관리, 노인복지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담당하여 시설공급과 운영의 이원화, 민간참여 등을 유도함
- 원도심 지역 고령자 시설 복합화 적용가능 대상지역은 노인인구비율이 높고, 노인 관련 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해당 일상생활권내 빈집, 학교 등 유휴공간, 매입임대주택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함
  - 생활인구와 주민등록인구 기준 고령자가 모두 우위인 일상생활권은 중구 동인천생활권, 운서생활권, 남동구 간석오거리생활권, 만수생활권, 서창2동생활권, 부평구 부개, 부평시장, 부평동수, 캠프마켓, 삼산생활권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지임

(3) (단기) 신개발지역 세대통합형 고령자 단지 건설

- 신개발지는 부지확보 및 재원마련이 용이하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 중심의 시설복합화보다는 모든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단지형으로 조성하는 것이 적합함
- 세대통합형 고령자 주택단지는 노인주택과 다양한 세대와 가구유형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와 세대통합형 문화체육복합시설을 기본적으로 설치함
- 공공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은 지역 여건에 따라 복합화하여 아동, 장애인, 노인이 어울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년계층의 참여 유도를 위해 문화시설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천지역 내 신개발지는 공공이 추진하고 있는 검단 및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검암역, 구월2 등 공공주택지구 등이 가능하며, 단기적으로 계양테크밸리 신도시에서 추진하는 고령자복지주택과 연계한 아동, 청년 등의 시설 복합화를 통한 단지 조성이 가능함

- 고령자복지주택은 LH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검단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에 고령자복지주택 건설과 연계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노인의 자녀가 주변 지역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신도시형 세대통합형 고령자 주거공간 모델은 iH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지자체가 참여토록 유도하여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군·구가 연계하여 지역사회 세대통합형 주거공간으로 조성함

6) 실천과제 종합

■ 인천시 상주인구 및 주민등록인구 공간분포 특성 결과를 토대로 매력적인 일상생활권 구축을 위한 실천전략과 실천방안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표 5-29〕 일상생활권 실천전략 및 실천방안 종합

실천전략	실천방안	세부 내용
주거일상생활권 일상시설 재배치	(장기) 10분 주거생활권 일상시설 재배치 방안	• (지역별 이용자 특성 고려) 어린이집 208개소 확충, 유치원 189개소 기능전환, 공공도서관 19개, 작은도서관 90개 확충, 문화시설 29개 확충, 생활문화센터 3개 확충 등
	(단기) 생활SOC 확보를 위한 사업 연계	• (중앙정부 뉴:빌리지 사업 연계)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 설치하여 아이돌봄시설, 체육시설, 작은도서관, 노인복지관 등 조성 • (인천시 행복마을 가꿈사업 연계)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및 복합화 추진
동암역 일상생활권 시범사업 추진	(중기) 재개발사업 연계 생활SOC 배분	• (재개발사업 연계 생활SOC 배분) 재개발사업 내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확보 필요,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문화시설 확보 필요
	(장기) 역세권 상업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 (동암역 주변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창업 및 업무공간을 복합화하여 청년인구 유입·정착에 기여 • (소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한 청년복합시설 확충) 청년복합시설은 주거, 업무, 상업, 문화 활동을 연계 및 집적하며, 공유오피스와 같이 복합화 추진
	(중기) 저층주거지역의 일상시설 설치 및 시설 복합화	• (저층주거지역의 일상시설 설치) 동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이외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마을 플랫폼으로 조성 • (동암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커뮤니티 공간, 노인복지시설, 아동돌봄시설을 통합, 체육시설은 선택적으로 접근하여 우리마을 플랫폼으로 형성
	(단기) 동암역세권 도심공공복합사업 연계	• (동암역세권 도심공공복합사업 연계) 도심공공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청년주택과 연계한 아이돌봄시설과 청년시설 복합화 추진
우리마을 플랫폼 조성	(단기) 우리마을 플랫폼 공모사업 추진	• (공간) 공공차원에서 빈집 및 빈상가 매입, 공원부지 활용 등을 통하여 제공 • (지역대학 연계) 공공은 주체가 되어 사업비 제공, 지역대학 및 주민은 프로그램 및 제안서 참여를 통해 추진 • (지역건축가 연계) 공공은 주체가 되어 사업비 제공, 지역건축가 및 주민은 프로그램 및 제안서 참여를 통해 추진

실천전략	실천방안	세부 내용
	(단기) 행복마을 가꿈사업 연계 우리마을 플랫폼 조성	• (행복마을 가꿈사업 연계) 단기적으로 2025년 행복가꿈사업 대상지 내에 우리마을 플랫폼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시행
아이돌봄시설 복합화	(중기) 원도심 지역 아이돌봄시설 복합화 방안	• (복합화) 공공이 운영하는 필수 아이돌봄시설과 주민문화·복지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의 생활서비스 제공시설을 통합하여 설치·운영 • (추진 방식) 도시재생사업, 행복마을 가꿈사업, 우리마을 플랫폼 등과 연계
	(중기) 신개발지역 아이돌봄 통합단지 조성	• (단지화 조성) 공공이 운영하는 필수 아이돌봄 및 복지시설을 기본시설로 한정, 민간이 운영하는 수익시설을 선택적으로 적용 • (추진 방식) 인천시, 지자체, iH, LH 협력하여 부지 확보, iH 사업시행 • (운영 방식) 사업비는 인천시, 군구,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 군구는 직영/위탁관리 운영
고령자시설 복합화	(중기) 원도심 지역 고령자시설 복합화	• (추진 방식) iH 원도심 지역 매입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주택 공급 • (운영 관리) 사회적 기업의 건물 관리, 노인복지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단기) 신개발 지역 고령자시설 복합화	• (조성) 노인주택과 다양한 세대 및 가구가 함께 이용하도록 커뮤니티 센터 및 세대통합형 문화체육복합시설 설치 • (추진 방식) iH 중심으로 신도시형 세대통합형 고령자 주거공간 모델 개발, 지자체 참여 유도

단행본/연구보고서

Adamiak, C., Pitkänen, K., & Lehtonen, O. (2017). *Seasonal residence and counter urbanization: the role of second homes in population redistribution in Finland.* GeoJournal, 82(5), 1035-1050.

Eurostat. (2019). *Towards a single population base in the EU.*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Geneva.

윤정재·김동근·안소현·김고은·박대근. (2024). 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권미경·최윤경·박진아·김지현·구자연·이혜민·윤재석·이정은. (2024). 공공택지 내 아이돌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아동동봄거점 구축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기윤환·윤혜영·민혁기·이용갑. (2024). 모두에게 공평한 주거지역 특화정비. 인천연구원.

성은영·강현미·허재석. (2021). n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전략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정민영·성은영·정인아·변은주. (2023).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응하는 동네생활권. auri brief. 건축공간연구원

정민영·성은영·정인아·변은주. (2022). 동네생활권 개념 도입 및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안소현·차미숙·유희연·강민석. (2024). 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이종현. (2025). 생활도시 인천 만들기 구상. 인천연구원.

최민아. (2023).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외 돌봄정책과 시설운영 시사점. LHRI focus. LH토지주택연구원.

최윤경·조숙인·이혜민·김정현·윤재석. (2022). 아동동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허자연·김진하·양재환·양은정·최원빈. (2023). 서울형 보행일상권 구현을 위한 일상생활권과 일상시설 탐색 연구. 서울연구원.

행정자료

국토교통부. (2024).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안)

관계부처합동. (2024).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통계청. (2020). 장래가구총계

인천광역시. (2023). 군·구별 장래인구추계

인천광역시. (2023). 행복마을 가꿈사업.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2554호.

보도자료/신문기사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2021). 생활SOC, 내실 다지고 피부에 닿는 성과 낼 때. 2021년 1월 26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23). 인구감소 도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용지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2023년 11월 28일 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2024). 490만여 명 거주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2천 5백만여 명. 2024년 7월 25일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2012). 서울시,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공시설 골고루 확충. 2012년 3월 23일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2018). 업무·교육·관광·사업… 1,151만 명 사실상 서울에서 생활. 2018년 3월 3일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23).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활력으로. 2023년 12월 18일 보도자료.

☐ 법률과 특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0866호). 2025.4.1. 〔일부개정〕

☐ 전자문서자료/홈페이지

지방시대위원회, (2022). 정책·사업. 정책. 정책용어사전. 관계인구. (https://www.nabis.go.kr/termsDetailView.do?menucd=189&gbnCode=S51&eventNo=367)(검색일: 2025년 4월 9일)

総務省. (2025). 関係人口の形成に関する取組について. 総務省. https://www.soumu.go.jp/kankeijinkou/about/index.html(검색일: 2025년 8월 1일)

LH 홈페이지. (2023.10.27.). 사는 곳의 변화, 미래의 변화를 만드는 시작 아이돌봄 클러스터. LH 매거진. https://www.lh.or.kr/gallery.es?mid=a10503000000&bid=0004&list_no=7319&act=view (검색일: 2025년 4월 7일)

06

생활도시 인천만들기의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06

생활도시 인천만들기의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조상운(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생활도시 인천만들기와 실천과제

1)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도시 인천만들기의 방향

- 인천시는 2035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저출산·고령화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구증가의 추세는 경제자유구역 등 시 외곽의 신도시 지역에 따른 것으로 중구, 동구 등 원도심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그 간 인천시 차원에서 원도심 활성화 및 정주인구 증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물리적·경제적인 지역침체라는 문제를 제어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임
  - 이는 쇠퇴지역에 있어 그 지역에서 체류하면서 생활하는 생활인구의 증대가 지역활력을 유발하는 동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처럼 인구감소시대의 도래는 원도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 전체의 활력 저하나 도시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의 정주인구를 늘리는 공간정책에서 인구의 이동성 또는 생활권을 고려한 공간정책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도시 인천만들기'의 공간전략 및 실천과제를 제안함

- 생활도시 인천만들기란 인천에 처해 있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정주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활력 저하가 도시경쟁력의 약화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생활인구'의 증대 및 도시활력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정의함
- 효과적인 정책구상을 위해서 ①진단, ②계획 및 정책, ③실천과제라는 구성체계를 구축하여 수행하였음

■ 먼저 통신데이터 기반 생활인구를 활용하여 연령·시간대·행정동 등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시간대별 생활인구는 다양한 공간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인구 기반 공간정책으로의 전환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

■ 이를 토대로 하여 생활도시 인천만들기를 위한 최소 공간단위인 일상생활권의 추출 및 생활인구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 유형을 설정함. 목표로는 '시민의 일상을 담은 생활도시 인천만들기'로 설정하고, 살고 싶은, 일하고 싶은, 머물고 싶은 생활도시 조성 전략 및 실천프로젝트를 제안함

■ 생활도시 인천만들기의 공간전략으로는 복합거점생활권과 일상생활권으로 구분하여 활성화 방향 및 실천방안을 제시함

- 복합거점생활권에서는 직장인구와 방문인구라는 유동인구의 확대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유동인구의 공간적 집적 특성을 고려한 복합거점생활권을 설정함. 목표로는 '다양한 유동인구가 모이고, 교류하고, 생활하는 복합거점생활권의 활성화'로 설정하고 부평, 인천내항, 검단지역을 검토대상지로 하여 '원도심 미래 경제를 선도하는 부평 복합거점 정비구상',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에코벨리 프로젝트', '인천내항 복합거점생활권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상', '검단구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도시공간 재편'의 실천전략 및 세부방안을 제안함
- 일상생활권에서는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가진 일상생활권의 구축을 위하여 상주인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주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상주인구 및 주민등록인구의 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거주를 위한 매력적인 일상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자립적 지역커뮤니티의 형성 및 수요 맞춤형 시설 복합화를 위한 '주거일상생활권 일상시설 재배치', '동암역 일상생활권 시범사업', '우리마을 플랫폼', '아이돌봄시설 및 고령자시설 복합화'의 실천전략 및 세부방안을 제안함

2) 실천전략별 실천방안 종합

〔표 6-1〕 실천전략 및 실천방안 종합

구분	실천전략	기간	실천방안	내용
복합거점 생활권	원도심 미래 경제를 선도하는 부평 복합거점 정비 구상	단기	부평 복합거점생활권 정비 장기구상 수립	GTX-B와 경인철도 지하화를 전제로 부평 복합거점생활권 발전 방향의 마스터플랜 제시
		장기	사람·대중교통 중심의 공간 재편	부평역 광장의 통과교통 억제, 신호체계 및 차로 재편
		중기	청년의 꿈으로 넘치는 창업벨트 육성	부평대로·부평시장 중심으로 창업공간 및 지원시설을 집적한 'i-dream Zone' 조성
	부평~구월 복합거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에코밸리 프로젝트 추진	장기	부평거점~구월거점을 잇는 광역형 도심 생태·녹지 네트워크 조성 추진	경인철도 지하화 상부 4km에 생태·녹지의 선형공원 조성
		중기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시 커뮤니티 기반 생태·녹지회랑 확보	정비·개발사업을 통한 커뮤니티 도심형 광역 녹지·생태네트워크 조성
	인천내항 복합거점생활권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상	장기	인천 내항 르네상스 3+3 네트워크 구상	내항을 3대 보행축과 3대 도시축으로 재편하여 RING형 네트워크 조성
		장기	걷고 싶은 공공공간 장소만들기 전략 구상	선도사업을 시범적으로 보행 중심의 질 높은 공공공간 형성
	검단구 복합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재편	장기	검단호수공원역세권 복합거점생활권 육성	검단호수공원역 복합환승센터와 검단구청사를 연계한 행정·교통·상업 복합거점 조성
		단기	전면공지를 활용한 테라스형 상업거리 활성화	전면공지에 테라스형 상업·카페거리를 조성하여 검단호수공원과 상업가로 연결
주거 일상 생활권	주거일상생활권 일상시설 재배치	장기	10분 주거생활권 일상시설 재배치 방안	지역별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시설 재배치 기준(확충, 기능전환, 재배치) 마련
		단기	생활SOC 확보를 위한 사업 연계	중앙정부의 뉴:빌리지 사업, 인천시 행복마을 가꿈사업과 연계한 생활SOC 확보
	동암역 일상생활권 시범사업 추진	중기	재개발사업 연계 생활SOC 배분	동암역 일대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에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시설 등 생활SOC 확충
		장기	역세권 상업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동암역 주변 상업지역의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및 이를 연계한 청년복합시설 확충
		중기	저층주거지역의 일상시설 설치 및 시설 복합화	행복마을 가꿈사업과 연계한 일상시설 설치와 동암초등학교의 일상시설 복합화 추진
		단기	동암역세권 도심공공복합사업 연계	도심공공복합사업 내 청년주택과 연계한 아이돌봄·청년시설 복합화 조성
	우리마을 플랫폼 조성	단기	우리마을 플랫폼 공모사업 추진	지역대학 및 지역건축가와 연계한 동네단위 플랫폼 공모사업 추진
		단기	행복마을 가꿈사업 연계 우리마을 플랫폼 조성	올해 선정된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에 우리마을플랫폼 조성사업 시행
	아이돌봄시설 복합화	중기	원도심 지역 아이돌봄시설 복합화 방안	원도심 지역의 빈집, 폐교, 공원,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 아이돌봄시설 복합화 추진
		중기	신개발지역 아이돌봄 통합단지 조성	공공의 아이돌봄·복지시설과 민간의 수익시설을 통합하여 단지화로 조성
	고령자시설 복합화	중기	원도심 지역 고령자시설 복합화	원도심 지역거점, 학교를 활용하여 노인시설과 지역커뮤니티 거점시설을 연계하여 복합화 추진
		단기	신개발 지역 고령자시설 복합화	다양한 계층이 이용가능한 세대통합형 고령자 주택단지 조성

2.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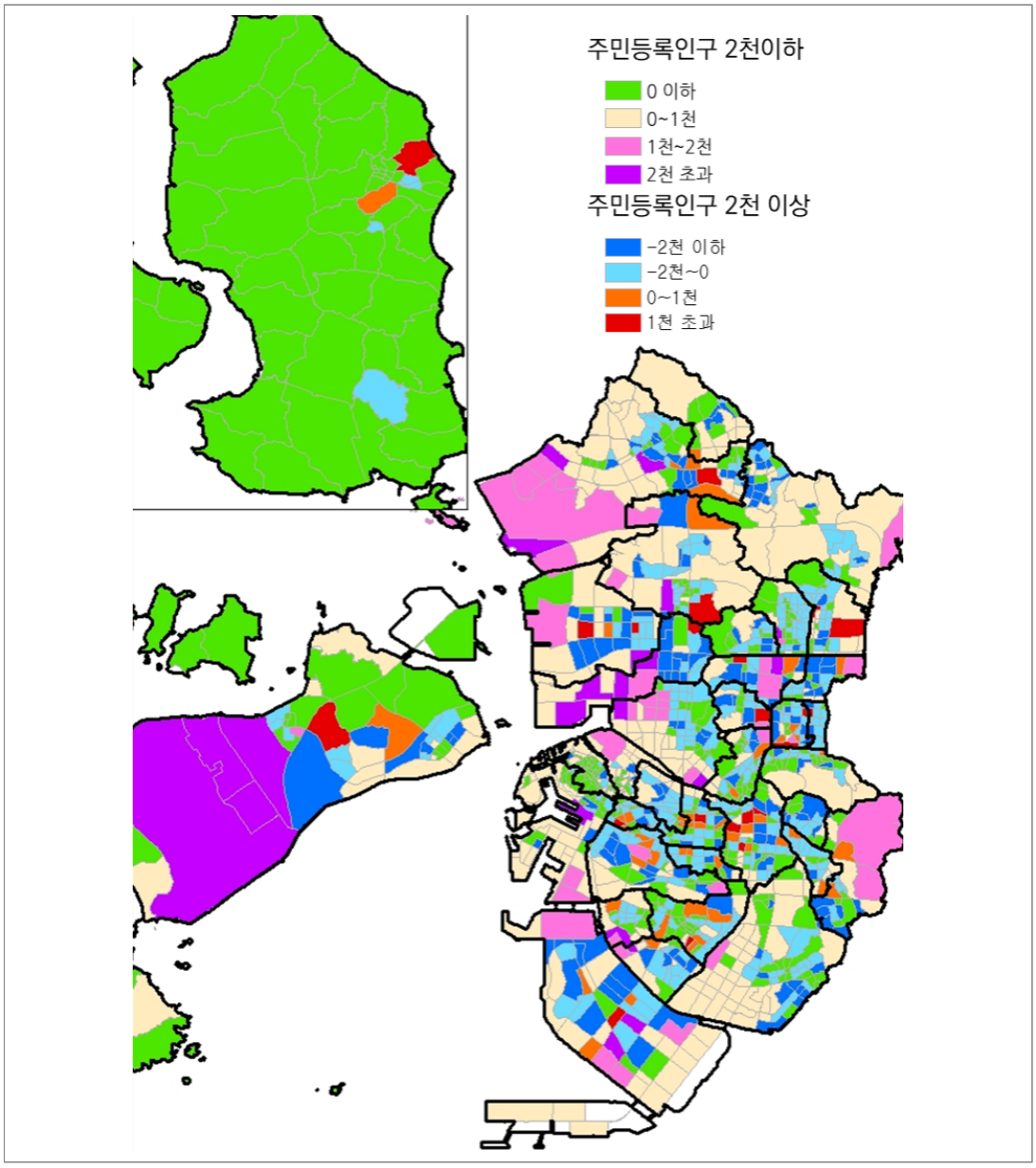
1) 도시관리정책에서의 생활인구 데이터의 활용성

- 법적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지역에 한 달에 3시간 이상 체류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그러나, 법적 생활인구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제공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SKT 통신데이터의 서비스인구를 활용하여 상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의 생활인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분포하는지를 살펴봄
- 본 연구에서의 생활인구는 특정 시간대에 실제 존재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주민등록인구보다 작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일정 지역이나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시간대별 활동 특성을 파악하는 등 정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효과적인 도시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도시관리정책에서의 생활인구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활용성은 크다고 판단됨

❖ 동태적 데이터로 정적 데이터의 보완을 통한 보다 효과적 도시정책 마련

- 주민등록인구와는 달리 생활인구는 계절과 월별, 주중/주말, 야간/주간에 따라 변화함. 인천시 내 같은 공간에 비슷한 규모의 인구라 하더라도 상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의 비율은 시간대별로, 월별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임
  - 기존의 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수립되거나 추진되었음. 일부 주간인구·야간인구 개념 등을 도입하였으나 생활인구가 가지는 동태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 정적 데이터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각 행정동의 시간대별 생활인구 변화를 활용하면 첨두시간대 인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임. 이를 통해 주간에 직장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은 이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저녁 시간대에 방문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그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또한 특정 시간대에 첨두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대에 맞춘 교통프로그램이나 시설을 공급할 수 있음

〔그림 6-1〕 생활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차이(생활인구 수-주민등록인구 수)



■ 또한, 생활인구는 지역별 주민등록인구에서 파악할 수 없는 동적인 행태 특성의 파악이 가능하여 기존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음

- 위 그림과 같이 하루 총 생활인구의 평균값에서 주민등록인구를 뺀 값으로 생활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차이를 살펴보면, 주민등록인구가 2천 이하인 지역에서 진한 보라색으로 나타날수록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주민등록인구는 적지만 실제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임. 산업단지나 항만지역 등이 이에 해당함

- 주민등록인구가 2천 이상인 지역에서 진한 파란색으로 나타날수록 인구는 많은 편이나 주간에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주거 지역임. 진한 빨강색으로 나타날수록 주간인구가 많은 곳으로 거주인구도 많지만 직장인구와 방문인구도 많아 주요 중심지를 형성하는 곳임

■ 또한, 향후에는 생활인구 데이터와 신용카드 데이터, 대중교통 이용정보, 철도역사 승하차 데이터 등 복합지표를 교차 검증함으로써, 도시 전반의 실질적 활동 밀도와 수요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하고 근거 기반의 도시정책 수립 및 실행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성·연령 및 외국인인구의 행동패턴을 고려한 정책 마련

■ 생활인구는 연령대별로 이동성과 시간·공간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로는 확인하기 곤란한 실질적인 활동 범위를 파악하여 성별·연령별 주요 거주지와 직장 또는 방문 장소를 파악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짐

■ 먼저, 20대 청년층은 신도시나 상업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70대 이상의 노인은 원도심과 주거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현상에 대하여 생활인구 데이터는 보다 정밀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임

- 20대 남성 인구는 용현1·4동 등 대학 캠퍼스 주변의 상주인구가 높지만, 20대 여성 인구는 캠퍼스 주변에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상주인구가 낮게 나타나고 신도시 상업지역 주변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어린이와 노인의 이동성은 청·중년에 비해 크게 적은 것이 확인된 분석결과를 활용하면 다양한 정책의 발굴 및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임

- 이동성이 적은 어린이와 노인이 집중된 지역의 경우에는 거주지 주변에 필요한 관련 시설을 배치하고, 청·중년층의 경우 사람들의 활동이 집중되는 거점에 시설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또한,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고령층이 다수 체류하거나 활동하는 지역은 완만한 경사, 강화된 의료 접근성, 노인 특화 공원, 노인친화교통시스템 등 고령 친화 공간에 대한 정책 추진이, 청년층 밀집지역은 청년 문화·여가·창업시설을 조성하거나 대중교통 연계를 강화하는 등 도시계획적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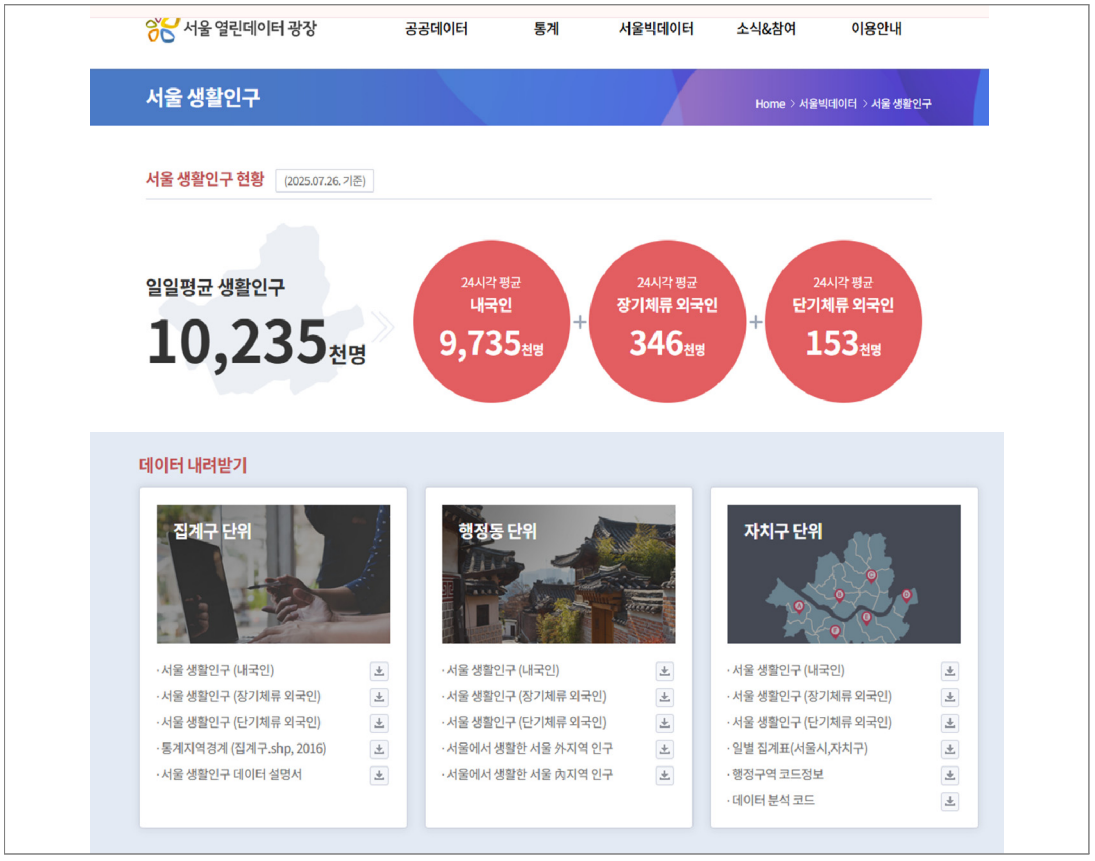
■ 인천 지역 내에는 외국인 인구 거주 또는 활동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이 존재하며, 국적에 따라 분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연수구의 함박마을 등 고려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과 같이 특정 국적의 외국인이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면 다양한 외국인 대상 정책 수립이 가능함
- 분석 결과와 같이 섬 지역에 외국인 인구가 거주하거나 집중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새로운 외국인 지원 정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인천시 차원의 생활인구 데이터의 상시적 공개 플랫폼 구축

- 서울시의 경우, 생활인구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일주일 단위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로 확대되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본 연구에서 활용한 생활인구 데이터는 인천시 생활권계획 정책과제를 위해 가공된 자료를 사용한 관계로 지속적인 변화 추적과 시계열적 변화 분석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가짐
- 이에 인천시 차원에서 생활인구를 상시적으로 측정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데이터 구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림 6-2〕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의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 서비스



❖ 타 범주의 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한 활용 방안 모색 필요

- 생활인구 데이터는 데이터 단독으로 정보를 얻는 것보다 주민등록인구, 토지이용현황, 카드이용 데이터 등 타 범주의 데이터와 연계하면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 특정 공간에 대한 정보로 축제와 이벤트의 효과성을 검증하거나 특정시간대에 몰리는 인파를 관리하는 등 새로운 영역과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임
- 따라서 생활인구 데이터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새롭게 구축된 자료라는 점에서 새로운 지표를 활용한 사람들의 행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용가능성을 넓히며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 발굴에 유효한 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임

〔그림 6-3〕 행사 개최 시 인구 밀집 현상



개항장 문화재 야행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2) 생활인구를 반영한 생활권계획 등 도시계획 및 관리 방안

- 생활인구는 그 도시의 활력을 반영하는 데이터로 시간적·공간적으로 세분하여 인구를 다룰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한 생활권 구분 및 거점 설정 등 도시계획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임

❖ 생활인구의 유출입 흐름을 통한 생활권 구분과 거점 도출

- 상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의 수와 비율을 활용하여 주거 우세지역, 업무·산업 중심지역, 상업 우세지역, 여가 우세지역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필요시설을 공급하고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거나 생활인구의 유출입 흐름의 원인을 파악하여 직주근접성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도시기본계획 등 법정 계획에서 상주인구 및 사업체수 등 정적 데이터 중심의 생활권 설정을 기초로 하되, 생활인구의 유출입 흐름을 반영한 생활권을 설정하거나 중심지 위계를 조정하는데 활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행태분석을 통한 생활SOC 수요 도출

- 생활인구를 활용하여 연령별 행태를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생활SOC 수요와 공급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음
- 시간대에 따라 생활인구의 수와 주체가 바뀌므로 시간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 활용 방안의 모색이 가능함
  - 낮에는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등 업무용도로 활용하고 저녁에는 지역커뮤니티 센터로 활용하는 등 유연한 공공공간의 활용성을 증대

❖ 주요 거점생활권의 도출과 활성화 방안 수립에 활용

- 생활인구의 밀집 지역이나 유입된 인구의 출발지를 분석하여 주요 거점을 도출하거나 그 해당 거점의 영향권을 분석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특정 거점의 주요 생활인구의 구성, 영향권을 통하여 거점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고 향후 활성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송도3동은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점이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어 이에 걸맞는 특화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달리 수도권 전체의 업무적 영향은 크나 방문중심지로 인천에 한정된 위상을 가진 구월3동의 경우, 행정과 업무의 상징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을 위한 상권강화 프로그램을 보다 특화하는 등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임

❖ 생활인구 기반 생활권계획은 물리적 계획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아우르는 통합계획

- 생활권계획은 생활권 단위에서 교통, 주거, 산업, 복지, 환경 등 부문별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생활권계획은 교통·산업·환경·복지까지 아우르는 다차원적 전략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단일 기능 중심의 생활권을 넘어 복합적이고 차별화된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함
  - 이를 위해 생활권 단위 협의체를 마련하고, 주민·전문가·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생활권은 단순히 현재의 주거와 소비활동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발달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GTX 개통, 철도지하화,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등 교통인프라 변화에 따라 생활권의 범위와 구조는 바뀔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고령층 맞춤형 공간, 신산업 육성 및 창업지원 거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권 단위 에너지·환경 인프라 등 새로운 기능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임

3) 복합거점생활권의 활성화를 위한 생활인구(직장/방문인구)의 증대와의 연계

❖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 공간구조계획의 실천적 방안으로 활용

▪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에서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공간구조를 4도심 4부도심 9지역중심의 중심지체계를 설정함

- 복합거점생활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월, 송도, 부평, 동인천(제물포)의 4도심은 중·동구 통합 행정구역 개편 및 GTX 기반 광역교통 구축 등 여건변화를 고려, 다핵 분산형 중심지체계를 지향하고 있음

- 2040 도시기본계획은 공간구조 및 중심지체계에 따른 도심 및 부도심 등 중심지의 지향하는 방향을 하위계획에서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가지나,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실현하는 실천체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생활인구에 기반한 복합거점생활권의 설정과 육성 방안은 인천도시기본계획의 도심 및 부도심 육성을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공간혁신구역 및 도심복합사업을 활용한 복합거점생활권의 조성 촉진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복합거점생활권 활성화 방안은 유동인구, 즉 직장인구 및 방문인구의 증대를 통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제안된 것으로, 단일 기능 중심의 개발보다는 업무, 상업, 관광, 주거 등 복합적이고 혼재된 기능의 집적을 유도하고자 함

- 이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한 곳에서 일하고, 거주하고, 방문하고, 즐길 수 있는 지역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볼 때, 복합적 도시기능의 집적은 보다 효과적인 도심 육성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임

▪ 복합거점생활권의 조성은 신설된 공간혁신제도 및 도심복합사업 등 쇠퇴 역세권 및 도심을 대상으로 한 신규 제도를 활용한 사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아짐

- 2024년 2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신설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공간혁신구역 제도가 갖추어져 민간의 사업제안 및 규제완화가 가능해짐[19)]
- 도심복합개발법(2024년 2월 제정)의 경우, 역세권 등 성장거점형의 도심복합사업을 활용하여 신탁사 및 리츠 등 부동산투자회사가 참여하는 사업추진이 가능함

❖ 민간의 자발적·점진적 개발 유도를 위한 공공의 지원책 및 선투자

■ 복합거점생활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요구됨

- 유동인구 유입을 위한 신규 거점 공급,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 활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등은 민간참여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요 기업들의 니즈를 고려하고, 기업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임
- 따라서 복합거점생활권의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등 공공의 지원방안이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공간혁신제도 등을 통해 적용가능함

■ 복합거점생활권의 활성화에 있어 원도심의 경우 전면적인 면적 단위의 대규모 개발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점진적 개발을 함께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복합생활거점 내 주요 가로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일체감 있는 개발을 유도하여 보도 확충 등 가로변 보행환경의 개선이나 지역 내 공원·광장 등 공공공간의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공공재원을 선 투입하는 등 공공의 선행적 조치가 요구됨

4) 공동체 기반 정책 및 지속적 거주의 유도를 통한 일상생활권의 활성화

❖ 지속거주 유도를 위한 인천시 생활권계획의 수립

■ 주거중심 일상생활권 구현은 공공의 일상시설서비스 수준을 10분 내에 만족하는 일상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으로, 내 집을 중심으로 생활에 필요한 일상시설의 재배치를 제안하여 지역생활에 필요한 니즈나 개선점 도출, 생활권역별 접근성의 개선 등이 요구됨

■ 실제 지역에서의 생활권의 구성은 행정구역 위계가 아닌 접근성·연결성, 기반 시설의 밀도, 주거지역의 위치 등에 따라 주민의 생활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천시 생활권계획은 일상생활권을 중심으로 계획적·체계적 접근이 필요함

- 특히, 소규모 형태로 밀집된 주거생활권은 이미 접근성 높은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므로 물리적 시설과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개선 과제를 확인해야 함

---

19) 공간혁신제도는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거쳐 구역을 직접 지정이 가능함

❖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간 통합 연계

-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간 연계가 필요함
  -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청년주택은 아이돌봄시설 복합화 및 통합단지와 연계 시행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결혼과 출산, 아이돌봄이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함
  - 고령자 시설복합화와 노인의료·돌봄통합단지는 고령자복지주택과 연계하여 주거+의료+돌봄+복지+생활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 이처럼 사업간 통합적 접근은 지역사회 내의 계층간 갈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가 함께 살수있는 지역공동체로 구현될 것임

❖ 우리마을 플랫폼 조성을 위한 대학, 건축사협회 등 민간 영역과의 긴밀한 연계

- 우리마을 플랫폼은 동네생활권의 구심점으로 지역 내 대학과 건축가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계획, 설계, 시공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는 것임
-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공동체의 연계와 함께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을 통한 특산물 생산·가공 관련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자립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등의 민간자원 연계가 필요함

❖ 일상생활권 구축을 위한 사업 근거 마련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저출생 대응과 자녀를 가진 가구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해 조성하는 아이돌봄복합시설과 통합단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천시 차원의 시설기준, 입주 및 지원기준 등을 마련해야 함
  - 사업시행주체로 iH(인천도시공사)를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유도하고, 돌봄시설과 연계한 사회복지적 접근을 위해 인천시 관련 부서, 군·구 등과의 협업체계의 구축을 도모함
- 2026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복지주택 및 세대통합형 지역사회 공동체와 같은 노인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현실화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와 iH(인천도시공사)의 역할을 명시하는 조례와 노인 의료·돌봄통합지원에 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인천형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청년주택 공급·건설, 관리·운영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근거 조례 또한 제정할 필요가 있음

2025 역점연구

인구감소시대 도시활력, 생활도시 인천구상

발 행 인 최계운
발 행 일 2025년 12월 31일
발 행 처 인천연구원
인 쇄 처 032디자인㈜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I S B N 979-11-6870-333-9 93350

ⓒ 인천연구원 202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